

# 2012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송영훈·이수정·장용석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2

## 2012 통일 의식 조사

인 쇄 2012. 12. 31

발 행 2012. 12.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강원택·김병로·송영훈·이수정·장용석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  
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2 통일 의식 조사 / 저자: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장용석,  
송영훈, 이수정.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12)

ISBN 978-89-968013-3-7 93300 : ₩1000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5

320.9519-DDC21

CIP201300051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2

# 2012 통일외식조사



# 목차

서장	1. 2012년과 남북관계	5
	2. 2012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7
	3. 조사목적	9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2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9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20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25
	3. 통일에 대한 기대	28
	4. 통일과 민주주의	35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39
	6. 소결	42
	II. 북한에 대한 인식	44
	1. 북한의 존재 인식	45
	2.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	50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53
	4. 북한위기의식	58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62
	6. 소결	66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9
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70
2.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77
3.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 신뢰도	82
4. 소결	85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88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91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99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1
5. 소결	108
V.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12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3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3. 주변국 국가이미지	131
4. 중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	135
5. 소결	142

제2부 심층분석	I.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	147
	1. 서론	147
	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49
	3.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160
	4. 민족주의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6
	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및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8
	6.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178
	7. 결론	180
	II. 남남갈등의 변화와 지속	182
	1. 서론	182
	2.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184
	3. 통일 인식	192
	4.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201
	5. 결론	204

	III.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6
	1. 서론	206
	2.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8
	3.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8
	4. 북한 주민인권 개선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232
	5. 결론	241
<b>결장</b>	1. 통일인식: 목적으로서의 통일과 수단으로서의 통일의 공존	248
	2. 북한인식: 적대의식과 공존의식의 긴장	250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적 시선과 민족적 관점	253
	4. 대북정책: 유연한 현실주의	256
	5. 주변국 인식: 실용적인 국제주의	258
	6. 남남갈등과 사회통합: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260
<b>부록</b>	1. 응답자	265
	2. 결과집계표	268
	3. 설문지	367

# 표목차

[표 1-Ⅱ-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57
[표 1-Ⅲ-1]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2
[표 1-Ⅲ-2]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3
[표 1-Ⅲ-3]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4
[표 1-Ⅲ-4]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5
[표 1-Ⅲ-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76
[표 1-Ⅲ-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지역별)	77
[표 1-Ⅲ-7]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	82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4
[표 1-V-2]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성별분석	115
[표 1-V-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표 1-V-4]	주변국가의 위협도: 성별 분석	124
[표 1-V-5]	연령별 대미 위협도	125
[표 1-V-6]	연령별 대중위협도	127
[표 1-V-7]	연령별 대북위협도	129
[표 1-V-8]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위협도	136
[표 1-V-9]	북중 협력 강화에 인식	139
[표 1-V-10]	북중 협력 강화와 대중국위협도	140
[표 2-I-1]	다문화 지향성	150

[표 2- I -2] 다문화에 대한 우려	152
[표 2- I -3] 다문화 지향성과 다문화 우려의 교차분석	154
[표 2- I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56
[표 2- I -5] 북한이탈주민 한국 수용에 관한 의견	157
[표 2- I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관한 의견	158
[표 2- I -7]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0
[표 2- I -8]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수용의 교차분석	161
[표 2- I -9] 다문화지향성과 새터민 지원강화의 교차분석	162
[표 2- I -10]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3
[표 2- I -11]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164
[표 2- I -1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지원강화 교차분석	165
[표 2- I -13] 통일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67
[표 2- I -14]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관계 교차분석	169
[표 2- I -15]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0
[표 2- I -16]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71
[표 2- I -17]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2
[표 2- I -18]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3
[표 2- I -19]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4
[표 2- I -20]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175
[표 2- I -21]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6
[표 2- I -22]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176

[표 2-I-23]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7
[표 2-I-24]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178
[표 2-II-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186
[표 2-II-2] 세대, 이념 집단별 통일의 필요성 (2012)	195
[표 2-II-3] 통일이 필요한 이유: 연령 집단별 구분	196
[표 2-II-4]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념 집단 간 구분	198
[표 2-II-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202
[표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 정도	211
[표 2-III-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만족 정도	211
[표 2-III-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정도	214
[표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	215
[표 2-III-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	216
[표 2-III-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정도	218
[표 2-III-7] 연령대 및 지역별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20
[표 2-III-8]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23
[표 2-III-9]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	224
[표 2-III-10]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229
[표 2-III-1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39
[표 2-III-1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	240

#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여부	21
[그림 1-I-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3
[그림 1-I-3]	통일이 가능한 시기	27
[그림 1-I-4]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 개인과 남한 사회	29
[그림 1-I-5]	이념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32
[그림 1-I-6]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36
[그림 1-I-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38
[그림 1-I-8]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40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45
[그림 1-II-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47
[그림 1-II-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48
[그림 1-II-4]	대북 비판의식	51
[그림 1-II-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53
[그림 1-II-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55
[그림 1-II-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56
[그림 1-II-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59
[그림 1-II-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0
[그림 1-II-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1
[그림 1-II-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2
[그림 1-II-12]	북한사회 인지도	63
[그림 1-III-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71
[그림 1-III-2]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78
[그림 1-III-3]	연령대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79
[그림 1-III-4]	지역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80

# 2012 통일인식조사

[그림 1-Ⅲ-5]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지정당별 인식	81
[그림 1-Ⅲ-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81
[그림 1-Ⅲ-7]	천안합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결과 신뢰도	83
[그림 1-Ⅳ-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그림 1-Ⅳ-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이웃	93
[그림 1-Ⅳ-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94
[그림 1-Ⅳ-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96
[그림 1-Ⅳ-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	98
[그림 1-Ⅳ-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99
[그림 1-Ⅳ-7]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0
[그림 1-Ⅳ-8]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102
[그림 1-Ⅳ-9]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104
[그림 1-Ⅳ-10]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06
[그림 1-Ⅳ-11]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에 대한 견해	107
[그림 1-V-1]	연령별 대미친밀도	116
[그림 1-V-2]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17
[그림 1-V-3]	연령별 대중친밀도	119
[그림 1-V-4]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120
[그림 1-V-5]	연령별 대북친밀도	121
[그림 1-V-6]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22
[그림 1-V-7]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26
[그림 1-V-8]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28

[그림 1-V-9]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	130
[그림 1-V-10]	주변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131
[그림 1-V-11]	주변국가 이미지: 경계대상	133
[그림 1-V-12]	주변국가 이미지: 적대대상	134
[그림 1-V-13]	주변국가 이미지 경쟁대상	135
[그림 1-V-14]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신뢰도와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7
[그림 1-V-15]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불신과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8
[그림 1-V-16]	북중협력 우려와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1-V-17]	북중협력 바람직함과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2-II-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미국, 북한	184
[그림 2-II-2]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188
[그림 2-II-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	190
[그림 2-II-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이념집단별 응답	191
[그림 2-II-5]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193
[그림 2-II-6]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균열: 이차원 모델	199
[그림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209
[그림 2-III-2]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정도	210
[그림 2-III-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	212
[그림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213

[그림 2-III-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와 북중협력 강화	217
[그림 2-III-6]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9
[그림 2-III-7]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1	222
[그림 2-III-8]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2	223
[그림 2-III-9]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	226
[그림 2-III-10]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III-11]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III-12]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8
[그림 2-III-13]	지지정당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230
[그림 2-III-14]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	230
[그림 2-III-15]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	231
[그림 2-III-16]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232
[그림 2-III-17]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율	233
[그림 2-III-18]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현안별 찬성 입장	234
[그림 2-III-19]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235

[그림 2-Ⅲ-20]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236
[그림 2-Ⅲ-21]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평화공존	237
[그림 2-Ⅲ-2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교류협력	238
[그림 2-Ⅲ-2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239
[그림 2-Ⅲ-24]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241



2012 통일외식조사

# 서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 장

2013년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한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끝남으로써 러시아·중국·미국·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의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들이 일단락되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 모두 2013년은 안팎의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제들을 다듬느라 분주할 수밖에 없다. 각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와 중요한 쟁점들이 다르고 이해의 상충으로 서로 경쟁과 갈등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서 북한문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수년간 매우 나빠진 남북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바람과 기대들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기술개발로 말미암은 정치·군사적 분쟁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어서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관련 사안이 동북아와 세계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 사후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할 의미 있는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2013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매년 북한,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13년도의 변화는 주어진 조건,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



부의 정책적 선택,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대북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는 한국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 환경적 요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원리와 독특한 정책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한국정부나 한반도 주민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환이나 개선 여부가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대응과 요구, 설득과 제안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한반도의 미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줄 집합적 방향과 판단, 정책구상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것은 단지 당위적인 주장이나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자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지향, 정책적 공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일반이 지니는 의식의 방향이나 판단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된 것이어서 후반기의 변화를, 예컨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나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 및 남북관계,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태도나 인식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향후 미칠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매년 어

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포착해 오고 있다. 이런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1. 2012년과 남북관계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김일성 주석의 뒤를 이어 2대세습자로서 북한을 통치해온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사였고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순조로울 것인지도 흥밋거리였다. 어릴 적 해외유학을 경험한 20대 말의 젊은 지도자가 북한의 현 체제논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과연 3대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권력교체가 별문제 없이 정착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도 컸다.

북한의 2012년은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아가는 한 해였다. 연초에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4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고 4월 15일에는 강한 어조로 대중연설을 통해 자신을 알렸다. 곧이어 4월 22일에는 4차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의 당, 정,



군을 통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김정은의 권력이양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소위 ‘2.29합의’에 도달했지만 4월 13일 광명성 3호 1기를 발사함으로써 합의이행을 무산시켰고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라는 틀로 되돌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4월 13일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요구에 정면으로 맞섰다. 2012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12월 12일에는 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긴장을 조성하였다. 대남정책 역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2012년은 큰 전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여파로 5.24조치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남북경협과 각종 교류왕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유연한 정책전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 일부의 바람도 여전한 선군주의 주장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헌법개정의 소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경협당사자들을 비롯해서 5.24조치의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의 사과 없이 정책전환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국내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국내 정치세력간 이견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2012년에 탈북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제2하나원을 개소하기도 했지만 정작 탈북자의 숫자는 급감하였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이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심화시킨 탓이지만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일정 부분 피드백된 점도 있을 것이다. 2012년에는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여러모로 탈북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2012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이 조사는 2012년 7월에 행해졌다. 이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몇 가지 점을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새해 초부터 진행된 북한의 김정은 체제구축과정이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김정은은 예상보다 빠르게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간 것으로 보이지만 7월의 시점은 여전히 3대세습자로서의 김정은의 지배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하여 전달된 북한 내부의 움직임과 대외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연이어 확보하고 태양절의 대중연설을 통해 김일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광명성 3호발사 의지표명과 발사,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012년 3월 11일 4차 노동당 당대표자회, 2012년 3월 13일 제125기 15차 최고인민회의를 끝내고 태양절 전날인 2012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을 선포했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년 4월 13일 발사를 감행했다. 2분 15초 만에 추락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인 과시욕망은 한풀 꺾였지만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개발의혹은 증폭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개정헌법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월 중순부터 발생한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을 둘러싼 북한인권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4월 11일 총선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꾼 여당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인 152석을 얻었다. 이 총선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경협, NLL문제, 북한인권 등이 다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7월의 조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이 2012년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3대세습과 장거리 로켓발사, 핵개발의지, 대남비방 등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모두 김정은 효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고려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로 지난 5년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5.24조치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에도 남북관계를 규율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식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의식의 양면성, 이중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것이다. 특히 과거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단선적이지 않은 다층적 의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발견되던 현실주의적이면서 양면적인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일정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전쟁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응 속에는 늘 모순적인 지향이 혼재하며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강경책에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미묘한 반응들이 존재한다. 군사적 응징조치 제대로 하지 못한 군과 정부에 비난을 쏟아 부는 한편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연에 조치하는 정치적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려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의식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쉽지 않지만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조사목적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남북관계는 2012년에 들어서도 전면적인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도 이래의 긴장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반응, 평가를 읽어낼 수 있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정부교체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었지만,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국민들의 정책적 지향을 보여 줄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국민들의 대북정책의 평가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적 흐름을 포착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정책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의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못하지만 지난 6년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비교됨으로써 일종의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조사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종합적 비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듯 무력충돌의 위험과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반응과 개입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 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



체제 등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시계열별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8월 기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해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도 기본적으로 이전 조사의 문항들을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이전 통일의식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의 경우엔 설문 문항의 내용이나 답지 구성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이다.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부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개별 대북정책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또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도 조사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여론 반영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 대북 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빼라 살포문제,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교류협력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설문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이 밖에도 설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



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 무엇이며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상이 이 설문조사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부분이다. 기초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일의 식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이 질문들에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천안함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차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교차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인 기초 분석에서는 위의 기본 다섯 설문 부문에 대한 기초적 기술 통계를 소개하는 한편 지난 6년간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고, 제2부인 심층 분석에서는 이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종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적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를 수록하여 다른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2012년의 설문조사 결

과에 대한 분석과 요약뿐 아니라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이래 6년간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012년 통일의식조사는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26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12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뽑힌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frequency)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2012 통일외식조사

## 제1부 기초분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I. 통일에 대한 인식

오랫동안 통일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당위적 차원에서의 민족적 목표였다. 그리고 그것은 분단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단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파에 따라 집권 후 대북 정책의 기조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적대행위와 한반도 주변 상황 역시 남한 사회 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2012년 통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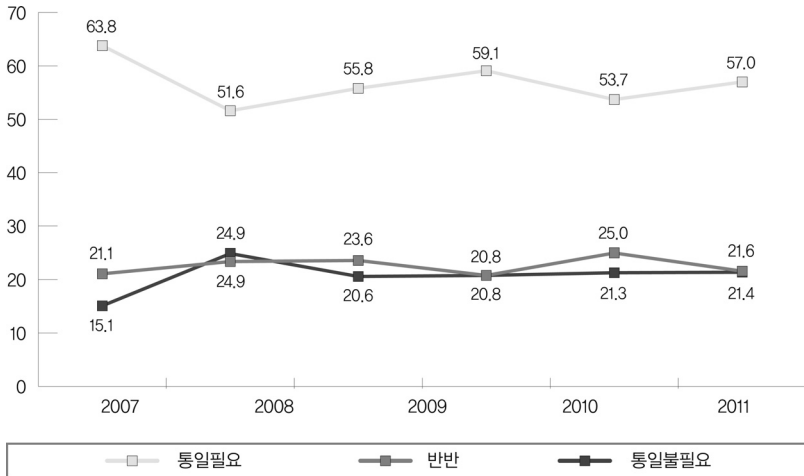
대해 분석할 것이다.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시간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추이와 특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필요성

2012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26.8%, ‘약간 필요하다’ 30.3%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7.0%였다. 이에 비해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1.6%, ‘별로 또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1.4%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는 하지만, 통일을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특성은 이전과 유사하다. [그림 1- I -1]에서 보듯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7년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이듬해인 2008년 51.6%로 12.2%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그 비율이 다시 53.7%로 낮아졌으나 금년 조사에서 다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인식은 2009년 이후 거의 변화 없이 20% 수준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과의 차이는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한 이들 중 일부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2009년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011년과 비교해서 금년 조사에서 다소나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아진 것은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 영향을 미쳤던 ‘군사적 충돌’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여부

조사결과를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이번 조사에서도 비교적 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금년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62.3%인데 비해, 여성은 51.5%로 성별에 따른 응답률 격차는 10.8%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작년의 성별 간 응답률 격차 14.3%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 집단별로 보면, 19-29세는 46.7%, 30대는 51.4%로 나타났다. 40대는 63.2%, 50대 이상은 63.5%로 나타나서, 30대 이하 집단과 40대 이상 집단 간의 시각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29세 집단에서 가장 높았는데 28.6%였다. 이는 2011년의 32.6%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통일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사회에서 규범적 속성



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19-29세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채 못 미치는 46.7%라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호남권(66.1%), 강원(69.4%), 제주(69.2%)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은 52.9%로, 작년에 이어 통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의 응답은 지난 5년간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호남권 지역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2011년 58.6%에서 2012년 66.1%로 다시 높아졌다. 한편 충청권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11년에 60.3%였으나, 2012년에는 57.8%로 다소 하락했다. 영남권은 여전히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46.9%를 기록했던 2011년에 비해 금년에는 약 6% 증가한 52.9%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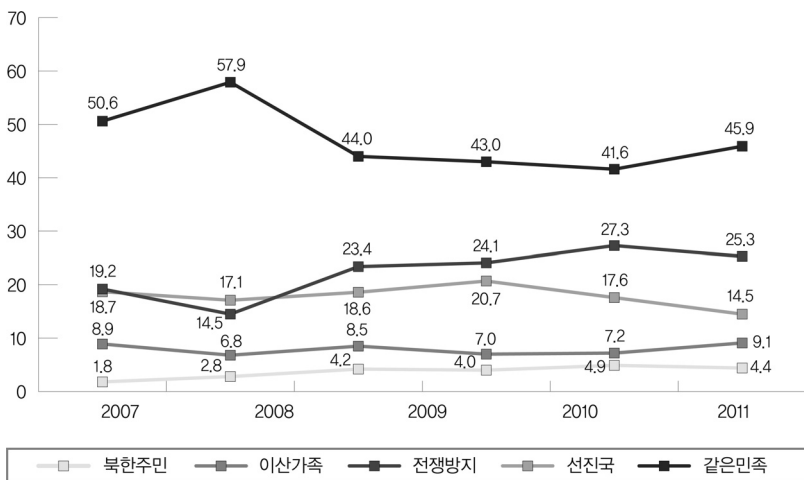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패턴은 201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진보, 중도적 성향 응답자 집단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이 크게 하락했는데, 금년 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응답자 집단에서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65.2%의 비율로 통일의 필요성을 지지하여, 52.3%를 기록한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집단과 약 13%의 차이를 나타냈다.

##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다. 6년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6% → 2008년 57.9% → 2009년 44.0% → 2010년 43.0% → 2011년 41.6% → 2012년 45.9%로 변화했다. 2008년 이후 계속 해서 낮아지지만 하던 이에 대한 응답은 금년 조사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면서 다시 민족 동질성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 또한 2008년 14.5% → 2009년 23.4% → 2010년 24.1% → 2011년 27.3%로 계속 증가해 왔는데 2012년에는 25.3%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지난 2년에 비해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권력 승계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하락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4.5%, '이산가족 고통 해소'는 9.1%,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은 4.4%로 나타났다.



[그림 1-I-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의 변화였는데, 2008년 17.1% → 2009년 18.6% → 2010년 20.7%로 상승세 이던 응답률이 2011년 17.6%로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도 약 3.1% 감소한 14.5%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다른 응답의 상대적 증감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보다 결정적으로는 ‘통일 한국’과 ‘선진국’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감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 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최근 들어 통일로 인한 기대감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된 것 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은 역시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 응답은 57.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43.3%, 30대는 41.8%로 중간이었고, 19세-29세는 37.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9세-29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들 두 응답은 통일을 도구적, 수단적(instrumental)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가 통일을 당위, 규범, 민족 동질성의 차원보다 실용적, 도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전쟁위험 해소’에서 30대의 25.5%, 40대의 25.1%, 50대 이상의 21.6%의 응답률에 비해 19세-29세는 30.2%로 가장 높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에서도 18.4%로 다른 연령층(30대 16.0%, 40대 16.6%, 50대 이상 8.7%)에 비해 높았다. 이는 2007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는 결과로 다른 연령대와 구분되는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의 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응답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을 많이 선택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쟁방지’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64.2%가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했지만, 고졸 응답자는 47.7%,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는 40.7%만이 선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점차 남한 사회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 1) 통일의 추진 속도

통일의 시기와 관련해서 볼 때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로 올해 2012년까지의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진적 통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점진적인 입장을 갖는 응답자의 비율은 70.6%(2007) → 64.8%(2008) → 68.3%(2009) → 67.0%(2010) → 66.9%(2011) → 65.1%(2012)로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자의 응답은 대체로 1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6%(2007) → 9.6%(2008) → 8.6%(2009) → 10.0%(2010) → 9.6%(2011)였으며 2012년에도 9.6%로 큰 변화가 없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추세 역시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7년 7.0% → 2008년 8.5% → 2009년 7.5% → 2010년 6.9% → 2011년 8.2%였으며 2012년에는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패턴의 안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속도나 시기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뤄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대다수 국민은 통일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적 태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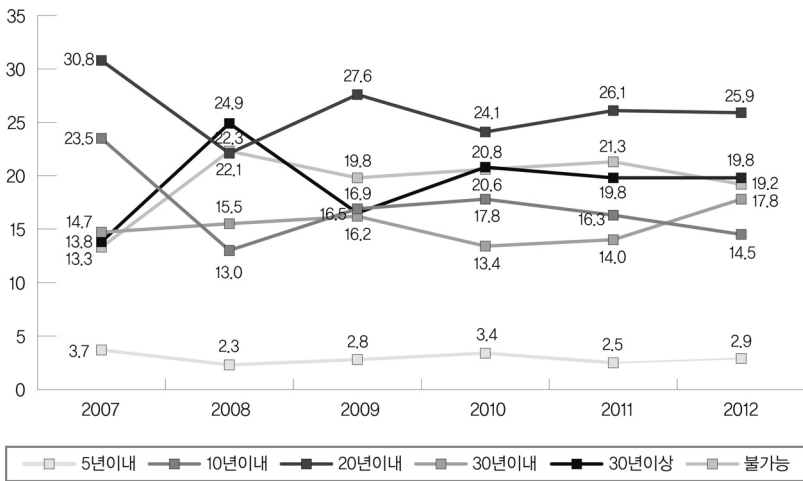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에 대해 19세-29세의 63.5%, 30대의 64.9%, 50대 이상의 64.6%에 비해 40대가 67.1%로 가장 높았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50대 이상에서 11.2%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의 응답은 19세-29세에서 각각 19.6%와 1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연령별 응답 패턴은 2011년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2011년 조사에서도 40대는 ‘점진적 통일’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현상유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별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에 대해 68.0%,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에 대해 13.1%로 응답하였다. 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현재대로가 좋다’에 23.1%, ‘통일에 관심 없다’ 8.5%로 나타났는데, 이 둘을 합하면 31.6%에 달한다. 진보 집단에서 이 두 항목의 응답의 합은 18.9%이고 중도 집단에서는 25.9%였다. 보수 집단에서 통일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념 집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보수성향이 통일 관련 태도에서도 보수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응답 패턴으로 보인다.

##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유사한 응답의 패턴으로 통일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보다는 20-30년 이후의 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5년,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각각 2.9%, 14.5%였고, 중장기인 ‘20년,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은 각각 25.9%, 17.8%였으며, ‘30년 이상’,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각각 19.8%, 1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I-3] 통일이 가능한 시기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I-3]에서 보듯이, ‘20년 이내’라는 응답은 2011년의 26.1%에 비해 올해는 25.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30년 이내’의 응답은 2011년 14.0%에서 17.8%로 증가하였고, ‘불가



능하다’는 응답 또한 2011년 21.3%에서 19.2%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통일은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보면, 남자 응답자의 경우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은 반면에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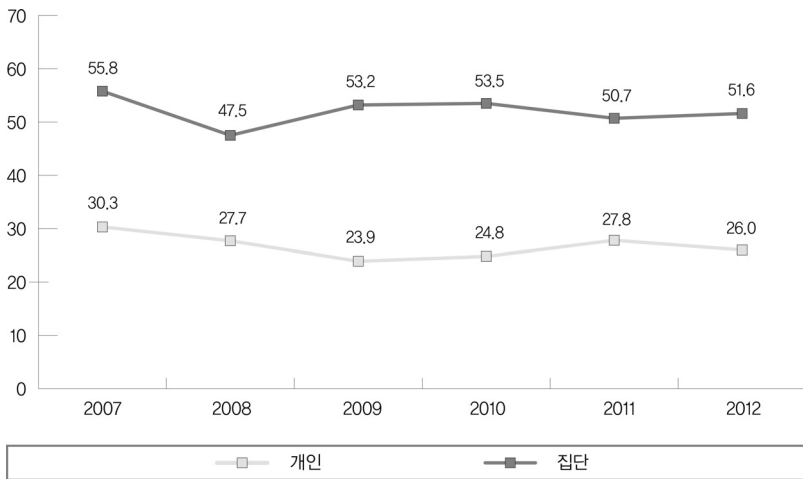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19세-29세의 응답자들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30대 24.5%, 40대 28.3%, 50대 이상 3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9세-29세 연령 집단에서는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다.

### 3. 통일에 대한 기대

####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은 누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1.6%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48.4%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엇갈렸다. 한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26.0%만이 ‘이익이 된다’고 대답한 반면, 74.0%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통일이 남한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집합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개인에게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I-4]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 간 응답의 추이는 대체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에는 ‘집합적 이익 기대감’의 소폭 상승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소폭 하락에 따라 둘 사이의 격차가 약 25%로 이전보다 커졌다. ‘집합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55.8% → 2008년 47.5%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09년 53.2%로 다시 높아진 후 2010년 53.5%, 2011년 50.7%, 2012년 51.6%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30.3% → 2008년 27.7% → 2009년 23.9%로 계속 낮아지다가 2010년 24.8% → 2011년 27.8% → 2012년 26.0%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1.8% 낮아졌다.



[그림 1-I-4]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 개인과 남한 사회



통일에 대해 남한 사회는 집합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통일에 대한 개인적 유인책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식의 집단주의, 국가주의적 인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분명한 기대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통일 추진의 필요성이나 추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기대감은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이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일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남한 공동체의 집합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도 성별에 따른 시각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전 조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은 남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 집단의 응답률은 ‘집합적 이익 기대감’이 59.0%, ‘개인적 이익 기대감’이 31.0%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성집단의 응답률은 각각 43.9%, 20.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집단에서의 낮은 응답이 주목을 끈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에서 19세-29세는 53.7%, 30대는 51.4%, 40대는 55.4%인데 비해 50대 이상은 46.9%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9세-29세는 31.0%, 30대는 26.2%, 40대는 26.4%, 50대 이상은 21.9%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 모두에서 교육 수준에 따라 응답률이 큰 격차를 보였다. 두

가지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따른 이익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해 각각 57.2%, 31.0%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중졸 이하의 응답자의 경우 ‘집단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이 각각 41.5%, 17.0%로 나타나, 고학력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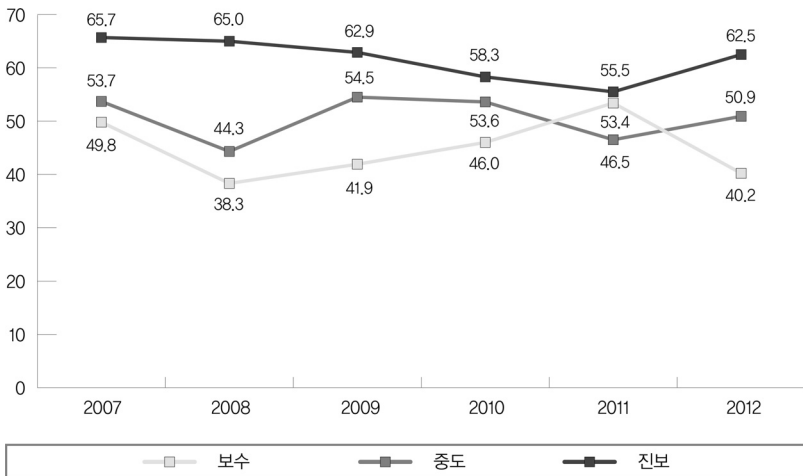
한편,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집단적, 개인적 이익 기대감’이 각각 49.3%, 25.3%인 반면에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각각 53.0%, 26.2%로 나타났다. 교육 변수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영남 지역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45.5%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강원 지역은 61.1%, 제주 지역은 76.9%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영남 지역은 15.7%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강원 지역은 41.7%, 제주 지역은 30.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강원, 제주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지역별로 볼 때 영남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것이든 개인에 대한 것이든 통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다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 응답 태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응답자들 간의 응답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던 것과는 달리, 2012년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 [그림 1- I -5]에서 보듯이, 2011년에는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2.1%까지 줄어들었으나, 2012년에는 22.3%로 크게 벌어졌다.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2007년 65.7% → 2008년 65.0% → 2009년 62.9% → 2010년 58.3% → 2011년 55.5%로 계속해서 낮아졌지만 2012년에는 62.5%로 7% 증가하였다. 반면에 보수 성향 집단에서는 2008년 38.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후 2009년 41.9% → 2010년 46.0% → 2011년 53.4%로 계속 높아져 왔으나 2012년에는 40.2%로 다시 전년 대비 13.2%나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 I -5] 이념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개인에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정치 성향별 응답 태도를 살펴 보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집단과 보수 성향 집단 간의 격차가 줄어들던 이전의 경향과는 달리 2012년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다시 벌어졌다.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된다는 응답 비율의 진보 이념 성향 집단과 보수 이념 성향 집단 간의 격차는 2007년 11.1%(진보 38.3%, 보수 27.2%)에서 2010년 8.3%(진보 37.2%, 보수 28.9%)로 소폭 줄어들었으

나, 2012년에는 19.1% (진보 35.1%, 보수 16.0%)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변화가 발생한 것은 진보 집단의 경우 2011년의 37.2%에서 2012년에는 35.1%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보수 집단의 응답률은 2011년 28.9%에서 2012년에는 16.0%로 12.9%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집합적 이익이나 개인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수 이념 집단의 긍정적 응답이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크게 하락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앞에서 본 대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이 보수성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보수 집단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것은 이와 유사한 응답의 패턴이라고 생각된다. 2010년, 2011년 두 조사에서 보수, 진보 두 이념 집단 간의 시각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2012년의 결과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살펴본 통일이 남한 사회 혹은 개인에게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오랜 기간 동안의 단절로 인해 남북한 두 사회의 이질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의 재결합이라는 점에서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미래의 사건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불안감이 크다면 부정적 시각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조사에서도, 통일 이후 예상되는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범죄 문제(74.2%)나 이념갈등



(70.6%), 지역갈등(70.3%)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문제별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항목에서 '통일 이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모두 20% 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데 반해, 유일하게 '실업문제'에서는 23.6%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년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북한 투자, 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응답은 33.3%로 2011년 45.7%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취업 문제에 보다 예민한 20대, 30대 집단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사회문제가 통일 이후 '개선될 것이다'라는 낙관적 응답 비율을 보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실업문제 23.6%, 부동산투기 16.6%, 이념갈등 13.4%, 빈부격차 12.3%, 지역갈등 10.8%, 범죄문제 5.9% 순이었는데, 이러한 응답 패턴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2011년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이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범죄문제 74.2%, 이념갈등 70.6%, 지역갈등 70.3%, 빈부격차 69.3%, 부동산투기 62.7%, 실업문제 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 조사에서도 통일 이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 범죄문제나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에서는 범죄문제 (75.1%) 다음으로 빈부격차(70.6%)가 높았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큰 비율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의 문제에 대한 비율이 빈부격차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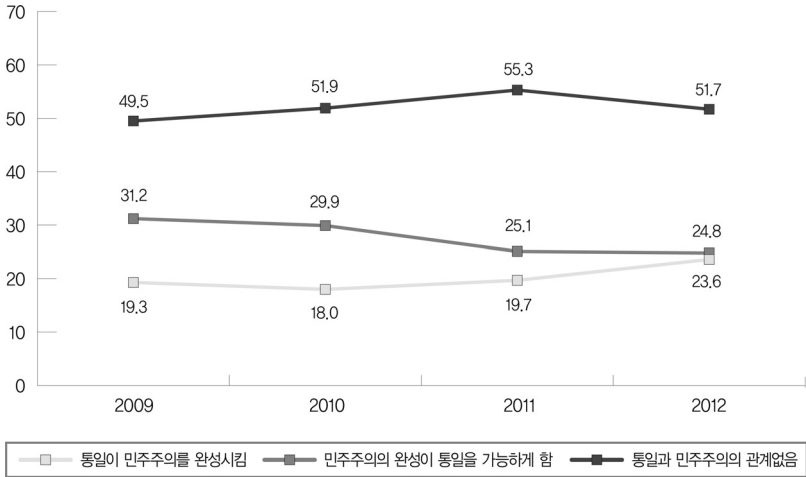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2012년 조사에서도 남한 국민의 다수는 통일이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사

회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통일로 인한 효용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력이 생겨나기 어렵다.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통일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상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응답자는 23.6%,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4.8%로 나타났다. 전자는 통일이 남한 민주주의의 성숙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후자는 남한 민주주의의 성숙이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1.7%로 여전히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I-6]에서 보듯이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은 2009년 49.5% → 2010년 51.9% → 2011년 55.3%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1.7%로 다소 그 비율이 줄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50% 이상의 응답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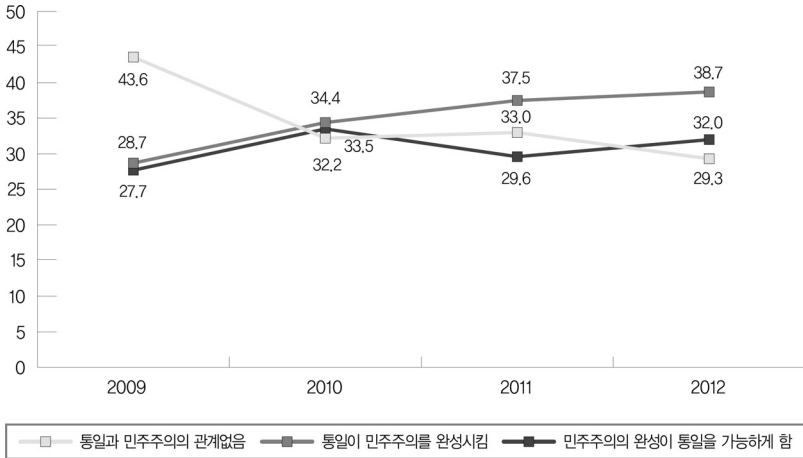
[그림 1- I -6]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009년 19.3% → 2010년 18.0% → 2011년 19.7% → 2012년 23.6%로 나타났는데, 특히 올해는 3.9% 상승하였다. 반면에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09년 31.2% → 2010년 29.9% → 2011년 25.1% → 2012년 24.8%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앞으로 몇 년 간 더 추세를 관찰해야 보다 분명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남한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남한 민주주의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별다른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하강 추세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통일이 남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응답은 2010년 이후 증가세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산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이 그러한 이념적, 정치적 제약 조건을 해소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서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이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19세-29세와 30대는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27.8%, 28.7%로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의 응답보다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전자의 응답이 각각 26.7%, 27.8%로 후자의 응답보다 더 많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남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이들 중 30.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와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집단에서는 23.7%, 20.3%로 낮았다.

남한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I-7]에서 보듯이,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009년 28.7% → 2010년 34.3% → 2011년 37.5% → 2012년 3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의 지속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민주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통일만이 북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은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9년 43.6%에서 2010년 32.2%, 2011년 33.0%, 2012년 29.3%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I -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한편,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에서 32.0%로 나타났는데, 특정한 변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민주화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본 응답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19-29세 40.8%, 30대 30.5%, 40대 30.0%, 그리고 50대 이상은 28.7%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서 특히 북한의 민주화를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정치체제의 이질감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통일에 대한 매우 강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북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이념성향별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든 이념 성향 집단에서 ‘통일이 되어야 북

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한 사회의 이념적 갈등에도 북한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민주화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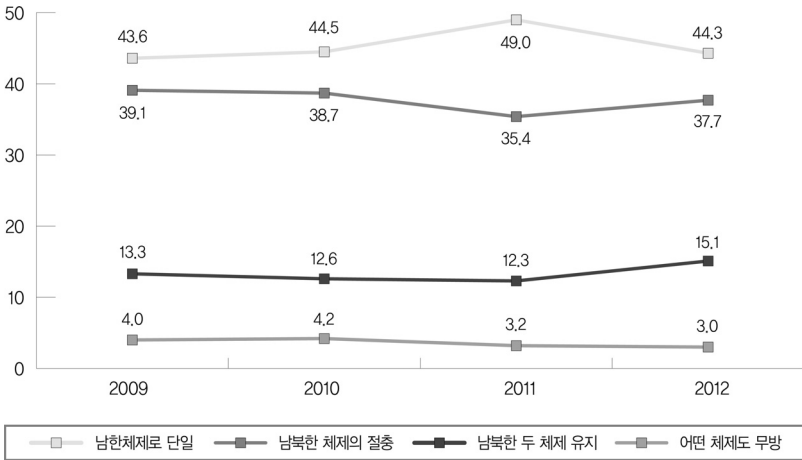
##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통일에 대한 정치적 조건의 또 다른 문항으로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49.0%를 기록했던 2011년에 비해 4.7% 하락한 것으로, 2010년의 44.5%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7.7%로 2011년 35.4%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 또한 2011년 12.3%에 비해 2.8% 증가한, 15.1%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1-I-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남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남한체제로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응답은 2009년 43.6% → 2010년 44.5% → 2011년 49.0%로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전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2009년 39.1% → 2010년 38.7% → 2011년 35.4%로 3년 동안 하락하다가 올해는 37.7%로 증가했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2009년 13.3% → 2010년 12.6% → 2011년 12.3%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2012년에는 15.1%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2009년 4.0% → 2010년 4.2% → 2011년 3.2%에 이어 2012년에는 3.0%로 점점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적으로 볼 때 금년 조사에서는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였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1-I-8]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그러나 [그림 1-I-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1년의 응답을 예외로 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응답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44-45%의 응답자가 현행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선호하고 있고, 37-39% 정도의 응답자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2년 조사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남북한 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5.1%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 이전 현재의 남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선호로 볼 수 있는데 통일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변화로 보인다. 한편,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는 ‘통일지상주의’적 주장을 지지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민족적 감성에 기반을 둔 통일 논의가 더 이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은 연령별로 2011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조사에서 19-29세와 30대 연령층 집단은 각각 55.5%와 51.1%로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이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집단이 48.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 19-29세 집단은 39.6%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19-29세 집단에서,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1년 사이에 15.9%나 하락한 것이다. 한편 ‘남북한 체제 절충형’에 대한 응답률 또한 젊은 층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19-29세 집단은 2011년 30.9%에 비해 10.7% 증가한 41.6%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젊은 층에서 남한의 현 체제에 대한 실망감, 혹은 흡수통일 방식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통일 이후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라는 응답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남(59.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29.6%로 작년보다 7.2% 하락하여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호남권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는데, 작년 46.2%의 응답자들이 남한의 현 체제로의 유지를 바랐던 것과 달리 올해는 37.5%에 그쳤다. 한편 남북한 체제 절충을 바라는 수도권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 수도권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 40.5%의 응답자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모든 이념 성향에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인 수치에 있



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주목되는 것은 중도적 성향 응답자 집단에서의 큰 변화인데, 2010년 41.0%에서 2011년 49.2%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이 집단은, 2012년에는 다시 40.4%로 약 10%가량의 낙폭을 보였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2011년 46.2% → 2012년 45.1%,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는 2011년 51.8% → 2012년 51.2%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6. 소결

전체적으로 2012년 통일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난 그 이전의 형태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지표에서 2012년의 응답은 2011년 이전의 응답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확인된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2%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29세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작년 조사보다는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통일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2012년 조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는 응답에 대해서는 ‘30년 이내’라는 응답이 몇 해째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현재의 문

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이 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도 여전히 낮았다. 남한 사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 개인의 이익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범죄문제, 이념갈등, 지역갈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금년 조사에서도 높았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에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쟁 방어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도구적, 수단적 이유를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 방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꾸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비관적 예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한 흡수 통일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전히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2012년 조사에서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하자는 것이 앞서 언급한 통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한 때문이라면 이는 통일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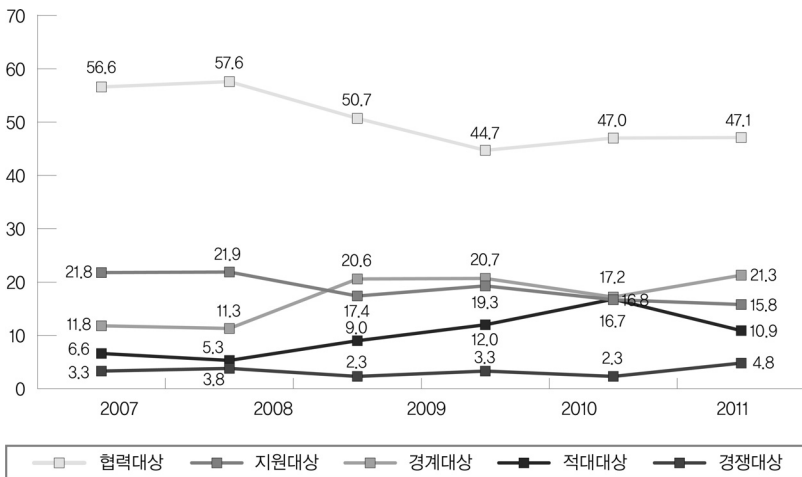


## II.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 안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이나 위협적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2011.12)과 김정은 정권의 등장, 태양절 100주년에 즈음한 장거리 로켓 발사(2012.4) 등의 사건들이 한국인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나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심리전의 상황과는 달리 심각한 위협이나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정부가 평상체제를 유지하도록 상황을 관리한 결과 국민들도 북한발 긴장을 지난 몇 년에 비해 덜 느끼는 시기였다. 이 장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7.1%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1.3%, 지원대상 15.8%, 적대대상 10.9%, 경쟁대상 4.8%로 각각 응답했다. [그림 1-Ⅱ-1]에 나타나듯이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가파르게 상승하던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2012년에 5.9%나 하락하였으며 감소한 숫자만큼 ‘경계대상’ 쪽으로 옮겨갔다. 2008년 이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나 올해에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부정적 대북인식의 흐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여 한국인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Ⅱ-1] 북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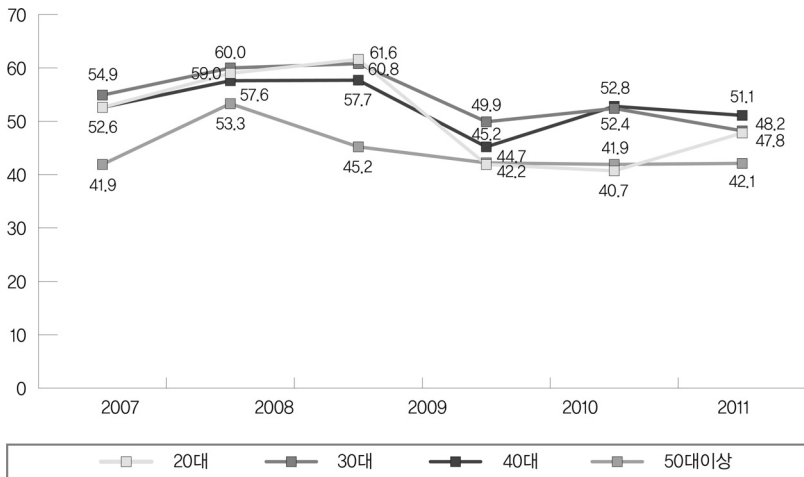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비율이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서는 줄어들었지만 2012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7.1%를 유지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대상’ 인식이 감소한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고조되었던 위기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불안이 예상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의 등장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고조되었던 정국을 일시에 다른 안정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과 리설주의 파격 등장, 장성택의 중국방문 등 북한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서 ‘적대’에서 ‘경계’로 시선이 옮겨진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험에서 생겨난 학습효과도 크게 작용하였다. 지난 15-20년 사이에 김일성 사망과 남북교류를 경험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이 곧바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한 결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국민들도 남북교류의 경험과 정보에 근거하여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의식이 감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희망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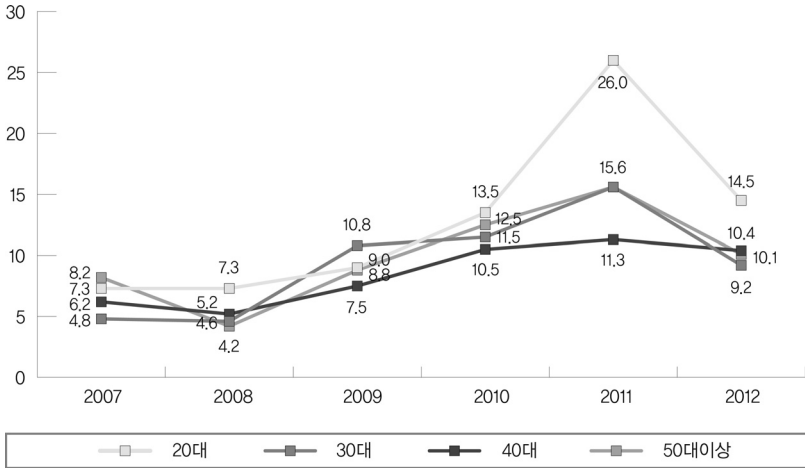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작년에 비해 20대가 ‘협력대상’ 인식 쪽으로 이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작년에는 30·40대와 20·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50대와 20·30·40대의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그림 1-II-2]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20대가 40.7%에서 47.8%로 7.1% 상승하면서 기존의 50대 이상 그룹에서 벗어나 30·40대와 같은 부류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적대대상’ 인식이나 북한위기의식 등 여러 영역에서

20대가 30·40대 그룹에 합류하기보다는 50대 이상과 비슷한 대북인식을 갖고 있어서 20대의 대북인식 변화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쟁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가 11.8%로 적은 반면, 30·40·50대는 각각 16.7%, 15.3%, 18.5%로 많았고,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20대가 7.5%로 높은 반면 30·40·50대에서는 각각 3.9%, 4.9%, 3.7%로 낮았다.



[그림 1-Ⅱ-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북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작년과 비교할 때 16.8% → 10.9%로 낮아져 전반적으로 적대의식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20대 연령층이 적대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20대의 ‘적대대상’ 인식이 26.0% → 14.5%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즉 30대, 40대, 50대 이상은 각각 9.2%, 10.4%, 10.1%였다.



[그림 1-II-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교육수준별로 보면, 협력대상 인식에서 중졸(31.1%) < 고졸(45.7%) < 대졸(51.9%)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경계대상 인식에서 중졸 이하가 36.8%로 고졸(22.7%)이나 대졸(16.7%)보다 14~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경계대상에서는 남성(19.8%)보다 여성(22.9%)이, 특히 전업주부(28.3%)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적대대상에서는 남성(13.4%)이 여성(8.3%)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수도권 47.7%, 충청권 39.7%, 호남권 53.9%, 영남권 45.8%, 강원 44.4%, 제주 61.5%로 나타났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충청권은 55.1% → 39.7%로 15.4%가 줄어든 반면, 호남권은 50.0% → 53.9%로, 영남권은 38.9% → 45.8%로 각각 3.9%, 6.9%가 늘어났다. 또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이 각각 20.2%, 26.7%, 27.8%인데 비해, 호남권은 7.8%로 현저히 낮았다. 호남권의 대북인식이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2012년의 전반적인 경향은 호남권이 2010년의 패턴으로 복귀하고 영남권의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높아졌으며, 충청권이 2010년 이전의 영남권과 비슷한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2010년에는 호남권이 북한을 ‘협력대상’과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경계대상’ 의식에서는 낮았다.<sup>1</sup> 2011년에는 호남권의 이러한 특성이 누그러진 반면 영남권의 대북 경계인식이 매우 높게 상승하였다.<sup>2</sup> 호남권과 영남권의 이러한 대북의식은 기존의 흐름과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갈등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의식의 변형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매우 절박했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남북관계가 안정을 찾음으로써 작년의 이례적인 흐름이 다시 예년의 양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영남권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충청권은 ‘지원대상’ 및 ‘경계대상’ 인식에서 각각 12.9%, 26.7%로 영남권(13.1%, 27.6%)과 비슷하며 ‘협력대상’ 인식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대북 인식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지원대상’ 인식의 비율이 높고, ‘경계대상’, ‘적대대상’ 의식 비율이 낮다. 작년과 비교할 때 진보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보수의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즉 ‘진보’는 ‘협력대상’ 인식 비율이 49.5%

1- 2010년의 경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9.7%, 17.8%, 16.9%인데 비해, 호남권은 27.7%로 매우 높았고, ‘협력대상’ 응답에서도 51.2%로 수도권(49.5%), 중부권(43.2%), 영남권(34.6%)에 비해 높았다.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5.1%, 25.4%, 32.8%였던 데 비해, 호남권은 1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2011년의 경우,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48.2%, 55.1%, 50.0%인데 비해, 영남권은 38.9%로 매우 낮은 반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각각 15.0%, 17.1%, 14.9%인데 비해, 영남권은 23.1%로 높게 나타났다.



→50.9%, ‘경계대상’ 응답이 12.5%→13.1%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보수’는 ‘협력대상’ 인식 비율이 44.5%→33.5%로 11.0% 낮아졌고, ‘경계대상’ 인식도 19.8%→33.5%로 13.7%나 높아졌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보수’의 대북인식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요동한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2012년에는 비판적, 부정적 대북인식을 다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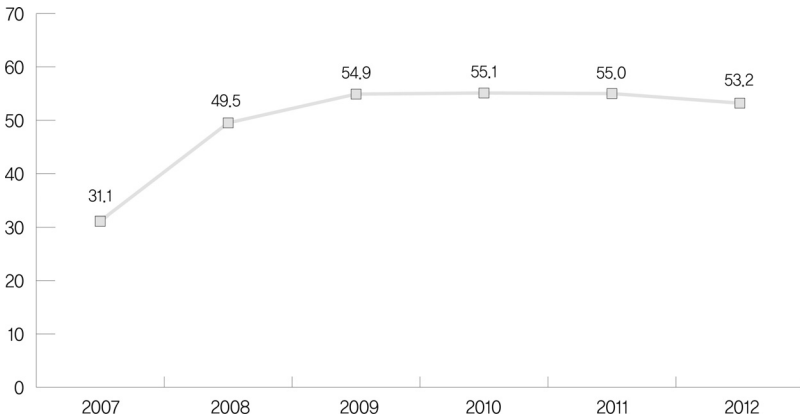
종교와 대북인식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종교 간 대북인식이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대상’에서는 천주교가 55.2%로 불교(39.7%)와 기독교(49.7%), 무종교(47.3%)보다 높았으며, ‘적대대상’에서는 8.0%로 불교(11.4%), 기독교(10.4%), 무종교(11.0%)보다 낮았다. 반면 기독교는 ‘지원대상’에서 19.8%로 불교(17.4%), 천주교(13.8%), 무종교(13.7%)보다 높고, ‘경계대상’에서는 16.1%로 불교(24.7%), 천주교(18.4%), 무종교(23.3%)보다 낮았다.

## 2.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북한과의 많은 대화를 하고 대북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기대하는 만큼 북한사회의 변화나 북한당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과 비판의식이 남한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북한변화’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터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변하지 않고 있다’(53.2%)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46.8%)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은 31.1%(2007년) → 49.5%(2008년) → 54.9%(2009년) → 55.1%(2010년) → 55.0%(2011년) → 53.2%(2012년)로 2008년과 2009년에 높아진 이후 50-55%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15.1%가 동의한 반면, 50.9%는 이의를 표시했고, 34%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림 1-Ⅱ-4] 대북 비판의식

연령별 교차 분석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0대가 51.8%로 높고 다른 연령층은 44.7%(20대), 45.7%(30대), 44.9%(50대 이상)로 비슷한 정도로 낮았다. 지난 5년간 이른바 386세대인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20·30·50대 이상은 북한



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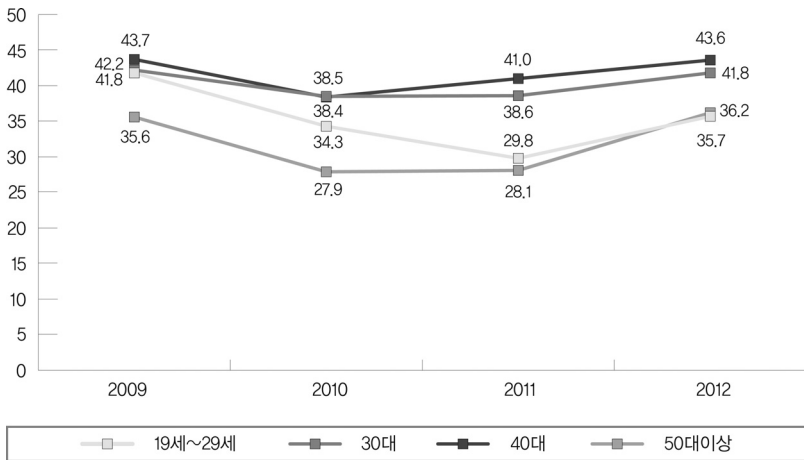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각 지역 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충청권(57.8%) > 호남권(55.7%) > 영남권(50.6%) > 수도권(41.3%)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영남권과 충청권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영남권은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작년의 40.5%에서 올해 50.6%로 10.1%가 대폭 상승하였고, 충청권은 50.4%에서 57.8%로 7.4%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항목의 대북인식과는 양태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현 정권의 지지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남권과 충청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가 북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53.7%) > 중도(44.3%) = 보수(44.1%)로 북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진보는 51.6% → 53.7%로 2.1% 증가한 반면 보수는 37.9% → 44.1%로 6.2% 증가하였다.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평균 45.0% → 46.8%로 1.8% 증가하였고 실제로 북한의 변화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는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했다는 데 많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이 역시 북한변화를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로 판단하는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0.7%로 ‘가능하다’(39.3%)는 응답보다 1.5배가 많았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5.0% 늘어났다.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40.9%(2009년) → 34.9%(2010년) → 34.3%(2011년) → 39.3%(2012년)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불신이 커지다가 2012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5.0%가 상승하여 2009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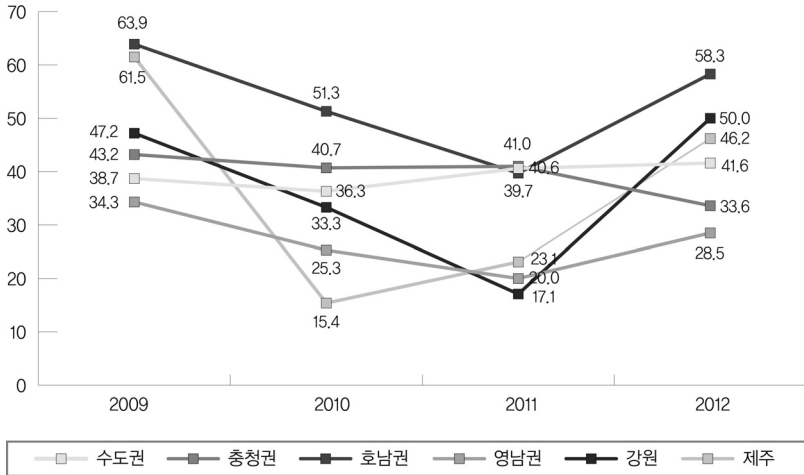


[그림 1-II-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능하다’는 신뢰가 각각 41.8%, 43.6%로 높았으며, 20대와 50대는 각각 35.7%, 36.2%로 낮았다. 대북 신뢰도 인식에서는 작년의 세대별 양상과 같이 30·40대와 20·50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30·40대가 20·50대에 비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대북 신뢰도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림 1-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와 50대 이상이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더 많이 변화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할 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더 좁혀졌다.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호남권(58.3%) > 수도권(41.6%) > 충청권(33.6%) > 영남권(28.5%)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호남권은 39.7% → 58.3%로 18.6%나 대폭 증가하여 대북인식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영남권도 20.0% → 28.5%로 8.5%가 증가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 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충청권은 41.0% → 33.6%로 7.4%가 낮아져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호남권이 연평도 사건이라는 실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 상황 속에서 대북 신뢰도에서 매우 위축되어 은둔 형태로 수면 하로 내려갔으나, 2012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대북 신뢰가 상승하여 예년과 같은 의식의 양태를 형성하였다. 반면 충청권의 대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반대로 영남권의 대북신뢰가 상승한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충청권의 대북불신과 영남권의 대북신뢰가 증가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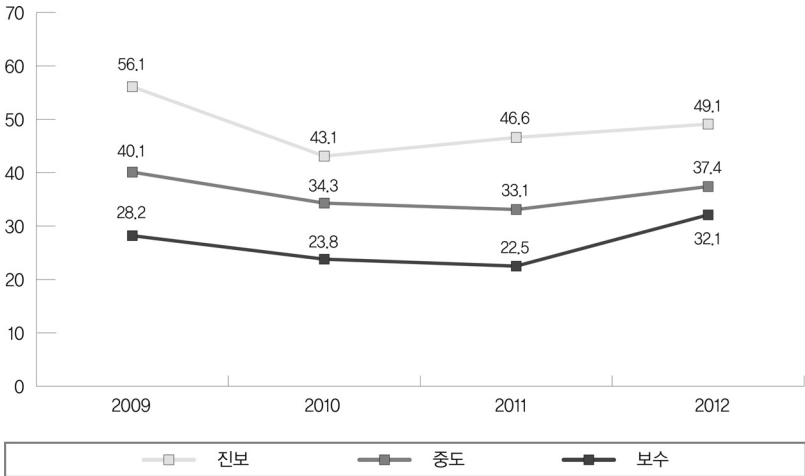
[그림 1-II-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적 이념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9.1%) > 중도(37.4%) > 보수(32.0%)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인식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진보의 대북신뢰도는 56.1%(2009년) → 43.1%(2010년) → 46.6(2011년) → 49.1%(2012년)로 2010년에 13.0%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49% 수준으로 높아졌다.<sup>3</sup>

3-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의 영향으로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지형이 급격히 변하였다. 2009년과 비교하면 진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림 1-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 보수의 대북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 대북 신뢰도의 평균 증가율이 약 5%인데 비해 ‘보수’의 대북 신뢰도는 22.5 → 32.0%로 9.5%나 상승하였다. 보수의 대북 신뢰도 상승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쉽지 않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Ⅱ-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5.4%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계열로 보면 2008년에 71.7%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

층은 8.2%나 확장되고 보수층은 5.1%가 줄어든 것이다. 2011년에는 진보 27.9%, 중도 48.1%, 보수 24.0%로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에 83.7%로 12.0%가 높아졌고 그 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83.2% → 85.4%로 2.2%가 높아졌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조금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여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은 세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변수와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별이나 종교 변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표 1-II-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백분율	71.7%	83.7%	82.8%	83.2%	85.4%

2012년의 특이한 점은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이 각각 10.2%, 12.2%, 13.1%인데 비해 충청권은 20.7%로 높았다. 작년에는 연평도 사건의 효과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북한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작년에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8.1%가 동의했으나 2012년에는 20.7%가 동의하여 12.6%가 상승하였다. 올해 충청권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은 해석하기 난해하다. 앞의 문항에서 충청권은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불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매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펼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 북한위기의식

###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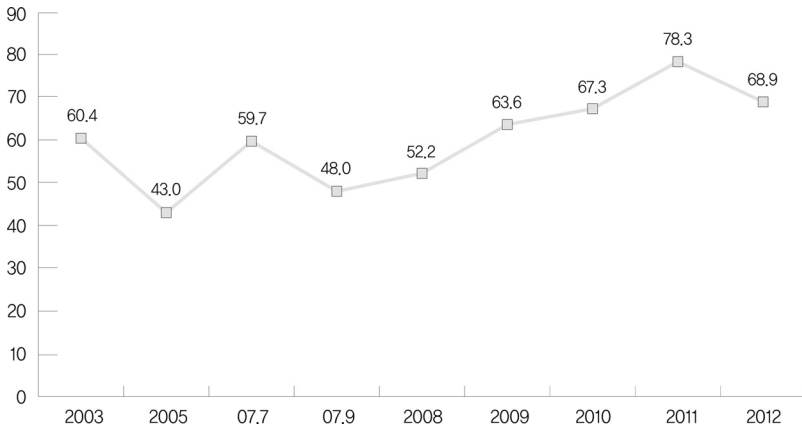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1.93%, ‘다소 위협을 느낀다’ 48.5%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5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2007년) → 61.3%(2008년) → 74.3%(2009년) → 73.8%(2010년) → 80.7%(2011년) → 80.4%(2012년)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성별, 세대, 교육, 소득수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과 이념의 변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90.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79.6%)과 충청권(69.0%)·호남권(68.7%) 간에도 약 10% 차이가 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가 85.1%로 진보(75.3%)에 비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고 중도는 중간에 위치하였다. 즉 영남권과 보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를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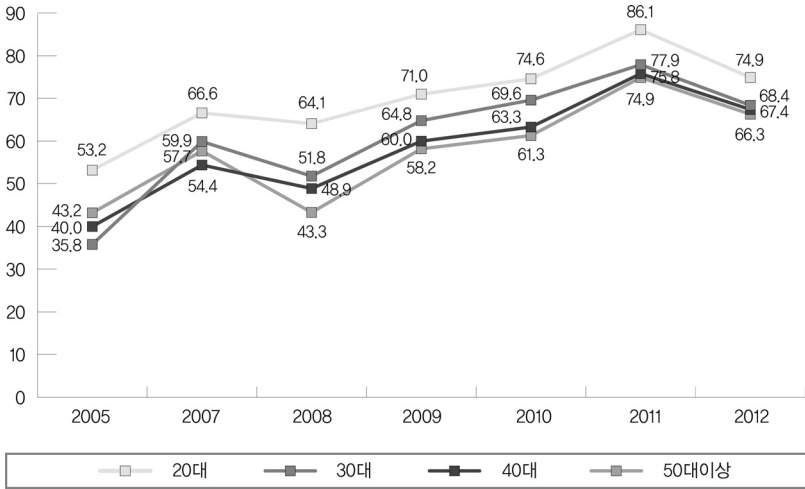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8.9%로 ‘없다’(31.1%)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던 작년(78.3%)과 비교하면 약 10%가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 북한발 안보불안이 해소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림 1-Ⅱ-8]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후 고조되던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이 올해에 그 추세가 반전되어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1-Ⅱ-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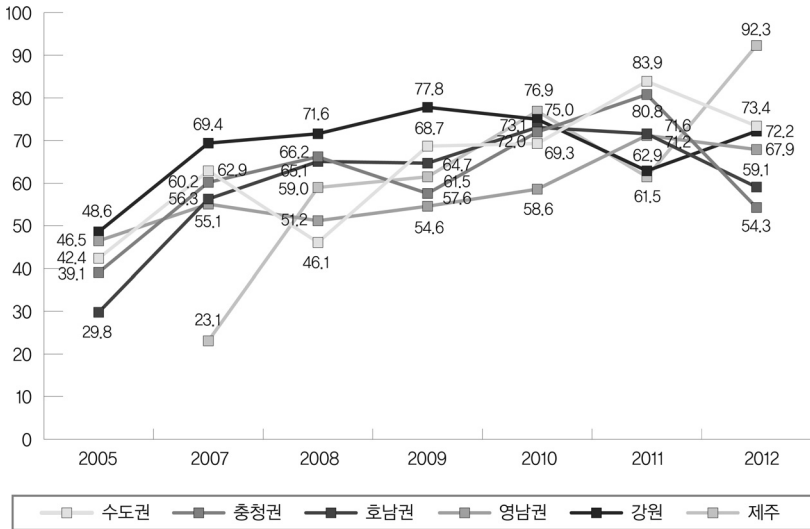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과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변수와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나 20대와 다른 연령층 간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다른 연령층 간의 차이는 작년 약 10%에서 약 7% 정도로 좁혀졌으나 [그림 1-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최근 2년간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2010년까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20대가 다른 연령층과 다른 응답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군복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II-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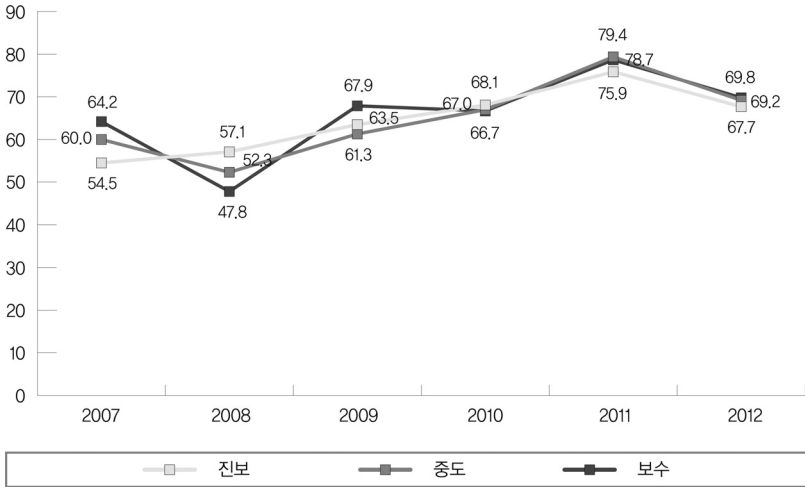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제주(92.3%)를 예외로 하면 수도권과 강원이 각각 73.4%,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이 67.9%로 다음을 차지하며 호남권(59.1%)과 충청권(54.3%)이 가장 낮았다.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10%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나 강원이 각각 61.5% → 92.3%, 62.9% → 72.2%로 증가한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은 83.9% → 73.4%로 감소하여 평균 감소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영남권은 71.2% → 67.9%로 평균보다 낮은 3.3%만 감소하였다. 그러나 호남권과 충청권에서는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71.6% → 59.1%로 12.5% 낮아졌고, 충청권은 80.3% → 54.3%로 26.0%라는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즉 호남권과 충청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안보불안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남권은 전

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효과가 사라진 후 그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충청권의 급락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1-II-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진보(67.7%), 중도(69.2%), 보수(69.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2007년과 2008년에는 이념성향과 안보불안 사이에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안보불안이 급등하여 정치이념 간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효과’가 압도하여 진보와 보수 두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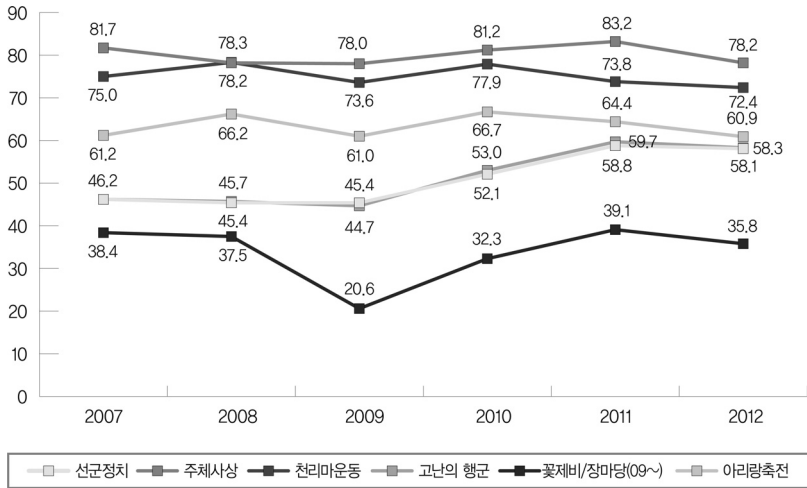


[그림 1-II-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 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2년에는 작년보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조금 낮아졌다. [그림 1-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인지도가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천안함사건 이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0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과 8월에 김정일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 2011년 12월의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 등 북한 관련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Ⅱ-12]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사회 인지도를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교차분석하면,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성과 연령, 지역, 직업,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와 소득수준과는 별 상관성이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 관련 정보와 사건들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북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고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 인지도는 높았고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북한인지도가 가장 높고 전업주부가 가장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보다 높고 ‘중도’는 ‘보수’보다 더 낮은 북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보수적 성향보다는 진보적 성향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와 사건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념성향이 있



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더 가짐으로써 북한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북한 인지도가 충청권 및 호남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2010 이후 새롭게 형성된 트렌드로 2009년까지는 호남권의 북한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에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 이어 2011년에는 영남권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되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북한 관련 정보와 사건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발견되는 지역적 특성은 충청권의 북한 인지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수도권(61.5%) > 영남권(57.1%) > 호남권(53.9%) > 충청권(43.1%)으로 충청권이 매우 낮았다.<sup>4</sup> 작년에는 대체로 호남권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금년에는 충청권과 순서가 뒤바뀌었으며, 수도권과 영남권도 작년에는 영남권이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수도권이 맨 앞으로 올라왔다.

## 2) 북한 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북한 관련 경험은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자는 지난 6년 동안 4.5% → 3.5% → 4.2% → 3.8% → 4.3% → 4.1%, 대북지원활동이나 단체참여 경험도 2.8% → 2.4% → 1.4% → 2.2% → 2.0% → 1.4%로 큰 변동 없이 부침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

4. 2011년의 경우에는 선군정치 인지도가 영남권(61.2%) > 수도권(59.6%) > 충청권(57.7%) > 호남권(53.4%)의 순으로 호남권이 가장 낮았고 영남권이 가장 높았다.

본 사람들은 40.8%(2007년) → 31.2%(2008년) → 46.2%(2009년) → 37.4%(2010년) → 31.5%(2011년) → 32.3%(2012년)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2012년에 약간 증가했다. 한편,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 → 9.3% → 10.9% → 13.8% → 16.2% → 19.0%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한 관련 경험과 사회경제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유일하게 북한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과 지역 간 관련성이다. 제주와 강원을 제외하면 북한방송이나 영화, 소설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영남권에서 46.5%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32.2%), 수도권(28.8%), 충청권(13.8%)의 순이었다. 충청권에서 '있다'는 응답은 최근 몇 년 사이에 47.5%(2010년) → 20.5%(2011년) → 13.8%(2012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영남권은 32.5%(2010년) → 36.9%(2011년) → 46.5%(2012년)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1년 사이에 호남권과 수도권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영남권과 충청권의 정반대 움직임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4%), 생활수준(95.3%), 법률제도(88.3%), 언어사용(88.2), 생활풍습(85.8%), 가치관(92.5%)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 이질성 인식은 평균 90.6%로 작년(91.9%)과 비교하면 1.3% 낮아져 남북동질성 인식이 약간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생활풍습(88.3% → 85.8%)과 언어사용(90.7% → 88.2%)에서 남북 동질성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선거나 법률 등 정치제도와 경제생활 수준에서는 이질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생활풍습과 언어 등 문화적 영역에서는 동질성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소결

2012년 북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12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하던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지난해를 정점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이른바 ‘천정을 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5.3%에서 16.8%로 상승하던 북한 ‘적대대상’ 인식이 올해 5.9% 하락했으며,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식도 55.0%에서 53.2%로 낮아졌다. 북한과 “대화 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도 59.1%(2009년) → 65.1%(2010년) → 65.7%(2011년) → 60.7%(2012년)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둘째, 무엇보다 작년에 최고조(78.3%)에 달했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가 68.9%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대북인식이 “천정을 치고” 내려오는 추세를 형성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안보불안 의식은 52.2%(2008년) → 63.6%(2009년) → 67.3%(2010년) → 78.3%(2011년) → 68.9%(2012년)로 지난해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는 9.7% 하락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은 가장 낮을 때 40%, 가장 높을 때 60%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작년에 안보불안이 78.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 기록한 68.9%의 안보불안 수준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고조된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처럼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기대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러한 통일의식은 20대 젊은 층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20대의 보수화’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북인식에서 50대 이상과 비슷한 비판적,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던 20대의 연령층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7.1%가 상승했고, ‘적대대상’ 인식이 작년에 비해 26.0% → 14.5%로 대폭 줄어들었다. 물론 20대는 여전히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50대 이상과 비슷한 대북불신을 하고 있으며 북한발 안보불안과 위기의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상인식에서 적대의식이 11.5%가 줄고 협력대상 의식이 7.1% 상승한 것, 그리고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대와 30·40대 간의 격차가 작년에는 약 10%였는데, 올해는 약 7%로 좁혀진 사실들은 20대의 대북인식이 그 추세와 강도에서 작년을 정점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북한인식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랐다. 북한의 존재 인식과 북한의 변화, 정권 신뢰도 등 여러 영역에서 진보는 보수보다 북한에 대해 더 긍정적,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진보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지원대상’ 인식의 비율이 높고, ‘경계대상’, ‘적대대상’ 비율이 낮았으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즉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대북 신뢰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이념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대북우호의식이 다시 증가하여 2010년의 패턴으로 복귀한 반면, 충청권의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의식이 강화



게 표출되었다. 북한의 ‘협력대상’ 인식에서 호남권이 영남권이 각각 3.9%, 6.9%가 늘어난 데 비해 충청권은 15.4%가 줄어들었다. 2010년 이전에 영남권이 보여주었던 대북 경계·적대의식을 충청권이 대신 담당하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영남권은 기존의 패턴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협력·우호의식을 보였다.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18.6%, 8.5%가 상승한 데 비해 충청권은 7.4%가 하락하여 충청권의 대북 불신이 높아졌다. 수도권이 담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호남권의 복귀와 영남권의 새로운 변화, 충청권의 퇴행이 대북인식의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고조되던 전쟁위기의식이 해소되면서 지역별 분화와 재구조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2년의 대북인식은 최고조에 달했던 안보불안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천정을 치고’ 내려와 긍정적·우호적 의식을 조금씩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주요 원인은 ‘50대 이상’과 같은 집단적 의식으로 ‘보수화’되었던 20대가 30대와 40대의 대북의식 쪽으로 부분적 이동이 일어났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전으로 대북의식을 복귀한 호남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20대가 여전히 대북 경계의식과 불신, 안보불안을 갖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가늠하지 쉽지 않으며, 충청권의 극단적 대북 비판의식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진보’가 아직은 과거와 같은 대북인식의 차이를 분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대북인식 지형도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 Ⅲ.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11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북한과 관련된 정세에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다. 먼저 대내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급서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와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각각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권력을 승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미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소위 ‘2.29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4월 13일 소위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써 ‘2.29 합의’ 이행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4월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비록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거론되었지만,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핵심적인 이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는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정성이나 대내외 정책, 통일의 가능성과 전망 등에 이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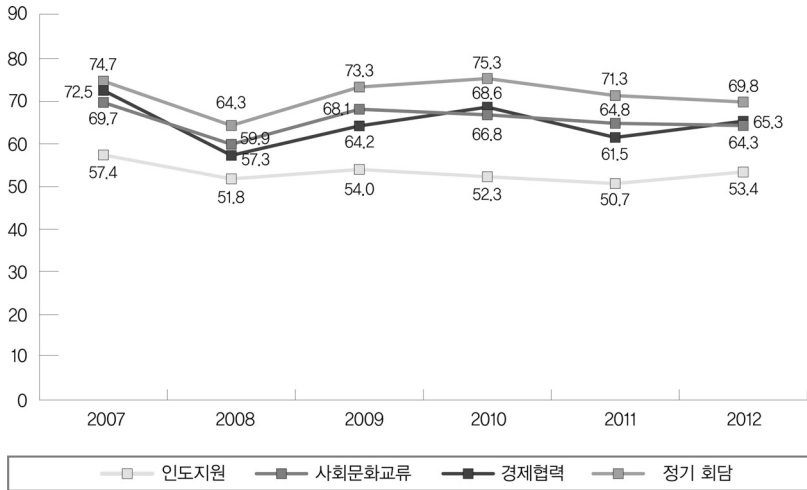
까지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9 합의’와 ‘광명성 3호’ 발사, 핵보유국을 명시한 헌법 개정 등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자체나 핵문제를 둘러싼 대북협상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한국에서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2013년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북정책이 통일외교조사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올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의 인식을 비교하여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지난해뿐 아니라 2007년과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 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대북정책 분야별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각각 65.3%와 64.3%로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인도지원이 가장 낮은 53.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보다는 당국 차원의 접촉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정책별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경제협력과 인도 지원은 각각 3.8%와 2.7%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정기적인 회담이 4.9%, 사회문화교류가 8.2%, 경제협력이 7.2%, 인도적 지원이 4.0% 감소하였다.



[그림 1-Ⅲ-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2007년과 비교해 분야별 대북정책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줄어든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특히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비교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3.8%에서 57.0%로 6.8% 줄어들었고, 통일 가능 시기도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인식이 27.2%에서 17.4%로 줄었고 2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인식도 30.8%에서 25.9%로 줄었다. 대신 3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인식과 3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각각 14.7%와 13.8%에서 17.8%와 19.8%로 늘어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2007년 13.3%에서 2012년 19.2%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먼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19-29세와 30대, 5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40대에서 감소하여 대체로



60% 중반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지원의 경우도 40대가 감소한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증가하여 대체로 50% 중반대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지만 19-29세의 경우 지난해 비해 3.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에 머물렀다.

2007년과 비교하면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19-29세에서 8.9%, 30대에서 9.6%, 40대에서 7.6%, 50대 이상에서는 2.1% 감소하여 19-29세와 30대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지원의 경우는 19-29세에서 8.9%, 30대에서 1.9%, 40대에서 3.3%, 50대 이상에서 2.4% 감소하여 19-29세에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III-1**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세대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협력	19-29세	72.8	57.3	63.5	65.7	58.4	63.9
	30대	75.2	58.8	63.5	65.4	59.2	65.6
	40대	74.4	58.7	67.5	73.1	70.3	66.8
	50대 이상	67.0	54.0	61.9	70.5	58.1	64.9
인도지원	19-29세	57.9	50.8	50.5	49.5	45.6	49.0
	30대	58.3	53.6	52.0	49.4	48.2	56.4
	40대	57.0	55.6	61.0	58.0	56.7	53.7
	50대 이상	56.3	46.7	52.4	52.4	51.4	53.9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에 대한 지역별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경제협력의 경우 영남권에서 12.6%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수도권과 함께 60%대 초반으로 수렴된 반면 지난해보다 5.9% 증가

한 충청권이 호남권과 함께 70%대 후반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지원의 경우는 영남권이 50% 이하에 머문 가운데, 지난해보다 수도권이 약간 증가하고 충청권이 감소하여 50%대 중반으로 수렴되고 호남권은 지난해보다 5.2% 증가하여 60% 후반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경제협력의 경우 수도권이 9.9%, 호남권이 3.2%, 영남권이 8.9% 하락한 양상을 보인 반면 충청권은 8.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지원의 경우는 충청권이 2.6% 늘어난 반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서는 각각 0.9%, 4.4%, 10.2% 줄어들었다.

표 1-III-2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협력	수도권	71.6	54.1	63.8	74.1	62.0	61.7
	충청권	67.8	62.9	67.8	64.4	71.8	76.7
	호남권	81.5	66.7	74.8	80.7	77.9	78.3
	영남권	72.1	55.5	58.6	57.6	50.9	63.5
인도지원	수도권	55.7	54.0	55.9	56.4	52.7	54.6
	충청권	51.7	46.1	53.4	50.4	58.5	54.3
	호남권	71.4	63.0	72.3	68.1	61.8	67.0
	영남권	55.7	47.7	44.1	41.7	43.0	45.5

지난해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한 남북 간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지난해보다 3.9% 증가하면서 73.6%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68%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19-29세는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30대는 8.7%, 40대는 8.3% 각각 하락하여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 50대의 경우는 30-40대보다는 작은 2.7%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교류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19-29세와 30대에서 각각 3.4%와 1.2%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6.5% 하락하였고 50대에서는 0.3% 증가하였다. 19-29세가 60%대 초반에 머문 반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은 대체로 60%대 중반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2007년과 비교하면 19-29세는 4.1%, 30대는 6.9%, 40대는 6.7%, 50대는 3.7%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19-29세나 50대 이상보다 30대와 40대에서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III-3**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기 회담	19-29세	68.9	63.8	68.6	72.9	69.3	68.2
	30대	76.4	62.6	75.4	77.2	67.2	67.7
	40대	77.0	67.7	77.1	75.7	78.8	68.7
	50대 이상	76.3	63.2	71.9	75.3	69.7	73.6
사회문화 교류	19-29세	64.9	62.3	63.6	61.1	57.4	60.8
	30대	73.2	58.4	68.7	67.6	65.1	66.3
	40대	72.5	63.8	73.1	70.5	72.3	65.8
	50대 이상	67.7	54.8	66.9	68.1	63.7	64.0

남북 간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기회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영

남권에서는 각각 3.5%와 2.8% 감소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각각 2.9%와 8.3%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60%에서 수렴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80%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각각 7.2%와 10% 감소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각각 12.5%와 2.1% 증가하였다.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은 각각 1.7%와 9.3%, 1.2% 감소하였으나 호남권은 11.3%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60%대 중반으로 수렴되는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80%와 50%대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이 2.5%, 충청권이 9.9%, 호남권이 1.5%, 영남권이 10.1% 감소하였다.

표 1-III-4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기 회담	수도권	74.1	57.4	71.4	79.7	71.4	66.9
	충청권	70.3	76.0	77.1	79.2	79.9	82.8
	호남권	84.9	77.4	85.7	91.6	78.7	87.0
	영남권	73.1	67.2	70.4	63.4	65.9	63.1
사회문화 교류	수도권	67.0	54.4	66.7	71.4	66.2	64.5
	충청권	73.7	69.9	71.2	68.2	73.1	63.8
	호남권	81.5	73.3	77.3	82.4	68.7	80.0
	영남권	68.4	58.8	65.4	54.4	59.5	58.3

한편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6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



다. 2012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7% 줄어들었으나 2007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경제협력도 중단되었음에도,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III-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움됨	60.2	66.3	64.6	65.0	63.3
도움 안 됨	39.8	33.5	35.4	35.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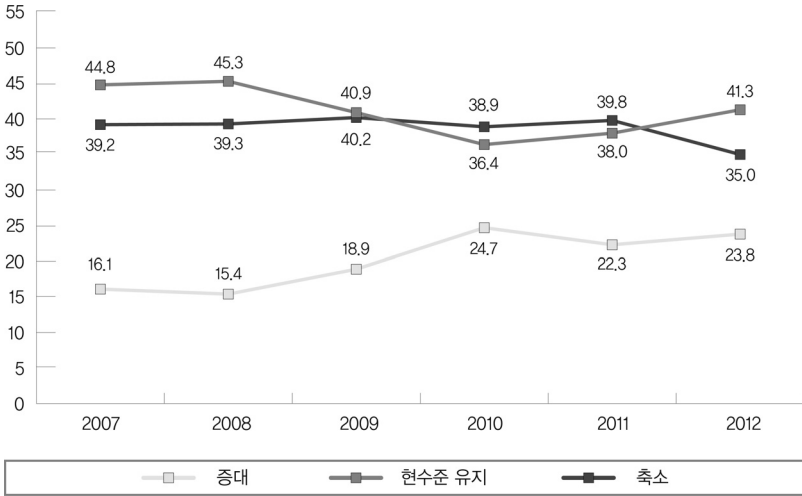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비교해서 19-29세는 0.7%, 50대 이상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와 40대는 각각 4.8%와 4.3%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편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9-29세와 30대, 50대 이상은 60%대 초반에서 수렴되는 반면 40대는 60%대 중반으로 분화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하면 19-29세와 30대는 비슷한 응답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6.5%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각 1.8%와 0.3% 감소하여 60%대 중반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영남권은 8.5% 감소하여 5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호남권은 2.7% 증가하여 70%대 중반으로 분화되고 있다.

**표 1-III-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지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대별	19-29세	62.7	66.9	62.7	62.0	62.7
	30대	62.0	67.4	63.8	66.5	61.7
	40대	59.3	69.6	66.6	70.1	65.8
	50대 이상	56.2	60.9	65.5	61.4	62.6
지역별	수도권	55.7	69.1	65.4	66.4	64.6
	충청권	60.4	70.3	68.2	64.1	63.8
	호남권	77.7	84.0	77.3	73.0	75.7
	영남권	60.2	53.4	58.3	62.7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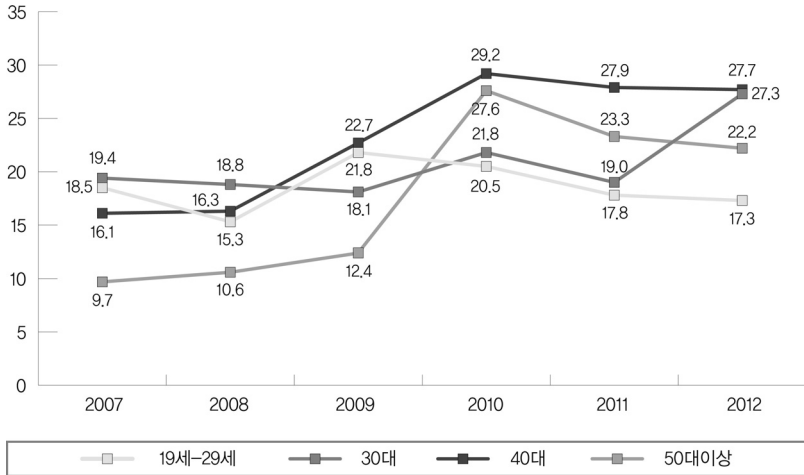
## 2.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대북지원 수준에 대해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 증가하였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 증가한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감소하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늘어난 반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5%와 4.2%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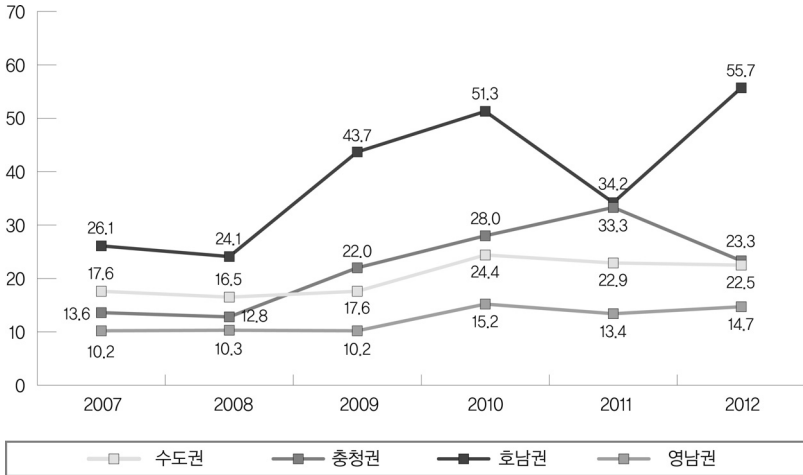
[그림 1-Ⅲ-2] 대복지원 수준의 적절성

연령대별로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27.3%와 27.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50대가 22.2%로 그다음을 차지한 반면 19-29세는 17.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9-29세와 40대, 50대는 각각 0.5%, 0.6%, 1.1% 줄어든 반면 30대는 8.3%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과 비교하면 19-29세에서는 감소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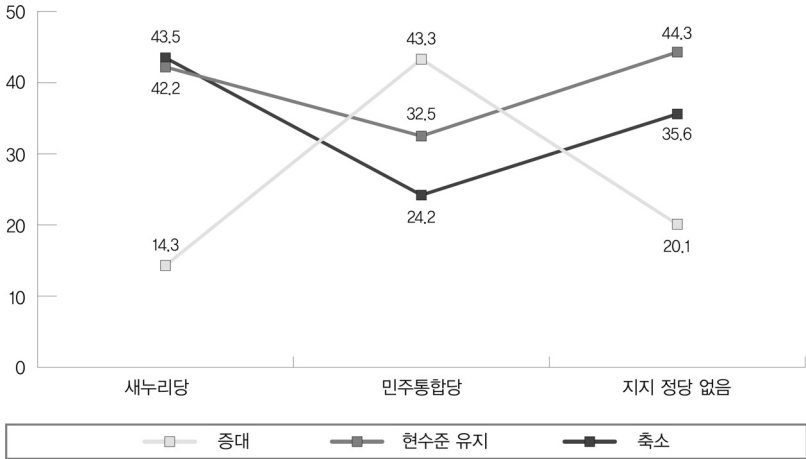
[그림 1-III-3] 연령대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지역별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면 호남권이 5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청권이 23.3%, 수도권이 22.5%로 그다음을 차지하였고 영남권의 경우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비호남권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각각 0.4%, 10.0% 줄어들었고 호남권에서는 21.5%로 급증하였으며 영남권에서도 1.3% 늘어났다. 2007년과 비교하면 전 지역에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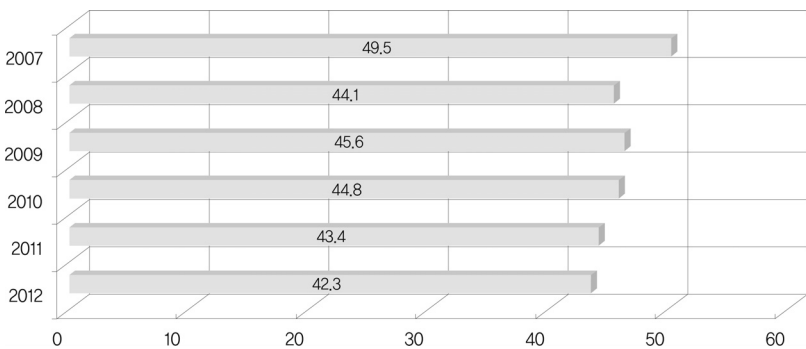
[그림 1-III-4] 지역별 대복지원 증대 인식 비율

한편 지지정당별로 대복지원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대복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대복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를 차지하여 민주통합당과 대조적인 인식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그림 1-III-5]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지정당별 인식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09년 약간의 증가를 제외하면 2007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42.3%를 나타냈다. 이는 2007년보다 7.2% 줄어든 수치이다.



[그림 1-III-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대북지원에 대해 현 수준 유지나 축소 응답이 높은 가운데,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품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분배투명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절반이 넘는 56.2%가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정권 유지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국민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는 낮은 수준에서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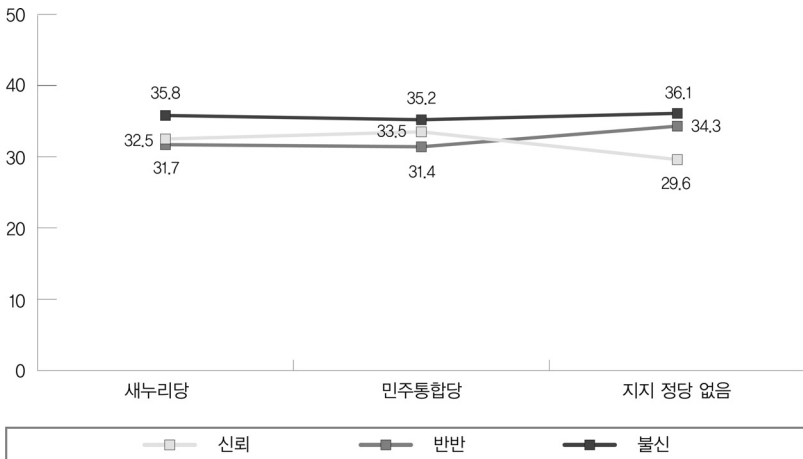
표 1-III-7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품 전달 안 됨	51.5	48.3	59.9	47.9	49.6	56.2
북한정권 유지	14.7	12.9	16.0	21.0	18.9	16.9
정치적 이용	13.8	11.3	12.8	19.8	17.9	14.3
국민 세금 부담 증가	18.5	25.8	9.1	10.1	11.2	11.9
기타	1.3	1.3	2.3	1.1	2.3	0.7

### 3.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 신뢰도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6%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고 '반반'이라는 응답도 34.3%나 되었다. 정부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33.5%보다 3.9% 하락한 것이다. 이는 응답자의 30% 미만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반면, 나머지 70% 이상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사실상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정부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2.5%에서 29.6%로 2.9%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0년도 35.8%에서 0.3% 증가한 36.1%로 나타났으며 ‘반반’이라는 의견은 2010년도 31.7%에서 2012년 34.3%로 2.6% 증가하였다.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던 층의 상당수가 ‘반반’이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III-7]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결과 신뢰도

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48.2%로 가장 높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의 경우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6.0%인 반면 불신한다는 응답이 36.4%, 반반이라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43.3%였으나 나머지 세대에서는 30.0% 이하



로 나타나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의 경우 49.6%에서 43.3%로 5.3% 하락하였고 40대와 30대, 19-29세는 각각 2.8%와 5.4%, 3.2% 하락하였다. 50대 이상과 30대에서의 신뢰도 하락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응답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19-29세에서 전년도보다 0.7% 하락하였으나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는 전년도보다 1.1% 하락한 39.0%로 나타났고, 40대에서는 전년도보다 3.4% 증가한 35.5%, 50대 이상에서는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27.8%를 기록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세대별 불신 정도는 19-29세에서 0.5%, 40대에서 2.4%, 50대에서 7.4% 증가한 반면 30대에서는 4.6% 하락하였다.

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13.8%와 14.8%로 10.0%대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29.3%로 나타났고 영남권은 37.8%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충청권이 31.8%에서 13.8%로 18.0%나 하락하여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정부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전년도보다 2.5% 하락한 47.8%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전년도보다 8.6% 하락한 38.8%, 수도권이 전년도보다 7.4% 상승한 37.2%로 나타났으며 영남권은 전년도보다 4.0% 하락한 31.7%를 기록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조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응답은 호남권에서 3.5% 하락한 반면 충청권에서 3.8%, 수도권에서 1.1%, 영남권에서 3.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4. 소결

이제까지 대북정책 일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남북 간 정기적인 회담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그다음을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지원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 대화나 교류협력, 대북지원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2008년 하반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면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하면서 붕괴할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급변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통일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경제협력의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2007년 이후 꾸준히 60%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대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60%대 초중반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반면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가장 높고 영남권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호남권과 영남권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이 그 중간 수준에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반면 영남권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지난해보



다 조금 낮아짐으로써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섬으로써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 규모 증대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30대에서 많이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조금씩 감소하였고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호남권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은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9년만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배 투명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지적한 가장 많은 이유는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가 지적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늘리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대북지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로 분배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결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불신하거나 반반이라는 응답이 모두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부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70% 이상의 국민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로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북교류협력을 재개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단시켰던 원인을 적절한 수준에서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천안함사건은 대북교류협력과 심지어 인도지원마저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시킨 2010년 소위 '5.24 조치'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다.



##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2012년 10월 현재, 한국사회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은 총 24,308명이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면 2만 4천여 명이라는 숫자 그 자체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 군 단위 인구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출신주민들과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남한출신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일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소수자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한 통합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한출신주민들이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 의견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다수자인 남한출신주민들의 생각과 태도, 의견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인식과 남한사회에 대한 태도,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

며, 이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남북한 출신 주민들 간 관계의 역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의 흐름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만이 아니라 다가올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한출신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만이 아니라 남북통합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출신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sup>5</sup>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합리성, 비용 대비 효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남한출신주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타당성 제고와 방향설정,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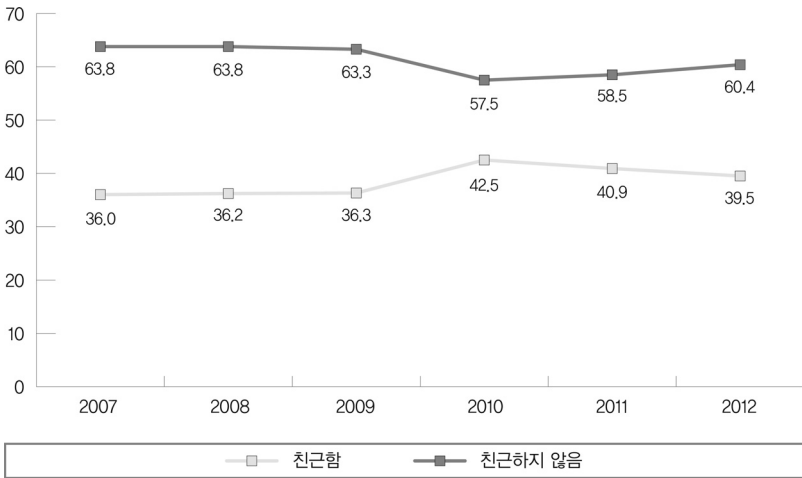
이에 이 글에서는 2012년 통일외식조사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2007년-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총 4가지 영역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 상대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경쟁에 대한 의견) 등이다.

5-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인식을 남한출신주민들의 인식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그러나 2012년 통일외식조사의 대상자들 중 북한이탈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국민’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39.5%였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60.4%였다. 아직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보다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1.4% 줄었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1.9%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IV-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응답자 특성별로 나타난 응답률 분포를 보면, 가장 친근감을 많이 보인 그룹과 가장 적게 보인 그룹 간에 5%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경우는 성,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성별로는 남성(42.3%)이 여성(36.6%)보다 친근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로는 50대 이상이 42.7%로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40.7%), 20대(37.6%), 30대(35.8%)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대와 30대의 순서가 바뀌었고 가장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세대(50대)와 가장 적게 느끼는 세대(30대) 사이의 차이는 15%에서 6.9%로 줄어들었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가장 많이 표시한 반면(57.1%), 전업주부는 31.6%에 머물러 응답률에 있어 25.5%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강원권은 27.8%, 영남권은 32.4%에 머무는 반면, 제주 53.8%, 충청권 44.8%, 수도권 42.9%에 달한다. 호남권은 37.4%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재학 이상이 41.6%, 고졸이 37.7%, 중졸 이하가 38.7%였으나, 그룹 간 차이가 그리 크진 않았고, 소득수준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도 진보적 성향(41.2%), 중도적 성향(39.8%), 보수적 성향(37.0%)이 서로 5% 미만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중 친근함을 느끼는 비율이 2011년 조사 시보다 8.8%나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1년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 중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였고, 중도, 보수는 각각 37.2%, 37.6%였다.

##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네 개의 질문 가운데에서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묻는 두 질문의 경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꺼린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사업동업자' 로서는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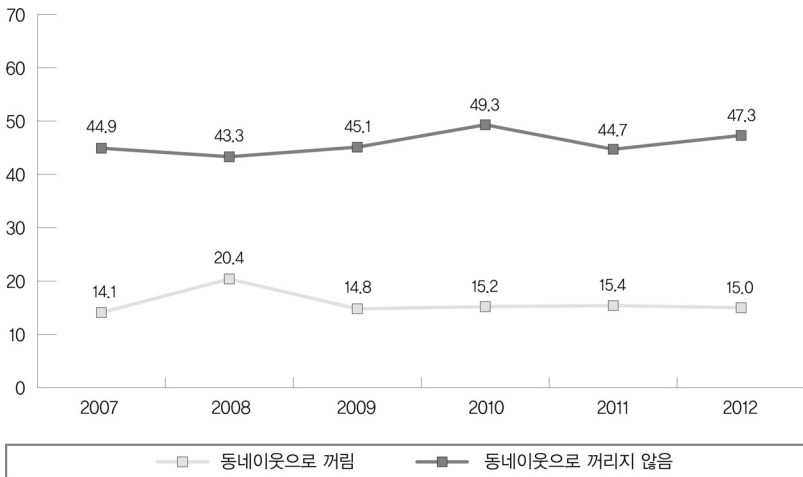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는 ‘꺼린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의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또한 ‘동네이웃’과 ‘직장동료’로는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었으나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는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사업동업자와 같이 이해관계가 걸린 관계나 결혼상대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느끼는 부담감이 ‘동네이웃’, ‘직장동료’처럼 가벼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꺼리는 현상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고려할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로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30%대 중반을 차지하고, ‘결혼상대자’의 경우도 30%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응답을 부정적인 정서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 남한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더 커진다. 그러나 2011년 대비해서 살펴보면 긍정적 징후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업동업자’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 1) 동네이웃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서의 관계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으며, ‘꺼려진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7.7%였다. 2011년에 비하면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

답이 2.6% 늘어났고 ‘꺼려진다’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긍정적 반응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2010년(49.3%)을 제외하면, 2007년 첫 조사 이래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림 1-IV-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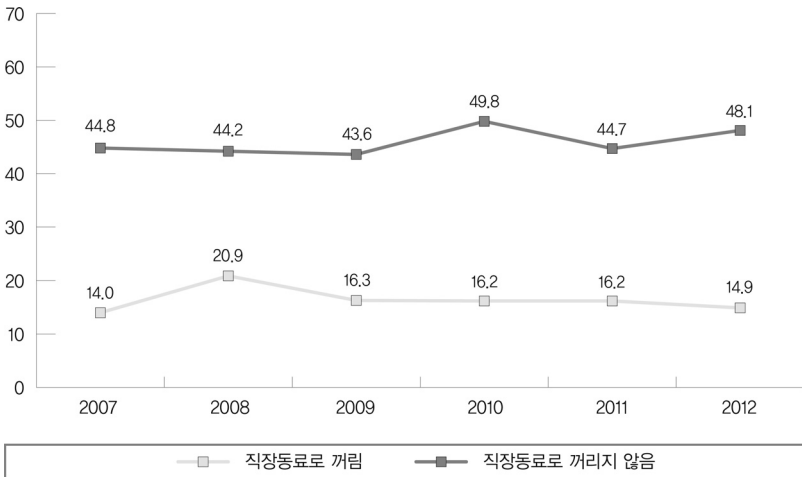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꺼려진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성, 학력, 연령,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여성(18.3%)이 남성(11.8%)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21.7%, 고졸 15.3%, 대재 이상 13.4%) 꺼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11.4%) 대비 50대 이상(17.7%),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12.9%) 대비 전업주부(21.9%)와 농수축산업 종사자(21.4%)가, 소득수준별로는 400만 원 이상(11.5%) 대비 200만 원대(18.8%)와 200만 원 미만(17.3%)이, 그리고 강원(8.3%) 대비 호남권(24.3%)이 꺼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진보(17.1%)가 중도(14.0%)나 보수(14.6%)보다 꺼리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 2) 직장동료

‘북한이탈주민과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48.1%, ‘꺼려진다’는 응답은 14.9%,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7.0%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3.4% 증가했고 부정적 반응은 1.6% 감소했다. 2007년 이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49.8%) 다음으로 우호적 응답률이 높았고, 부정적 응답률은 여섯 해 중 가장 낮았던 2007년 14%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IV-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꺼려진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성, 학력, 직업, 가

구소득수준,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여성(18.0%)이 남성(12.0%)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26.4%, 고졸 14.8%, 대재 이상 12.6%)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비율이 높았다. 중졸이하가 고졸이나 대재 이상보다 10% 이상 꺼리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21.4%)과 전업주부(20.3%)가 다른 직군(화이트 칼라 12.9%, 자영업 13.5%, 블루칼라 14.9%)에 비해 꺼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의 경우 399만 원까지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꺼리는 비율이 높았고(200만 원 미만 20.7%, 200-299만 원 16.7%, 300-399만 원 12.9%), 400만 원 이상(13.1%)에서 300만 원대보다 다시 약간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23.5%)이 다른 지역(강원 0.0%, 충청권 8.6%, 수도권 14.0%, 제주 15.4%, 영남권 17.6%)에 비해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남권에서 꺼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1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2011년 대비 영남권의 부정적 응답률이 6.4% 줄어든 반면, 호남권의 부정적 응답률은 7.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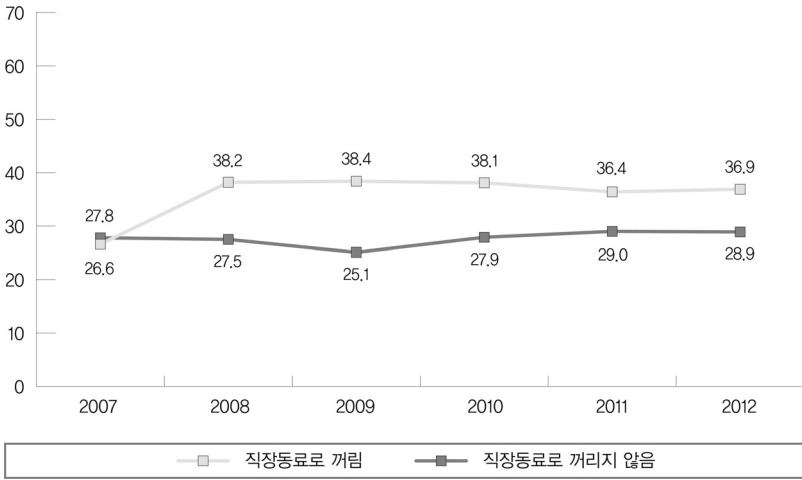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 16.3%, 40대 15.6%, 30대 15.2%, 20대 11.8%) 꺼리는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연령별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았고, 진보(17.4%)가 중도(13.7%)나 보수(14.6%)보다 꺼리는 비율이 높긴 했지만 역시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3) 사업 동업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은 36.9%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28.9%,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4.2%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를 묻는 질문의 응답



에서 꺼리지 않는 비율이 꺼리는 비율보다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2011년 결과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이다.



[그림 1-IV-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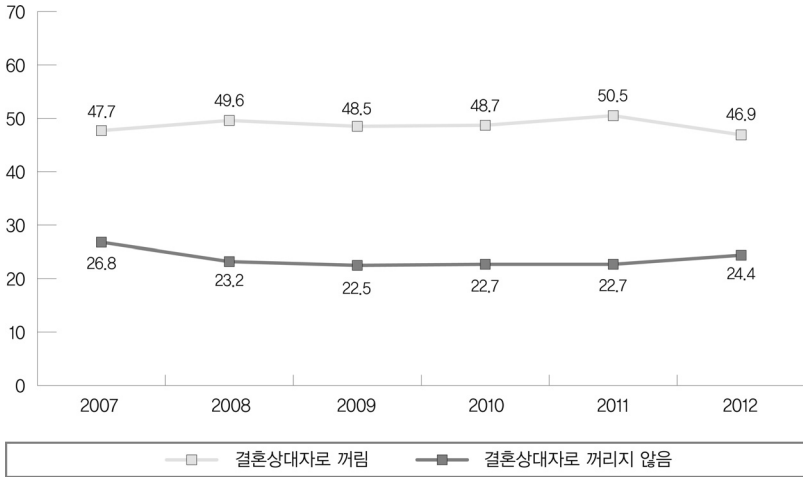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꺼려진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간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40.7%)이 20대(33.7%)에 비해, 교육수준은 낮을수록(중졸 이하 49.1%, 고졸 36.8%, 대재 이상 34.6%) 꺼려진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은 15%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특이점은 이웃 및 직장동료로서 관계의 경우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블루칼라 노동자들(40.8%)이 사업동업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하기를 가장 꺼린다는 것이다. 이는 화이트칼라 34.5%와 대비해서는 물론, 이웃 및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농수

축산업(35.7%) 및 전업주부(36.9%) 보다도 높은 수치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40.0%)과 200만 원대(39.9%)가 400만 원 이상(33.6%)보다 꺼리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47.8%)이 다른 지역(강원 16.7%, 수도권 33.1%, 제주 38.5%, 영남권 41.0%, 충청권 41.4%) 대비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43.8%)가 중도(32.8%) 및 진보(38.4%) 대비 부정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39.2%)이 남성(34.8%)보다 꺼려진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다른 질문의 응답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

#### 4)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서 관계맺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46.9%,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4.4%였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28.7%였다. 꺼려진다는 응답이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의 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는 아직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대비 ‘꺼려지지 않는다’는 1.8% 상승, ‘꺼려진다’는 3.8% 줄어든 것이며,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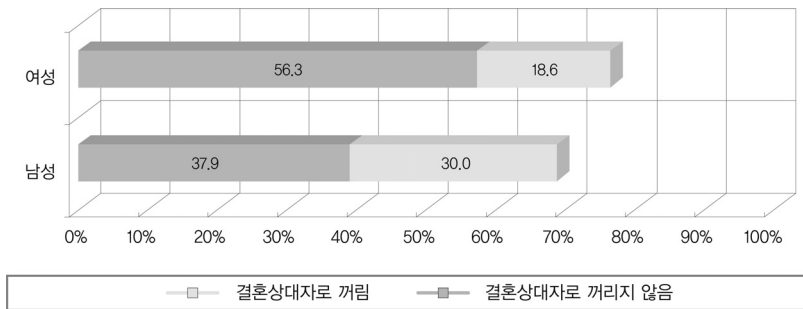


[그림 1-IV-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꺼려진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성, 교육수준, 직업, 지역,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특히, 성별 격차가 컸는데 여성(56.3%)이 남성(37.9%)보다 ‘꺼린다’는 비율이 18.4%나 높았다. 이는 직업별 응답에서 다른 직업에 비해 전업주부(56.1%)가 ‘꺼리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32.1%만이 꺼린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2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질문에 관한 직업별 응답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동네이웃 및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전업주부와 함께 상대적으로 가장 꺼리는 비율이 높았던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덜 꺼리는 집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상대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결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55.7%), 고졸(47.5%), 대졸(44.6%) 순으로

꺼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19.4%)이 가장 우호적이고, 영남권(59.3%)이 가장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꺼리는 비율이 가장 큰 보수(51.2%)와 가장 적은 중도(43.5%) 사이는 꽤 큰 차이가 났으나 막상 보수와 진보(49.4%)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연령이나 가구소득수준별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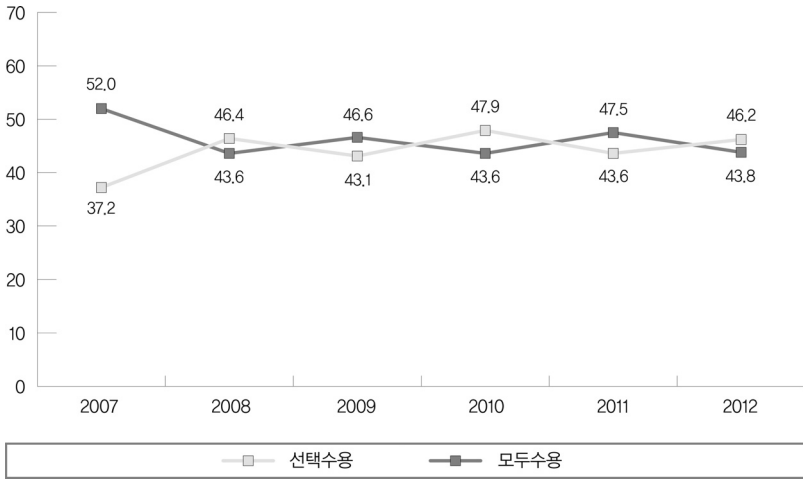
[그림 1-IV-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관련된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43.8%,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46.2%로 비슷했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9.9%였다. 이는 2011년 결과에 비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3.7% 감소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6% 증가한 것으로서 전원수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조사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률을 앞섰던 결과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그림 1-IV-7]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이를 다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성,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6.4%)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5.4%)보다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선택적 수용이 46.9%로 전원 수용을 지지한 비율 41.2%보다 높았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여성(11.9%)이 남성(8.0%)보다 3.9% 높아 전반적으로 여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입장 차이 또한 컸다. 중졸 이하는 평균보다 ‘모두 수용’ 의견이 훨씬 적었고(중졸이하 25.5%,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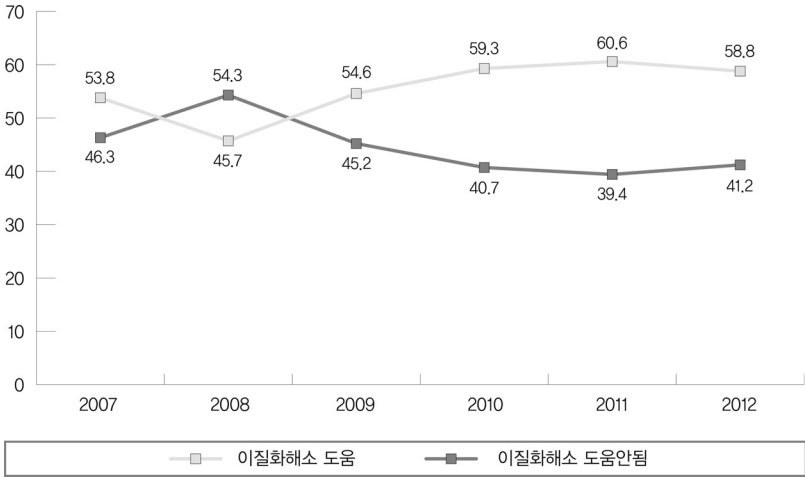
41.3%, 대재 이상 50.0%),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졸 이하 22.6%, 고졸 10.5%, 대재 이상 6.7%).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응답률이 특징적인데,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이 64.3%로 가장 소극적인 전업주부(38.0%), 블루칼라(39.6%)에 비해 매우 큰 수용률을 보였다. 전업주부의 경우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8.7%로 블루칼라(10.8%)보다도 훨씬 더 탈북자의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400만 원 이상(48.4%)이 200만 원 미만(40.7%), 300만 원대(41.6%), 200만 원대(42.8%)보다 전원수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한 편이다. 강원은 ‘모두 수용’이 86.1%, ‘선택 수용’이 13.9%인 반면, 영남권은 모두 수용이 38.1%, 선택적 수용이 50.3%로 나타났다. 영남권 다음으로는 수도권(42.3%)이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진보는 54.6%, 보수는 33.1%가 동의해서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유일하게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우며 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58.8%,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41.2%로 2011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답변이 1.8% 줄어들었고 부정적 답변은 1.8%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1-IV-8]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성,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남성(62.0%)보다 여성(55.6%)이,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50.0%, 고졸 56.1%, 대재 이상 63.4%)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71.4%)가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이 큰 반면 블루칼라(53.5%)와 전업주부(54.0%)가 가장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도 17% 안팎에 이른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53.3%)이 400만 원 이상(60.9%)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이질화 해소 기능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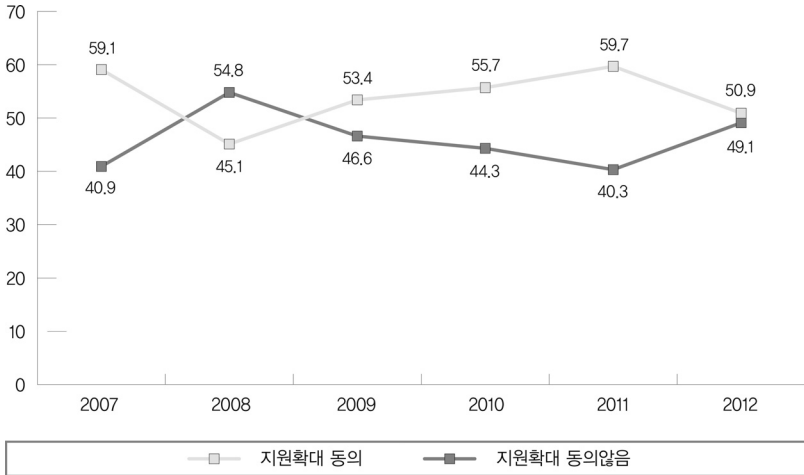
지역적으로는 강원이 77.8%로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충청권은 55.2%로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55.2%의 동의율에 머문 반면 진보적 성향은 이보다 6.7% 높은 61.9%를 나타냈다.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58.9%가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연령별로는 20대(60.4%)가 50대 이상(57.0%)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질화 해소 기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 30대(58.5%)보다는 40대(29.9%)가 찬성비율이 더 높아 연령이 결정적 변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인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0.9%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응답 49.1%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조사결과보다 반대의견이 8.8% 늘어난 것으로 2009년부터 지원확대에 대한 동의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자원압박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나 보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1-IV-9]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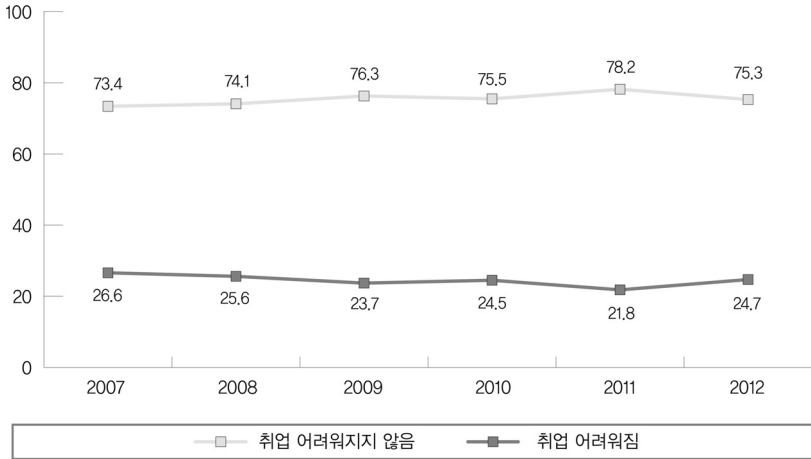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 그리고 정치성향 등 모든 기준에서 지원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지역, 그리고 정치성향별 차이는 15% 이상으로 매우 컸다.

성별로는 남성(55.7%)이 여성(45.9%)보다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10% 가까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54.5%)가 50대 이상(49.2%)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30대(48.2%)는 40대(52.4%)보다 찬성비율이 낮았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대재 이상 57.2%, 고졸 47.8%, 중졸 이하 34.9%), 특히 대재 이상과 중졸 이하는 20%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차이도 꽤 있었다. 자영업(54.5%), 화이트칼라(54.6%)가 농수축산업(42.9%), 블루칼라(44.9%), 그리고 전업주부(46.0%) 대비 지원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200만 원 미만(54.7%)과 400만 원 이상(52.7%)이 300만 원대 (47.25) 대비 유사한 정도의 찬성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76.9%)와 호남권(71.3%)이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영남권(31.4%)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강원(58.3%), 수도권(55.3%), 충청권(55.2%)은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진보의 경우 61.0%가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데 반해 보수의 경우 4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8.7%의 차이를 보였다.

### 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4.7%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75.3%로 북한이탈주민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보는 견해는 아직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서는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2.9% 늘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6년의 조사결과를 함께 살펴볼 경우 아직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10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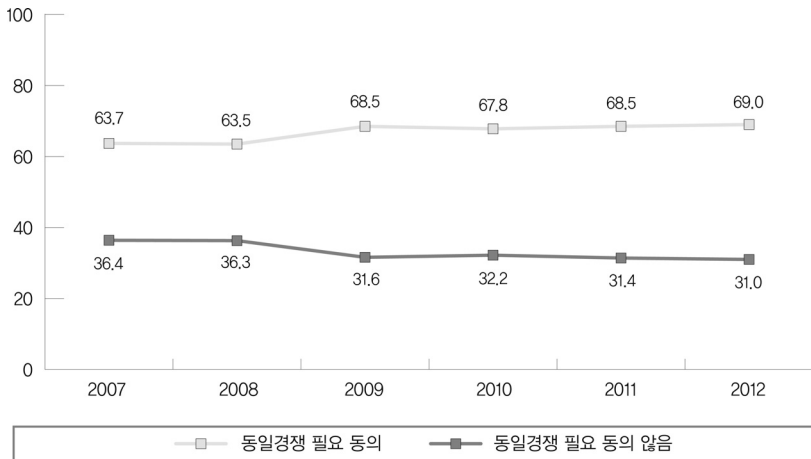
[그림 1-IV-10]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이를 다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룹과 가장 적게 한 그룹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는 연령, 가구소득수준, 지역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였다. 그러나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만큼 그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28.6%)가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다음은 30대(25.9%), 50대 이상(23.0%), 그리고 40대(22.1%) 순이었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300만 원대(27.3%)가 다른 소득수준 대(200만 원대 22.2%, 200만 원 미만 23.3%, 400만 원 이상 24.6%)보다 동의율이 높은 비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17.9%)이 다른 지역(충청권 31.9%, 제주 30.8%, 호남권 27.0%, 수도권 26.2%, 강원 25.0%)보다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낮았다.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차이는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에 비해 미미했고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도 별로 없었다.

#### 4)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쟁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69.0%가 동의했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31.0%에 그쳐 응답자의 3분의 2가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한 찬반 응답률은 지난 2009년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IV-11]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에 대한 견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직업, 지역,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 가장 많은 동의를 한 그룹과 가장 적은 동의를 한 그룹 간의 차이가 5%를 넘어섰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89.3%)이 북한이탈주민들도 동일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찬성했으며, 자영업자가 72.7%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전업주부는 66-67%대



로 비슷한 찬성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76.9%)가 동일경쟁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충청권(75.0%), 호남권(73.9%), 영남권(71.8%)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58.3%로 가장 낮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동일경쟁 찬성 비율은 진보 75.0%, 보수 72.2%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중도가 64.1%의 낮은 찬성률을 보여 특이한 양상을 띠었다.

## 5. 소결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3분의 2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감도 상당하다. 서로의 삶이 많이 엮히지 않아도 되는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는 절반 정도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개입되는 사업 동업자나 깊은 친밀감이 요구되는 결혼상대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수용을 선호하는 사람이 전원 수용 선호자보다 조금 더 많고, 10명 중 한 명꼴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16.6% 높았으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거의 비슷했다.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취업을 둘러싼 자원 경쟁의 상대로 바라보는 경향은 적으나, 조직에서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 인식의 흐름 가운데 발견한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전원 수용에 대한 동의,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역할에 대한 평가, 지원강화에 대한 동의, 취업 경쟁자로의 인식 여부, 그리고 동일경쟁의 필요성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2011년보다 우호적 견해가 줄어들었다. 물론 사회적 거리감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업 동업자 외에는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씩 늘었고 우호적인 견해가 줄어든 질문에 대한 응답도 그 변화의 정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경우도 있지만 2012년의 전반적인 추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수립 및 진행뿐 아니라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인식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감소는 냉전적 상황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찾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어 보인다. 2011년 대비 부정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이 지원 강화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이고, 그다음이 무조건적 수용 관련 문항, 그리고 취업 경쟁자로의 인식 관련 문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자원압박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는 추측이 힘을 얻는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비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단초가 되며,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적은 정서적 영역의 이슈 관련된 문항, 특히 사회적 거리감 관련 응답을 보면 국민들은 자신과 긴밀히 얽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용인할 수 있지만, 유의미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우호적 답변이 급격히 늘었던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동네이웃, 사업 동업자, 결혼 대상자 모두 추세적으로는 우호적 답변이 늘었다. 그러나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용인이 되는 관계가 사업동업자나 결혼대상자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국민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임은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감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서는 것도 아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출신주민들 간 접촉의 지대가 넓어지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일정 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치밀한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접촉이론에서 긍정적 접촉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남북한 출신의 주민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2011년에 이어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의식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그룹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블루칼라, 농수축산업자, 지역별로는 영남권,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보수적 응답자,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가구소득수준 별로는 2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이들 중 여성, 20대, 전업주부, 블루칼라, 농수축산업자, 중

졸이하,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소수자들로서,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해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또한, 50대 이상, 영남권, 그리고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과 엮어서 사고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여성들의 전반적이고 일관된 부정적 인식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교육 및 정책수립을 해 나갈 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또한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불안정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맥락화된 합의구축의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 V.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지난 6년간 우리 국민들은 역동적인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주변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 왔을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겪으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5.24 남북교류협력 전면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1년 겨울에는 17년간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이 이뤄졌다.

소위 G2로 대변될 정도로 세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견줄 만큼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과 자국 내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2011년 일본은 지진

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12년 들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열을 올리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 및 대외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가진 인식의 필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주변 환경을 해석하기도 한다. 이 장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주변국과 대외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가장 위협적인 국가,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와 북중 협력 강화가 대중국민인식의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다섯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V-1>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까지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후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하락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남북 간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은 북한



을 반드시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일본	11.6	9.4	8.6	9.5	9.1	6.8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중국	10.2	7.8	6.1	4.2	5.3	5.8
러시아	0.9	1.7	1.0	0.8	0.8	0.9

N = 7,192 (무응답 제외),  $\chi^2 = 144.14$ ,  $p < 0.01$

미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약간씩 감소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약 5%가량 감소한 것이다. 반면 북한을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20.6%까지 약 5%가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 4월 북한의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11월 연평도사건 등을 거치면서 2009년부터 2011년 조사에서의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15% 수준에서 담보하였지만, 2011년 가을 이후 북한의 물리적 안보위협 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2년 조사의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2007년 10.2% 이후 2010년 4.2%까지 감소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는 5.3%와 5.8%로 소폭 상승하였다.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친밀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큰 차이를 찾기 힘들다. <표 1-V-2>에 나타나듯이 2010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남성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여성의 미국에 대한 친밀감보다 적게는

2007년 1.6% 많게는 2009년 7.0% 차이가 났다. 여성들이 근소하게나마 북한과 중국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1-V-2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성별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남성	54.1	63.0	71.8	70.6	72.5	66.2
	여성	52.5	58.4	64.8	70.9	65.1	65.6
북한	남성	25.5	19.7	14.6	15.6	13.6	21.0
	여성	22.4	21.0	17.3	14.0	18.6	20.2
중국	남성	9.7	6.5	5.0	4.5	4.8	6.2
	여성	10.7	9.1	7.2	3.9	5.8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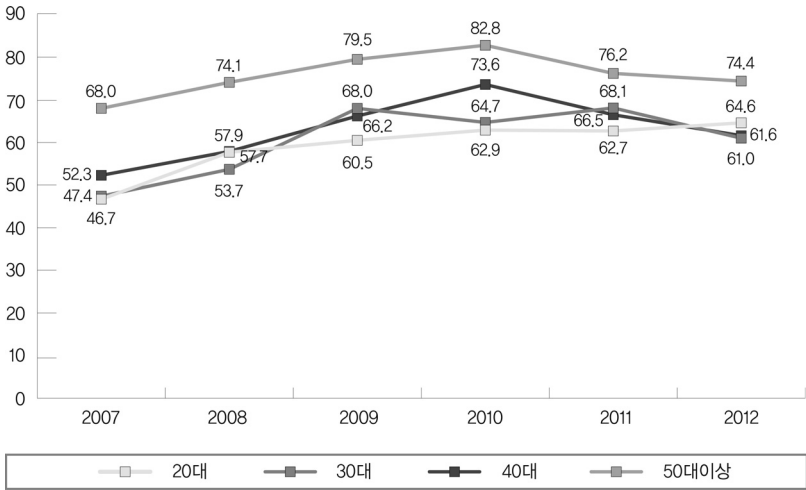
### 1) 대미친밀도: 전반적인 감소추세 확인

대미친밀도의 연령별 변화의 추이는 [그림 1-V-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2012년 조사결과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으로 74.4%의 응답자가 미국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라고 하였다. 20대의 64.6%가 미국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40대의 대미친밀도가 가장 낮아 각 연령대 응답자의 61.0%와 61.6%가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20대의 대미친밀도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하게 약 13% 정도 증가한 이후 갑작스러운 증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30대와 40대보다 높은 대미친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30대의 대미친밀도는 2011년 68.1%에서 2012년 61.0%로 떨어졌으며,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대미친밀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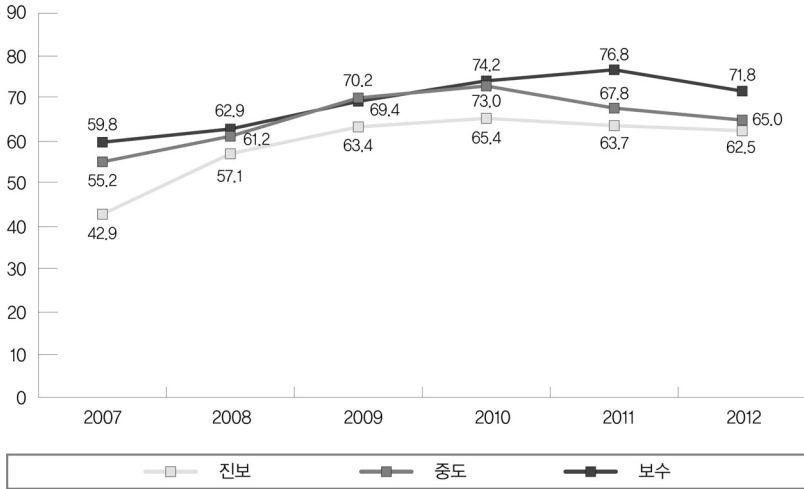


2010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10년과 2012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두 연령대의 대미친밀도는 각기 12.0%와 8.4%씩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V-1] 연령별 대미친밀도

대미친밀도를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정치적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든 이념별 그룹에서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1-V-2]에 나타나고 있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도층과 보수층의 대미친밀도가 증가하면서도 수렴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 조사를 기점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중도층의 친밀도가 진보층의 친밀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층의 친밀도와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1-V-2]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2007년 이후 대미친밀도의 상승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 이명박 정부의 한미공조 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안함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의 위협과 사건해결을 위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 등은 보수층에게는 대미친밀도의 상승 요건으로, 중도층과 진보층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남북관계 및 군사적 긴장의 악화보다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가 증가하면서 대북친밀도가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미친밀도가 낮아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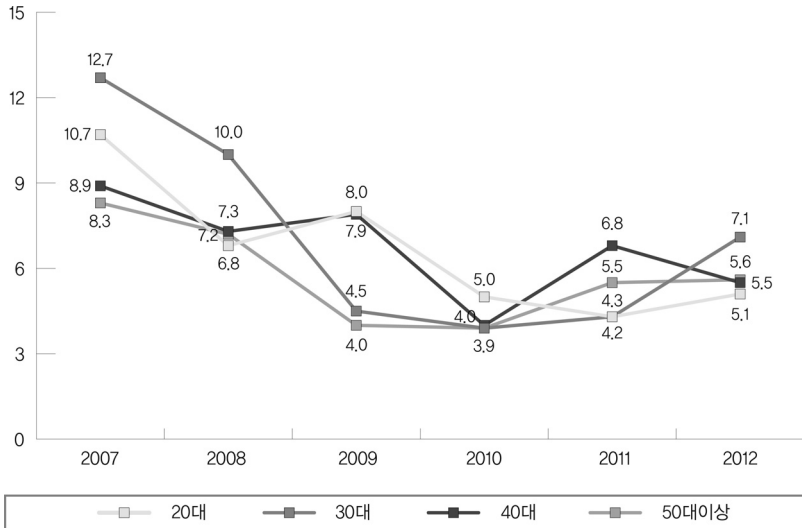
중도층의 대미친밀도 이동은 2010년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념집단 간 대미친밀도의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모든 집단의 60% 이상의 응답자



들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라고 응답하고 있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미친밀도는 적게는 5.8% 많게는 17%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진보층과 보수층의 대미 인식이 아주 상반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진보층의 대미친밀도의 절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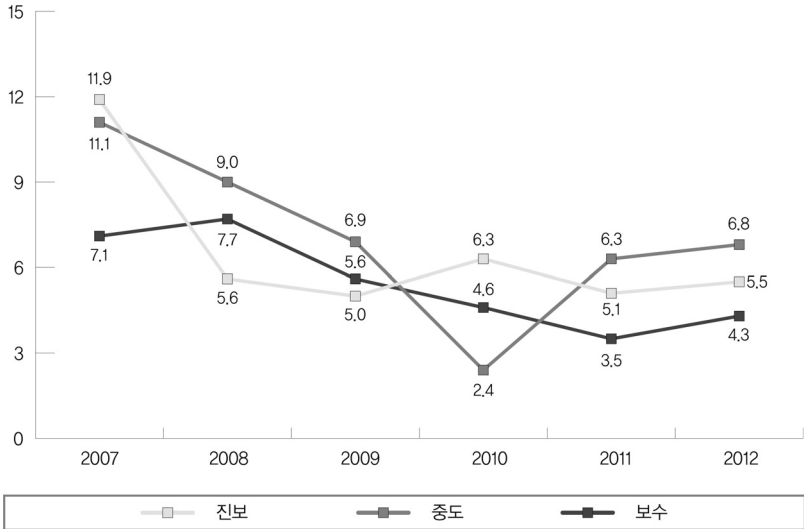
## 2) 대중친밀도: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2007년 이후 대중친밀도는 평균 6%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0대의 대중친밀도가 2011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조사의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약 3%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는 2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대의 대중친밀도는 약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약 5% 정도로 수렴되고 있다. 2010년까지 급락했던 대중친밀도가 아주 작은 폭이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 변화의 폭도 대북친밀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상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여름부터 격화되고 있는 한·중·일의 영토분쟁과 이에 따른 민족감정의 악화가 앞으로 대중친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V-3] 연령별 대중친밀도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는 [그림 1-V-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중도층의 대중친밀도가 약 4%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2009년까지는 진보층이 제일 낮은 대중친밀도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보수층의 대중친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수층의 대미친밀도가 아주 높게 형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대중친밀도가 6.8%까지 회복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중친밀도 조사결과는 중도층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 대중친밀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중도층에게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이슈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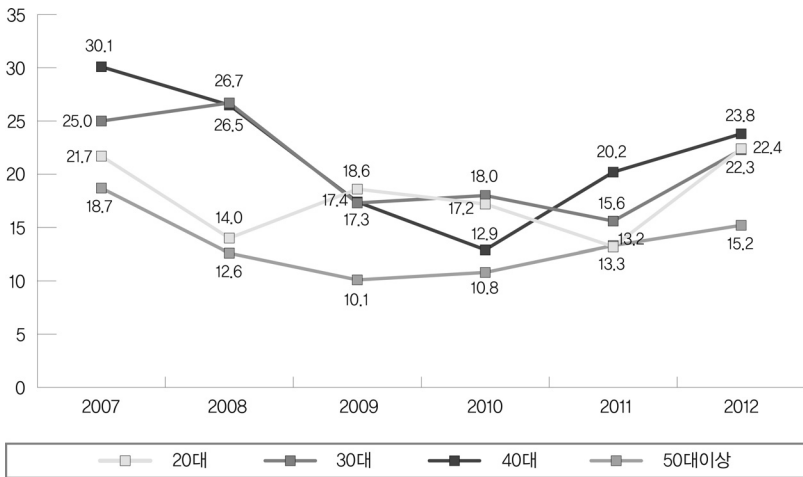
[그림 1-V-4]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 3) 대북친밀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유지

지난 6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북친밀도는 대미친밀도와 역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표 1-V-1>에 나타나듯이 2010년까지의 대미친밀도의 증가는 대북친밀도의 감소로, 이후 대미친밀도의 감소는 대북친밀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변화의 폭은 대중친밀도의 변화폭을 함께 고려할 때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역관계 추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대북친밀도의 변화는 [그림 1-V-5]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는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대북친밀도가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2년에는 전 연령대의 대북친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50대의 대북친밀도도 200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다른 연령대의

대북친밀도는 약 23%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30대 연령대에서 대일친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 점도 2012년 대북친밀도가 상승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대에 따른 국민들의 대북친밀도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V-5] 연령별 대북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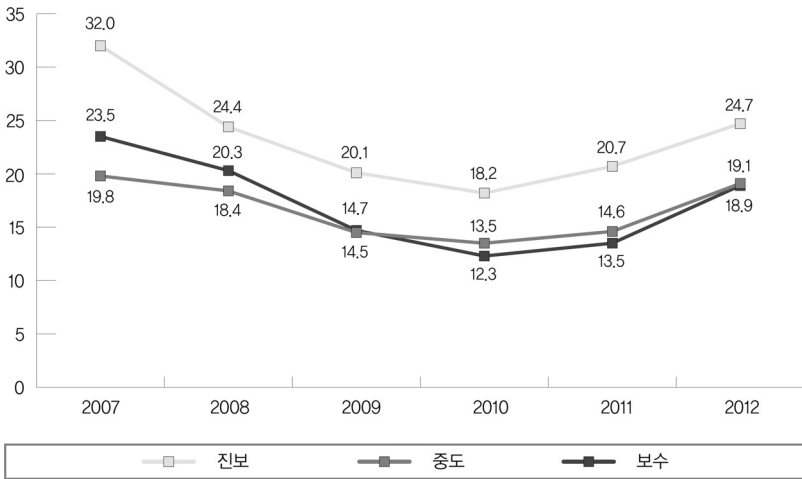
대북친밀도의 변화폭은 40대에서 가장 크게 발견된다. 2010년까지 약화되었던 40대의 대북친밀도는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흔히 486세대로 대변되는 현 40대의 정치적 관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점이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였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6</sup> 2011년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

6.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40대와 50대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07년 조사부터 일관되게 20대와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널리 확산되고 김정은 체제가 불안할 것이라는 예상들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면서 위협인식이 감소하면서 대북친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V-6]은 북한에 대한 친밀도의 변화를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진보층의 대북친밀도는 2011년 20.7%에서 2012년 24.7%로 증가하였으며, 중도와 보수층의 대북친밀도는 각기 2011년 14.6%, 13.5%에서 2012년 19.1%, 18.9%로 증가하였다. 모든 조사에서 진보층의 대북친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와 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대북친밀도가 형성되고 있다. 세 이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2010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U자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층과 다른 두 집단 간에 친밀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변동의 폭은 크지 않으며 추이의 변화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1-V-6]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 통일의식조사는 주변국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우리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중요한 지표로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국가별 위협도를 조사하고 있다. 친밀도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5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위협도의 상승은 다른 국가의 위협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V-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21.2	16.0	12.5	8.3	8.6	9.5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중국	15.6	14.6	15.9	24.6	33.6	30.5
러시아	1.3	1.2	1.1	1.2	0.3	0.4

<표 1-V-3>에 의하면 2012년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까지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9년 조사부터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위협인식은 1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30%가 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일위협도, 대미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되었다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의식이 형성되고 있으나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서해에서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이어도 분쟁,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대국으로서의 부상 등도 중국의 위협도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요소라 하겠다.

**표 1-V-4** 주변국가의 위협도: 성별 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남성	20.5	13.9	11.6	9.0	7.9	9.3
	여성	21.9	18.0	13.4	7.6	9.3	9.7
북한	남성	33.9	34.2	54.6	53.8	46.5	47.1
	여성	38.3	33.3	51.2	57.5	45.4	47.6
중국	남성	16.1	14.6	17.7	26.6	35.2	32.8
	여성	15.0	14.7	13.9	22.5	31.9	28.1

주변국가의 위협도에 대한 성별 비교의 결과는 <표 1-V-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에서는 친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여성들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외 정책의 이슈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인식의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더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정세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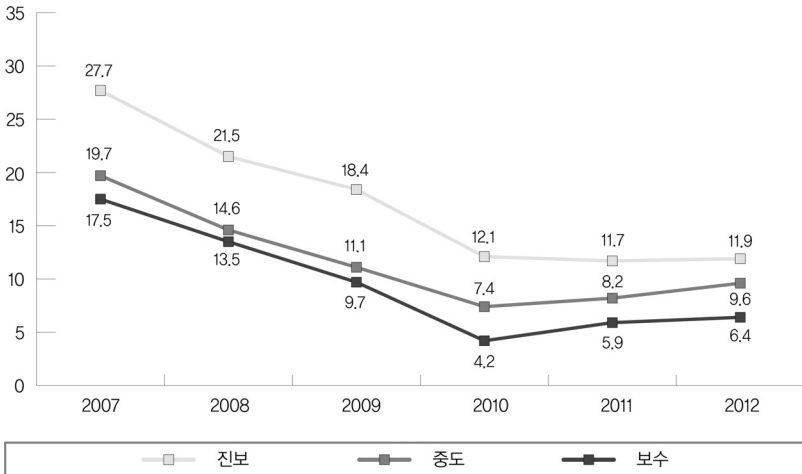
<표 1-V-5>에 나타난 연령별 대미위협도의 추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연령층의 대미위협도가 감소하여 약 10-12% 정도에서 수렴되고 있다. 둘째, 연령층 간의 대미위협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반미감정이 널리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는 추가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위협도가 증가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세대가 수렴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1-V-5 연령별 대미 위협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33.9	21.6	20.2	11.9	12.0	11.0
30대	23.1	17.2	13.5	9.3	8.9	12.1
40대	15.4	15.9	12.1	6.9	10.4	9.5
50대 이상	11.5	9.6	3.6	4.7	4.1	6.5



대미위협도의 응답자 자신의 정치적 이념형에 따른 결과는 [그림 1-V-7]과 같이 나타난다. 대미위협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념형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지속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에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림 1-V-7]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세 집단의 대미위협도가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층의 응답자들 간 인식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친밀도의 상승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약화로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2)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연령별 대중위협도는 2011년까지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0대의 대중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20대의 대중위협도가 다른 세대의 그것과 달리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세대의 대중위협도는 감소하였다. 20대와 50대의 대중위협도가 다른 세대들보다 약 5% 정도 낮게 나타나지만 세대 간 격차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표 1-V-6 연령별 대중위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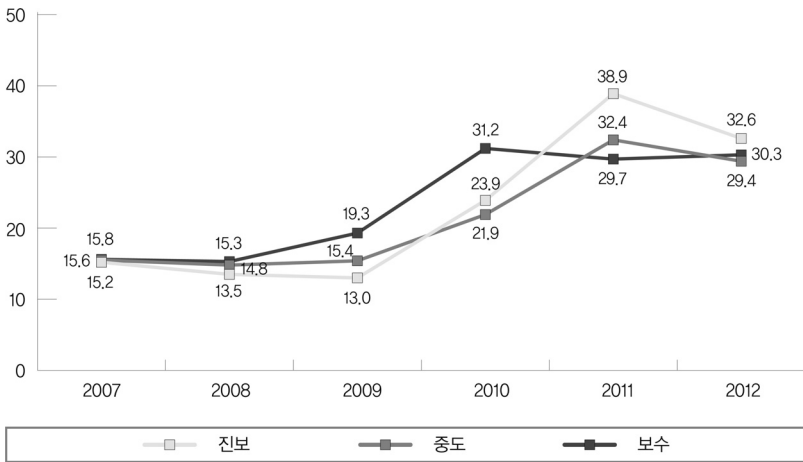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12.0	13.4	9.6	23.2	24.0	28.2
30대	13.1	14.6	18.0	25.6	36.4	32.6
40대	18.4	14.4	15.4	28.0	39.4	33.9
50대 이상	19.1	16.0	20.7	21.2	33.0	27.5

[그림 1-V-8]에 나타나듯이 통일의식조사 실시 첫해인 2007년에는 진보, 중도, 보수 이념집단이 느끼는 대중위협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점차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보수의 대중위협도는 19.3%, 진보는 13%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천안함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가 23.9%까지 급상승하였고, 보수의 대중위협도도 31.2%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진보와 보수의 대중위협도 증가추세가 역전되어 진보층의 대중위협도가 보수층의 대중위협도보다 약 9.2%가량 높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중도의 대중위협도가 감소하고 보수의 대중위협도가 변하지 않고



30% 선에서 유지되어 이념집단 간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진보층의 응답자들의 대중위협도가 보수층의 대중위협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대중위협도와 대북위협도를 비교해보면, 진보층의 대북위협도의 증가와 대중위협도의 감소가 맞물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층의 대북위협도는 2010년 50.4%, 2011년 37.1%, 2012년 42.1%로 나타난 반면, 진보층의 대중위협도는 2010년 23.9%, 2011년 38.9%, 2012년 32.6%로 나타나 대북위협도의 증가는 대중위협도의 감소로,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 진보층의 응답자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V-8]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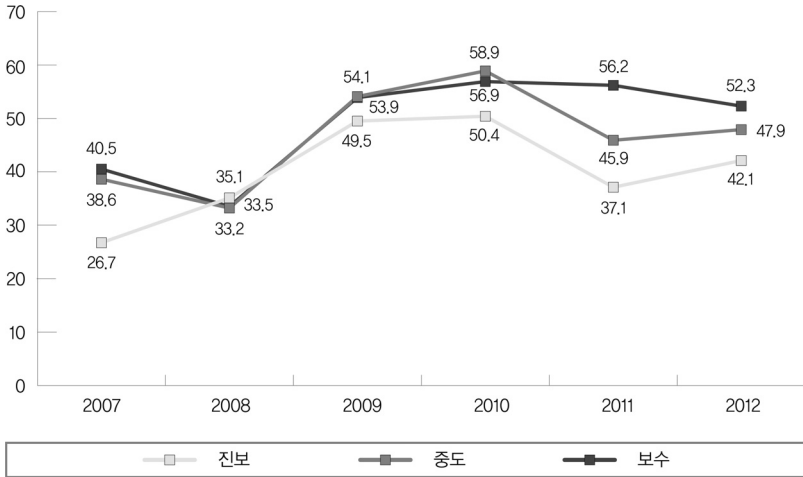
### 3)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연령별 대북위협도는 지난 6년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1-V-13]에 나타나듯이 2007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세대의 대북위협도가 다른 연령층의 대북위협도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와 함께 연령별 대북위협도의 차이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서는 20대와 50대의 차이가 약 12.4%에 달할 정도로 세대 간 격차가 커졌다. 2011년 조사에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대북위협도가 감소하고 50대와 40대의 대북위협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결과의 특징은 50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대북위협도가 적게는 약 10%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V-7 연령별 대북위협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32.9	32.8	51.7	50.7	52.3	44.7
30대	34.6	31.8	50.0	51.9	43.0	40.8
40대	32.8	34.0	51.8	57.6	35.5	45.6
50대 이상	45.0	36.2	58.6	63.1	53.0	55.9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인식보다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변국가의 위협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부터 대북위협도와 대중위협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꼽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느끼는 대북위협도가 진보층이 느끼는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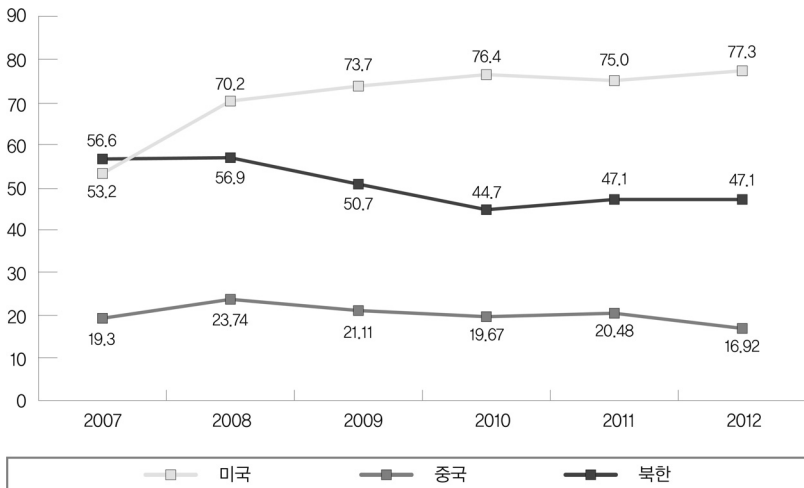
[그림 1-V-9]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

한 때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었지만, 진보와 중도층에서의 대북위협도는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념집단 간 차이도 뚜렷해졌다. 그런데 2012년에는 진보와 중도의 위협도가 약간 높아졌으며, 보수층의 대북위협도도 약간 낮아져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약 10% 정도로 좁혀졌다.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는 달리 대북위협도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국내 혹은 남북관계의 틀에서만 해석하려는 시도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강화되는 북중협력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대미, 대중 위협도에 대한 인식과 대북위협도의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 주변국 국가이미지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5개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가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개별국가에 대해 구조화된 인지의 집합을 의미하며, 인지심리학에서 널리 수용되는 스키마 개념으로 국제정치 연구에서 응용하여 이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타국의 이미지를 통하여 정당화시킴으로써 내부적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주변 4개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나누어서 대답할 수 있으나, 북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원대상’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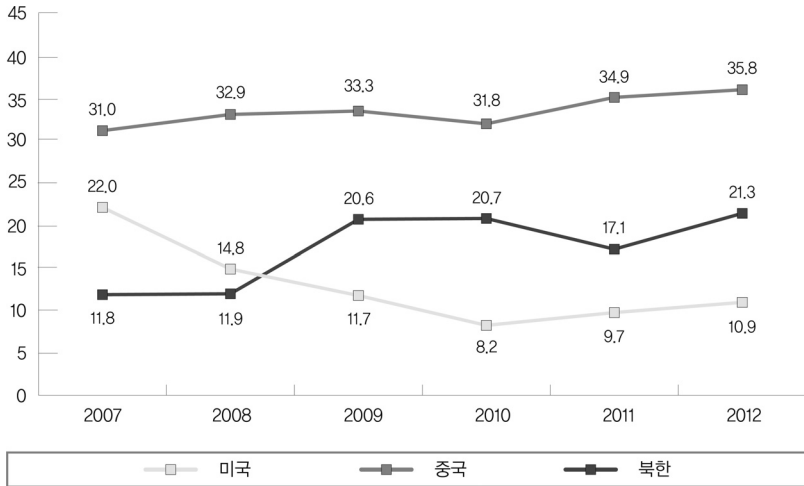
[그림 1-V-10] 주변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그림 1-V-10]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53.1%에서 2008년 70.2%로 상승한 이후,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70% 중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기 미국의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최고 2008년 23.7%에서 최저 2012년 16.9%로 최대 6.8%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20%를 전후하여 매우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2008년 56.9%에서 2010년 44.7%로 떨어진 후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여기는 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2008년 22.3%에서 2012년 15.8%로 낮아지고 있다. 협력대상으로서의 북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부터는 등락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후반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중·미에 대한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 이후 큰 변동 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변국에 대한 경계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그림 1-V-11]과 같이 상대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미국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국민들은 20%가 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이후 경계이미지가 10.9%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는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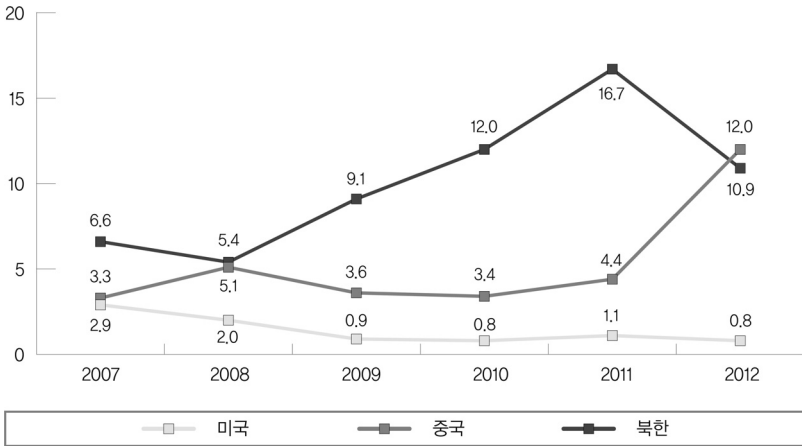
[그림 1-V-11] 주변국가 이미지: 경계대상

중국에 대한 경계이미지도 30% 초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친밀도와 위협도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중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2007년과 2012년 각기 약 12%에서 2012년 21.3%로 증가하였다. 2011년 북한의 국가이미지가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을 통해 경험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계의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국가에 대한 적대이미지는 [그림 1-V-1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앞의 결과들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적대적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변국의 적대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중국의 국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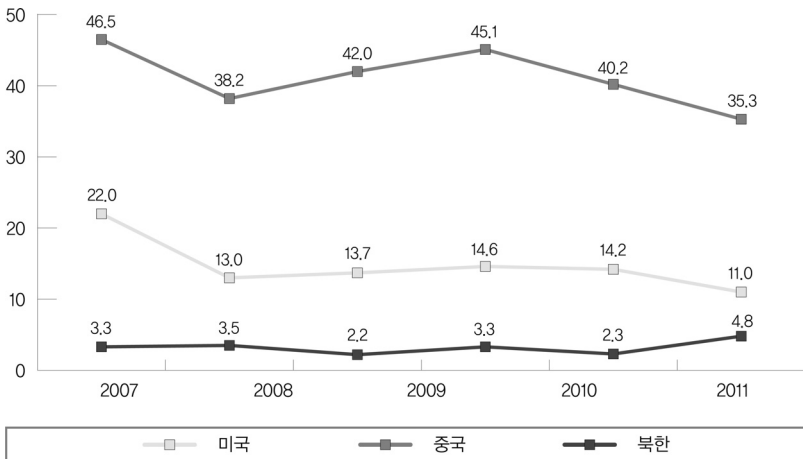
미지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북한의 적대적 국가이미지는 2012년에는 약 5.8%가량이 감소한 반면, 중국의 적대적 국가이미지는 7.6%가 증가하였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우경화 경향을 띠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들에 대한 우려의 반영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지속 혹은 변화할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1-V-12] 주변국가 이미지: 적대대상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하거나 혹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림 1-V-13]과 같이 나타난다. 경쟁대상으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는 2007년 22.0%에서 2008년 13.0%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14% 대에서 유지되다가 2012년 11.0%로 감소하였다.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 46.5%에서 2008년 38.2%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45.1%로 증가했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에는 중국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

율이 40.2%와 35.3%로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을 경쟁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정세를 경쟁적 구도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V-13] 주변국가 이미지 경쟁대상

#### 4. 중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의 해결방안을 두고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도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모두가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의 악화를 천안함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 중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하지만 의식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국의 위협도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의 정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을 다른 설문문항들과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대북 혹은 대중인식 관련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1)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인식

<표 1-V-8>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를 신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첫 번째 셀은 2010년 조사에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한 응답자들 중 중국을 가장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23.3%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셀은 2012년 조사에서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중국을 가장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2.1%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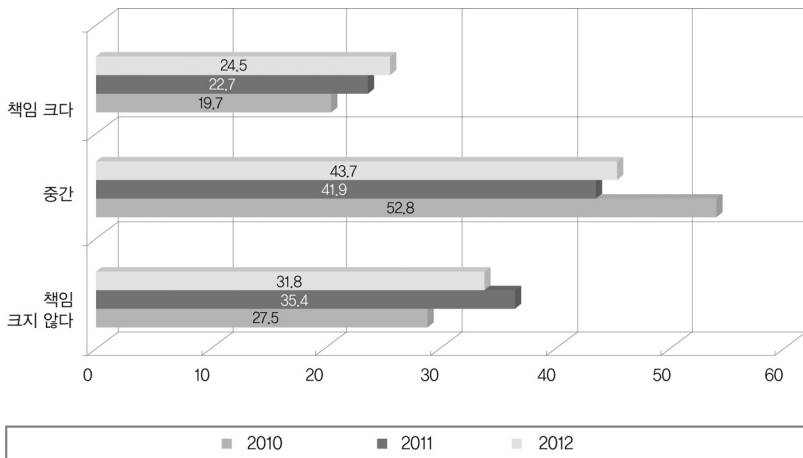
**표 1-V-8**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위협도

	2010	2011	2012
신뢰한다	23.3	34.0	29.6
그저 그렇다	25.8	36.2	29.6
신뢰하지 못한다	24.7	30.8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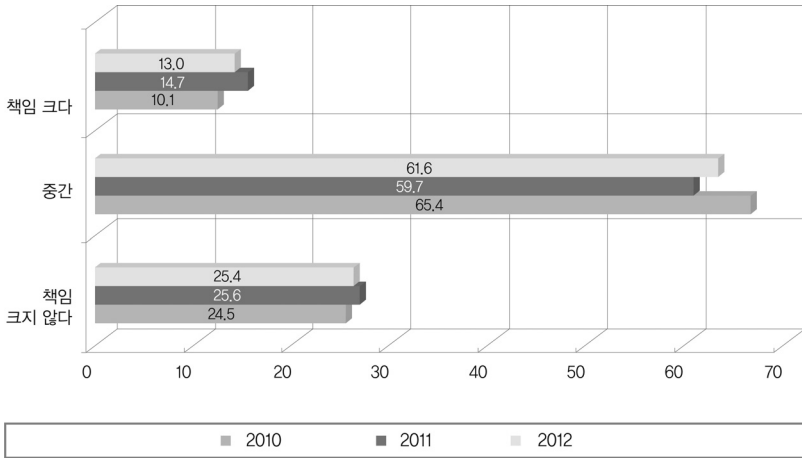
<표 1-V-8>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와 대중국위협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2010년과 2012년

에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보다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그룹에서 대중국위협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2011년에는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대중국위협도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2년에는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룹의 대중국위협도가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대중국위협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 번의 조사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찾기는 어렵다.

[그림 1-V-14]와 [그림 1-V-15]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의 발표를 신뢰하는 응답자와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2012년의 조사결과를 201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중간이라는 응답은 약간 줄고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약간 늘었다. 반면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절대적인 비율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보다는 많았다.



[그림 1-V-14]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신뢰도와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그림 1-V-15]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불신과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책임이 크다는 응답 보다는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보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그룹의 응답자들의 경우 중국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하는 비율이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발표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들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2) 북중 협력강화와 대중국인식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북한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성의 심화에 대한 우려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중 협력 강화를 어떻게 바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대중국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V-9>는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약 3.6% 감소하였고 별로 상관없다는 응답률이 약 2.8% 증가하였다. <표 1-V-2>의 자료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과 북한과 중국의 다방면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정부가 가질 수 있는 대북한 협상력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표 1-V-9 북중 협력 강화에 인식

	2011	2012
우려스럽다	76.1	72.5
별로 상관없다	20.3	23.1
바람직하다	5.6	4.4

<표 1-V-9>는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와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두 해 모두 북중 협력 강화를 우려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각기 해당연도의 평균 대중국위협도보다 높은 비율로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응답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기 33.6%와 30.5%였는데, 북중 협력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자들 중 36.2%와 32.2%가 중국을 위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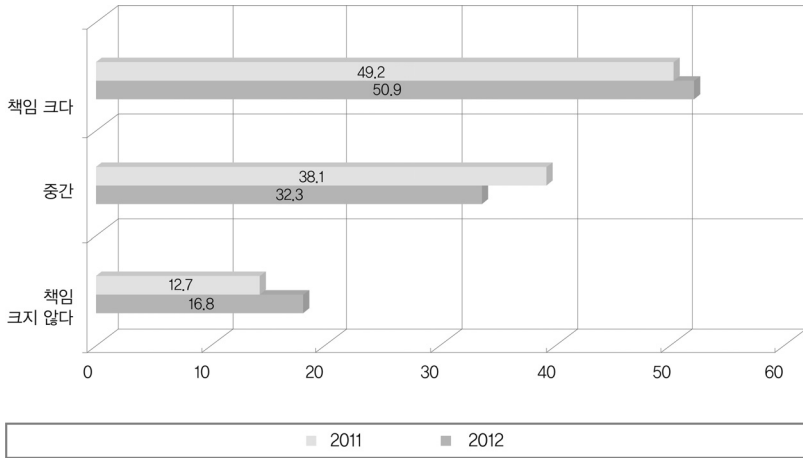


국가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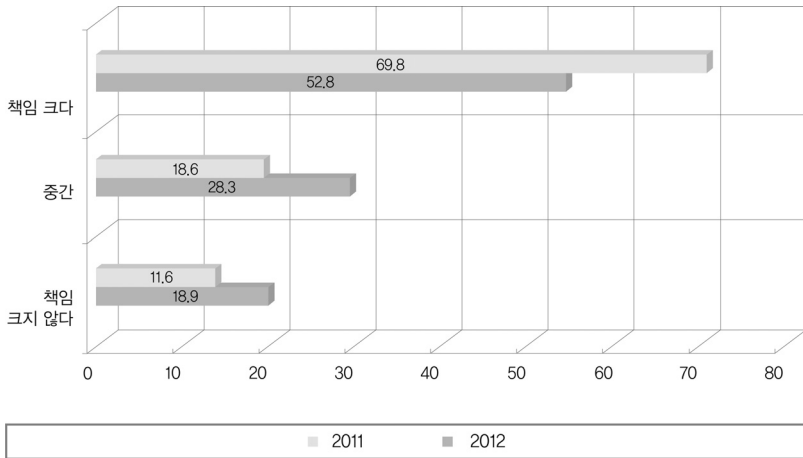
**표 1-V-10** 북중 협력 강화와 대중국위협도

		미국	북한	중국
2011	우려스럽다	5.8	47.6	36.2
	별로 상관없다	17.6	43.0	22.5
	바람직하다	16.3	27.9	39.5
2012	우려스럽다	8.9	47.7	32.2
	별로 상관없다	10.8	47.3	25.3
	바람직하다	13.2	41.5	30.2

[그림 1-V-16]은 북중 협력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자들 중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비율이며, [그림 1-V-17]은 북중 협력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들 중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비율이다. 북중 협력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응답자들 중 약 50%가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중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들도 2011년 68.8%, 2012년 52.8%의 비율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두 집단에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각기 약 4%와 7%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1-V-16] 북중협력 우려와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그림 1-V-17] 북중협력력 바람직함과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 5. 소결

지난 6년 동안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2010년 이후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친밀도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대중친밀도는 2010년에 비하여서는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년 연속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즉 대미친밀감의 감소는 대북친밀도의 증가로 반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친밀도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조사에서 대북위협도와 대중위협도는 각기 47%와 30% 정도에서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의 추이를 고려하면 대북위협도의 증가는 대중위협도의 감소로 대중위협도의 증가는 대북위협도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대북위협도에 대한 이념집단 간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음이 발견된다.

북·중·미에 대한 협력대상으로서의 국가이미지는 2009년 이후에 큰 변동 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계의 이미지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이미지는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적대이미지가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적대이미지는 2012년에는 약 7.6%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주변국들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중국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 정부의 천안함조사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그들

중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정부발표를 불신한다는 국민들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성의 심화 등의 가능성 때문에 북중 협력의 확대를 우려스러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교류협력 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식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2 통일외식조사

## 제2부 심층분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I.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

## 1. 서론<sup>1</sup>

탈냉전 글로벌 시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가시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가 단일하고 동질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원화된 사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사회구성원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문화’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한국인,’ ‘한국인다움’에 대한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와 한국인을 구성하는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질성과 고정된 경계를 전제로 논의되던 다양한 기존 과제를 다른

---

<sup>1</sup> 머리말의 논의는 상당 부분 필자의 “다문화주의와 통일담론”(2012)에서 따 온 것이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사회의 ‘다문화화’와 다름과 평등의 공약가능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일치를 추구하는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통일논의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다문화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한국인의 다문화 관련 태도를 살펴보고 이와 기타 정치의식 관련 문항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도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이주민이다. 세계적 냉전의 종결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 그리고 한중수교가 없었더라면 이들의 이주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타의 이주민들과는 다른 사회적 위치에 놓인다. 이는 이들이 ‘한민족’이자 분단 되어 대립 중인 나라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 온 특수한 이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문화 담론과 연동되어 사고되기보다는 ‘민족,’ ‘통일’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 및 정치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과연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는 부(-)의 관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민족주의는 정(+ )의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리버럴리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 글은 2012년 현재, 한국인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가 민족주의 및 정치적 성향과 어떤 관련

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과 통일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우선 2012년 현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에 대한 태도

통일의식조사는 2012년 처음으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하나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이 좋다.’라는 의견에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 하나의 응답을 고르는 것으로 다문화지향성을, 다른 하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라는 문항에 역사 동일한 다섯 개의 응답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물론 이 질문들은 다양성에 대한 개인적 관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적 정체성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적 문제의식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두 질문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면,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다문화수용성’의 정도와 성격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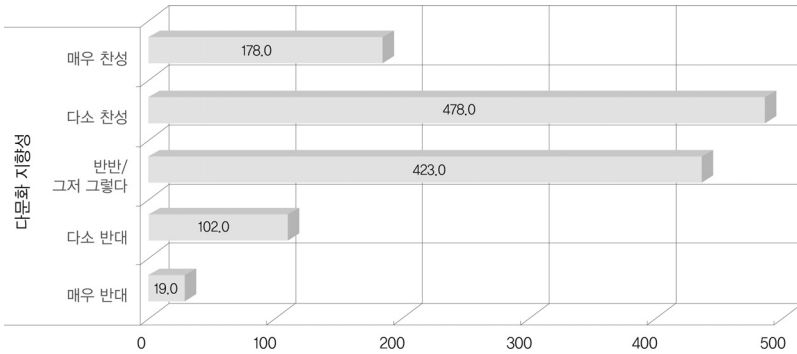
조사 결과, 우선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4.7% (매우 찬성 14.8%, 다소 찬성 39.8%), 반대가 10.1%(다소 반대 8.5%, 매우 반대 1.6%), 그저 그렇다는 3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보



는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10% 내외이고, 유보적인 경우가 30% 중반대인 것이다.

표 2-1-1 다문화 지향성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매우 찬성	178	14.8	14.8
다소 찬성	478	39.8	54.7
반반/그저 그렇다	423	35.3	89.9
다소 반대	102	8.5	98.4
매우 반대	19	1.6	100.0
합계	1,200	100.0	-



다문화지향성과 관련된 응답을 3개 변수로 재범주화하여 (매우 찬성, 다소 찬성은 찬성으로, 그저 그렇다는 역시 그저 그렇다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는 반대로)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 중 56.9%, 여성 중 52.4%가 다문화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각

각 9.7%, 10.5%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과 가구소득수준도 다문화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교육수준, 직업, 지역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수준별 응답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36.8%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각각 51.1%, 6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고졸, 대졸이상응답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다문화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력별로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 차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중졸 이하 13.2%, 고졸 10.1%, 대졸 9.3%). 대신 중졸 중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50%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다문화화에 긍정적 반응을 한 경우가 61.9%,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가 10.3%인데 반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긍정적 반응은 42.9%, 부정적 반응은 17.9%였다. 농수축산업자 다음으로 다문화지향성이 낮은 직업군은 전업주부였는데, 긍정이 44.9%, 부정이 13.4%였다. 자영업자(긍정 54.5%, 부정 7.9%) 및 블루칼라(긍정 52.8%, 부정 10.8%)는 화이트칼라와 전업주부 사이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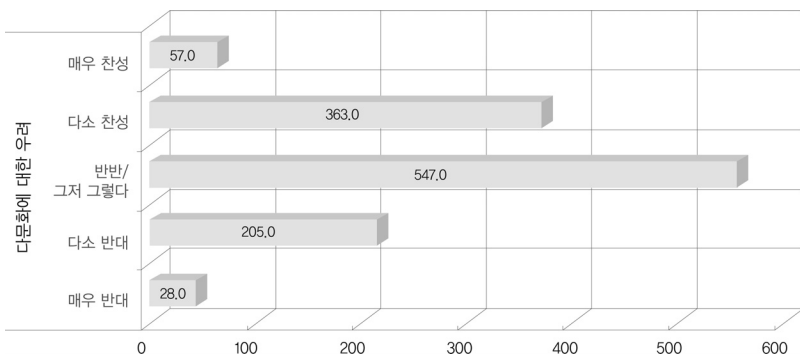
지역 역시 유의미한 변수였다. 제주(긍정 84.6%, 중도 7.7%, 부정 7.7%)가 다문화지향 성향이 가장 강한 반면 영남권(긍정 43.6%, 중도 41.0%, 부정 15.4%)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제주 다음으로 다문화지향적 경향을 보인 지역은 호남권(긍정 66.1%, 중도 26.1%, 부정 7.8%), 수도권(긍정 58.2%, 중도 34.4%, 부정 7.4%) 순이었고 강원(긍정 52.8%, 중도 36.1%, 부정 11.1%)과 충청(긍정 51.7%, 중도 26.2%, 부정 12.1%)이 뒤를 이었다.



한편,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해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35.1%(매우 찬성 4.8%, 다소 찬성 30.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9.4%(다소 반대 17.1%, 매우 반대 2.3%)보다 15.7% 높았다. 유보적 입장을 가진 경우는 45.6%였다.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분의 1이며, 유보적 입장을 가진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1-2 다문화에 대한 우려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매우 찬성	57	4.8	4.8
다소 찬성	363	30.3	35.0
반반/ 그저 그렇다	547	45.6	80.6
다소 반대	205	17.1	97.7
매우 반대	28	2.3	100.0
합계	1,200	100.0	-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응답을 3개 변수로 재범주화하여 (매우 찬성, 다소 찬성은 찬성으로, 그저 그렇다는 역시 그저 그렇다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는 반대로)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 중 34.1%, 여성 중 35.9%가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친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우려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19.2%, 19.7%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가구소득수준, 직업별로도 응답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교육수준, 지역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경우 44.3%가 다문화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데 반해, 대재 이상의 경우는 32.3%로 줄어들어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비율에서도 중졸이하가 10.4%, 대재 이상이 26.0%로 15%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은 고졸에서 49.6%로 가장 높고, 중졸, 대졸 순이었으며 모두 40% 이상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우려 44.0%, 유보 38.8%, 우려 없음 17.2%)이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으며 우려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우려 22.2%, 유보 66.7%, 우려 없음 11.1%)이었다. 충청권 다음으로는 영남권(우려 36.5%, 유보 43.3%, 우려 없음 20.2%), 호남권(우려 35.7%, 유보 37.4%, 우려 없음 27.0%), 수도권(우려 33.2%, 유보 48.5%, 우려 없음 18.3%), 제주(우려 30.8%, 유보 38.5%, 우려 없음 30.8%)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우려가 없는 순서로 살펴보면, 제주, 호남권, 영남권 순이었다.

다문화지향적 태도와 다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교차했을 때,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를 긍정하는 사람 중 결속력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39.2%, 유보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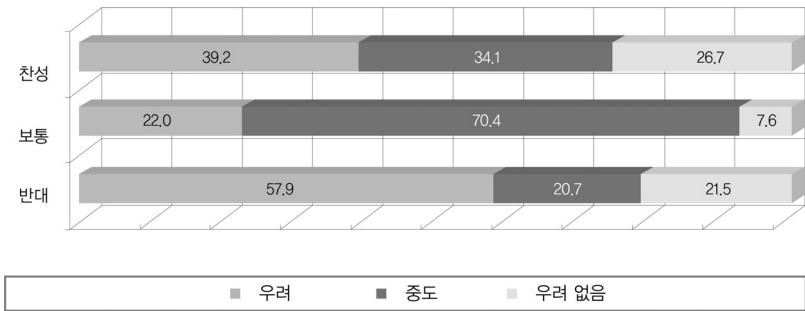


를 보인 사람이 34.1%,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응답자가 26.7%인 반면, 다문화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결속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한 사람이 57.9%, 중도가 20.7%,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이 21.5%로 나타났다. 다문화지향적인 응답자들도 결속력 약화에 관한 우려는 하지만 다문화에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3** 다문화 지향성과 다문화 우려의 교차분석

		다문화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257(39.2)	224(34.1)	175(26.7)	656(100.0)
	보통	빈도(%)	93(22.0)	298(70.4)	32( 7.6)	423(100.0)
	반대	빈도(%)	70(57.9)	25(20.7)	26(21.5)	121(100.0)
전체		빈도(%)	420(35.0)	547(45.6)	233(19.4)	1,200(100.0)

$\chi^2 = 183.157, p = 0.000$



종합하여 다문화수용도의 정도와 성격을 살펴보면, 한국 국민들의 절반은 다문화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3분의 1 가량은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해가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해 명백하게 부정

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가 10% 내외인 것으로 보아 국가결속력에 대한 우려가 다문화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및 이의 국가결속력 관련 부정적 영향에 관한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경우가 각각 35.3%, 45.6%에 이르러,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관련 캠페인을 고려하면, 유보적인 입장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반응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구성원들, 농수축산업 종사자, 전업주부, 영남권, 충청권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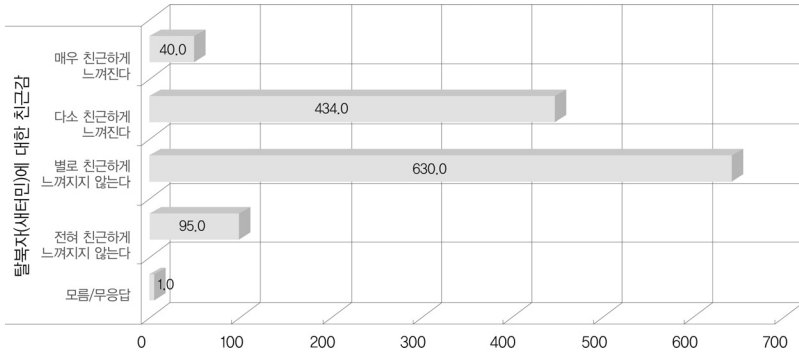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출신주민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으로는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39.5% (매우 친근 3.3%, 다소 친근 36.2%),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0.4%(별로 친근하지 않음 52.5%, 전혀 친근하지 않음 7.9%)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2-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0	3.3	3.3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34	36.2	39.5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30	52.5	92.0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95	7.9	99.9
모름/ 무응답	1	0.1	100.0
합계	1,200	100.0	-



응답자 특성별로 나타난 응답률 분포를 보면, 성, 직업, 지역이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42.4%)이 여성(36.6%)보다 수준으로 친근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전업주부가 가장 친근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업 종사자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순이었고, 블루칼라는 전업주부 다음으로 친근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가장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강원이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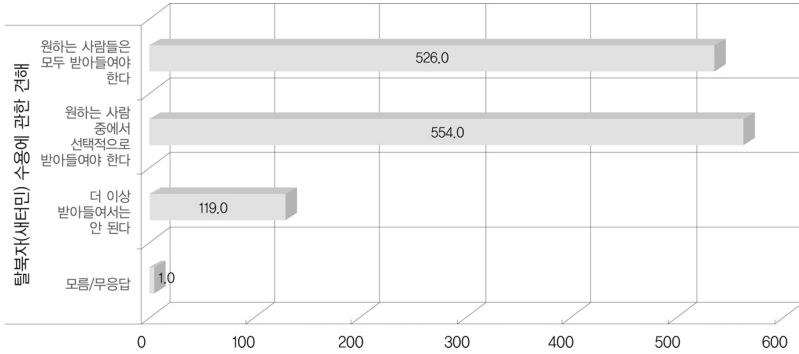
나타났다. 제주 다음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지역은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순이고, 영남권은 제주와 더불어 친근감을 가장 덜 느끼는 지역이었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관련된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43.8%,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46.2%로 비슷했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9.9%였다.

이를 다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교육수준 및 직업은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평균보다 ‘모두 수용’ 의견이 훨씬 적었고,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모두 수용’ 의견이 월등히 많았고 전업주부가 매우 적었다. 농수축산업 종사자 다음으로 ‘모두 수용’ 의견이 높았던 직업은 자영업, 화이트칼라 순이었고, 블루칼라는 전업주부와 유사한 정도로 ‘모두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2-1-5 북한이탈주민 한국 수용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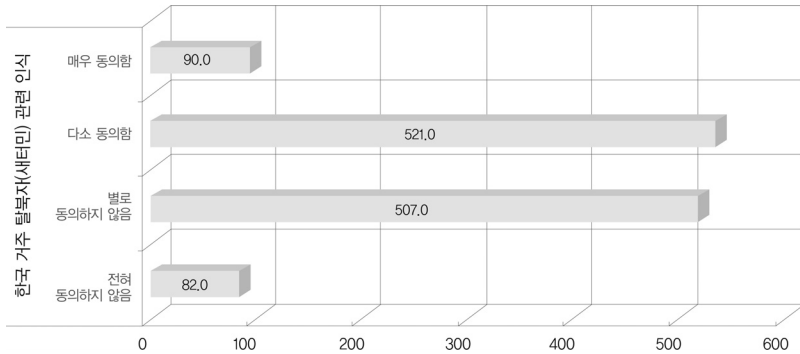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526	43.8	43.8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54	46.2	90.0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19	9.9	99.9
모름/ 무응답	1	0.1	100.0
합계	1,200	100.0	-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인 ‘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0.9%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 49.1%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반대여론이 8.8% 늘어난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자원압박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나 보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2-1-6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관한 의견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매우 동의함	90	7.5	7.5
다소 동의함	521	43.4	50.9
별로 동의하지 않음	507	42.3	93.2
전혀 동의하지 않음	82	6.8	100.0
합계	1,200	100.0	-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연령과 소득수준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원강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이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농수축산업, 블루칼라, 전업주부는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 및 호남권이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남권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들을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6:4 정도로 많고, 수용에 있어서는 '선택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수용'보다 2.4% 많다. 그런데,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이르러 정부의 전원수용 방침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강화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은 반대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여성과 중졸 이하 학력의 구성원들, 블루칼라, 전업주부, 그리고 영남권 사람들에게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결과를 언뜻 보면, 다문화에



부정적인 집단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전업주부, 영남권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그러나 성별로 여성, 직업적으로 블루칼라는 새터민에 대해서만 부정적이고, 농수축산업에서는 다문화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다.

### 3.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다문화지향성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그리고 지원확대에 대한 의견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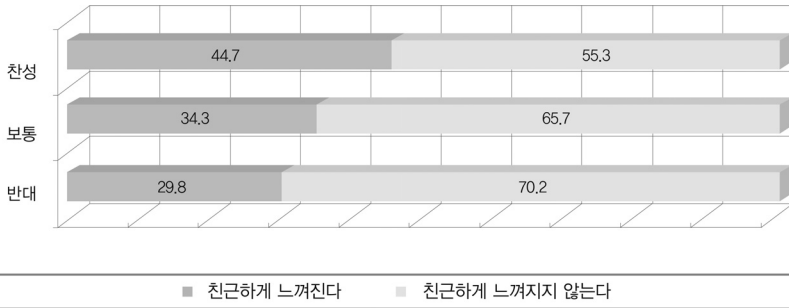
#### 1)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우선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사이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지향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높았다.

**표 2-1-7**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293(44.7)	362(55.3)	655(100.0)
	보통	빈도(%)	145(34.3)	278(65.7)	423(100.0)
	반대	빈도(%)	36(29.8)	85(70.2)	121(100.0)
전체		빈도(%)	474(39.5)	725(60.5)	1,199(100.0)

$\chi^2 = 17.136,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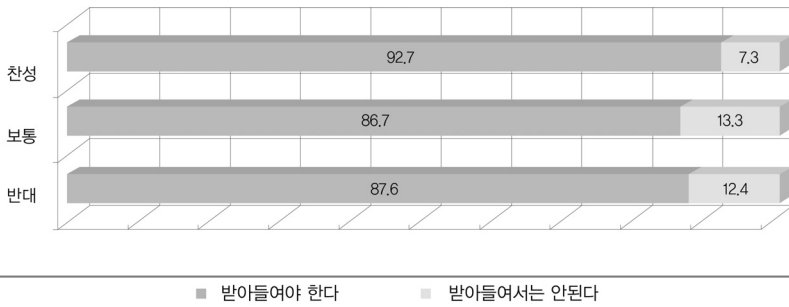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의견도 다문화지향성과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에 있었다.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경우 수용에 강한 정도로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2-1-8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수용의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608(92.7)	48( 7.3)	656(100.0)
	보통	빈도(%)	366(86.7)	56(13.3)	422(100.0)
	반대	빈도(%)	106(87.6)	15(12.4)	121(100.0)
전체		빈도(%)	1,080(90.1)	119( 9.9)	1,199(100.0)

$\chi^2 = 11.100, p =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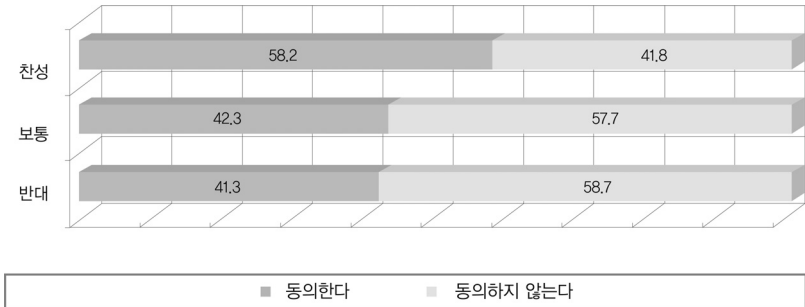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응답자가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9** 다문화지향성과 새터민 지원강화의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문화 지향성	찬성	빈도(%)	382(58.2)	274(41.8)	656(100.0)
	보통	빈도(%)	179(42.3)	244(57.7)	423(100.0)
	반대	빈도(%)	50(41.3)	71(58.7)	121(100.0)
전체		빈도(%)	611(50.9)	589(49.1)	1,200(100.0)

$\chi^2 = 31.020, p = 0.000$



종합하면, 다문화지향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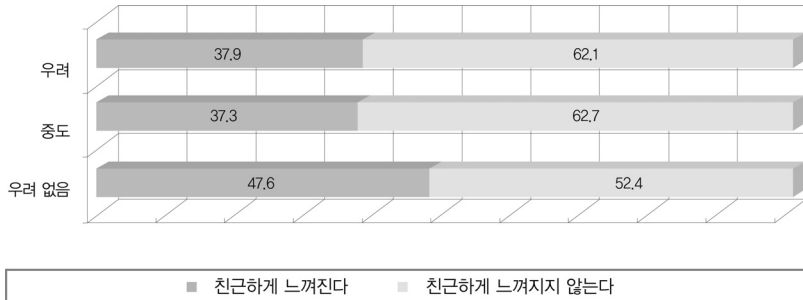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력, 그리고 지원강화 관련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려가 많

은 경우가 우려가 적은 경우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0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문화에 대한 우려	우려	빈도(%)	159(37.9)	260(62.1)	419(100.0)
	중도	빈도(%)	204(37.3)	343(62.7)	547(100.0)
	우려 없음	빈도(%)	111(47.6)	122(52.4)	233(100.0)
전체		빈도(%)	474(39.5)	725(60.5)	1,199(100.0)

$\chi^2 = 7.993, p = 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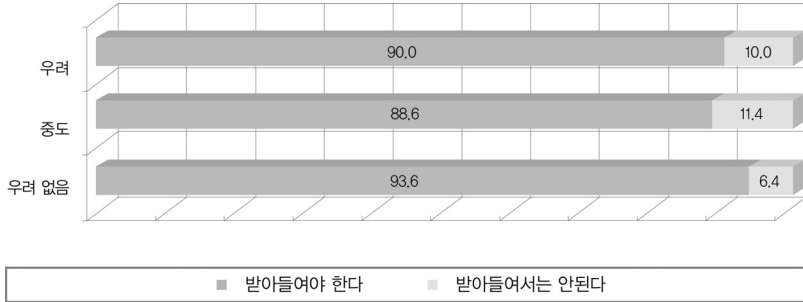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력은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는 유의한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려가 있는 경우 경향적으로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1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문화에 대한 우려	우려	빈도(%)	378(90.0)	42(10.0)	420(100.0)
	중도	빈도(%)	484(88.6)	62(11.4)	546(100.0)
	우려없음	빈도(%)	218(93.6)	15( 6.4)	233(100.0)
전체		빈도(%)	1,080(90.1)	119( 9.9)	1,199(100.0)

$\chi^2 = 4.422, p =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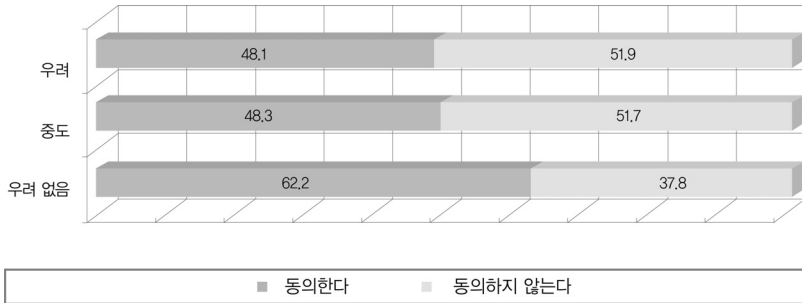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에 대한 찬성여부와도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지원강화에 찬성하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지원강화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문화에 대한 우려	우려	빈도(%)	202(48.1)	218(51.9)	420(100.0)
	중도	빈도(%)	264(48.3)	283(51.7)	547(100.0)
	우려없음	빈도(%)	145(62.2)	88(37.8)	233(100.0)
전체		빈도(%)	611(50.9)	589(49.1)	1,200(100.0)

$\chi^2 = 14.815, p = 0.001$



즉, 다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덜 우호적이며, 우려하지 않는 경우는 보다 우호적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상호관련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다문화수용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흔히 북한이탈주민 이슈와 다문화 관련 이슈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관례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요소가 이 두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민족주의와 정치적 성향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4. 민족주의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조사내용 중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 항목을 선택하였다. 2012년 통일의식조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묻는 항목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유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상대적으로 뚜렷한 민족의식을 가진 경우로 해석하여 각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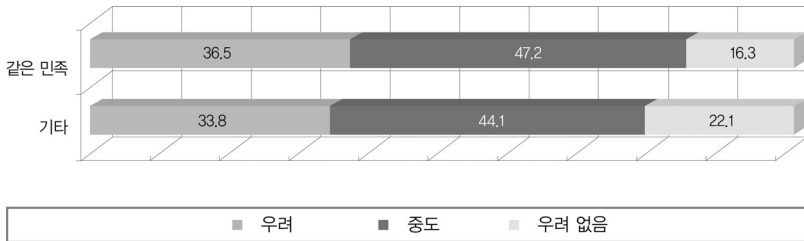
##### 1) 민족주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우선 통일이유와 다문화 지향성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통일의 필요성을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다문화지향성과 큰 상관성이 없었다. 그런데 통일의 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사이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교적 강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진 경우, 다문화의 국가결속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이다.

표 2-I-13 통일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다문화에 대한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통일이유	같은 민족	빈도(%)	201(36.5)	260(47.2)	90(16.3)	551(100.0)
	기타	빈도(%)	219(33.8)	286(44.1)	143(22.1)	648(100.0)
전체		빈도(%)	420(35.0)	546(45.5)	233(19.4)	1,199(100.0)

$\chi^2 = 6.259, p = 0.044$



한편, 민족 자긍심과 다문화지향성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여부가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 자긍심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민족주의적 성향과 다문화수용도는 통일의 필요성을 같은 민족임에서 찾는 경우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해를 끼친다는 우려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상호연관성이 적다.

## 2) 민족주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통일의 이유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로 응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경우에도 친근감, 수용여부, 지원강화 세 항목 모두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민족 자긍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새터민 수용, 새터민 지원강화-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택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뚜렷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응답자들이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예외적이다. 다문화가 민족주의와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북한이탈주민 이슈가 주로 민족주의 담론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및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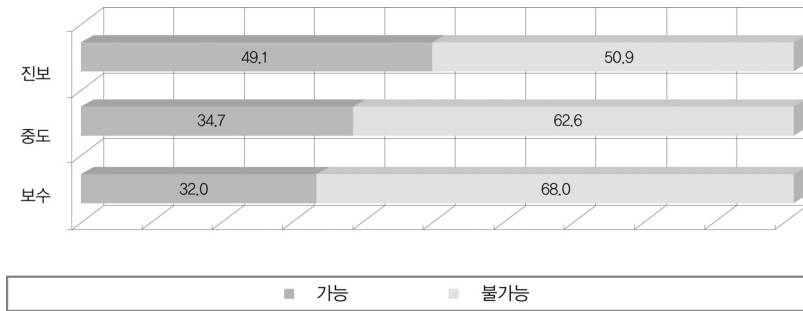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스스로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과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선택하였다. 이념적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었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 여부에 관한 응답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하였다. 지난 수년간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북한인식이 일관되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조사에서도 이념적 성향과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북 정권과 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I-14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관계 교차분석

			북한에 대한 관용성(대화가가능여부)		전체
			가능	불가능	
이념적 성향	진보	빈도(%)	161(49.1)	167(50.9)	328(100.0)
	중도	빈도(%)	221(37.4)	370(62.6)	591(100.0)
	보수	빈도(%)	90(32.0)	191(68.0)	281(100.0)
전체		빈도(%)	472(39.3)	728(60.7)	1,200(100.0)

$\chi^2 = 20.287, p = 0.000$



### 1)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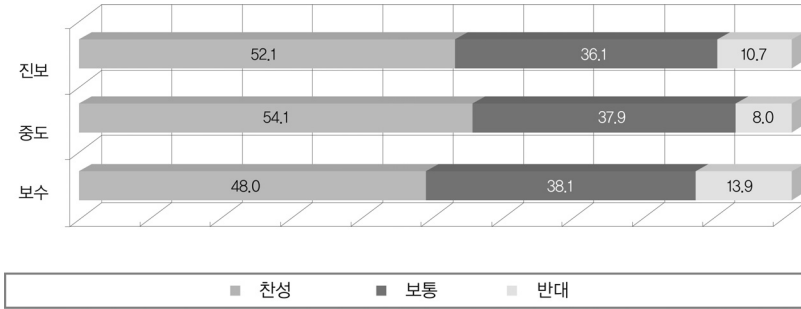
우선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지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의 다문화 지향성이 보수적인 응답자의 다문화 지향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보보다는 중도가 다문화를 긍정하는 비율이 높고 부정하는 비율이 낮다. 다만 보수는 다문화를 긍정하는 비율이 낮고 부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진보와 중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분석의 유효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15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다문화 지향성			전체
			찬성	보통	반대	
이념적 성향	진보	빈도(%)	201(52.1)	92(36.1)	35(10.7)	328(100.0)
	중도	빈도(%)	320(54.1)	224(37.9)	47( 8.0)	591(100.0)
	보수	빈도(%)	135(48.0)	107(38.1)	39(13.9)	281(100.0)
전체		빈도(%)	656(54.7)	423(35.3)	121(10.1)	1,200(100.0)

$\chi^2 = 18.339,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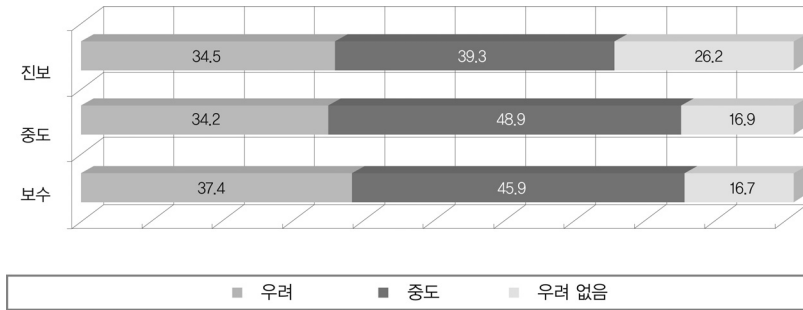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간에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었다. 즉,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가 없고, 보수적일수록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 다문화화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비율은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35% 내외로 유사성을 보인 반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경우가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표 2-1-16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다문화에 대한 우려			전체	
		우려	중도	우려 없음		
이념적 성향	진보	빈도(%)	113(34.5)	129(39.3)	86(26.2)	328(100.0)
	중도	빈도(%)	202(34.2)	289(48.9)	100(16.9)	591(100.0)
	보수	빈도(%)	105(37.4)	129(45.9)	47(16.7)	281(100.0)
전체		빈도(%)	420(35.0)	547(45.6)	233(19.4)	1,200(100.0)

$\chi^2 = 15.601, p =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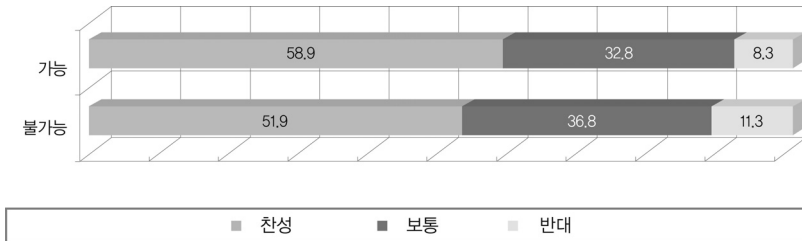
한편,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는가)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관계가 있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경우 다문화 지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2-1-17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다문화 지향성			전체
			찬성	보통	반대	
북한에 대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278(58.9)	115(32.8)	39( 8.3)	472(100.0)
	불가능	빈도(%)	378(51.9)	268(36.8)	82(11.3)	728(100.0)
전체		빈도(%)	656(54.7)	423(35.3)	121(10.1)	1,200(100.0)

$\chi^2 = 6.389, p = 0.041$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우려의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과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관계가 없다.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면,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향성은 높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우려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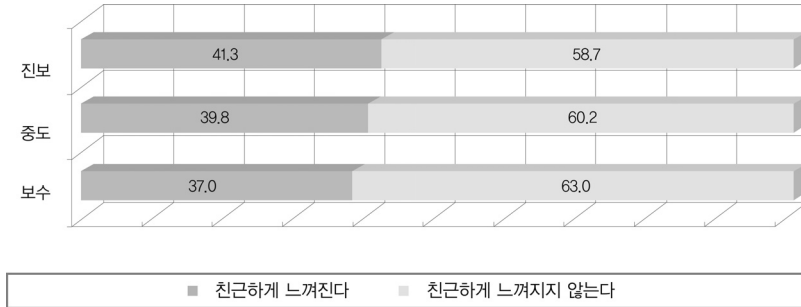
## 2)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정치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념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자신을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18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135(41.3)	192(58.7)	327(100.0)
	중도	빈도(%)	235(39.8)	356(60.2)	591(100.0)
	보수	빈도(%)	104(37.0)	177(63.0)	281(100.0)
전체		빈도(%)	474(39.5)	725(60.5)	1,199(100.0)

$\chi^2 = 1.181, p = 0.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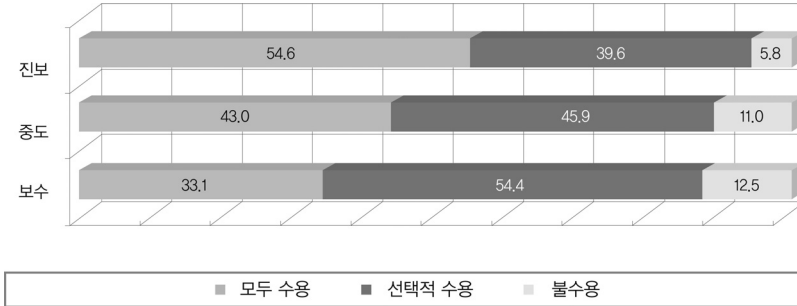
이념적 성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전원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도, 보수로 갈수록 낮아졌다.



표 2-1-19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불수용	모름/ 무응답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179(54.6)	130(39.6)	19( 5.8)	0(0.0)	328(100.0)
	중도	빈도(%)	254(43.0)	271(45.9)	65(11.0)	1(0.2)	591(100.0)
	보수	빈도(%)	93(33.1)	153(54.4)	35(12.5)	0(0.0)	281(100.0)
전체		빈도(%)	526(43.8)	554(46.2)	119( 9.9)	1(0.1)	1,200(100.0)

$\chi^2 = 32.519,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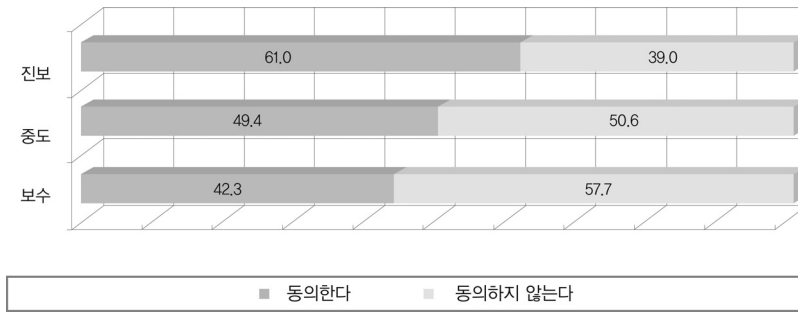


이념적 성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의견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진보적인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보수적인 경우에 비해 18.7%나 높았다.

표 2-I-20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성향	진보	빈도(%)	200(61.0)	128(39.0)	328(100.0)
	중도	빈도(%)	292(49.4)	299(50.6)	591(100.0)
	보수	빈도(%)	119(42.3)	162(57.7)	281(100.0)
전체		빈도(%)	611(50.9)	589(49.1)	1,200(100.0)

$\chi^2 = 22.072,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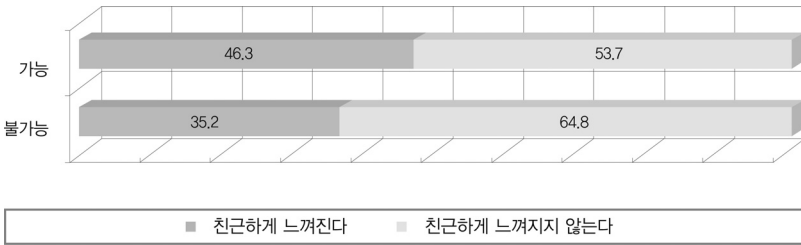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간에는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북한정권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0% 이상 높았다.



**표 2-I-21**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218(46.3)	253(53.7)	471(100.0)
	불가능	빈도(%)	256(35.2)	472(64.8)	728(100.0)
전체		빈도(%)	474(39.5)	725(60.5)	1,199(100.0)

$\chi^2 = 14.792, p = 0.000$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입장과도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관용성이 있는 경우 지원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표 2-I-22**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298(63.1)	174(36.9)	472(100.0)
	불가능	빈도(%)	313(43.0)	415(57.0)	728(100.0)
전체		빈도(%)	611(50.9)	589(49.1)	1,200(100.0)

$\chi^2 = 46.480,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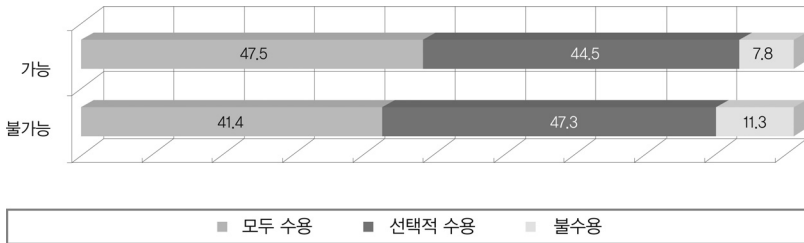


북에 대한 정치적 관용성과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은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지만, 경향적으로 북에 대해 관용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은 높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I-23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전체
			모두 수용	선택적 수용	불수용	모름/무응답	
북한 관용성 (대화가능여부)	가능	빈도(%)	224(47.5)	210(44.5)	37( 7.8)	1(0.2)	472(100.0)
	불가능	빈도(%)	302(41.4)	344(47.3)	82(11.3)	0(0.0)	728(100.0)
전체		빈도(%)	526(43.8)	554(46.2)	119( 9.9)	1(0.1)	1,200(100.0)

$\chi^2 = 7.734, p = 0.052$





이상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경우와 북한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경우, 즉 정치적 성향이 진보 쪽에 가까울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친근감, 수용성, 그리고 지원강화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우호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민족주의 관련 결과와 비교해 보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정치적 진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이상 논의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24**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 우려	새터민 친근감	새터민 수용성	새터민 지원 강화	통일 이유 민족	민족 자긍심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다문화 우려	-.078**							
새터민 친근감	.118**	-.077*						
새터민 수용성	.107*	-.070	.205**					
새터민 지원 강화	.165**	-.086**	.274**	.291**				
통일 이유 민족	-	-	-	-	-			
민족 자긍심	-	-	.133**	-	-	-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078**	-.065	.114**	.077**	.210**	-	-	
이념적 성향	.093**			.134**	.136**	-	-.079**	.157**

\*  $p < .05$ , \*\*  $p < .01$

다문화지향성과 정(+)<sup>1</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 찬성률 및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 이념적 진보성 등이고 부(-)<sup>2</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다문화에 대한 우려이다. 한편 다문화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확대 찬성률 및 북한 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부(-)<sup>3</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경우 역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지원강화,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정(+)<sup>4</sup>의 상관관계가 있고, 민족 자긍심과도 그러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의 경우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지원강화 및 북정권에 대한 관용성 및 이념적 진보성과 정(+)<sup>5</sup>의 상관관계가 있고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는 부(-)<sup>6</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는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수용성,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 및 이념적 성향과 정(+)<sup>7</sup>의 상관관계가 있고 역시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부(-)<sup>8</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민족주의의 지표로 삼은 통일의 이유를 같은 민족에서 찾는 경우는 모든 변수와 관련성이 없었고, 민족 자긍심의 경우 오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정(+)<sup>9</sup>, 이념적 진보성과 부(-)<sup>10</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인 북한 정권에 대한 관용성은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성, 지원강화, 이념적 진보성과 정(+)<sup>11</sup>의 상관관계,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부(-)<sup>12</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한편 이념적 진보성은 다문화지향성, 북한이탈주민 수용성, 지원강화, 북한정권에 대한 관용성과 정(+)<sup>13</sup>, 민족 자긍심과 부(-)<sup>14</sup>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다문화 수용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정치적 진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긍정적 차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민족주의는 부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이념적 진보성과 각각



정, 부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외 크게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 7. 결론

첫째, 2012년 한국 국민들의 절반 정도 (54.7%)는 다문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35.3%로 아직 다문화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35.1%로 우려하지 않는 경우 19.4%에 비해 훨씬 높고, 다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 중에서도 국가결속력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사람이 39.3%에 달해 궁극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양가적이고 유보적인 태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구성원들, 농수축산업 종사자, 전업주부, 영남권, 충청권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들을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용에 있어서는 ‘모두 수용’보다 ‘선택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이른다. 또한, 지원강화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중졸 이하 학력의 구성원들에게서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서로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 다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다문화지향성이 강하다.

넷째, 최소한 이 조사의 결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게 민족주의적 성향에 배치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또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연동되지 않는다. 다만,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통일의 이유를 한민족에서 찾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관관계분석에서는 민족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분석의 종류에 따라 유의성 유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쉽지 않고, 이후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를 살펴거나 민족주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에서 파악할 때 국민들의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진보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용의 이슈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2012년 현재 다문화와 통일 문제가 꼭 상충적이지는 않음을 함의한다. 이는 다문화지향성, 다문화에 대한 우려 두 항목을 통일의 필요성 항목과 교차해서 분석한 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낮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유의수준( $\alpha$ ) 0.0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즉, 다문화에 동의하는 경우와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진행되고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Ⅱ. 남남갈등의 변화와 지속

### 1. 서론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시도된 이후 북한 이슈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집단 간의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적 집단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유지를 선호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비해 진보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선호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남한 사회 내부의 격한 이념적 대립은 ‘남남 갈등’으로 종종 불렸다. 이러한 남남 갈등은 단순히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각 차이뿐만 아니라, 민족과 체제,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 세계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해소를 위한 타협점과 소통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북한 이슈를 두고 피부로 느낄 만큼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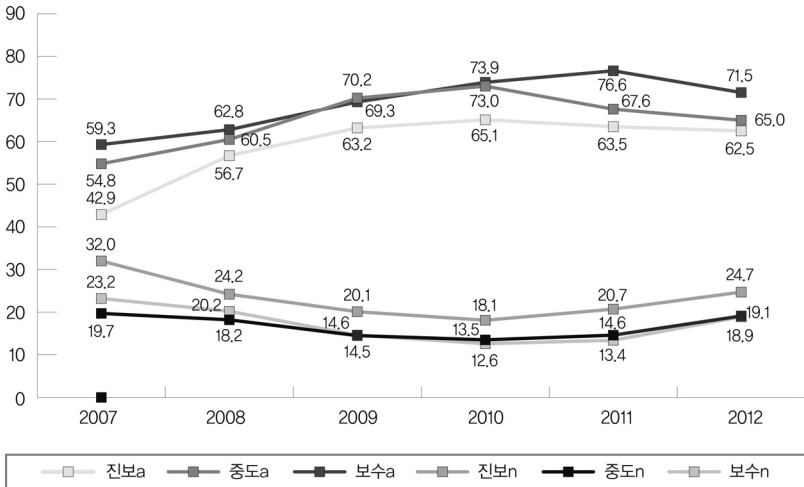
한 사회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오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할 만한 실질적 접촉이나 교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처럼 남한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남 갈등의 또 다른 대상이 되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이후 SOFA 협정이나 기지 이전 등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대체로 해결되었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국과 미국의 상반된 태도 등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린 국내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용, 주거, 교육, 연금 등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가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다소 ‘잠잠해진 것으로 보이는’ 남남 갈등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라도 다시 가열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채 현재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남한 사회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는 세대 요인이 중요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던 ‘남남 갈등’이 이전에 비해 변화했는지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북정책,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냉전 시대의 안보 정책은 적대적 대북 정책과 대미 안보의 강조였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권위주의 체제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반미는 곧 친북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미가 뭐가 나쁘냐’고까지 말했는데 그 이전까지의 대미 의존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표현이었다. 한편 북한에 대한 태도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각료회담 개최 등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의 추진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및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국내정치적으로 격렬한 이념적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주: a는 미국에 대한 태도, n은 북한에 대한 태도임.

[그림 2-II-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미국, 북한

[그림 2-II-1]은 통일의식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묻은 질문 가운데 미국과 북한을 꼽은 이들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I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비율은 상반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미가 곧 친북’이라는 냉전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 통치 이데올로기의 논리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미국에 대한 태도와 북한에 대한 태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에 대한 시각은 지난 6년 사이에 보다 우호적인 형태로 변화해 온 반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소원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진보적 응답자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껴진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7년의 경우에는 42.9%로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65.1%로 크게 높아졌고 2012년 조사에서도 62.5%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에는 19.7%였는데 2010년 12.6%로 가장 낮아졌고 2012년 조사에서는 18.9%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이념적 입장과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남남 갈등’이 이념적 입장에 따라 미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 북한에 대한 가까움의 변화가 이념과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념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측면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7년에 비해 2012년에는 이념 집단 간 미국,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표 2-II-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	진보	15.8	20.1	16.7	17.8	19.5	21.6
	중도	20.6	25.4	16.9	20.5	16.5	13.2
	보수	29.7	19.1	18.9	19.2	14.1	14.6
협력대상	진보	64.7	65.4	60.9	49.2	49.7	50.9
	중도	56.5	55.9	49.9	44.7	47.0	51.4
	보수	48.9	51.3	42.7	37.5	44.5	33.5
경쟁대상	진보	5.3	3.5	2.0	3.0	2.4	2.4
	중도	2.6	2.4	2.2	3.5	2.1	6.1
	보수	2.4	5.6	2.5	3.4	2.8	5.0
경계대상	진보	9.9	8.0	15.4	18.8	12.3	13.1
	중도	12.9	11.1	22.0	21.8	18.5	20.1
	보수	11.6	16.4	22.9	21.1	19.7	33.5
적대대상	진보	4.3	3.1	5.0	11.1	16.2	11.9
	중도	7.4	5.1	9.0	9.4	15.9	9.1
	보수	7.3	7.6	13.0	18.8	19.0	13.5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남남 갈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념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표 2-I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지난 6년간 응답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데 대한 응답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진보 응답자층에서 그 비율은 2007년 15.8%였는데 그 이후 대체로 상승해 오면서 2012년에는 21.6%로 약 6% 정도 증가했

다. 반면 중도와 보수 응답자층에서는 대체로 그 비율이 하락해 와서, 중도층의 경우 20.6%에서 13.2%로 줄어들었고, 보수층은 29.7%에서 14.6%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2007년과 비교하면 그 입장이 역전되었다. 즉 진보 집단에서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보수 집단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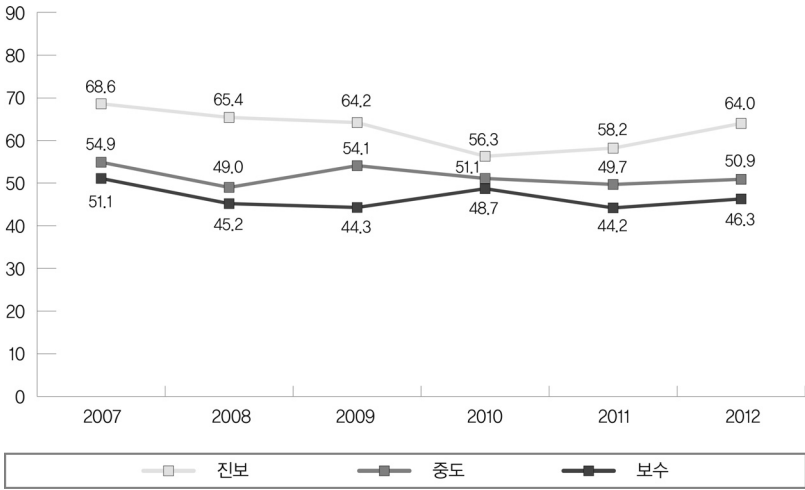
한편, 협력 대상이라는 시각은 보수, 중도, 진보 구분 없이 모두 크게 줄어들었는데, 진보의 경우에는 2007년 64.7%에서 2012년에는 50.9%로 낮아졌고, 중도층에서는 56.5%에서 51.4%로,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48.9%에서 33.5%로 크게 낮아졌다. 변화의 크기는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이념과 무관하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많이 약해졌다. 경쟁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크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역시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바라보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진보층 가운데서는 2007년에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9.9%였는데, 2010년에는 18.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고 2012년에는 13.1%로 조사되었다. 중도층에서도 2007년 12.9%에서 2012년에는 20.1%로 크게 높아졌다.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집단은 보수층이었는데 2007년에는 11.6%였는데 2012년에는 거의 세 배인 33.5%로 높아졌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도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유사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진보층에서는 2007년의 4.3%에서 2012년 11.9%로, 보수층에서는 7.3%에서 13.5%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표 2-II-1>에서도 앞에서 본 [그림 2-II-1]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념적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세 집단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탓에



이전보다 시각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012년 경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념 집단 간의 차이를 예외로 한다면 대체로 이전의 이념 집단별 인식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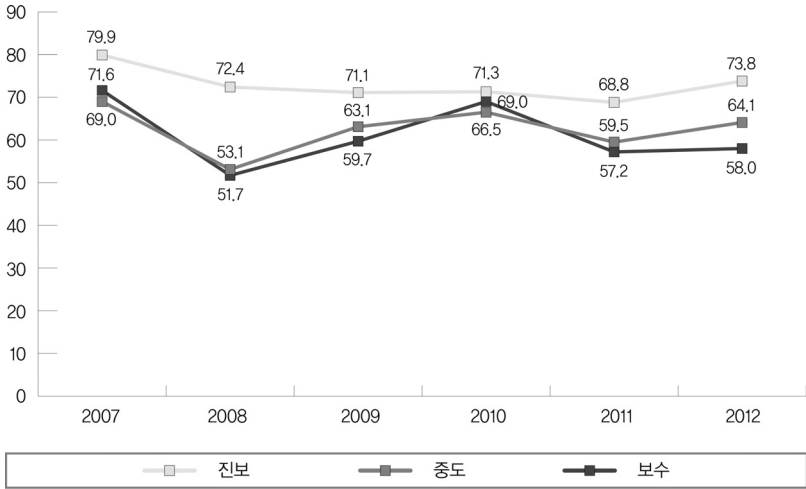


[그림 2-II-2]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다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많은 정치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온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2-II-2]는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응답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2-II-3]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력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대북 지원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려 17.5%에 달했다. 그런데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은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는 그 차이가 7.6%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당시 진보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보수, 진보 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두 집단 간 이념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 조사에서는 두 집단 간 입장의 차이가 다시 17.7%로 늘어났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2007년에는 보수와 진보 이념 집단 간 차이가 8.3%였는데 이 차이는 2008년에는 20.7%로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그 이후 2010년까지는 줄어들어 2010년에 그 차이는 2.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는 두 이념 집단 간 차이가 다시 15.8%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2-II-2], [그림 2-II-3]에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중도 입장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이들은 대체로 보수 이념 응답자들과 유사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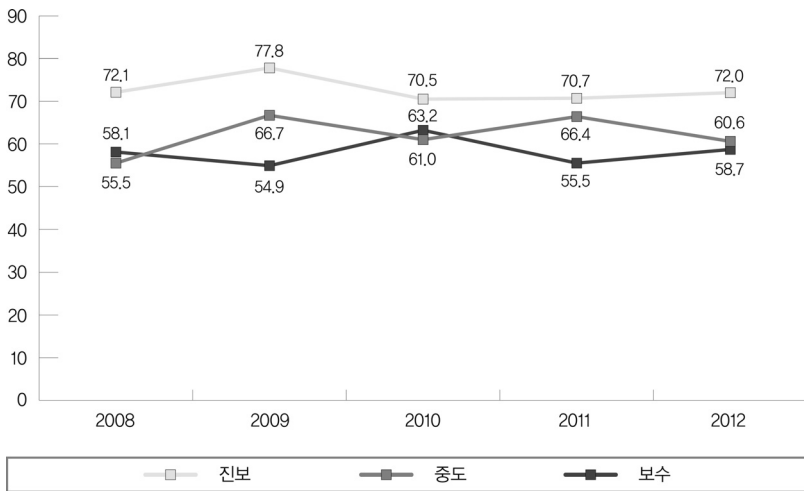


[그림 2-II-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

이 두 그림의 결과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념 집단 간 논란과 갈등이 예전처럼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이념 집단이나 조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비해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진보 집단에서는 항상 60% 전후의 높은 긍정적 응답이 나타나는 데 비해, 보수 집단에서는 대체로 50% 미만의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고 중도층은 대체로 50% 수준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 이 사안을 둘러싸고는 이념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패턴을 살펴 보았다. [그림 2-II-4]에서 보듯이 이념 집단별 응답의 패턴은 조사 때마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본 [그림 2-II-2], [그림 2-II-3]과 유사한 특성이 확인된다. 2008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응답률의 차이는 14%였고 이 차이는 2009년 조사에서는 22.9%로 매우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앞의 두 경우처럼 7.3%로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15.2%, 13.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6년간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념 집단의 차이나 조사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절반을 훨씬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나 기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2-II-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이념집단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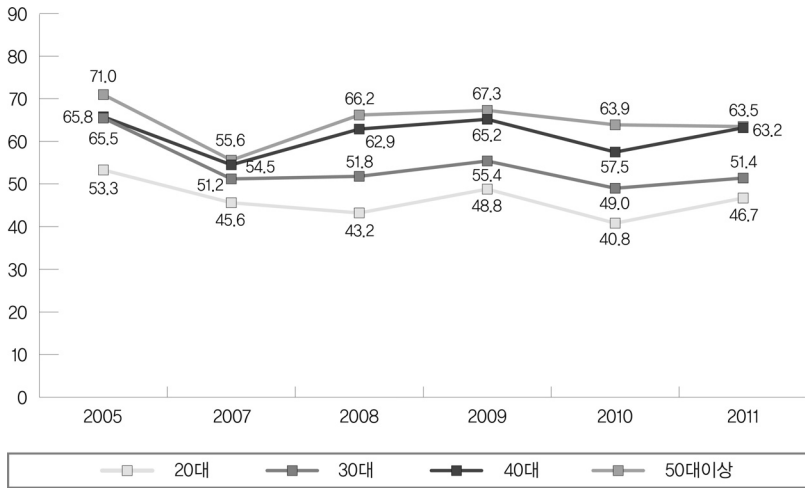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전에 비해 보수와 진보 이념 집단 간 주목할 만큼 커다란 시각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6년간 이념 집단 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2002년 직후의 격화된 ‘남남 갈등’이 2012년 대선 이후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그림 2-II-1]에서 본대로 미국,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변동의 추이 역시 상호 유사했다. 또한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과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보수, 진보, 중도 이념 집단 간 비교적 뚜렷한 정책 방향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통일 인식

이번에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응답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마땅히 성취해야 할 국민적 목표라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들어 세대별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기존의 ‘남남 갈등’과는 또 다른 형태로 대북 정책의 새로운 균열,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존의 남남 갈등이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쪽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증진과 연방제 등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보다는 압박과 고립을 통한 체제의 붕괴 등을 통한 통일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실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과 긍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세대별 시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II-5]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6년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세대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림 2-II-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 집단별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조사 시기에 따른 일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령 집단별 차이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20대의 경우 2007년 53.3%였던 것을 제외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1년 40.8%로 가장 낮았고 2012년에는 46.7%로 나타났다. 둘째, 30대 역시 2007년 이후 크게 그 비율이 떨어지는 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체로 50% 선에 걸쳐 있다.



즉 30대의 경우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혹은 부정적) 태도가 반반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응답률이 변화하고 있고 그 비율도 60%를 넘어서고 있다. 넷째, 4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나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입장의 차이가 큰 집단은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이 두 연령 집단 간 응답의 차이는 16.7%였으며 2008년에는 그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9년에는 그 차이가 23%, 2010년에는 18.5%, 2011년에는 22.7%였다가 2012년 조사에서는 16.8%로 나타났다. 두 연령 집단 간 응답률의 차이가 16-23%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들 간에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세대에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념을 기반으로 한 갈등처럼 단기간에 폭발력이 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북정책이나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보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 간 시각의 차이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통일에 대한 시각은 비단 세대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북 교류와 접촉에 보다 적극적인 진보 집단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보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세대별 시각 차이보다 이념적 요인의 중요성이 결국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 2-II-2>에서는 세대, 이념 두 변인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을 정리했다.

표 2-II-2 세대, 이념 집단별 통일의 필요성 (2012)

		필요하다	반반	필요 없다	카이제곱
세대	19-29(a)	46.7	24.7	28.6	27.6 (p < 0.00)
	30대	51.4	26.2	22.3	
	40대	63.2	18.9	17.9	
	50대 이상(b)	63.5	18.0	18.5	
	a-b	-16.8	6.7	10.1	
이념	진보(a)	65.2	14.9	19.8	22.5 (p < 0.00)
	중도	54.7	25.7	19.6	
	보수(b)	52.3	20.6	27.0	
	a-b	12.9	-5.7	-7.2	

<표 2-II-2>에서는 이념 집단별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진보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65.2%로 나타나 보수 집단 응답률 52.3%에 비해 12.9%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이 필요 없다는 비율은 진보 집단에서는 19.8%, 반면 보수 집단에서는 27%로 보수 집단에서 통일에 대해 보다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중도 성향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보수 집단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진보 집단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 집단 간 통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이든 진보이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두 50%를 넘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 집단별 응답의 차이에 비해서 세대 집단 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대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안 되는 20대 응답자들만이 통



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비해 40대 응답자들은 63.2%,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63.5%로 세 명 중 두 명이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0대 응답자들은 51.4%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일이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거부의 응답은 20대의 경우 28.6%로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17.9%, 50대 이상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그런데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의 차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16.8%, 그리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의 경우 10.1%였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이념 집단 간의 차이에 비해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념 집단 간의 구분보다 더욱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II-3 통일이 필요한 이유: 연령 집단별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이상
같은 민족이니까	37.8	42.1	43.6	57.9
이산가족 고통 해결 위해	9.2	11.1	8.9	7.9
전쟁 위협 없애기 위해	30.7	25.7	25.2	21.8
북한 주민도 잘살도록	3.6	5.0	5.6	3.7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7	16.1	16.7	8.8
카이제곱	36.6 (p < 0.00)			

이런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세대와 이념 집단 구분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2-II-3>에서는 연령 집단별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구분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은 절반이 넘는 57.9%

였는데 비해, 20대 연령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7.8%에 불과했다. 20% 정도의 차이가 두 연령 집단 간에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는 21.8%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0.7%에 달했다. 앞의 항목과는 달리 10%가량 젊은 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9-29세에서는 18.7%인데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8.8%에 불과했다. 이 항목에서도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 간의 차이가 10%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표 2-II-3>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민족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민족적 일체감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도구적, 실용적, 수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분단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민족주의적 열정 때문이 아니라,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익과 관련된 판단이 깔려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에서 이러한 항목에서 50대 이상 연령층보다 각각 10% 이상씩 높은 응답이 나타난 반면, 민족적 일체감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20%가량 낮은 응답이 나타난 것은 두 연령 집단 간 통일을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의 차이의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어떤 수단적 이유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합쳐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20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통일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2-II-5]에서 본 것처럼, 20대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낮은 중요한 이유를 <표 2-II-3>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2-II-4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념 집단 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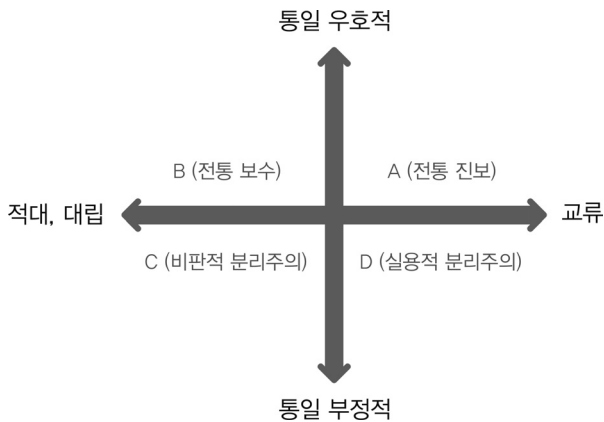
	진보	중도	보수
같은 민족이니까	46.8	44.3	50.0
이산가족 고통 해결 위해	6.2	11.1	8.6
전쟁 위협 없애기 위해	25.2	25.9	24.8
북한 주민도 잘살도록	4.0	5.3	3.2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17.8	13.5	13.3
카이제곱	12.2 (p=0.14)		

그렇다면 이처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이념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까? <표 2-II-4>에는 이념 집단 간 통일이 필요한 이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표 2-II-3>과는 달리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세대별 차이는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념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적, 민족적 요인에 대해서는 보수 집단에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진보 집단에서도 46.8%, 중도 집단에서는 44.3%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세 집단 모두 25% 전후의 비율을 보였다. 한눈에 보더라도 세 이념 집단 간 입장의 차이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면 앞에서 살펴본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토대로 대북 정책,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갈등을 살펴보면 그 균열 축이 이전의 남남 갈등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남남 갈등, 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의 갈등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 우호적 관계의 추진이나 혹은 적대적 압박, 고립 및 붕괴의 추구냐 하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요란하거나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통일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남한만의 분리된 삶, 분리된 정체성의 지속을 추구하느냐라는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일차원이 아니라 이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II-6]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기존 균열 축은 가로축에 정리된 것과 같은 대북 정책을 적대적, 대립적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두 가지 상반된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또 하나의 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II-6]에서는 세로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2-II-6]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균열: 이차원 모델



이와 같은 이차원적 균열에 따라 [그림 2-II-6]에서처럼 네 가지 범주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통적으로 한국 이념 지형에서 진보가 대표해 온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B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대북 정책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념 지형에서 보수가 대표해 온 입장이었다. 그간의 남남 갈등은 이와 같이 가로축을 따라 A와 B 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C와 D는 예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C는 통일에 소극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 대립적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던 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를 비판적, 적대적 분리주의라고 표현했다. 한편, D는 통일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일정하게 남북한 관계를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실용적 분리주의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다.

이러한 구분은 북한, 통일 이슈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의식에 대한 최근의 여러 조사 결과에서는 20대가 보수적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이상 집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보수성은 외형상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20대의 보수성을 5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차원적으로 본다면 20대이든 50대 이상이든 모두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차원적인 틀에서 본다면, 50대 이상의 경우 B 집단에 속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C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선호한다는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및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림 2-II-6]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남 갈등에 대한 시각은 단선적이고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세대적 차이, 통일의 필요성을 둘러싼 태도가 보여주는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의 차이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남남 갈등 역시 이제 중층적인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4.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이번에는 2012년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념, 세대, 정파적 차이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은 만약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크다면 대북 정책은 또다시 격렬한 남남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2-II-5>에는 보수, 중도, 진보의 세 이념 집단, 그리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등 보수 정당에 가깝게 느끼는 이들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에 가깝게 느끼는 이들, 그리고 네 가지 구분한 연령 집단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물었다. 첫째는 평화공존의 방향을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두 번째는 보다 실질적인 형태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증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압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두 질문 모두 5를 중간점으로 하여 1과 10의 두 극단을 주고 적절한 정책의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 물었다. <표 2-II-5>의 수치는 그러한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2-II-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평균	표준편차	ANOVA/t-test
이념	평화공존-흡수통일	진보	4.47	2.34	F = 1.29 p = 0.28
		중도	4.69	2.02	
		보수	4.54	2.18	
	교류협력-적극압박	진보	3.79	1.92	F = 10.4 p < 0.00
		중도	4.32	1.86	
		보수	4.40	1.97	
정파	평화공존-흡수통일	진보 정당지지	4.42	2.10	t = 1.81 p = 0.07
		보수 정당지지	4.74	2.07	
	교류협력-적극압박	진보 정당지지	4.09	1.89	t = 1.43 p = 0.15
		보수 정당지지	4.31	1.81	
세대	평화공존-흡수통일	20대	4.59	2.25	F = 0.06 p = 0.98
		30대	4.56	2.06	
		40대	4.60	2.20	
		50대 이상	4.63	2.12	
	교류협력-적극압박	20대	4.28	1.95	F = 0.27 p = 0.85
		30대	4.19	1.86	
		40대	4.14	1.95	
		50대 이상	4.19	1.90	

평화공존 1 --- 흡수통일 10  
 교류협력 1 --- 적극압박 10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흥미롭게도 이념, 정파, 세대별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이나 정파별로는 진보 진영에서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보다 선호하고, 보수 진영에서 흡수통일이나 적극압박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

장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았다. 세대별로는 교류협력-적극압박에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응답을 한 것이 흥미롭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 차이는 입증되지 못했다. 6개의 분석 항목 가운데 교류협력-적극압박에 대해서만 이념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진보가 3.79로 가장 교류협력을 선호한 것에 비해 보수는 4.40으로 가장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도는 둘의 중간 지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표 2-II-3>, <표 2-II-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 집단의 평균값이 모두 5보다 크게 작다는 것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여전한 시각의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 교류협력의 중단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일방적인 ‘퍼주기’라면 이념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아무런 교류나 접촉이 없는 상태를 다수 국민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재와 비교할 때 다소 전향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남남 갈등과 같은 격한 반응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갈등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정책 방향의 변화보다 대북교류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를 갈라놓은 남남 갈등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2010년을 전후로 이념 집단 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시각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남 갈등은 현재 잠잠하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대북 교류나 접촉이 활발해진다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 방식보다는 쌀, 비료, 의약품 지원과 같은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이념 집단의 반응은 향후 언제라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200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념집단별 차이도 적고 그 추세도 안정성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이 장에서 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을 일차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단의 장기화와 함께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도 다른 세대와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이 민족적 일체감, 당위성을 중시했다면, 20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자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도구적, 수단적인 시각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들에게 통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은 더 이상 단선적,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이제 이차원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을 교류협력의 강화나 적대적, 대립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이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태로부터의 변화 시도 자체가 큰 정치적 논란이나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여전히 이념 집단별 시각의 차이가 큰 만큼 정책 추진의 규모나 속도에 따라서는 또다시 남북 문제가 국내적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1. 서론

2012년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해이다. 먼저 올해 4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시 3년 상을 치렀던 전례와 달리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00일이 된 2012년 3월 25일 100일 추모대회를 치른 뒤 4월에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당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였다. 5월에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1월에는 중국에서 18차 당대회가 열리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 대표되는 4세대 지도자들이 퇴진하고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다. 11월에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국들에서 새로 출범하였거나 출범할 정부들은 기존의 대북, 대한반도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의 틀과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들이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의 대북정책 기초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새로운 대북접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북한도 관련국들의 새로운 정부를 상대하면서 협의의 틀과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더해 강경한 행태들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유동적인 정세가 전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핵심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 미국은 대북정책 피로감과 불신, 무관심으로 인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렵고, 중국은 동북진흥의 틀 속에서 북한을 끌어안는 정책을 당분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정책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내부정세와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으나, 정책 방향이나 주요한 의제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특히 정권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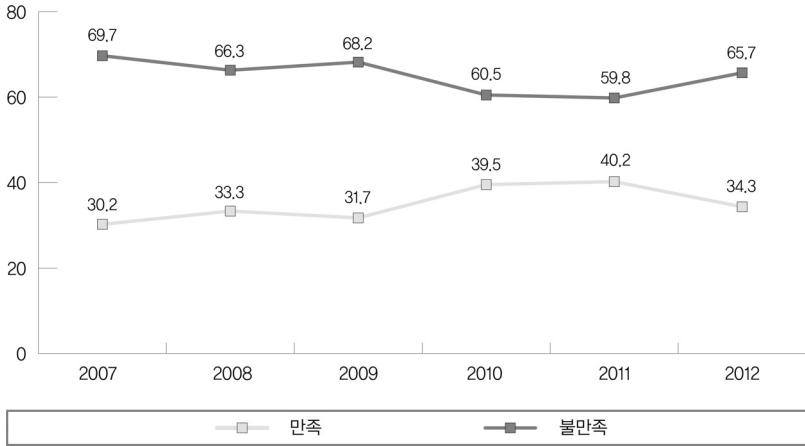
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차기정부 대북정책 기초와 우선순위, 남북 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한 북한 인권 개선과 핵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 2.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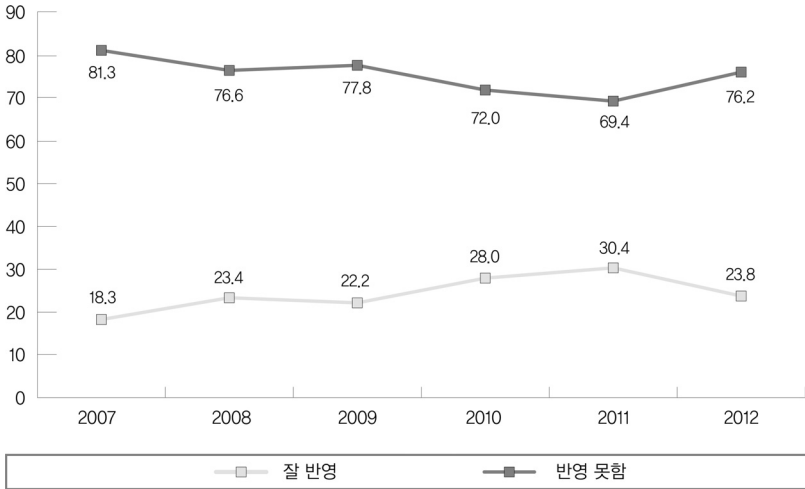
### 1) 대북정책 만족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5.7%는 다소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지난해 40.2%에 비해 5.9%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정도는 1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에 비해 다소 올라간 것이다. 2007년의 경우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는 비율이 30.2%로서 2012년에 비해 4.1% 낮았다.



[그림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3.8%만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6.2%는 별로 또는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6.6% 줄어들었다. 반면 2007년과 비교하면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5.5% 늘어났다.



[그림 2-Ⅲ-2]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31.8%와 31.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0대에서는 3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39.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대에서는 1.9%, 40대에서는 3.6% 높아진 것이지만 30대에서는 3.8%, 50대에서는 1.1% 낮아진 것이다. 올해 연령대별 만족 정도를 2007년과 비교하면 만족 정도가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각각 1.0%, 8.7%, 8.8% 높아졌으나 30대에서는 3.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20, 40, 50대와 30대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 정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대	30.8	28.0	28.9	36.0	29.9	31.8
30대	34.4	30.3	27.2	36.9	35.0	31.2
40대	24.9	34.8	33.2	38.7	40.0	33.6
50대 이상	30.5	40.7	38.2	47.2	40.4	39.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만족 정도가 낮아진 반면 충청권에서는 만족 정도가 18.7%나 급상승하였다. 올해의 만족 정도를 2007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6.0%, 충청권은 7.4%, 영남권은 12.0% 상승한 반면 호남권의 경우 23.7%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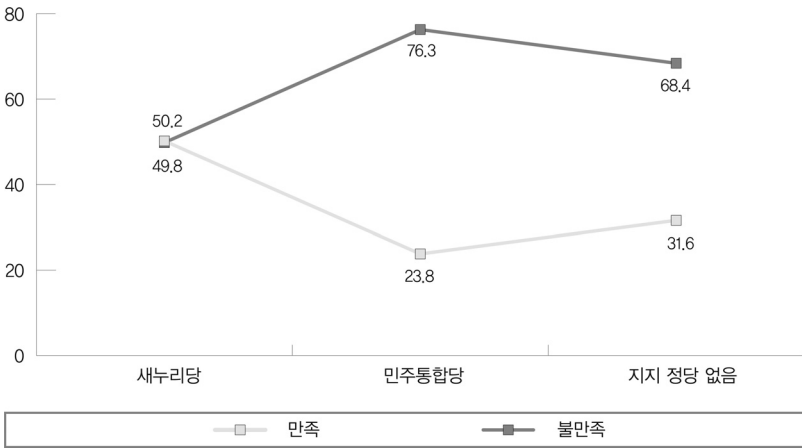
표 2-III-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만족 정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도권	26.7	29.0	31.3	38.6	38.8	32.7
충청권	28.8	29.8	22.9	37.3	17.5	36.2
호남권	43.7	16.1	19.3	18.5	23.3	20.0
영남권	31.3	49.6	41.7	51.9	46.6	43.3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이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50.2%가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3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지자들의 23.8%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만족과 불만족 정도가 50.2% 대 49.8%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76.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9%를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무당파(지지정당 없음)의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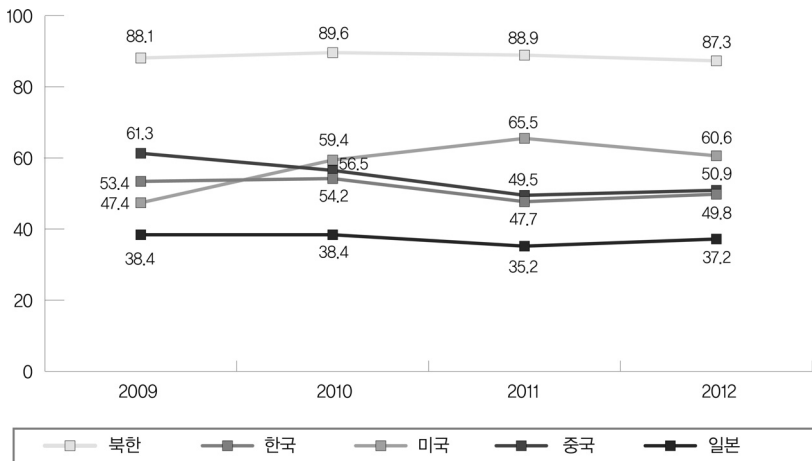
[그림 2-Ⅲ-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

## 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는 사실상 198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하였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감안하면 70년대 이전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에 이어 11월에는 대청해전까지 발생하면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반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10년 들어서는 3월의 천안함사건에 이어 11월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간 비핵화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이 대남비난을 강화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회복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각국의 책임 정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책임이 아주 또는 조금 크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국이며,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한국과 일본,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늘어난 반면 북한과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우선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87.3%로 지난해 88.9%보다 1.6% 줄어들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8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고 지목된 중국의 경우 60.6%로서 지난해 65.5%보다 4.9%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는 50.9%로 지난해 49.5%보다 1.4% 늘어났고 그다음인 한국의 경우는 49.8%로서 2.1%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는 37.2%로서 지난해 35.2%보다 2% 높아졌으나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30%대에 머물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가 86% 전후로 수렴되는 반면 50대 이상은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9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영남권이 90% 전후로 수렴되면서 가장 낮은 호남권과의 편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표 2-III-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정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20대	82.9	85.8	85.7	86.7
	30대	88.1	89.7	86.0	85.1
	40대	86.9	90.8	88.2	86.3
	50대 이상	95.0	92.2	94.2	90.4
지역별	수도권	90.9	90.5	89.0	86.2
	충청권	90.7	90.7	91.5	90.5
	호남권	77.3	79.8	84.5	82.6
	영남권	87.0	91.7	87.8	89.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40대는 50% 초반대로 수렴되는 반면 50대 이상은 4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40%대인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60%대를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 8.5%가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6.4% 감소하였다.

표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20대	45.5	52.8	42.2	53.3
	30대	59.1	53.5	49.8	51.1
	40대	55.1	59.7	50.8	53.4
	50대 이상	53.6	50.4	47.4	43.0
지역별	수도권	57.0	59.5	41.0	49.5
	충청권	55.1	53.4	62.8	62.1
	호남권	61.3	63.9	70.1	69.6
	영남권	46.0	41.1	47.1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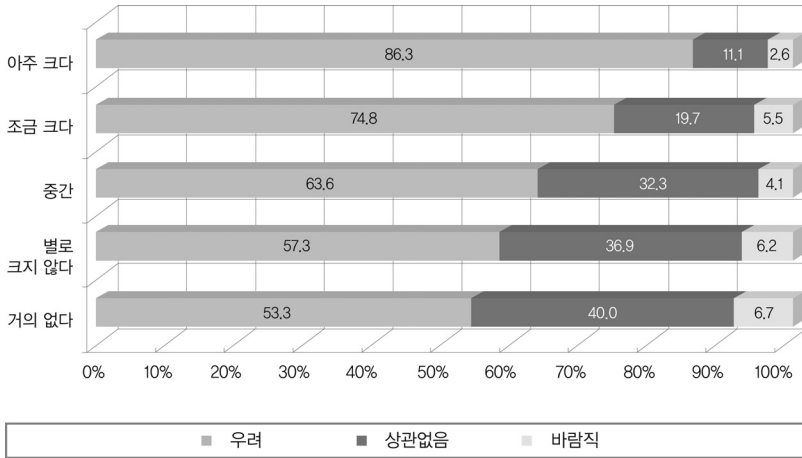
북한 다음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큰 나라로 인식되는 중국에 대해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가 6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대의 경우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하락하고 충청권에서 약간 상승하여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으로 수렴되는 반면 영남권에서는 70%대로 상승하였다.



표 2-III-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20대	41.7	55.4	59.0	61.2
	30대	50.2	59.6	65.9	60.3
	40대	54.6	62.3	68.3	61.9
	50대 이상	42.6	60.5	67.4	59.3
지역별	수도권	51.1	61.2	64.2	55.4
	충청권	45.8	67.4	56.8	57.8
	호남권	52.9	61.3	75.9	61.7
	영남권	41.7	51.8	66.2	70.5

한편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최근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자들 중 86.3%가 북중협력 강화에 우려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의 책임이 거의 없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53.3%가 북중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이 협력대상인지 적대대상인지 등 중국에 대한 이미지나 지지하는 정당과는 유의할만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2-III-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와 북중협력 강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30대와 40대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20대에서는 6.8% 증가하였고 50대 이상에서는 미세하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감소한 반면 수도권에서 5.4% 증가하였고 충청권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2-III-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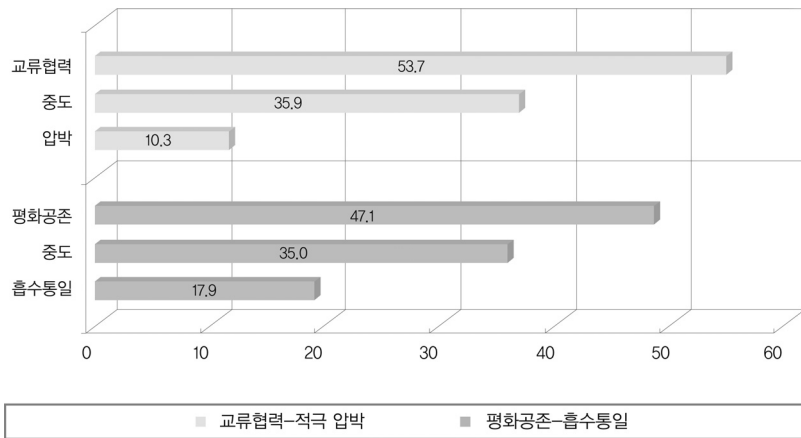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20대	60.7	54.1	45.0	51.8
	30대	65.1	57.1	51.4	51.4
	40대	63.2	59.7	54.1	55
	50대 이상	55.7	54.9	47.3	46.3
지역별	수도권	66.7	57.5	41.8	47.2
	충청권	54.2	58.5	51.3	51.7
	호남권	69.7	67.2	69.0	62.6
	영남권	52.8	49.3	56.2	54.5

### 3.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 1) 대북정책 기조 및 우선순위

2012년 12월 대선과 2013년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2011년과 같이 대체적으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협력에서 적극적인 압박까지를 1-10까지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은 4.2점으로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미하지만 2011년 4.23보다 낮은 수치로서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공존에서 흡수통일까지도 10점 척도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평균은 4.6으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평균 4.66보다 미세하지만 낮아진 수치로서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그만큼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교류협력-중도-압박’과 ‘평화공존-중도-흡수통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sup>2</sup> 아래 그림과 같이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은 53.7%로서 절반을 상회하는 반면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은 47.1%로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Ⅲ-6]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교류협력문제에서는 20대가 30대나 40, 50대보다 압박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압박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호남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화공존문제에서는 50대 이상에서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보다는 20대에서 미세하지만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하여 20대와 40대, 50대가 적극 압박보다 교류협력을 선

<sup>2</sup> 1-4점까지는 교류협력, 5-6점은 중도, 7-10점은 압박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빈도에 따른 비율을 산출



호하는 쪽으로 약간 이동한 반면 30대는 압박 쪽으로 약간 이동하였고, 평화공존문제와 관련해서는 20대와 30대, 40대가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50대는 흡수통일 쪽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류협력문제나 평화공존문제 모두 수도권에서 압박이나 흡수통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류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충청권과 호남권이 압박을 선호하는 쪽으로 약간 움직인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교류협력 방향으로 약간 움직였으며 평화공존문제와 관련해서도 충청권과 호남권이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표 2-III-7** 연령대 및 지역별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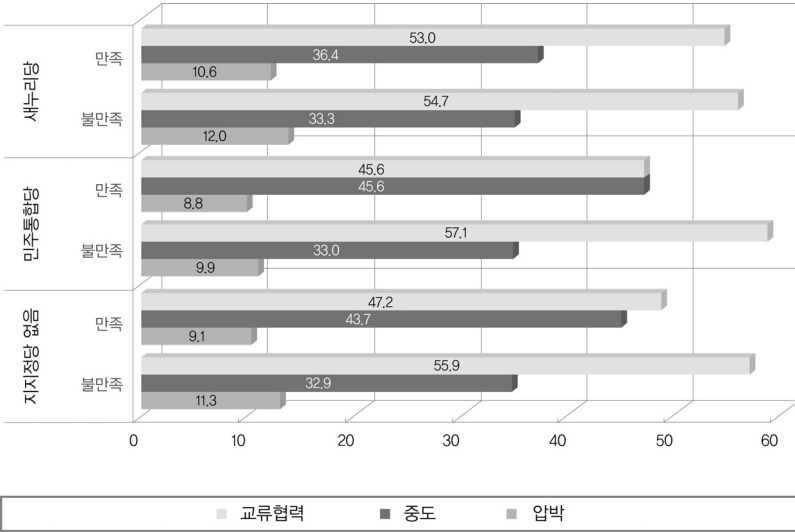
[교류협력-적극 압박]		2011	2012	[평화공존-흡수통일]		2011	2012
전체 평균		4.23	4.20	전체 평균		4.66	4.60
연령 대별	20대	4.35	4.28	연령 대별	20대	4.85	4.59
	30대	4.16	4.19		30대	4.66	4.56
	40대	4.17	4.14		40대	4.69	4.60
	50대 이상	4.24	4.19		50대 이상	4.50	4.63
지역별	수도권	4.40	4.36	지역별	수도권	4.84	4.71
	충청권	4.07	4.30		충청권	4.34	4.47
	호남권	3.41	3.68		호남권	4.22	4.37
	영남권	4.26	4.03		영남권	4.66	4.58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를 기준으로 교류협력과 적극적 압박 가운데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

펴보면, 먼저 새누리당을 지지한 경우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지지한 비율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53.0%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54.7%를 차지하였다. 반면 적극적 압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경우가 10.6%,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2.0%를 차지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와 무관하게 50% 이상이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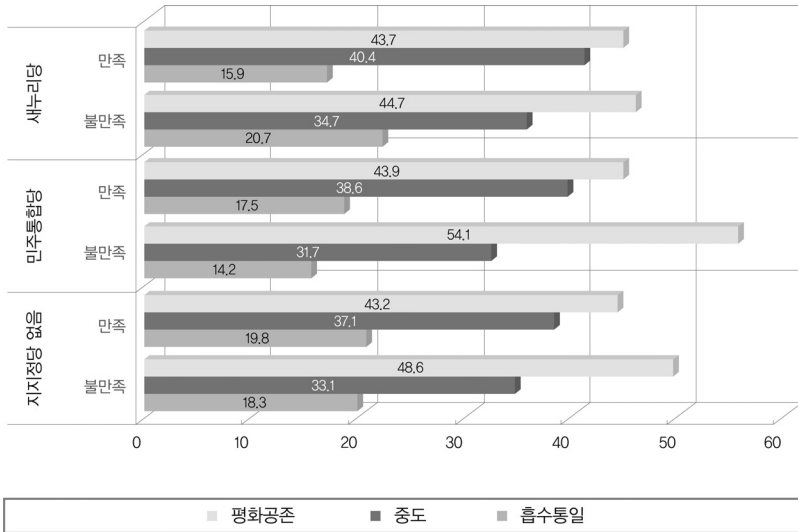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경우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가 45.6%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에서는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가 57.1%로 나타났다. 양측 간의 차이는 11.5%로서 1.7%의 편차를 보인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택한 경우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 47.2%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에서는 55.9%로 나타났다. 만족과 불만족 간에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8.7%의 편차를 보여 민주통합당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그림 2-III-7]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1

평화공존과 흡수통일 가운데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물어본 결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7%,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44.7%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9%,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54.1%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10.2%의 편차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들 중 43.2%,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들 중 48.6%가 평화공존을 선택하여 5.4%의 편차를 보였다.



[그림 2-III-8]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2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2.5%로 나타났다. 남북 간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은 46.1%로 최우선과제로 제기된 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는 11.8%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III-8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구분	남북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북한 개방개혁 및 인권시장	평화협정 체결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
2011	46.6	17.1	14.6	11.5	10.2
2012	46.1	16.9	12.7	12.5	11.8



## 2) 대북정책 현안별 시급성

주요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를 살펴보면 북한인권 개선이 79.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79.3%를 차지하였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높았으며 미군 철수는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해소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약간 감소하였고 정상회담 정례화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2-III-9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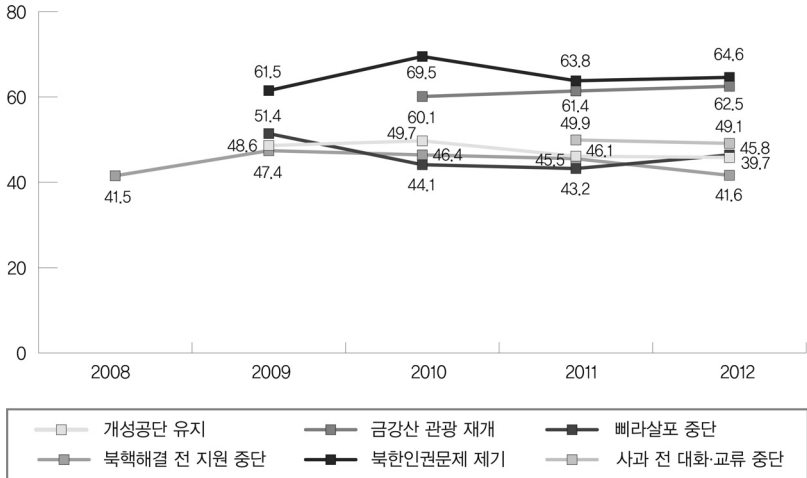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상회담 정례화	66.8	61.7	72.0	69.7	67.7	68.5
북한 개혁개방	78.3	68.9	80.2	78.2	79.4	79.3
군사적 긴장해소	79.9	70.6	83.5	83.6	83.2	77.4
미군 철수	31.1	30.6	24.9	24.3	24.1	22.5
이산가족·국군포로	79.9	72.2	72.9	75.7	75.8	74.0
북한인권 개선	-	76.0	76.2	82.8	80.0	79.8

2007년과 비교하면 정상회담 정례화가 1.7%, 북한 개혁개방이 1% 증가한 반면 군사적 긴장해소는 2.5%,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는 5.9%, 미군철수는 8.6% 감소하였다. 2007년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현안은 군사적 긴장해소와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였다. 따라서 2007년의 경우 주로 남북 간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2012년의 경우는 남북 간 현안보다 북한 인권 개선이나 개혁개방과 같이 북한

자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문제의 경우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3.8%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긴장해소가 2007년과 2009-2011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인권문제와 북한 개혁개방이 군사적 긴장해소를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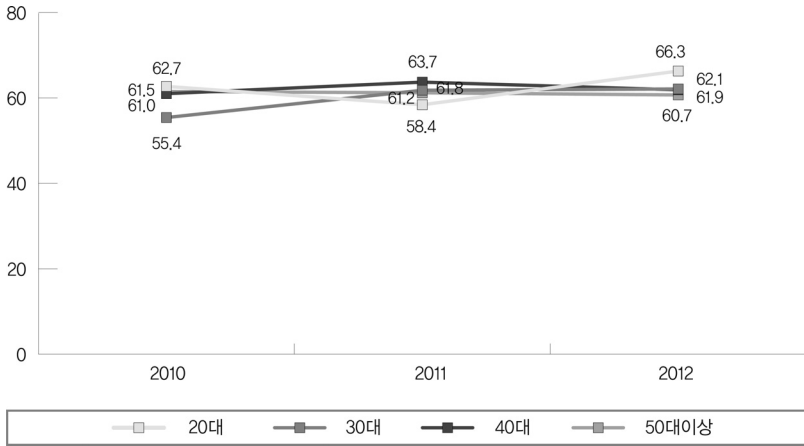
### 3) 남북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태도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64.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62.5%로 나타났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와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49.1%로 지난해 49.9%보다 0.8% 감소였으며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16.3%로 지난해 18.7%보다 2.4% 감소하였다. 대신 ‘반반-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지난해 31.3%에서 34.6%로 2.3% 증가하였다. 이는 천안함사건 이후 정부가 대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킨 소위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절반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대북빼라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이 지난해 43.2%보다 3.2% 증가한 46.4%로 나타났고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지난해보다 0.3% 증가한 46.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지난해보다 3.9% 줄어든 4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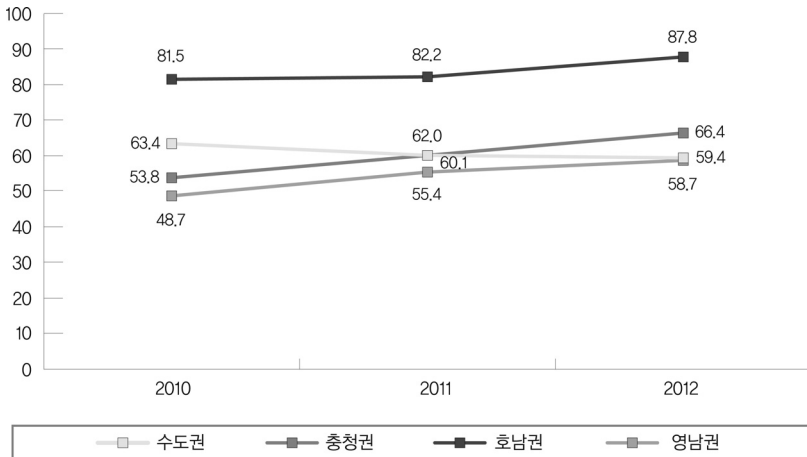
[그림 2-III-9]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

이 가운데 현재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정도를 살펴보면 20대에서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30대와 40대, 50대는 60%대 초반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III-10]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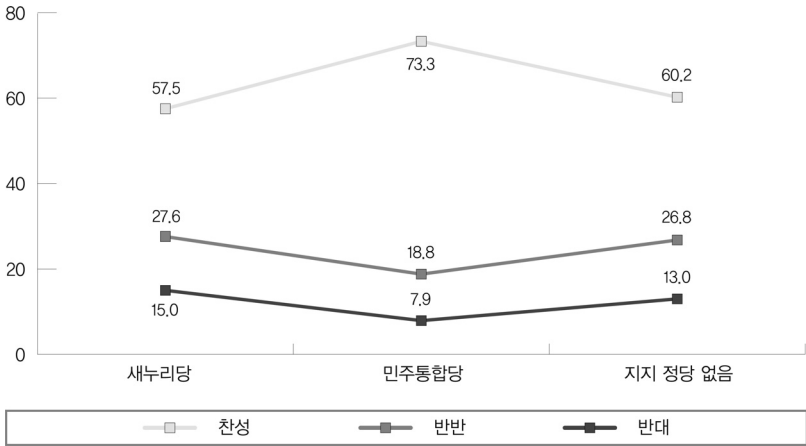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비율이 올라간 가운데, 호남권이 8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충청권이 66.4%, 수도권이 59.4%, 영남권이 58.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2-III-11]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57.5%, 민주통합당이 73.3%를 보인 가운데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높은 60.2%가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경우도 반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III-12]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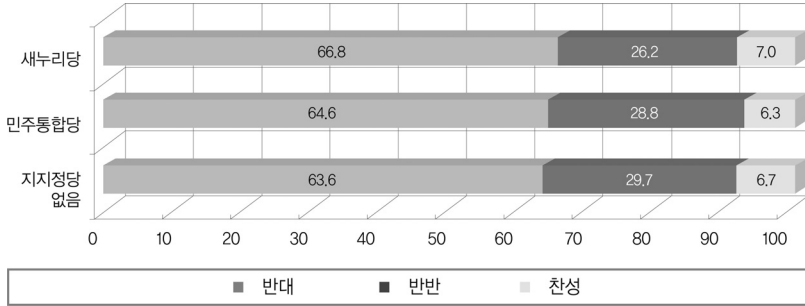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연령대나 지지정당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지역적으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이 65% 대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64.5%와 62.5%를 나타냈다. 연령대별 증감을 보면 20대에서 5.1%, 30대에서 2.2%, 50대 이상에서 0.9%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4.3%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

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이 각각 지난해보다 8.1%와 6.2%, 2.8% 증가한 76.5%와 71.6%, 62.5%를 보였고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61.3%를 보였다.

표 2-III-10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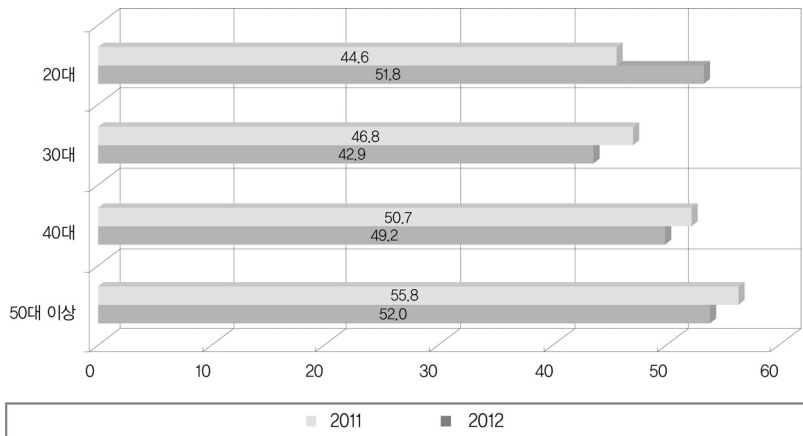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연령대별	20대	58.8	68.3	60.8	65.9
	30대	62.6	66.7	62.3	64.5
	40대	64.4	70.5	66.8	62.5
	50대 이상	59.9	72.7	64.5	65.4
지역별	수도권	65.3	74.9	63.6	61.3
	충청권	78.0	76.7	65.4	71.6
	호남권	53.8	71.4	68.4	76.5
	영남권	52.2	55.5	59.7	62.5

지지정당별로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66.8%였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64.6%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63.6%였다. 이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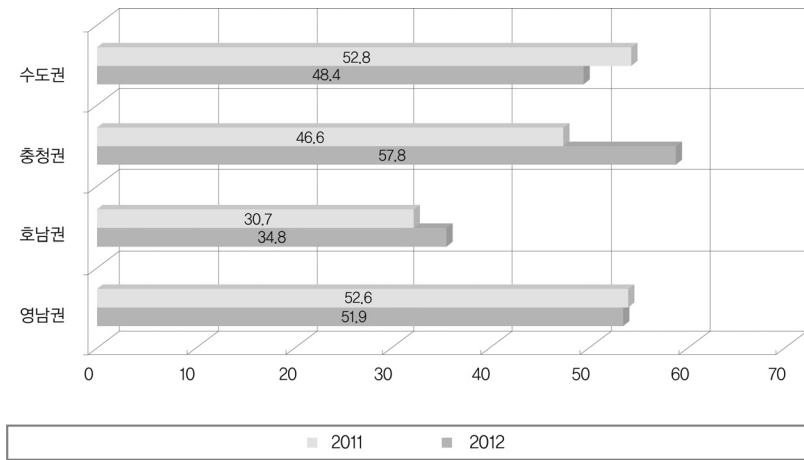
[그림 2-Ⅲ-13] 지지정당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정부가 2010년 천안함사건 발생 이후 대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킨 소위 '5.24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1.8%를 보인 반면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지난해에 비해 3.9%와 1.5%, 3.8% 감소한 42.9%와 49.2%, 52.0%를 보였다. 20대와 40대, 50대 이상이 50%대 전후에서 수렴되는 반면 30대는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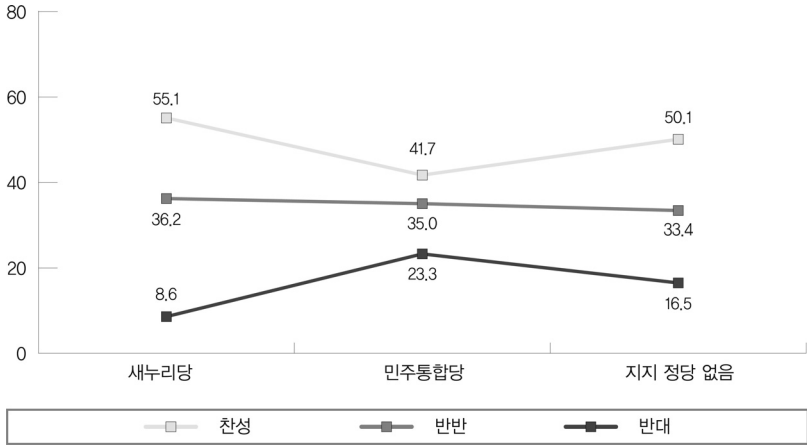
[그림 2-Ⅲ-14]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50% 이상 지역으로는 충청권이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57.8%를 보였고 영남권이 지난해보다 0.7% 떨어진 51.9%를 보였으며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4.4% 떨어진 48.4%를 보였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4.1% 증가하였으나 가장 낮은 34.8%를 나타냈다.



[그림 2-Ⅲ-15]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도 50.1%로서 절반 정도가 북한의 사과 전 대화와 교류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41.7%로 반대 비율인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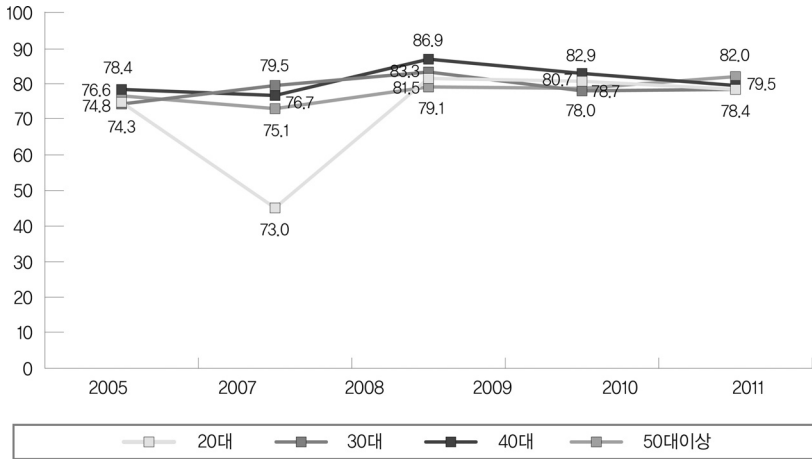


[그림 2-Ⅲ-16]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 4. 북한 주민인권 개선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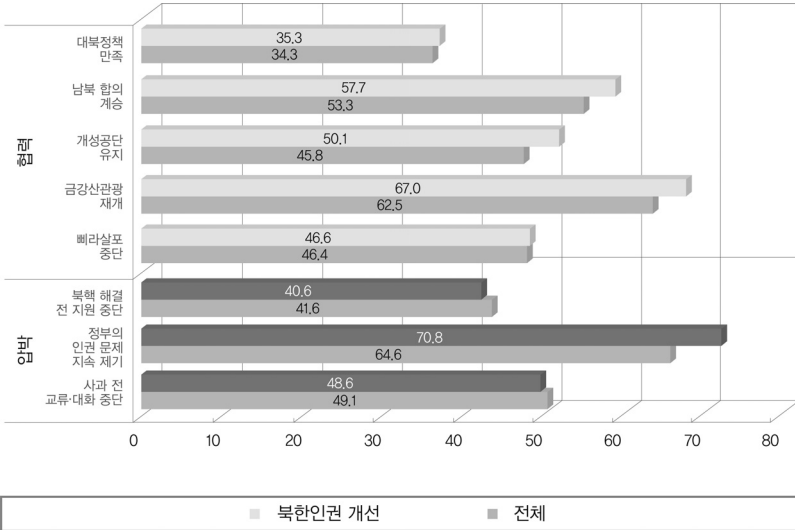
##### 1) 정부의 북한 주민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

주요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보면 50대 이상이 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40대로서 79.5%이며 20대와 30대는 78.4%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서 3.3% 높아졌으며 30대에서도 0.4% 올라갔다. 반면 40대의 경우 3.4% 낮아졌고 20대의 경우도 2.3%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와 30대, 40대는 70% 후반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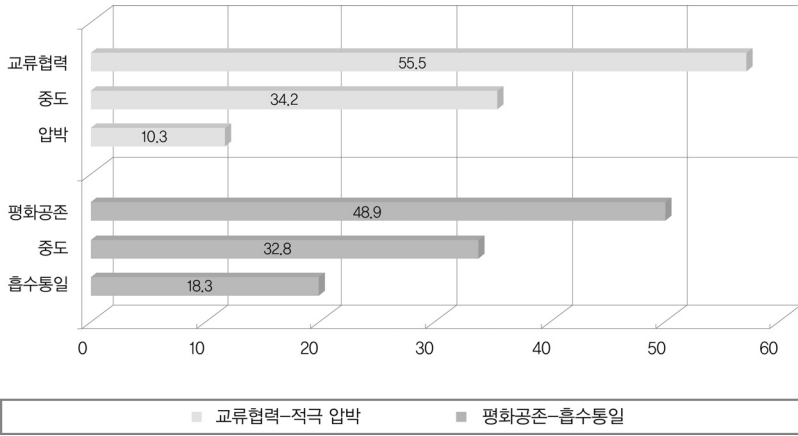
[그림 2-Ⅲ-17]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율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정도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만족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대북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에 대체적으로 전향적인 입장도 보인다.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찬성비율을 보면, 남북 간 합의 계승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보다 2.4%,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는 4.3%,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서는 4.5% 높게 나타났고, 뼈라살포 중단에 대해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들보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전체 응답자들보다 1.0%,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은 0.5%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8%로서 전체 응답자들보다 6.2%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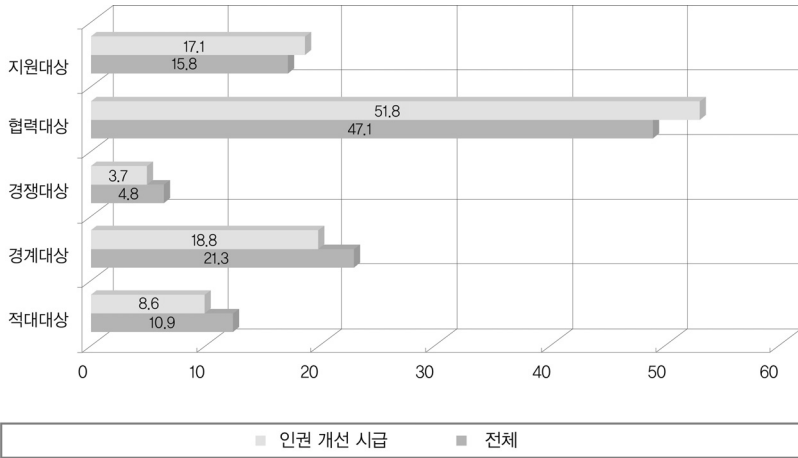
[그림 2-III-18]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현안별 찬성 입장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가 55.5%인 반면 대북압박에 대한 선호는 10.3%에 불과하였고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48.9%로 거의 절반에 이른 반면 흡수통일에 대한 선호는 18.3%로 나타났다.



[그림 2-Ⅲ-19]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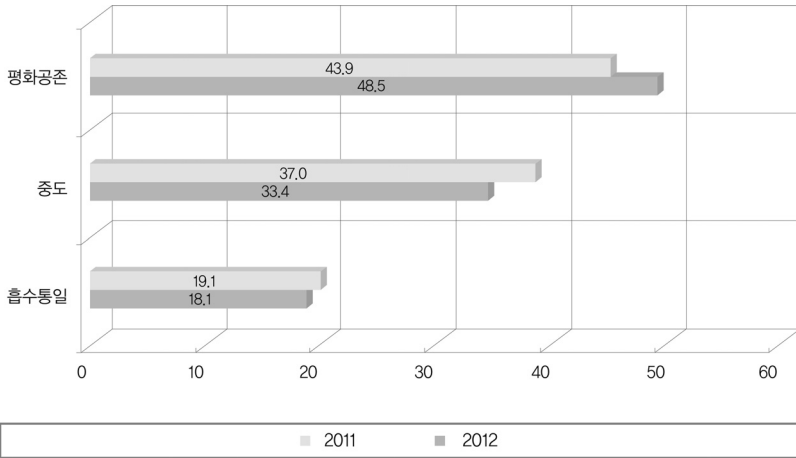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 중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원대상으로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68.9%가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8.6%에 불과하였고 경계대상까지 포함해도 비우호적인 인식은 27.4%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전체 응답자들에 비해 우호적인 대북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III-20]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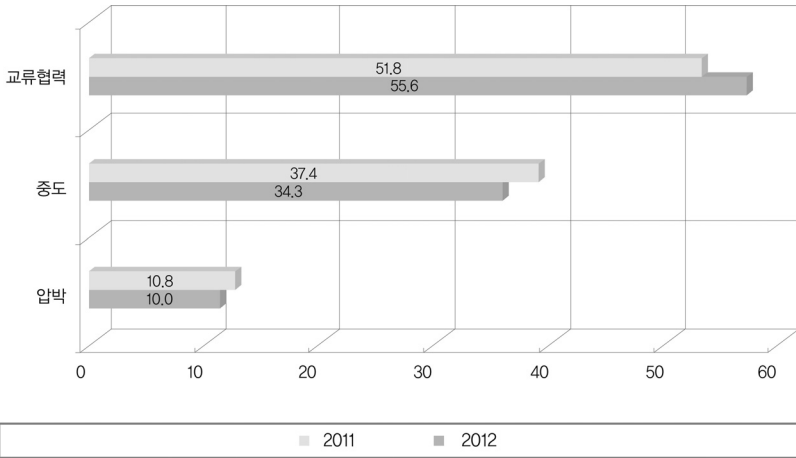
## 2)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48.5%로 나타났고, 흡수통일을 선호하는 경우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1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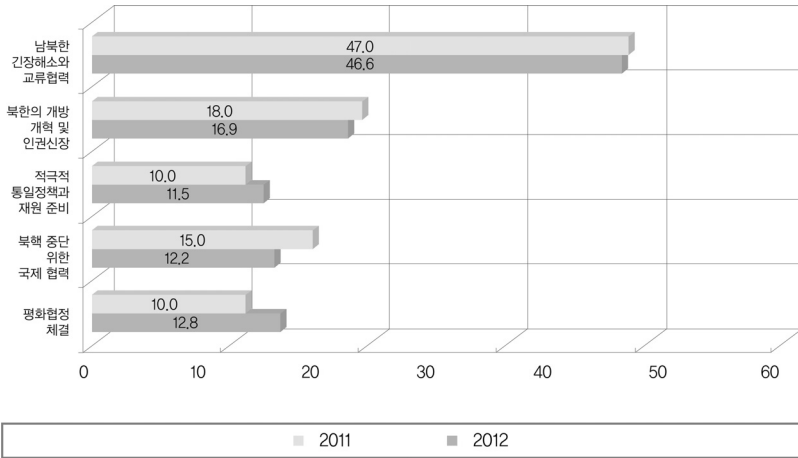
[그림 2-Ⅲ-21]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평화공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3.8% 상승한 55.6%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 중 압박을 선호하는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림 2-Ⅲ-2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교류협력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우선적인 대북정책과제로 북한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택한 경우는 지난해보다 2.8% 하락한 12.2%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6.6%를 보였고 평화협정체결을 선택한 경우도 지난해보다 2.8% 상승한 12.8%를 보였다.



[그림 2-III-2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참고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체 응답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12.5%로 나타났다. 남북 간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은 46.1%로 최우선과제로 제기된 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자원 준비는 11.8%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III-1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남북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북한 개방개혁 및 인권시장	평화협정 체결	북핵 중단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정책과 자원준비
2011	46.6	17.1	14.6	11.5	10.2
2012	46.1	16.9	12.7	12.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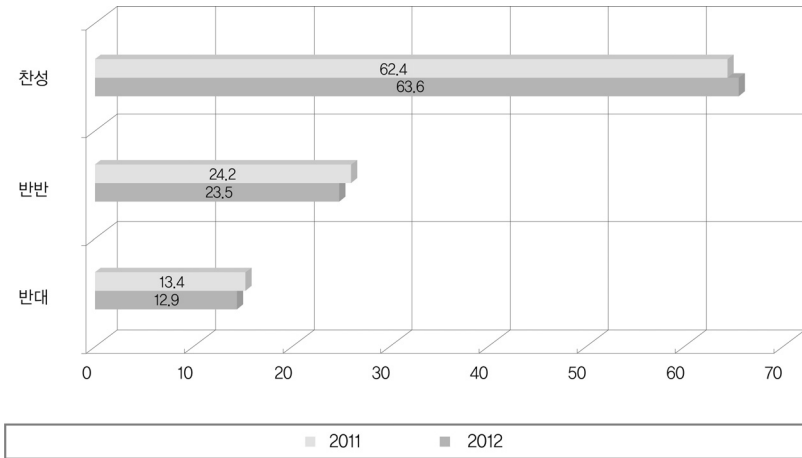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42.2%로 나타났다. 반면 ‘반반-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35.5%였고 반대하는 응답은 1.5% 감소한 22.2%로 나타났다. 북핵 해결 전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반반-그저 그렇다는 입장이 증가하였다.

**표 2-III-1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

		북핵 해결 전 지원 중단		
		찬성	반반	반대
북한 핵무기 불포기	2011	45.0	31.2	23.7
	2012	42.2	35.5	22.2
	2012 전체	41.6	36.5	21.9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중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63.6%인 반면 반대하는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현금유입 통로 역할을 한다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핵문제까지 금강산관광재개와 연계시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Ⅲ-24]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 5. 결론

이제까지 차기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당위적이고 규범적이며 도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세 가지가 주목되었다. 첫째,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흡수통일보다 평화공존, 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도 잘 반영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에서도 비록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80%대 후반 수준에서 지속성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도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



비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로 걸어온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군사적 긴장고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실상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 (흡수)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차기정부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가장 선호한 데서 확인되듯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보다는 남북 간 평화적 공존, 대북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안에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지하는 정당과도 무관하게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차기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에서 북한인권 개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연령대나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60% 이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정부가 중요한 대북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파나 세대와 무관하게 공고한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더 이상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변동을 도모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보수파의 담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시급한 대북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면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대북압박보다는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현실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평화공존 및 협력문제를 사실상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이 그 위협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도,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선호하면서, 차기정부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선호를 보인 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현실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은 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현금 유입창구’로 보는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 전제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협력의 강한 연계 및 북한의 선비핵화 논리와는 다른 인식이다. 즉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 하에서 사실상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을 분리해서 사고하면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2 통일외식조사

## 결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결 장

서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중장기적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 전환의 방향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하지만, 한국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설정이 핵심적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3년 2월에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 의식의 향방이 요소가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2013년의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하에서 변화한 남북관계를 체험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탈냉전 이후 예상키 어려웠던 직접적 무력분쟁 가능성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인식형태가 이 국민의식을 통해 일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 실현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 5.24조치로 대변되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는 탈북이 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012년의 국민의식은 지난 수년간의 가까운 현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염려하거나 희망하는 다수의 집합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예상되는 우려 등이 감안된 전망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에 나타나는 통계들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현재적 평가, 역사적 이해, 미래지향적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식의 심층을 분석적으로 읽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들이 모여져야만 이 조사 결과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시계열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6년간의 변화의 경향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는 이전 조사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2012년도 상황에서의 변화 6년간의 추이, 그리고 좀 더 심층적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 1. 통일인식: 목적으로서의 통일과 수단으로서의 통일의 공존

한국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목표가치로 생각하는가? 이 물음은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려는 부분의 하나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과연 한국국민이 그 헌법적 규정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통일을 얼마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2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국민들이 통일을 중요한 목표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위적인 목표나 규범적인 가치 지향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이 혼재해 있다. 이런 경향은 지난 6년간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기는 하다. 2011년에 이어 전체적으로는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세대별로 보면 젊

은 충을 중심으로 도구적, 수단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수치를 중심으로 요약해본다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2011년 53.7%에서 57.0%로 높아졌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1.4%로 2009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약간의 등락이 없진 않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상호비방과 적대적인 충돌을 경험한 상태에서 한국 국민들의 통일의지나 통일을 중시하는 인식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집합의식이 여전히 크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치상으로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2011년 41.6%에서 2012년 45.9%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리라거나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인식이 크지는 않다. 즉 통일의 가능시기를 20-30년 이후로 바라보는 중장기적 안목을 지닌 응답자들이 많고 '30년 이내' 혹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19.8%, 19.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도 통일이 된다면 한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리라는 기대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통일에 대한 공동체적 필요성과 개인적 차원의 예상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다고 해서 범죄문제, 이념갈등, 지역갈등 같은 사회문제들이 해소되거나 개선되기 어려우리라는 현실적 우려도 나타난다.

동시에 통일의식에 대한 성별,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게서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세대별 편차이다. 흔히 젊은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



만 오히려 통일을 필요로 하는 이유, 통일을 통해 실현하려는 가치가 세 대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로 올 수록 통일 그 자체를 목적가치로 보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이 와야만 희망하는 다른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리라는 수단적 차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경향은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함이라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런 젊은 세대의 도구주의적 통일관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정리한다면 한국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또 통일을 통해 실현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통일이라는 과제는 점차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핵심가치와 연관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를 중시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통일의식과 함께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비율도 뚜렷하다. 이런 차이는 특히 세대 간 차이와 연관성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 더 통일을 수단적이고 도구적으로 간주하려는 심성이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통일의식을 하나의 당위적 지향이나 동질적인 목표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이와 이견이 혼재해 있는, 그러나 통일이라는 큰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의식의 총체로서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북한인식: 적대의식과 공존의식의 긴장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어떠했을까? 2011년 12월에 연평도 포격을 경험한 이후 실질적인 군사도발과 무

력충돌의 위험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국민의식의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했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사건을 겪었던 2011년의 조사에서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안보불안의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었다. 2012년 조사에는 2011년 연말에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적대대상이거나 경계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존재한다는 이중성이었다. 이런 양면적 북한인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2011년에 정점에 달했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나 안보불안의식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이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6% 포인트 하락했으며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도 2011년 55.0%에서 53.2%,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2011년 65.7%에서 2012년 60.7%로 감소하였다. 2011년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안보불안의식은 2008년 이후 52.2% → 63.6% → 67.3% → 78.3% → 68.9%로 변해왔는데 2012년에는 지속적으로 불안의식이 증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 해 수준으로 낮아졌다. 물론 68.9%라는 수치는 2008년의 52.2%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이어서 여전히 안보불안심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2011년을 정점으로 하여 위기의식이나 불안심리는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가 한국사회 내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적 차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스스로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북한을 훨씬 더 긍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였는데 반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북한을 부정적이거나



나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여러 현안이나 통일의 미래를 놓고 북한정권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지만 한국사회의 진보/보수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대화상대로 간주할 것인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어떤 정책적 타협과 약속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인가가 이념적 지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선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중북’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은 손쉽게 이념적인 정체성이나 비방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정책선택이나 권력다툼의 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인식의 이중성이 남남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갖고 있는 이 이중성이나 다중성을 어떻게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적 지혜와 방안으로 연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큰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몇 년간 두드러졌던 ‘20대의 보수화’ 경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 특히 20대의 북한인식이 30대나 40대보다 50대 이상의 부정적 시각과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지난 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를 20대의 보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20대가 북한체제나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현실주의적이고 통일을 수단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려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2012년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20대의 응답이 2011년에 비하여 7.1% 증가하였고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11.5%가 감소하였다. 왜 20대에서 북한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앞으로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20대

가 여전히 북한을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2012년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대의 대북인식과 30대와 40대의 대북인식과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적 시선과 민족적 관점

2012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도 꽤 큰 변화가 있는 해였다.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의 정치지형에 본격 등장했다. 한국사회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소수집단으로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정주자가 인식된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 정주자에 비해 절대 숫자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조건, 동족이라는 속성, 그리고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정치적인 함의 등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3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탈북이탈주민들 스스로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커졌던 것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민주화를 표방한 사회단체가 출범하였고 북한 관련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고 각종 언론보도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도 늘어났다. 연구활동과 통일논의에 직접 참여하려는 연구자, 지식인, 청년들의 모임도 만들어지고 북한에 뼈라를 살포하는 탈북자단체의 활동은 남북관계 및 국내 정치세력들 사이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급속하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실생활에서 이들과 접하



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도 새로운 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인 면모나 편법적인 실상, 그들의 내부 갈등을 반영한 영화가 제작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고 많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상태에 비해 과잉지원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동포로서 수용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며 장차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서적 친근감, 전원수용에 대한 동의,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역할에 대한 평가, 지원강화에 대한 동의, 취업경쟁자로서의 인식 여부, 동일경쟁의 필요성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2011년보다 우호적인 견해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민족동질성이나 동포의식 같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으로부터 점차 일상생활과 결부된 현실주의적인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한국사회가 점점 외국인들 정주자가 많아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상황이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됨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는데 이런 흐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논의의 연관성이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2년 조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항목을 첨가했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의 상호성을 조사하려 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국민들이 다문화적인 정책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의 동의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국민은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국민도 상대적으로 다문화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정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대립적이거나 상호모순적일 것이라 보는 일각의 생각이 근거가 없음을 말해준다. 동포로서의 북한주민에 대한 민족적 수용과 외국인들에 대한 다문화적 개방성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공존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에서도 양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결과는 앞으로 통일과정을 개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와도 연관하여 좀 더 깊이 숙고해 볼 문제다. 한국국민들은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않은 국민들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적인 지향과 통일지향은 종족변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상호모순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이 양자를 동시에 수용할 뿐 아니라 다문화적 지향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할 의지도 강하다는 사실이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 한국의 통일외식과 통일지향이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한국인중심주의를 넘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현실주의적인 맥락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이전 조사에서도 경제적 이해와 관련이 적은 정서적인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항목이거나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결혼대상자 혹은 사업동업자로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4. 대북정책: 유연한 현실주의

남북관계의 미묘한 현실을 반영하듯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단일하지 않다. 세대 간, 이념집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고 구체적인 정책들 사이에 대한 공감도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대체로 대북정책이 하나의 이념적 방향, 동질적인 방향성을 갖기 원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양면적 또는 다원적인 대응을 수용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 태도가 확인된다. 2007년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나 북한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국민들은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정치적 회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불렀는데 2012년의 의식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은 재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와 정책 전환에의 기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다소 신중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 2011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국민들 사이의 견해차이가 좀 더 심화된 탓이라 보인다. 또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대북지원을 현 수준에서 무조건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였고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6.2%에 이를 정도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선의에만 기대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열망과 바램 또한 분명하다. 정치적인 긴장완화와 대화, 개성공단과 같은 경험의 효과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2년의 조

사결과에 기초해서 본다면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이나 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적절한 반응과 책임 있는 조치가 동반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협력과 지원이 바람직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기계적인 북한의 태도변화 우선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으나 남북관계에서 지원과 협력이 장기적으로는 상호성과 신뢰구축의 과정과 결부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새로이 출범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일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해보면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눈에 띈다. 비록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남북관계의 악화에 북한 측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적절하고 예방적이며 장기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뚜렷하다. 국민들로서는 북한의 책임이나 잘못된 그것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한국정부의 정책 무능이나 혼선, 상황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무마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갖는 양면성과 정책에 대한 유연한 현실주의를 지혜롭게 반영하면서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흡수통일보다는 평화공존, 압박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길 바라는 국민의식의 큰 틀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와 지역,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를 정치적으로



로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북한인권문제가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내지 궁극적인 통일과정과 분리된 사안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 역시 유연한 현실주의나 이중적인 태도의 반영이라 하겠는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도 양자를 기계적으로 연동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 5. 주변국 인식: 실용적인 국제주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도움,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다. 국민들은 민족적인 유대와 협력강화와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변수의 영향력 등을 모두 중요하게 평가한다. 특히 2002년경 사회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편향, 예컨대 민족의식과 동맹의식을 상호대립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미적인 태도를 민족주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 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지난 몇 년간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이지만 미국에 대한 친밀도와 긍정적인 평가, 한미동맹의 중요성 인식은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현실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현실주의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한미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대미 친밀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2012년 조사에서는 2011년에 이어 연속하여 그 수치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을 정점으로 한 안보불안과 위기의식

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가 초래하는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중국에 대한 태도다. 국민들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힘을 행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나날이 확대되고 국제정치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북한문제에서는 중국과의 정보공유나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단순한 의식차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의 한중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미래 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 한중관계의 비중,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변수의 위상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중국인식, 대중국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대외적 위협인식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북한을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은 중국인데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비율은 2011년과 비교하여 3.1% 감소한 30.5%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완화되는 모습을 드러냈다. 2009년과 2010년도 사이 대중위협인식의 증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었다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의 대중위협인식의 변화는 대북 위협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국제인식의 추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감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폭이 있지만 국가이미지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지난 6년간 의식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FTA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우려 등이 여러 현장에서 표출되었지만 두 국가의 협력과 경계의 이미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더욱 국제화하고 북한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심화되면서 사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유지 또는 변화되는가가 한국의 외교안보 내지 통일환경 조성을 향한 정책구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 남남갈등과 사회통합: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통일의식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한 또 하나의 내용은 한국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의 실상과 그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남남갈등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될 수 있는 동질적인 대립구도라기보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편차를 동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인지구도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듯 서로의 공존이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인 이념대립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조율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하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2012년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특징은 발견되었다. 미국에 대한 태도와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항상 부정적으로 상호연계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그 차이가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립이라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진보진영에서도 대미친밀감이 상승했고 보수진영에서도 대북친밀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이념적인 분리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반미는 곧 친북이고 친미

는 곧 반복이라는 식의 단순화나 이념적인 선입견은 현실의 국민의식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점점 그 차이가 좁혀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 정치집단들의 태도 차이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것도 있지만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남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북한문제와 이념편차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임도 분명하지만 이 갈등의 정도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극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타당치 않고 정책적으로는 불필요한 과잉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목할 중요한 갈등은 세대 간의 대립일 것이다. 2012년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특히 주목되었지만 앞으로 북한문제나 통일인식, 그리고 남남갈등에서 세대변수는 더욱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이념적 성향보다는 세대에 따른 차이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특히 20대와 50대는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을 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론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달하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8.6%로 50대에 비해 10% 포인트나 높다. 통일의 이유도 20대는 전쟁방지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50대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런 현상을 세대 간의 전쟁으로 단순화하거나 특정세대를 진보와 보수로 동질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20대가 보여주는 보수적인 모습도 50대가 보여주는 전통적 보수성과 반드시 동



일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20대와 50대는 비슷한 패턴을 지닌 그룹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태도나 다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한 판단,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같은 진보적 정책노선 등에 대한 반응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남남갈등을 단선적이고 일차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벗어나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차이, 세대감각의 편차, 정치와 경제의 영역, 한반도의 안과 밖을 동시에 또 중층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사회의 내부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012 통일의식조사

## 부 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분	내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sup>&lt;주1&gt;</sup>	다단계화무작위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4) 표본오차 <sup>&lt;주2&gt;</sup>	± 2.8% (95% 신뢰수준)

<주1> 2012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16개 시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  
 표본추출은 해당 층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조사 실시

<주2> 【별첨1.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표본 할당>

지역	구분	총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5세
전국	총계	1,200	255	282	307	261	95
	남자	610	132	144	157	131	46
	여자	590	123	138	150	130	49
서울특별시	남자	126	28	32	30	26	10
	여자	128	28	31	30	28	11
경기도	남자	42	9	9	10	10	4
	여자	43	9	9	10	11	4
인천광역시	남자	31	7	7	8	7	2
	여자	31	6	7	8	7	3
강원도	남자	35	8	8	9	8	2
	여자	33	7	8	9	7	2
대전광역시	남자	16	4	4	4	3	1
	여자	16	4	4	4	3	1
충청북도	남자	18	4	4	5	4	1
	여자	18	4	4	5	4	1
충청남도	남자	14	3	3	4	3	1
	여자	14	3	3	4	3	1
광주광역시	남자	146	31	36	40	30	9
	여자	140	29	35	38	28	10
전라북도	남자	19	4	4	5	4	2
	여자	17	3	4	4	4	2
전라남도	남자	18	4	4	5	4	1
	여자	16	3	4	4	4	1
대구광역시	남자	24	5	6	6	5	2
	여자	22	5	5	5	5	2
경상북도	남자	22	5	5	5	5	2
	여자	20	4	4	5	5	2
부산광역시	남자	21	4	4	6	5	2
	여자	20	4	4	5	5	2
울산광역시	남자	32	7	7	8	7	3
	여자	29	6	6	7	7	3
경상남도	남자	39	8	9	10	9	3
	여자	37	7	9	10	8	3
제주도	남자	7	1	2	2	1	1
	여자	6	1	1	2	1	1



## 2. 조사방법 및 기간

구분	내용
1) 조사 방법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2년 7월 5일~7월 31일 (26일간)

## 3.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AMD sempron 3400+ 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Editing	⇒	Coding/Punching	⇒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 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 입력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D sempron 3400+</li> <li>• SPSS 12.0</li> </ul>

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1,200	100.0
■ 성별	남자	610	50.8
	여자	590	49.2
■ 연령별	19~29세	255	21.3
	30대	282	23.5
	40대	307	25.6
	50대 이상	356	29.7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8.8
	고졸	554	46.2
	대재 이상	538	44.8
	무름 / 무응답	2	.2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3
	자영업	341	28.4
	블루 칼라	316	26.3
	화이트칼라	194	16.2
	전업 주부	187	15.6
	무직 / 기타	134	11.2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2.5
	200~299만원	311	25.9
	300~399만원	373	31.1
	400만원이상	366	30.5
■ 지역별	수도권	608	50.7
	충청권	116	9.7
	호남권	115	9.6
	영남권	312	26.0
	강원	36	3.0
	제주	13	1.1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7.1
	중 / 소도시	533	44.4
	읍 / 면	102	8.5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7.3
	중도	591	49.3
	보수적	281	23.4
■ 종교별	불교	219	18.3
	기독교	298	24.8
	천주교	87	7.3
	기타	9	.8
	종교 없음	571	47.6
	무름 / 무응답	16	1.3



## 2. 결과집계표

표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전체	(1200)	26.8	30.3	57.0	21.6	17.2	4.3	21.4	100.0
■ 성별									
남자	(610)	32.8	29.5	62.3	18.5	15.2	3.9	19.2	100.0
여자	(590)	20.5	31.0	51.5	24.7	19.2	4.6	23.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1	30.6	46.7	24.7	22.7	5.9	28.6	100.0
30대	(282)	21.3	30.1	51.4	26.2	16.7	5.7	22.3	100.0
40대	(307)	33.2	30.0	63.2	18.9	13.7	4.2	17.9	100.0
50대 이상	(356)	33.1	30.3	63.5	18.0	16.6	2.0	18.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8.3	35.8	64.2	16.0	16.0	3.8	19.8	100.0
고졸	(554)	24.4	29.4	53.8	23.3	18.4	4.5	22.9	100.0
대재 이상	(538)	29.0	30.1	59.1	21.0	15.8	4.1	19.9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2.9	28.6	71.4	17.9	10.7	.0	10.7	100.0
자영업	(341)	31.1	27.6	58.7	22.3	15.5	3.5	19.1	100.0
블루 칼라	(316)	23.4	32.9	56.3	21.8	17.7	4.1	21.8	100.0
화이트칼라	(194)	32.0	25.8	57.7	22.7	13.4	6.2	19.6	100.0
전업주부	(187)	22.5	30.5	52.9	24.6	19.3	3.2	22.5	100.0
무직 / 기타	(134)	18.7	37.3	56.0	14.2	23.9	6.0	29.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0.0	31.3	61.3	22.7	12.0	4.0	16.0	100.0
200~299만원	(311)	26.4	31.8	58.2	20.9	14.5	6.4	20.9	100.0
300~399만원	(373)	24.1	29.5	53.6	23.3	19.3	3.8	23.1	100.0
400만원 이상	(366)	28.4	29.2	57.7	19.9	19.4	3.0	22.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7.6	28.6	56.3	22.4	15.6	5.8	21.4	100.0
충청권	(116)	19.8	37.9	57.8	27.6	10.3	4.3	14.7	100.0
호남권	(115)	45.2	20.9	66.1	20.0	11.3	2.6	13.9	100.0
영남권	(312)	17.9	34.9	52.9	20.2	25.3	1.6	26.9	100.0
강원	(36)	44.4	25.0	69.4	11.1	11.1	8.3	19.4	100.0
제주	(13)	46.2	23.1	69.2	7.7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3.7	31.5	55.2	21.9	18.4	4.4	22.8	100.0
중 / 소도시	(533)	29.3	29.8	59.1	20.6	16.3	3.9	20.3	100.0
읍 / 면	(102)	30.4	25.5	55.9	24.5	14.7	4.9	19.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0.9	24.4	65.2	14.9	15.9	4.0	19.8	100.0
중도	(591)	21.0	33.7	54.7	25.7	16.4	3.2	19.6	100.0
보수적	(281)	22.4	29.9	52.3	20.6	20.3	6.8	27.0	100.0
■ 종교									
불교	(219)	19.2	33.3	52.5	21.0	23.3	3.2	26.5	100.0
기독교	(298)	33.2	30.2	63.4	19.8	13.4	3.4	16.8	100.0
천주교	(87)	37.9	23.0	60.9	33.3	11.5	5.7	17.2	100.0
기타	(9)	22.2	11.1	33.3	33.3	33.3	.0	33.3	100.0
종교 없음	(571)	24.7	30.5	55.2	22.2	17.5	5.1	22.6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31.3	56.3	31.3	12.5	.0	12.5	100.0

표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 전체	(1200)	65.1	18.3	9.6	7.0	100.0
■ 성별						
남자	(610)	67.0	15.6	10.8	6.6	100.0
여자	(590)	63.1	21.2	8.3	7.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63.5	19.6	6.3	10.6	100.0
30대	(282)	64.9	17.0	9.9	8.2	100.0
40대	(307)	67.1	17.9	10.1	4.9	100.0
50대 이상	(356)	64.6	18.8	11.2	5.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0.0	21.7	17.0	11.3	100.0
고졸	(554)	63.5	22.0	7.2	7.2	100.0
대재 이상	(538)	69.7	13.8	10.6	5.9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5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3.6	10.7	32.1	3.6	100.0
자영업	(341)	68.0	18.5	8.2	5.3	100.0
블루 칼라	(316)	64.9	18.0	7.3	9.8	100.0
화이트칼라	(194)	64.4	18.0	12.4	5.2	100.0
전업주부	(187)	62.6	20.3	10.7	6.4	100.0
무직 / 기타	(134)	64.9	17.9	8.2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5.3	18.0	11.3	5.3	100.0
200~299만원	(311)	62.1	20.3	9.6	8.0	100.0
300~399만원	(373)	63.8	19.6	9.1	7.5	100.0
400만원 이상	(366)	68.9	15.6	9.3	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64.5	18.1	9.5	7.9	100.0
충청권	(116)	61.2	23.3	12.1	3.4	100.0
호남권	(115)	75.7	7.0	13.0	4.3	100.0
영남권	(312)	62.5	22.1	7.7	7.7	100.0
강원	(36)	69.4	13.9	8.3	8.3	100.0
제주	(13)	84.6	7.7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66.2	20.0	7.8	6.0	100.0
중 / 소도시	(533)	64.5	17.8	10.7	6.9	100.0
읍 / 면	(102)	61.8	11.8	13.7	12.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8.0	13.4	13.1	5.5	100.0
중도	(591)	65.5	18.8	8.6	7.1	100.0
보수적	(281)	60.9	23.1	7.5	8.5	100.0
■ 종교						
불교	(219)	61.6	22.4	7.3	8.7	100.0
기독교	(298)	66.4	16.1	12.4	5.0	100.0
천주교	(87)	63.2	14.9	17.2	4.6	100.0
기타	(9)	77.8	11.1	11.1	.0	100.0
종교 없음	(571)	66.2	17.9	7.9	8.1	100.0
무름 / 무응답	(16)	50.0	43.8	6.3	.0	100.0



표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계
		%	%	%	%	%	%	%
■ 전체	(1200)	2.9	14.5	25.9	17.8	19.8	19.2	100.0
■ 성별								
남자	(610)	3.6	15.1	30.5	17.7	17.9	15.2	100.0
여자	(590)	2.2	13.9	21.2	17.8	21.7	23.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9	9.0	16.5	20.0	29.4	21.2	100.0
30대	(282)	2.1	13.5	24.5	18.4	21.6	19.9	100.0
40대	(307)	3.3	16.3	28.3	19.9	16.6	15.6	100.0
50대 이상	(356)	2.5	17.7	31.7	13.8	14.0	20.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8	17.0	23.6	12.3	17.0	27.4	100.0
고졸	(554)	2.2	13.5	26.0	19.0	18.6	20.8	100.0
대재 이상	(538)	3.7	15.1	26.4	17.7	21.2	16.0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8.6	25.0	10.7	17.9	10.7	100.0
자영업	(341)	2.9	13.2	31.1	15.8	16.1	20.8	100.0
블루 칼라	(316)	2.2	15.8	27.2	19.0	19.6	16.1	100.0
화이트칼라	(194)	3.6	14.4	26.3	20.1	21.1	14.4	100.0
전업주부	(187)	2.7	12.8	21.9	16.6	20.9	25.1	100.0
무직 / 기타	(134)	3.0	14.2	14.9	19.4	26.1	22.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3	18.7	29.3	10.7	15.3	22.7	100.0
200~299만원	(311)	1.9	16.7	24.4	17.4	21.9	17.7	100.0
300~399만원	(373)	3.2	15.0	20.4	19.6	20.6	21.2	100.0
400만원 이상	(366)	3.3	10.4	31.4	19.1	18.9	16.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6	15.3	26.0	17.6	18.4	19.1	100.0
충청권	(116)	2.6	12.1	20.7	12.9	24.1	27.6	100.0
호남권	(115)	.9	25.2	26.1	11.3	15.7	20.9	100.0
영남권	(312)	1.6	10.9	25.6	22.8	22.8	16.3	100.0
강원	(36)	2.8	8.3	38.9	16.7	19.4	13.9	100.0
제주	(13)	23.1	7.7	38.5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1	14.0	25.0	18.6	21.2	19.1	100.0
중 / 소도시	(533)	3.8	13.5	27.4	18.6	18.4	18.4	100.0
읍 / 면	(102)	2.9	22.5	23.5	8.8	18.6	23.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3	18.9	24.4	18.6	21.3	12.5	100.0
중도	(591)	2.5	12.9	25.5	18.6	19.3	21.2	100.0
보수적	(281)	2.1	12.8	28.5	14.9	18.9	22.8	100.0
■ 종교								
불교	(219)	1.4	10.0	32.4	14.2	20.1	21.9	100.0
기독교	(298)	5.0	21.5	22.1	18.1	16.8	16.4	100.0
천주교	(87)	8.0	16.1	25.3	14.9	19.5	16.1	100.0
기타	(9)	.0	11.1	11.1	11.1	11.1	55.6	100.0
종교 없음	(571)	1.8	12.6	25.2	19.3	21.4	19.8	100.0
무름 / 무응답	(16)	.0	6.3	43.8	25.0	18.8	6.3	100.0

표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1.8	41.6	53.4	34.6	12.0	46.6	100.0
■ 성별								
남자	(610)	13.9	40.8	54.8	33.6	11.6	45.2	100.0
여자	(590)	9.7	42.4	52.0	35.6	12.4	48.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0.6	38.4	49.0	36.5	14.5	51.0	100.0
30대	(282)	10.6	45.7	56.4	34.8	8.9	43.6	100.0
40대	(307)	12.1	41.7	53.7	33.9	12.4	46.3	100.0
50대 이상	(356)	13.5	40.4	53.9	33.7	12.4	46.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6	38.7	45.3	42.5	12.3	54.7	100.0
고졸	(554)	9.4	41.3	50.7	34.3	15.0	49.3	100.0
대재 이상	(538)	15.4	42.4	57.8	33.3	8.9	42.2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35.7	57.1	25.0	17.9	42.9	100.0
자영업	(341)	12.6	44.3	56.9	31.1	12.0	43.1	100.0
블루 칼라	(316)	9.8	38.9	48.7	39.6	11.7	51.3	100.0
화이트칼라	(194)	13.4	43.8	57.2	32.5	10.3	42.8	100.0
전업주부	(187)	8.6	38.0	46.5	39.6	13.9	53.5	100.0
무직 / 기타	(134)	14.9	44.0	59.0	29.9	11.2	4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0	35.3	49.3	38.7	12.0	50.7	100.0
200~299만원	(311)	10.0	41.2	51.1	34.7	14.1	48.9	100.0
300~399만원	(373)	8.6	42.4	50.9	37.0	12.1	49.1	100.0
400만원 이상	(366)	15.8	43.7	59.6	30.3	10.1	40.4	100.0
무름 / 무응답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1.2	43.4	54.6	30.8	14.6	45.4	100.0
충청권	(116)	12.9	41.4	54.3	37.1	8.6	45.7	100.0
호남권	(115)	29.6	37.4	67.0	28.7	4.3	33.0	100.0
영남권	(312)	6.4	39.1	45.5	43.3	11.2	54.5	100.0
강원	(36)	11.1	50.0	61.1	30.6	8.3	38.9	100.0
제주	(13)	7.7	30.8	38.5	46.2	15.4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9.6	40.9	50.4	34.0	15.6	49.6	100.0
중 / 소도시	(533)	14.4	44.3	58.7	33.0	8.3	41.3	100.0
읍 / 면	(102)	10.8	31.4	42.2	46.1	11.8	57.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6.8	47.3	64.0	25.3	10.7	36.0	100.0
중도	(591)	11.8	39.1	50.9	37.7	11.3	49.1	100.0
보수적	(281)	6.0	40.2	46.3	38.8	14.9	53.7	100.0
■ 종교								
불교	(219)	13.7	37.9	51.6	37.0	11.4	48.4	100.0
기독교	(298)	13.4	41.3	54.7	32.9	12.4	45.3	100.0
천주교	(87)	17.2	44.8	62.1	25.3	12.6	37.9	100.0
기타	(9)	33.3	11.1	44.4	22.2	33.3	55.6	100.0
종교 없음	(571)	9.1	43.6	52.7	35.7	11.6	47.3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25.0	37.5	50.0	12.5	62.5	100.0



표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습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7.1	47.3	64.3	27.9	7.8	35.7	100.0
■ 성별								
남자	(610)	20.3	45.7	66.1	26.4	7.5	33.9	100.0
여자	(590)	13.7	48.8	62.5	29.5	8.0	37.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5	44.3	60.8	28.2	11.0	39.2	100.0
30대	(282)	15.6	50.7	66.3	28.0	5.7	33.7	100.0
40대	(307)	20.2	45.6	65.8	26.4	7.8	34.2	100.0
50대 이상	(356)	16.0	48.0	64.0	28.9	7.0	36.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3.2	42.5	55.7	34.0	10.4	44.3	100.0
고졸	(554)	14.4	46.4	60.8	29.8	9.4	39.2	100.0
대재 이상	(538)	20.6	48.9	69.5	24.9	5.6	30.5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42.9	78.6	10.7	10.7	21.4	100.0
자영업	(341)	15.5	53.1	68.6	23.8	7.6	31.4	100.0
블루 칼라	(316)	13.6	44.9	58.5	33.9	7.6	41.5	100.0
화이트칼라	(194)	24.7	45.9	70.6	22.2	7.2	29.4	100.0
전업주부	(187)	11.2	44.4	55.6	35.8	8.6	44.4	100.0
무직 / 기타	(134)	22.4	44.8	67.2	25.4	7.5	32.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8.0	44.0	62.0	30.0	8.0	38.0	100.0
200~299만원	(311)	12.5	47.6	60.1	31.5	8.4	39.9	100.0
300~399만원	(373)	16.9	44.8	61.7	29.0	9.4	38.3	100.0
400만원 이상	(366)	20.8	50.8	71.6	23.0	5.5	28.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8.9	45.6	64.5	26.5	9.0	35.5	100.0
충청권	(116)	15.5	48.3	63.8	31.0	5.2	36.2	100.0
호남권	(115)	32.2	47.8	80.0	15.7	4.3	20.0	100.0
영남권	(312)	9.6	48.7	58.3	34.6	7.1	41.7	100.0
강원	(36)	11.1	55.6	66.7	25.0	8.3	33.3	100.0
제주	(13)	7.7	53.8	61.5	23.1	15.4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2	47.8	65.0	26.2	8.8	35.0	100.0
중·소도시	(533)	16.7	48.4	65.1	28.9	6.0	34.9	100.0
읍 / 면	(102)	18.6	38.2	56.9	32.4	10.8	4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5.9	50.6	76.5	16.8	6.7	23.5	100.0
중도	(591)	15.2	45.0	60.2	31.1	8.6	39.8	100.0
보수적	(281)	10.7	48.0	58.7	34.2	7.1	41.3	100.0
■ 종교								
불교	(219)	15.5	42.0	57.5	32.9	9.6	42.5	100.0
기독교	(298)	17.4	52.7	70.1	21.1	8.7	29.9	100.0
천주교	(87)	31.0	40.2	71.3	25.3	3.4	28.7	100.0
기타	(9)	55.6	22.2	77.8	22.2	.0	22.2	100.0
종교 없음	(571)	14.9	48.3	63.2	29.6	7.2	36.8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31.3	43.8	43.8	12.5	56.3	100.0

표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않는다	%	
	(1200)	16.9	48.4	65.3	27.2	7.5	34.7	100.0
		%	%	%	%	%	%	%
■ 전체	(1200)	16.9	48.4	65.3	27.2	7.5	34.7	100.0
■ 성별								
남자	(610)	20.3	47.2	67.5	25.1	7.4	32.5	100.0
여자	(590)	13.4	49.7	63.1	29.3	7.6	36.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5.7	48.2	63.9	23.9	12.2	36.1	100.0
30대	(282)	16.7	48.9	65.6	28.0	6.4	34.4	100.0
40대	(307)	17.6	49.2	66.8	27.0	6.2	33.2	100.0
50대 이상	(356)	17.4	47.5	64.9	28.9	6.2	35.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2.3	45.3	57.5	34.9	7.5	42.5	100.0
고졸	(554)	14.3	47.1	61.4	29.2	9.4	38.6	100.0
대재 이상	(538)	20.6	50.4	71.0	23.4	5.6	29.0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2.1	46.4	78.6	7.1	14.3	21.4	100.0
자영업	(341)	15.8	54.3	70.1	23.8	6.2	29.9	100.0
블루 칼라	(316)	15.2	48.7	63.9	29.1	7.0	36.1	100.0
화이트칼라	(194)	23.7	40.2	63.9	27.3	8.8	36.1	100.0
전업주부	(187)	11.2	44.4	55.6	35.8	8.6	44.4	100.0
무직 / 기타	(134)	18.7	50.7	69.4	23.1	7.5	3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2.0	39.3	61.3	28.7	10.0	38.7	100.0
200~299만원	(311)	15.1	49.2	64.3	27.7	8.0	35.7	100.0
300~399만원	(373)	14.2	48.5	62.7	29.0	8.3	37.3	100.0
400만원 이상	(366)	19.1	51.4	70.5	24.3	5.2	29.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1	45.6	61.7	28.5	9.9	38.3	100.0
충청권	(116)	19.0	57.8	76.7	17.2	6.0	23.3	100.0
호남권	(115)	37.4	40.9	78.3	18.3	3.5	21.7	100.0
영남권	(312)	10.3	53.2	63.5	32.1	4.5	36.5	100.0
강원	(36)	19.4	52.8	72.2	19.4	8.3	27.8	100.0
제주	(13)	7.7	38.5	46.2	38.5	15.4	53.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4.9	51.3	66.2	25.0	8.8	33.8	100.0
중 / 소도시	(533)	18.0	46.5	64.5	29.3	6.2	35.5	100.0
읍 / 면	(102)	22.5	42.2	64.7	28.4	6.9	35.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8.4	45.4	73.8	20.1	6.1	26.2	100.0
중도	(591)	14.7	49.4	64.1	27.6	8.3	35.9	100.0
보수적	(281)	8.2	49.8	58.0	34.5	7.5	42.0	100.0
■ 종교								
불교	(219)	13.2	48.9	62.1	30.1	7.8	37.9	100.0
기독교	(298)	18.5	47.7	66.1	26.5	7.4	33.9	100.0
천주교	(87)	27.6	41.4	69.0	28.7	2.3	31.0	100.0
기타	(9)	33.3	55.6	88.9	.0	11.1	11.1	100.0
종교 없음	(571)	15.8	49.7	65.5	26.6	7.9	34.5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43.8	56.3	25.0	18.8	43.8	100.0



표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23.8	46.0	69.8	23.5	6.7	30.2	100.0
■ 성별								
남자	(610)	27.4	44.6	72.0	21.8	6.2	28.0	100.0
여자	(590)	20.2	47.5	67.6	25.3	7.1	32.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2.7	45.5	68.2	24.7	7.1	31.8	100.0
30대	(282)	22.7	45.0	67.7	23.8	8.5	32.3	100.0
40대	(307)	25.4	43.3	68.7	25.7	5.5	31.3	100.0
50대 이상	(356)	24.2	49.4	73.6	20.5	5.9	26.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7.0	45.3	62.3	27.4	10.4	37.7	100.0
고졸	(554)	21.3	46.2	67.5	24.5	7.9	32.5	100.0
대재 이상	(538)	27.9	45.9	73.8	21.6	4.6	26.2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2.1	53.6	85.7	7.1	7.1	14.3	100.0
자영업	(341)	24.6	50.1	74.8	19.6	5.6	25.2	100.0
블루 칼라	(316)	18.0	45.6	63.6	28.5	7.9	36.4	100.0
화이트칼라	(194)	34.0	37.1	71.1	21.6	7.2	28.9	100.0
전업주부	(187)	17.6	44.9	62.6	29.4	8.0	37.4	100.0
무직 / 기타	(134)	27.6	49.3	76.9	19.4	3.7	23.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9.3	40.0	69.3	18.7	12.0	30.7	100.0
200~299만원	(311)	21.9	45.7	67.5	25.4	7.1	32.5	100.0
300~399만원	(373)	20.4	46.6	67.0	26.0	7.0	33.0	100.0
400만원 이상	(366)	26.8	48.1	74.9	21.3	3.8	25.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5.3	41.6	66.9	24.7	8.4	33.1	100.0
충청권	(116)	24.1	58.6	82.8	13.8	3.4	17.2	100.0
호남권	(115)	45.2	41.7	87.0	9.6	3.5	13.0	100.0
영남권	(312)	12.5	50.6	63.1	31.1	5.8	36.9	100.0
강원	(36)	22.2	58.3	80.6	13.9	5.6	19.4	100.0
제주	(13)	38.5	30.8	69.2	23.1	7.7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2.8	45.7	68.5	24.2	7.3	31.5	100.0
중 / 소도시	(533)	25.0	46.7	71.7	22.5	5.8	28.3	100.0
읍 / 면	(102)	23.5	44.1	67.6	24.5	7.8	32.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2.6	45.4	78.0	14.6	7.3	22.0	100.0
중도	(591)	23.2	43.8	67.0	26.2	6.8	33.0	100.0
보수적	(281)	14.9	51.2	66.2	28.1	5.7	33.8	100.0
■ 종교								
불교	(219)	16.4	42.9	59.4	32.9	7.8	40.6	100.0
기독교	(298)	22.1	48.7	70.8	21.8	7.4	29.2	100.0
천주교	(87)	34.5	42.5	77.0	19.5	3.4	23.0	100.0
기타	(9)	44.4	33.3	77.8	11.1	11.1	22.2	100.0
종교 없음	(571)	25.7	46.2	72.0	21.5	6.5	28.0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56.3	75.0	25.0	.0	25.0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0)	18.8	49.8	68.5	28.4	3.1	31.5	100.0
■ 성별								
남자	(610)	22.6	48.9	71.5	25.1	3.4	28.5	100.0
여자	(590)	14.7	50.7	65.4	31.9	2.7	34.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7.6	49.4	67.1	26.7	6.3	32.9	100.0
30대	(282)	18.1	47.9	66.0	30.9	3.2	34.0	100.0
40대	(307)	20.5	51.8	72.3	25.4	2.3	27.7	100.0
50대 이상	(356)	18.5	49.7	68.3	30.3	1.4	31.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1.3	53.8	65.1	30.2	4.7	34.9	100.0
고졸	(554)	15.2	49.5	64.6	32.9	2.5	35.4	100.0
대재 이상	(538)	24.0	49.3	73.2	23.4	3.3	26.8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8.6	50.0	78.6	21.4	.0	21.0	100.0
자영업	(341)	17.9	54.5	72.4	25.2	2.3	27.6	100.0
블루 칼라	(316)	15.5	48.4	63.9	32.6	3.5	36.1	100.0
화이트칼라	(194)	22.7	46.4	69.1	27.3	3.6	30.9	100.0
전업주부	(187)	18.2	44.4	62.6	35.3	2.1	37.4	100.0
무직 / 기타	(134)	21.6	53.0	74.6	20.1	5.2	25.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8.7	46.0	64.7	30.0	5.3	35.3	100.0
200~299만원	(311)	16.7	50.5	67.2	29.9	2.9	32.8	100.0
300~399만원	(373)	19.3	47.2	66.5	29.5	4.0	33.5	100.0
400만원 이상	(366)	19.9	53.3	73.2	25.4	1.4	26.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0.2	46.7	66.9	28.8	4.3	33.1	100.0
충청권	(116)	15.5	57.8	73.3	25.0	1.7	26.7	100.0
호남권	(115)	29.6	46.1	75.7	21.7	2.6	24.3	100.0
영남권	(312)	12.2	53.8	66.0	32.4	1.6	34.0	100.0
강원	(36)	25.0	55.6	80.6	16.7	2.8	19.4	100.0
제주	(13)	23.1	38.5	61.5	38.5	.0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8.4	48.3	66.7	30.1	3.2	33.3	100.0
중 / 소도시	(533)	19.1	51.6	70.7	26.8	2.4	29.3	100.0
읍 / 면	(102)	18.6	48.0	66.7	27.5	5.9	3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8.0	46.0	74.1	23.2	2.7	25.9	100.0
중도	(591)	17.8	50.8	68.5	28.9	2.5	31.5	100.0
보수적	(281)	10.0	52.0	61.9	33.5	4.6	38.1	100.0
■ 종교								
불교	(219)	11.9	54.3	66.2	30.1	3.7	33.8	100.0
기독교	(298)	21.5	48.3	69.8	28.5	1.7	30.2	100.0
천주교	(87)	20.7	54.0	74.7	20.7	4.6	25.3	100.0
기타	(9)	55.6	33.3	88.9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19.1	48.0	67.1	29.8	3.2	32.9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62.5	81.3	6.3	12.5	18.8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④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0)	32.9	46.4	79.3	17.7	3.0	20.7	100.0
■ 성별								
남자	(610)	37.0	46.2	83.3	14.1	2.6	16.7	100.0
여자	(590)	28.6	46.6	75.3	21.4	3.4	24.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2.9	43.9	76.9	17.3	5.9	23.1	100.0
30대	(282)	32.6	44.0	76.6	20.6	2.8	23.4	100.0
40대	(307)	35.8	47.6	83.4	14.7	2.0	16.6	100.0
50대 이상	(356)	30.6	49.2	79.8	18.3	2.0	20.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1.7	50.9	72.6	21.7	5.7	27.4	100.0
고졸	(554)	31.2	45.8	77.1	20.4	2.5	22.9	100.0
대재 이상	(538)	37.0	45.9	82.9	14.1	3.0	17.1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53.6	89.3	10.7	.0	10.7	100.0
자영업	(341)	34.9	45.7	80.6	17.0	2.3	19.4	100.0
블루칼라	(316)	31.0	46.5	77.5	19.0	3.5	22.5	100.0
화이트칼라	(194)	36.1	46.4	82.5	14.9	2.6	17.5	100.0
전업주부	(187)	22.5	51.9	74.3	22.5	3.2	25.7	100.0
무직 / 기타	(134)	41.8	38.8	80.6	14.9	4.5	19.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2.0	37.3	69.3	25.3	5.3	30.7	100.0
200~299만원	(311)	30.9	47.6	78.5	18.0	3.5	21.5	100.0
300~399만원	(373)	31.4	49.9	81.2	15.8	2.9	18.8	100.0
400만원 이상	(366)	36.6	45.6	82.2	16.1	1.6	17.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1.6	44.2	75.8	20.2	3.9	24.2	100.0
충청권	(116)	26.7	49.1	75.9	23.3	.9	24.1	100.0
호남권	(115)	43.5	34.8	78.3	19.1	2.6	21.7	100.0
영남권	(312)	32.1	53.8	85.9	11.5	2.6	14.1	100.0
강원	(36)	38.9	55.6	94.4	5.6	.0	5.6	100.0
제주	(13)	61.5	23.1	84.6	15.4	.0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5.2	43.5	78.8	18.1	3.2	21.2	100.0
중 / 소도시	(533)	30.8	49.7	80.5	16.7	2.8	19.5	100.0
읍 / 면	(102)	31.4	45.1	76.5	20.6	2.9	23.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9.0	44.5	83.5	13.7	2.7	16.5	100.0
중도	(591)	30.8	46.7	77.5	20.0	2.5	22.5	100.0
보수적	(281)	30.2	48.0	78.3	17.4	4.3	21.7	100.0
■ 종교								
불교	(219)	29.7	47.9	77.6	17.8	4.6	22.4	100.0
기독교	(298)	32.9	47.3	80.2	18.5	1.3	19.8	100.0
천주교	(87)	46.0	42.5	88.5	10.3	1.1	11.5	100.0
기타	(9)	55.6	33.3	88.9	11.1	.0	11.1	100.0
종교없음	(571)	32.0	46.2	78.3	18.2	3.5	21.7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43.8	68.8	25.0	6.3	31.3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0)	38.6	38.8	77.4	18.6	4.0	22.6	100.0
■ 성별								
남자	(610)	42.6	37.4	80.0	16.4	3.6	20.0	100.0
여자	(590)	34.4	40.3	40.3	20.8	4.4	25.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2.0	31.8	73.7	20.8	5.5	26.3	100.0
30대	(282)	37.2	39.4	76.6	19.5	3.9	23.4	100.0
40대	(307)	38.4	42.0	80.5	16.0	3.6	19.5	100.0
50대 이상	(356)	37.4	40.7	78.1	18.5	3.4	2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9.2	41.5	70.8	21.7	7.5	29.2	100.0
고졸	(554)	33.4	41.2	74.5	21.7	3.8	25.5	100.0
대재 이상	(538)	45.9	35.7	81.6	14.9	3.5	18.4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35.7	85.7	14.3	.0	14.3	100.0
자영업	(341)	36.7	41.1	77.7	17.3	5.0	22.3	100.0
블루 칼라	(316)	39.6	36.1	75.6	19.6	4.7	24.4	100.0
화이트칼라	(194)	40.7	41.8	82.5	13.4	4.1	17.5	100.0
전업주부	(187)	31.0	41.2	72.2	24.6	3.2	27.8	100.0
무직 / 기타	(134)	46.3	32.8	79.1	19.4	1.5	20.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6.7	34.7	71.3	20.7	8.0	28.7	100.0
200~299만원	(311)	37.3	35.7	73.0	21.5	5.5	27.0	100.0
300~399만원	(373)	35.4	43.2	78.6	18.5	2.9	21.4	100.0
400만원 이상	(366)	43.7	38.8	82.5	15.3	2.2	17.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4.4	38.8	73.2	21.9	4.9	26.8	100.0
충청권	(116)	29.3	37.9	67.2	26.7	6.0	32.8	100.0
호남권	(115)	54.8	30.4	85.2	10.4	4.3	14.8	100.0
영남권	(312)	42.3	42.6	84.9	13.5	1.6	15.1	100.0
강원	(36)	47.2	47.2	94.4	5.6	.0	5.6	100.0
제주	(13)	61.5	7.7	69.2	23.1	7.7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1.6	38.4	80.0	16.6	3.4	20.0	100.0
중 / 소도시	(533)	37.1	39.2	76.4	19.5	4.1	23.6	100.0
읍 / 면	(102)	29.4	39.2	68.6	24.5	6.9	31.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7.0	37.2	84.1	13.1	2.7	15.9	100.0
중도	(591)	36.4	38.7	75.1	21.3	3.6	24.9	100.0
보수적	(281)	33.5	40.9	74.4	19.2	6.4	25.6	100.0
■ 종교								
불교	(219)	31.5	39.3	70.8	23.3	5.9	29.2	100.0
기독교	(298)	38.9	39.9	78.9	18.5	2.7	21.1	100.0
천주교	(87)	46.0	34.5	80.5	16.1	3.4	19.5	100.0
기타	(9)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39.6	38.7	78.3	17.5	4.2	21.7	100.0
무름 / 무응답	(16)	37.5	43.8	81.3	18.8	.0	18.8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0)	5.8	16.7	22.5	50.6	26.9	77.5	100.0
■ 성별								
남자	(610)	5.2	13.3	18.5	50.3	31.1	81.5	100.0
여자	(590)	6.4	20.2	26.6	50.8	22.5	73.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5	17.6	23.1	50.2	26.7	76.9	100.0
30대	(282)	6.7	17.7	24.5	53.5	22.0	75.5	100.0
40대	(307)	7.2	16.3	23.5	52.4	24.1	76.5	100.0
50대 이상	(356)	4.2	15.4	19.7	46.9	33.4	8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6	13.2	19.8	45.3	34.9	80.2	100.0
고졸	(554)	4.7	15.5	20.2	54.3	25.5	79.8	100.0
대재 이상	(538)	6.9	18.6	25.5	47.8	26.8	74.5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0.7	17.9	50.0	32.1	82.1	100.0
자영업	(341)	5.6	18.5	24.0	50.4	25.5	76.0	100.0
블루 칼라	(316)	4.1	15.5	19.6	49.4	31.0	80.4	100.0
화이트칼라	(194)	9.8	17.0	26.8	48.5	24.7	73.2	100.0
전업주부	(187)	6.4	13.4	19.8	51.3	28.9	80.2	100.0
무직 / 기타	(134)	3.7	20.1	23.9	56.0	20.1	76.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3	14.0	21.3	46.0	32.7	78.7	100.0
200~299만원	(311)	7.4	14.8	22.2	51.4	26.4	77.8	100.0
300~399만원	(373)	4.0	15.0	19.0	50.7	30.3	81.0	100.0
400만원 이상	(366)	5.7	21.0	26.8	51.6	21.6	73.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6	16.6	21.2	51.6	27.1	78.8	100.0
충청권	(116)	5.2	17.2	22.4	64.7	12.9	77.6	100.0
호남권	(115)	13.0	27.8	40.9	47.8	11.3	59.1	100.0
영남권	(312)	5.4	12.8	18.3	44.2	37.5	81.7	100.0
강원	(36)	8.3	8.3	16.7	58.3	25.0	83.3	100.0
제주	(13)	7.7	30.8	38.5	30.8	30.8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8	17.0	21.8	50.3	28.0	78.2	100.0
중 / 소도시	(533)	6.4	15.9	22.3	52.0	25.7	77.7	100.0
읍 / 면	(102)	8.8	18.6	27.5	45.1	27.5	72.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9	20.7	28.7	47.6	23.8	71.3	100.0
중도	(591)	5.1	17.6	22.7	51.9	25.4	77.3	100.0
보수적	(281)	5.0	10.0	14.9	51.2	33.8	85.1	100.0
■ 종교								
불교	(219)	5.9	12.8	18.7	50.2	31.1	81.3	100.0
기독교	(298)	4.0	15.8	19.8	50.0	30.2	80.2	100.0
천주교	(87)	9.2	12.6	21.8	55.2	23.0	78.2	100.0
기타	(9)	11.1	22.2	33.3	33.3	33.3	66.7	100.0
종교 없음	(571)	6.3	19.4	25.7	50.3	24.0	74.3	100.0
무름 / 무응답	(16)	.0	6.3	6.3	62.5	31.3	93.8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전체	(1200)	28.2	45.8	74.0	22.3	3.7	26.0	100.0
■ 성별								
남자	(610)	29.7	43.4	73.1	23.4	3.4	26.9	100.0
여자	(590)	26.6	48.3	74.9	21.2	3.9	25.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5	45.1	72.5	21.6	5.9	27.5	100.0
30대	(282)	29.4	42.2	71.6	26.2	2.1	28.4	100.0
40대	(307)	27.4	47.9	75.2	20.8	3.9	24.8	100.0
50대 이상	(356)	28.4	47.5	75.8	21.1	3.1	2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5.5	49.1	74.5	19.8	5.7	25.5	100.0
고졸	(554)	24.9	47.1	72.0	24.2	3.8	28.0	100.0
대재 이상	(538)	32.2	43.9	76.0	20.8	3.2	24.0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9.3	42.9	82.1	14.3	3.6	17.9	100.0
자영업	(341)	28.2	46.9	75.1	22.6	2.3	24.9	100.0
블루 칼라	(316)	23.7	46.2	69.9	25.9	4.1	30.1	100.0
화이트칼라	(194)	32.5	43.3	75.8	21.1	3.1	24.2	100.0
전업주부	(187)	24.6	48.1	72.7	21.4	5.9	27.3	100.0
무직 / 기타	(134)	35.1	43.3	78.4	17.9	3.7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6.0	40.7	76.7	16.7	6.7	23.3	100.0
200~299만원	(311)	24.8	48.6	73.3	23.8	2.9	26.7	100.0
300~399만원	(373)	23.6	49.3	72.9	22.8	4.3	27.1	100.0
400만원 이상	(366)	32.5	42.1	74.6	23.0	2.5	25.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5.7	46.7	72.4	23.2	4.4	27.6	100.0
충청권	(116)	23.3	51.7	75.0	25.0	.0	25.0	100.0
호남권	(115)	50.4	35.7	86.1	11.3	2.6	13.9	100.0
영남권	(312)	24.4	45.5	69.9	26	4.2	30.1	100.0
강원	(36)	36.1	52.8	88.9	8.3	2.8	11.1	100.0
제주	(13)	61.5	30.8	92.3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7.6	43.0	70.6	24.6	4.8	29.4	100.0
중 / 소도시	(533)	27.4	49.2	76.5	20.6	2.8	23.5	100.0
읍 / 면	(102)	35.3	44.1	79.4	18.6	2.0	20.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4.5	47.0	81.4	15.9	2.7	18.6	100.0
중도	(591)	25.4	45.3	70.7	25.7	3.6	29.3	100.0
보수적	(281)	26.7	45.6	72.2	22.8	5.0	27.8	100.0
■ 종교								
불교	(219)	26	43.8	69.9	23.7	6.4	30.1	100.0
기독교	(298)	30.9	45.0	75.8	23.2	1.0	24.2	100.0
천주교	(87)	35.6	47.1	82.8	13.8	3.4	17.2	100.0
기타	(9)	55.6	11.1	66.7	33.3	0.0	33.3	100.0
종교 없음	(571)	25.9	47.5	73.4	22.6	4.0	26.6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43.8	75.0	18.8	6.3	25.0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전체	(1200)	37.6	42.2	79.8	18.0	2.2	20.2	.1	100.0
■ 성별									
남자	(610)	41.1	39.0	80.2	17.5	2.1	19.7	.2	100.0
여자	(590)	33.9	45.4	79.3	18.5	2.2	20.7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0.8	37.6	78.4	16.9	4.7	21.6	.0	100.0
30대	(282)	37.6	40.8	78.4	20.2	1.4	21.6	.0	100.0
40대	(307)	38.4	41.0	79.5	18.6	2.0	20.5	.0	100.0
50대 이상	(356)	34.6	47.5	82.0	16.6	1.1	17.7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7.4	50.0	77.4	19.8	2.8	22.6	.0	100.0
고졸	(554)	33.6	44.4	78	20.2	1.8	22	.0	100.0
대재 이상	(538)	43.9	38.1	82	15.4	2.4	17.8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	1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35.7	92.9	7.1	.0	7.1	.0	100.0
자영업	(341)	38.7	44.6	83.3	14.7	2.1	16.7	.0	100.0
블루 칼라	(316)	33.2	42.7	75.9	22.5	1.6	24.1	.0	100.0
화이트칼라	(194)	40.7	36.1	76.8	18.6	4.1	22.7	.5	100.0
전업주부	(187)	29.4	45.5	74.9	24.1	1.1	25.1	.0	100.0
무직 / 기타	(134)	47.8	40.3	88.1	9.0	3.0	11.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7	40.0	80.7	15.3	4.0	19.3	.0	100.0
200~299만원	(311)	34.7	43.1	77.8	20.3	1.9	22.2	.0	100.0
300~399만원	(373)	32.2	48.3	80.4	17.7	1.9	19.6	.0	100.0
400만원 이상	(366)	44.3	36.1	80.3	17.5	1.9	19.4	.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7.7	39.0	76.6	20.1	3.3	23.4	.0	100.0
충청권	(116)	32.8	54.3	87.1	12.9	.0	12.9	.0	100.0
호남권	(115)	49.6	35.7	85.2	10.4	3.5	13.9	.9	100.0
영남권	(312)	31.7	47.8	79.5	20.2	0.3	20.5	.0	100.0
강원	(36)	55.6	36.1	91.7	5.6	2.8	8.3	.0	100.0
제주	(13)	61.5	23.1	84.6	15.4	.0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0.0	40.2	80.2	17.5	2.3	19.8	.0	100.0
중 / 소도시	(533)	34.9	44.5	79.4	18.4	2.1	20.5	.2	100.0
읍 / 면	(102)	38.2	41.2	79.4	18.6	2.0	20.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7.3	39.0	86.3	11.9	1.5	13.4	.3	100.0
중도	(591)	33.2	42.0	75.1	23.0	1.9	24.9	.0	100.0
보수적	(281)	35.6	46.3	81.9	14.6	3.6	18.1	.0	100.0
■ 종교									
불교	(219)	28.8	42.9	71.7	25.1	3.2	28.3	.0	100.0
기독교	(298)	44.3	39.3	83.6	14.8	1.3	16.1	.3	100.0
천주교	(87)	49.4	40.2	89.7	6.9	3.4	10.3	.0	100.0
기타	(9)	55.6	33.3	88.9	11.1	.0	11.1	.0	100.0
종교 없음	(571)	35.2	43.4	78.6	19.3	2.1	21.4	.0	100.0
무름 / 무응답	(16)	43.8	56.3	100.0	.0	.0	.0	.0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기타	없다	계
		%	%	%	%	%	%	%	%
■ 전체	(1200)	45.9	25.3	14.5	9.1	4.4	.8	.1	100.0
■ 성별									
남자	(610)	45.1	24.8	17.2	8.2	3.9	.8	.0	100.0
여자	(590)	46.8	25.8	11.7	10.0	4.9	.7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7.3	30.2	18.4	9	3.5	1.6	.0	100.0
30대	(282)	41.8	25.5	16.0	11.0	5.0	.7	.0	100.0
40대	(307)	43.3	25.1	16.6	8.8	5.5	.3	.3	100.0
50대 이상	(356)	57.6	21.6	8.7	7.9	3.7	.6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4.2	17.9	5.7	10.4	1.9	.0	.0	100.0
고졸	(554)	47.7	23.1	12.8	9.9	5.6	.7	.2	100.0
대재 이상	(538)	40.7	28.6	18.0	8.0	3.7	.9	.0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4	10.7	3.6	7.1	.0	7.1	.0	100.0
자영업	(341)	43.7	26.4	15.5	9.4	4.4	.6	.0	100.0
블루 칼라	(316)	46.8	25.0	14.2	9.5	4.1	.3	.0	100.0
화이트칼라	(194)	43.8	25.3	15.5	8.8	5.7	1	.0	100.0
전업주부	(187)	55.6	20.3	9.1	9.1	5.3	.5	.0	100.0
무직 / 기타	(134)	33.6	32.8	20.9	8.2	3.0	.7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4.0	23.3	10.7	7.3	3.3	.7	.7	100.0
200~299만원	(311)	49.2	22.8	12.2	10.0	5.1	.6	.0	100.0
300~399만원	(373)	48.5	24.7	13.4	8.6	4.0	.8	.0	100.0
400만원 이상	(366)	37.2	28.7	19.1	9.6	4.6	.8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5.9	23.7	15.1	9.4	5.1	.8	.0	100.0
충청권	(116)	34.5	28.4	13.8	19	4.3	0	.0	100.0
호남권	(115)	47.8	25.2	13	5.2	5.2	2.6	.9	100.0
영남권	(312)	50.6	26.3	13.8	6.1	2.9	.3	.0	100.0
강원	(36)	36.1	36.1	13.9	11.1	2.8	0	.0	100.0
제주	(13)	46.2	15.4	23.1	7.7	7.7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8.7	23.7	15.9	6.4	4.2	1.1	.0	100.0
중 / 소도시	(533)	43.3	25.9	13.5	11.6	5.3	.2	.2	100.0
읍 / 면	(102)	44.1	30.4	11.8	10.8	1.0	2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6.3	25.0	17.7	6.1	4.0	.9	.0	100.0
중도	(591)	44.0	25.7	13.4	11.0	5.2	.7	.0	100.0
보수적	(281)	49.5	24.6	13.2	8.5	3.2	.7	.4	100.0
■ 종교									
불교	(219)	52.1	22.8	11.9	8.7	3.2	.9	.5	100.0
기독교	(298)	47.0	22.8	13.8	8.7	6.7	1	.0	100.0
천주교	(87)	49.4	20.7	23.0	2.3	4.6	.0	.0	100.0
기타	(9)	22.2	55.6	22.2	.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42.9	27.7	14.4	10.5	3.9	.7	.0	100.0
무름 / 무응답	(16)	43.8	25.0	18.8	12.5	.0	.0	.0	100.0



표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전체	(1200)	13.1	38.5	51.6	38.5	9.9	48.4	100.0
■ 성별								
남자	(610)	17.0	42.0	59.0	32.8	8.2	41.0	100.0
여자	(590)	9.0	34.9	43.9	44.4	11.7	56.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2.5	41.2	53.7	34.5	11.8	46.3	100.0
30대	(282)	14.5	36.9	51.4	37.9	10.6	48.6	100.0
40대	(307)	16.0	39.4	55.4	35.5	9.1	44.6	100.0
50대 이상	(356)	9.8	37.1	46.9	44.4	8.7	53.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36.8	41.5	49.1	9.4	58.5	100.0
고졸	(554)	9.9	38.3	48.2	41.9	9.9	51.8	100.0
대재 이상	(538)	18	39.2	57.2	32.9	9.9	42.8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25.0	42.9	57.1	.0	57.1	100.0
자영업	(341)	15.2	40.5	55.7	36.1	8.2	44.3	100.0
블루 칼라	(316)	10.4	41.8	52.2	36.7	11.1	47.8	100.0
화이트칼라	(194)	18.0	39.2	57.2	32.5	10.3	42.8	100.0
전업주부	(187)	5.9	29.9	35.8	51.9	12.3	64.2	100.0
무직 / 기타	(134)	15.7	39.6	55.2	35.1	9.7	44.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7	34.7	49.3	38.7	12.0	50.7	100.0
200~299만원	(311)	11.6	44.1	55.6	37.6	6.8	44.4	100.0
300~399만원	(373)	13.7	34.0	47.7	41.6	10.7	52.3	100.0
400만원 이상	(366)	13.1	39.9	53.0	36.1	10.9	47.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4.1	38.3	52.5	35.5	12.0	47.5	100.0
충청권	(116)	12.9	39.7	52.6	40.5	6.9	47.4	100.0
호남권	(115)	20.0	36.5	56.5	39.1	4.3	43.5	100.0
영남권	(312)	7.1	38.5	45.5	44.2	10.3	54.5	100.0
강원	(36)	19.4	41.7	61.1	36.1	2.8	38.9	100.0
제주	(13)	30.8	46.2	76.9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3.3	37.5	50.8	36.5	12.7	49.2	100.0
중 / 소도시	(533)	12.6	40.0	52.5	40.3	7.1	47.5	100.0
읍 / 면	(102)	14.7	36.3	51.0	40.2	8.8	49.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2.0	40.5	62.5	29.9	7.6	37.5	100.0
중도	(591)	11.5	39.4	50.9	39.8	9.3	49.1	100.0
보수적	(281)	6.0	34.2	40.2	45.9	13.9	59.8	100.0
■ 종교								
불교	(219)	7.8	36.1	43.8	44.7	11.4	56.2	100.0
기독교	(298)	16.1	37.6	53.7	36.2	10.1	46.3	100.0
천주교	(87)	28.7	34.5	63.2	29.9	6.9	36.8	100.0
기타	(9)	44.4	22.2	66.7	22.2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10.9	40.5	51.3	38.7	10.0	48.7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50.0	56.3	43.8	.0	43.8	100.0

표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 전체	(1200)	4.2	21.8	26.0	53.5	20.5	74.0	100.0
■ 성별								
남자	(610)	5.6	25.4	31.0	51.6	17.4	69.0	100.0
여자	(590)	2.7	18.1	20.8	55.4	23.7	79.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9	25.1	31.0	48.2	20.8	69.0	100.0
30대	(282)	3.2	23.0	26.2	53.9	19.9	73.8	100.0
40대	(307)	4.2	22.1	26.4	52.4	21.2	73.6	100.0
50대 이상	(356)	3.7	18.3	21.9	57.9	20.2	7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15.1	17.0	59.4	23.6	83.0	100.0
고졸	(554)	2.5	20.4	22.9	54.9	22.2	77.1	100.0
대재 이상	(538)	6.3	24.7	31.0	50.9	18.0	69.0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4.3	21.4	67.9	10.7	78.6	100.0
자영업	(341)	3.5	25.2	28.7	52.8	18.5	71.3	100.0
블루 칼라	(316)	3.2	21.8	25.0	56.0	19.0	75.0	100.0
화이트칼라	(194)	6.7	21.6	28.4	48.5	23.2	71.6	100.0
전업주부	(187)	3.2	11.8	15.0	57.8	27.3	85.0	100.0
무직 / 기타	(134)	5.2	29.1	34.3	47.8	17.9	65.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7	20.7	25.3	54.0	20.7	74.7	100.0
200~299만원	(311)	3.5	25.1	28.6	55.9	15.4	71.4	100.0
300~399만원	(373)	3.8	20.1	23.9	51.7	24.4	76.1	100.0
400만원 이상	(366)	4.9	21.3	26.2	53.0	20.8	73.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8	26.0	30.8	50.2	19.1	69.2	100.0
충청권	(116)	3.4	19.8	23.3	50.9	25.9	76.7	100.0
호남권	(115)	3.5	22.6	26.1	53.0	20.9	73.9	100.0
영남권	(312)	2.9	12.8	15.7	62.2	22.1	84.3	100.0
강원	(36)	8.3	33.3	41.7	41.7	16.7	58.3	100.0
제주	(13)	7.7	23.1	30.8	61.5	7.7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5	21.4	20.5	52.7	22.3	75.0	100.0
중 / 소도시	(533)	4.9	22.7	27.6	54.2	18.2	72.4	100.0
읍 / 면	(102)	3.9	19.6	23.5	53.9	22.5	76.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8.5	26.5	35.1	49.1	15.9	64.9	100.0
중도	(591)	2.7	2.03	25.7	54.5	19.8	74.3	100.0
보수적	(281)	2.1	13.9	16.0	56.6	27.4	84.0	100.0
■ 종교								
불교	(219)	3.2	14.6	17.8	58.0	24.2	82.2	100.0
기독교	(298)	7.4	21.8	29.2	48.7	22.1	70.8	100.0
천주교	(87)	12.6	26.4	39.1	46.0	14.9	60.9	100.0
기타	(9)	11.1	.0	11.1	66.7	22.2	88.9	100.0
종교 없음	(571)	1.6	24.2	25.7	55.3	18.9	74.3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50.0	25.0	75.0	100.0



표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	약간 개선 %	%	차이 없음 %	약간 악화 %	크게 악화 %	%	%
■ 전체	(1200)	2.8	9.4	12.3	18.4	34.3	35.1	69.3	100.0
■ 성별									
남자	(610)	3.3	8.4	11.6	20.7	32.6	35.1	67.7	100.0
여자	(590)	2.4	10.5	12.9	16.1	35.9	35.1	71.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4	7.5	9.8	19.6	34.5	36.1	70.6	100.0
30대	(282)	4.6	10.3	14.9	16.3	33.3	35.5	68.8	100.0
40대	(307)	2.9	9.4	12.4	16.0	32.9	38.8	71.7	100.0
50대 이상	(356)	1.7	10.1	11.8	21.3	36.0	30.9	66.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4.7	4.7	23.6	39.6	32.1	71.7	100.0
고졸	(554)	2.2	11.2	13.4	18.1	32.3	36.3	68.6	100.0
대재 이상	(538)	4.1	8.6	12.6	17.8	35.3	34.2	69.5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0	.0	.0	.0	10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7.1	17.9	21.4	46.4	14.3	60.7	100.0
자영업	(341)	1.5	11.1	12.6	20.8	31.7	34.9	66.6	100.0
블루 칼라	(316)	2.2	9.5	11.7	18.0	31.3	38.9	70.3	100.0
화이트칼라	(194)	5.2	8.2	13.4	16.0	38.1	32.5	70.6	100.0
전업주부	(187)	2.7	8.6	11.2	15.5	34.8	38.5	73.3	100.0
무직 / 기타	(134)	3.0	8.2	11.2	20.1	38.8	29.9	68.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3	10.0	13.3	25.3	30.7	30.7	61.3	100.0
200~299만원	(311)	4.5	11.3	15.8	16.7	36.3	31.2	67.5	100.0
300~399만원	(373)	2.7	9.4	12.1	18.5	33.5	35.9	69.4	100.0
400만원 이상	(366)	1.4	7.7	9.0	16.9	34.7	39.3	74.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3	13.0	16.3	20.2	31.9	31.6	63.5	100.0
충청권	(116)	1.7	10.3	12.1	11.2	36.2	40.5	76.7	100.0
호남권	(115)	6.1	8.7	14.8	21.7	31.3	32.2	63.5	100.0
영남권	(312)	1.0	2.6	3.5	14.7	39.4	42.3	81.7	100.0
강원	(36)	5.6	8.3	13.9	25.0	36.1	25.0	61.1	100.0
제주	(13)	.0	7.7	7.7	38.5	23.1	30.8	53.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3	9.9	12.2	18.6	32.4	36.8	69.2	100.0
중 / 소도시	(533)	3.4	9.0	12.4	16.5	37.1	34.0	71.1	100.0
읍 / 면	(102)	2.9	8.8	11.8	27.5	29.4	31.4	6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0	11.9	14.9	19.2	31.7	34.1	65.9	100.0
중도	(591)	3.4	10.3	13.7	16.9	35.7	33.7	69.4	100.0
보수적	(281)	1.4	4.6	6.0	20.6	34.2	39.1	73.3	100.0
■ 종교									
불교	(219)	2.3	5.9	8.2	17.8	34.2	39.7	74.0	100.0
기독교	(298)	3.4	9.7	13.1	16.8	39.6	30.5	70.1	100.0
천주교	(87)	5.7	16.1	21.8	17.2	28.7	32.2	60.9	100.0
기타	(9)	.0	.0	.0	22.2	22.2	55.6	77.8	100.0
종교 없음	(571)	2.5	9.3	11.7	19.8	32.4	36.1	68.5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0	25.0	25.0	12.5	37.5	25.0	62.5	100.0

표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	약간 개선 %	%	차이 없음 %	약간 악화 %	크게 악화 %	%	%
■ 전체	(1200)	4.3	12.3	16.6	20.8	36.5	26.2	62.7	100.0
■ 성별									
남자	(610)	4.4	12.6	17	20.5	34.6	27.9	62.5	100.0
여자	(590)	4.2	11.9	16.1	21	38.5	24.4	62.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1	11	16.1	21.2	32.9	29.8	62.7	100.0
30대	(282)	4.6	11.7	16.3	19.5	34	30.1	64.2	100.0
40대	(307)	4.9	14	18.9	18.6	34.9	27.7	62.5	100.0
50대 이상	(356)	3.1	12.1	15.2	23.3	42.4	19.1	61.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5.7	5.7	25.5	41.5	27.4	68.9	100.0
고졸	(554)	3.6	14.4	18.1	20.6	36.5	24.9	61.4	100.0
대재 이상	(538)	5.9	11.3	17.3	20.1	35.3	27.3	62.6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7.1	17.9	25.0	39.3	17.9	57.1	100.0
자영업	(341)	5.0	14.1	19.1	22.0	35.5	23.5	58.9	100.0
블루 칼라	(316)	1.9	13.3	15.2	22.2	36.7	25.9	62.7	100.0
화이트칼라	(194)	6.7	12.4	19.1	19.1	34.5	27.3	61.9	100.0
전업주부	(187)	3.7	10.7	14.4	18.2	38.5	28.9	67.4	100.0
무직 / 기타	(134)	4.5	8.2	12.7	19.4	38.1	29.9	6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3	10.0	15.3	25.3	38.7	20.7	59.3	100.0
200~299만원	(311)	4.8	14.5	19.3	19.3	34.1	27.3	61.4	100.0
300~399만원	(373)	4.3	13.1	17.4	20.6	36.7	25.2	61.9	100.0
400만원 이상	(366)	3.6	10.4	13.9	20.2	37.4	28.4	65.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6	14.6	20.2	24.8	31.1	23.8	54.9	100.0
충청권	(116)	3.4	4.3	7.8	11.2	49.1	31.9	81.0	100.0
호남권	(115)	7.8	10.4	18.3	16.5	40.9	24.3	65.2	100.0
영남권	(312)	1.3	11.2	12.5	17.0	40.4	30.1	70.5	100.0
강원	(36)	2.8	13.9	16.7	25.0	36.1	22.2	58.3	100.0
제주	(13)	0.0	7.7	7.7	30.8	46.2	15.4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4	13.5	16.8	21.9	35.8	25.5	61.2	100.0
중 / 소도시	(533)	4.7	12.2	16.9	18.6	37.7	26.8	64.5	100.0
읍 / 면	(102)	7.8	5.9	13.7	25.5	34.3	26.5	6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1	15.5	21.6	18.6	29.9	29.9	59.8	100.0
중도	(591)	3.7	11.8	15.6	20.5	39.4	24.5	64.0	100.0
보수적	(281)	3.6	9.3	12.8	23.8	38.1	25.3	63.3	100.0
■ 종교									
불교	(219)	2.7	14.6	17.4	19.6	30.6	32.4	63.0	100.0
기독교	(298)	5.7	11.4	17.1	17.4	43.6	21.8	65.4	100.0
천주교	(87)	9.2	12.6	21.8	27.6	24.1	26.4	50.6	100.0
기타	(9)	22.2	33.3	55.6	11.1	22.2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3.3	11.6	14.9	21.7	37.1	26.3	63.4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0	6.3	6.3	31.3	37.5	25.0	62.5	100.0



표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	약간 개선 %	%	차이 없음 %	약간 악화 %	크게 악화 %	%	%
■ 전체	(1200)	5.5	18.1	23.6	15.8	34.3	26.4	60.7	100.0
■ 성별									
남자	(610)	7.4	18.7	26.1	13.6	33.3	27.0	60.3	100.0
여자	(590)	3.6	17.5	21.0	18.0	35.3	25.8	61.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9	20.0	25.9	18.8	29.0	26.3	55.3	100.0
30대	(282)	7.1	18.1	25.2	13.8	38.7	22.3	61.0	100.0
40대	(307)	5.2	17.6	22.8	12.7	34.2	30.3	64.5	100.0
50대 이상	(356)	4.2	17.1	21.3	17.7	34.6	26.4	6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16.0	16.0	16.0	39.6	28.3	67.9	100.0
고졸	(554)	4.9	17.5	22.4	17.0	32.9	27.8	60.6	100.0
대재 이상	(538)	7.2	19.1	26.4	14.5	34.6	24.5	59.1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17.9	35.7	3.6	35.7	25.0	60.7	100.0
자영업	(341)	5.6	20.5	26.1	16.4	33.4	24.0	57.5	100.0
블루 칼라	(316)	2.8	16.8	19.6	18.4	34.2	27.8	62.0	100.0
화이트칼라	(194)	9.3	16.5	25.8	15.5	35.1	23.7	58.8	100.0
전업주부	(187)	3.2	13.9	17.1	13.9	39.6	29.4	69.0	100.0
무직 / 기타	(134)	6.7	23.1	29.9	13.4	27.6	29.1	56.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3	20.7	28.0	15.3	29.3	27.3	56.7	100.0
200~299만원	(311)	7.1	19.0	26.0	14.8	37.3	21.9	59.2	100.0
300~399만원	(373)	4.3	16.6	20.9	15.0	35.4	28.7	64.1	100.0
400만원 이상	(366)	4.6	17.8	22.4	17.5	32.5	27.6	60.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6.6	18.6	25.2	17.8	34.9	22.2	57.1	100.0
충청권	(116)	6.0	16.4	22.4	19.8	25.9	31.9	57.8	100.0
호남권	(115)	7.8	25.2	33.0	13.0	37.4	16.5	53.9	100.0
영남권	(312)	2.2	13.5	15.7	10.9	35.6	37.8	73.4	100.0
강원	(36)	5.6	27.8	33.3	16.7	33.3	16.7	50	100.0
제주	(13)	7.7	30.8	38.5	23.1	23.1	15.4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8	21.4	26.2	15.4	32.0	26.4	58.4	100.0
중 / 소도시	(533)	5.6	15.8	21.4	16.7	35.3	26.6	61.9	100.0
읍 / 면	(102)	8.8	11.8	20.6	12.7	41.2	25.5	6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8.2	22.6	30.8	13.4	31.7	24.1	55.8	100.0
중도	(591)	4.9	17.3	22.2	17.1	35.9	24.9	60.7	100.0
보수적	(281)	3.6	14.6	18.1	15.7	33.8	32.4	66.2	100.0
■ 종교									
불교	(219)	5.0	14.2	19.2	12.3	35.2	33.3	68.5	100.0
기독교	(298)	6.4	19.5	25.8	17.1	32.2	24.8	57.0	100.0
천주교	(87)	6.9	27.6	34.5	13.8	28.7	23.0	51.7	100.0
기타	(9)	11.1	.0	11.1	11.1	33.3	44.4	77.8	100.0
종교 없음	(571)	5.1	17.3	22.4	16.8	36.1	24.7	60.8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0	31.3	31.3	12.5	25.0	31.3	56.3	100.0

표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	약간 개선 %	%	차이 없음 %	약간 악화 %	크게 악화 %	%	%
■ 전체	(1200)	1.8	4.2	5.9	19.9	44.3	29.9	74.2	100.0
■ 성별									
남자	(610)	2.1	3.8	5.9	18.7	46.2	29.2	75.4	100.0
여자	(590)	1.4	4.6	5.9	21.2	42.2	30.7	72.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	2.7	4.3	21.2	42.7	31.8	74.5	100.0
30대	(282)	2.1	6.0	8.2	19.9	42.2	29.8	72.0	100.0
40대	(307)	2.0	2.9	4.9	19.9	42.7	32.6	75.2	100.0
50대 이상	(356)	1.4	4.8	6.2	19.1	48.3	26.4	7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3.8	4.7	18.9	43.4	33.0	76.4	100.0
고졸	(554)	1.1	4.7	5.8	19.3	46.0	28.9	74.9	100.0
대재 이상	(538)	2.6	3.7	6.3	20.8	42.6	30.3	72.9	100.0
무응답	(2)	.0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	10.7	10.7	17.9	46.4	25.0	71.4	100.0
자영업	(341)	2.1	5.0	7.0	19.4	49.3	24.3	73.6	100.0
블루 칼라	(316)	0.3	3.8	4.1	18.4	41.1	36.4	77.5	100.0
화이트칼라	(194)	4.1	4.6	8.8	21.1	41.8	28.4	70.1	100.0
전업주부	(187)	1.6	2.1	3.7	20.3	45.5	30.5	75.9	100.0
무직 / 기타	(134)	1.5	3.7	5.2	23.1	40.3	31.3	7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	4.7	8.7	19.3	42.0	30.0	72.0	100.0
200~299만원	(311)	1.9	5.8	7.7	20.9	48.9	22.5	71.4	100.0
300~399만원	(373)	1.1	4.0	5.1	22.3	41.3	31.4	72.7	100.0
400만원 이상	(366)	1.4	2.7	4.1	16.9	44.3	34.7	79.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6	5.4	8.1	23.0	42.6	26.3	68.9	100.0
충청권	(116)	.9	6.0	6.9	16.4	50.0	26.7	76.7	100.0
호남권	(115)	2.6	4.3	7.0	21.7	45.2	26.1	71.3	100.0
영남권	(312)	.3	1.0	1.3	13.8	44.9	40.1	84.9	100.0
강원	(36)	.0	5.6	5.6	25.0	47.2	22.2	69.4	100.0
제주	(13)	.0	.0	.0	23.1	38.5	38.5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9	4.2	6.2	20.5	41.9	31.3	73.3	100.0
중 / 소도시	(533)	1.5	3.9	5.4	18	47.1	29.5	76.5	100.0
읍 / 면	(102)	2	4.9	6.9	26.5	42.2	24.5	66.7	100.0
■ 정치적상황									
진보적	(328)	2.1	6.1	8.2	22.3	42.4	27.1	69.5	100.0
중도	(591)	1.9	3.2	5.1	22.2	44.0	28.8	72.8	100.0
보수적	(281)	1.1	3.9	5.0	12.5	47.0	35.6	82.6	100.0
■ 종교									
불교	(219)	2.7	4.6	7.3	14.6	42.0	36.1	78.1	100.0
기독교	(298)	2.3	5.0	7.4	22.1	43.6	26.8	70.5	100.0
천주교	(87)	3.4	5.7	9.2	23.0	41.4	26.4	67.8	100.0
기타	(9)	.0	11.1	11.1	11.1	33.3	44.4	77.8	100.0
종교 없음	(571)	.9	3.3	4.2	20.5	45.5	29.8	75.3	100.0
무응답	(16)	.0	.0	.0	18.8	62.5	18.8	81.3	100.0



표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2.1	8.8	10.8	18.8	40.3	30.0	70.3	100.0
■ 성별									
남자	(610)	2.6	8.0	10.7	18.4	42.1	28.9	71.0	100.0
여자	(590)	1.5	9.5	11.0	19.3	38.5	31.2	69.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	3.9	6.7	19.6	38.8	34.9	73.7	100.0
30대	(282)	2.1	9.9	12.1	18.1	34.4	35.5	69.9	100.0
40대	(307)	2.6	12.4	15.0	17.3	39.7	28.0	67.8	100.0
50대 이상	(356)	1.1	8.1	9.3	20.2	46.6	23.9	70.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4.7	4.7	21.7	45.3	28.3	73.6	100.0
고졸	(554)	1.3	10.5	11.7	18.2	41.5	28.5	70.0	100.0
대재 이상	(538)	3.3	7.6	11.0	19.0	38.1	32.0	70.1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7.1	14.3	21.4	42.9	21.4	64.3	100.0
자영업	(341)	1.8	10.6	12.3	19.1	41.3	27.3	68.6	100.0
블루 칼라	(316)	0.6	8.2	8.9	18.4	41.1	31.6	72.8	100.0
화이트칼라	(194)	5.7	8.2	13.9	18.0	36.6	31.4	68.0	100.0
전업주부	(187)	1.1	9.1	10.2	15.5	42.2	32.1	74.3	100.0
무직 / 기타	(134)	1.5	6.0	7.5	24.6	38.1	29.9	6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3	6.7	10.0	20.7	43.3	26.0	69.3	100.0
200~299만원	(311)	2.6	8.4	10.9	20.6	41.8	26.7	68.5	100.0
300~399만원	(373)	1.1	10.7	11.8	16.1	41.0	31.1	72.1	100.0
400만원 이상	(366)	2.2	7.9	10.1	19.4	37.2	33.3	70.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6	10.7	13.3	21.7	36.7	28.3	65.0	100.0
충청권	(116)	1.7	14.7	16.4	19.0	39.7	25.0	64.7	100.0
호남권	(115)	2.6	7.8	10.4	17.4	44.3	27.8	72.2	100.0
영남권	(312)	1.0	3.5	4.5	13.5	45.5	36.5	82.1	100.0
강원	(36)	2.8	8.3	11.1	16.7	50	22.2	72.2	100.0
제주	(13)	.0	.0	.0	30.8	30.8	38.5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1	9.7	11.9	18.9	37.7	31.5	69.2	100.0
중 / 소도시	(533)	1.9	7.5	9.4	18.0	43.0	29.6	72.6	100.0
읍 / 면	(102)	2.9	9.8	12.7	22.5	41.2	23.5	64.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0	10.7	13.7	17.7	40.5	28.0	68.6	100.0
중도	(591)	2.0	8.1	10.2	18.1	41.1	30.6	71.7	100.0
보수적	(281)	1.1	7.8	8.9	21.7	38.4	31.0	69.4	100.0
■ 종교									
불교	(219)	2.7	5.5	8.2	20.5	40.2	31.1	71.2	100.0
기독교	(298)	2.3	11.4	13.8	16.8	45.0	24.5	69.5	100.0
천주교	(87)	4.6	13.8	18.4	18.4	36.8	26.4	63.2	100.0
기타	(9)	.0	.0	.0	11.1	55.6	33.3	88.9	100.0
종교 없음	(571)	1.4	7.9	9.3	19.6	38	33.1	71.1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2.5	12.5	12.5	50.0	25.0	75.0	100.0

표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	약간 개선 %	%	차이 없음 %	약간 악화 %	크게 악화 %	%	%
■ 전체	(1200)	3.7	9.8	13.4	16.0	36.9	33.7	70.6	100.0
■ 성별									
남자	(610)	4.1	9.5	13.6	16.1	37.4	33	70.3	100.0
여자	(590)	3.2	10.0	13.2	15.9	36.4	34.4	70.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1	7.8	11	17.3	32.2	39.6	71.8	100.0
30대	(282)	4.6	11.3	16	13.8	33.7	36.5	70.2	100.0
40대	(307)	3.3	13.7	16.9	13.7	33.9	35.5	69.4	100.0
50대 이상	(356)	3.7	6.5	10.1	18.8	45.5	25.6	7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3.8	4.7	20.8	44.3	30.2	74.5	100.0
고졸	(554)	3.2	9.9	13.2	16.2	37.7	32.9	70.6	100.0
대재 이상	(538)	4.6	10.8	15.4	14.9	34.6	35.1	69.7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3.6	10.7	28.6	39.3	21.4	60.7	100.0
자영업	(341)	3.5	9.1	12.6	19.6	39.3	28.4	67.7	100.0
블루 칼라	(316)	2.2	11.1	13.3	13.9	34.8	38.0	72.8	100.0
화이트칼라	(194)	6.7	11.9	18.6	11.3	34.0	36.1	70.1	100.0
전업주부	(187)	2.7	7.5	10.2	13.4	40.6	35.8	76.5	100.0
무직 / 기타	(134)	3.7	9.7	13.4	19.4	34.3	32.8	67.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3	8.7	14.0	18.0	41.3	26.7	68.0	100.0
200~299만원	(311)	5.5	10.9	16.4	15.4	38.6	29.6	68.2	100.0
300~399만원	(373)	2.4	9.4	11.8	14.7	36.2	37.3	73.5	100.0
400만원 이상	(366)	2.7	9.6	12.3	16.9	34.4	36.3	70.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9	12.5	16.4	18.6	33.7	31.3	65.0	100.0
충청권	(116)	9.5	6.9	16.4	20.7	33.6	29.3	62.9	100.0
호남권	(115)	3.5	13.9	17.4	17.4	37.4	27.8	65.2	100.0
영남권	(312)	1.0	3.5	4.5	9.3	43.9	42.3	86.2	100.0
강원	(36)	5.6	16.7	22.2	8.3	41.7	27.8	69.4	100.0
제주	(13)	.0	.0	.0	23.1	30.8	46.2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0	10.8	13.8	17.2	33.6	35.4	69.0	100.0
중 / 소도시	(533)	3.6	9.2	12.8	13.5	40.2	33.6	73.7	100.0
읍 / 면	(102)	7.8	6.9	14.7	22.5	38.2	24.5	62.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6	14.0	18.6	14.9	36.9	29.6	66.5	100.0
중도	(591)	3.7	8.1	11.8	16.6	37.2	34.3	71.6	100.0
보수적	(281)	2.5	8.2	10.7	16.0	36.3	37.0	73.3	100.0
■ 종교									
불교	(219)	4.6	5.9	10.5	13.2	38.4	37.9	76.3	100.0
기독교	(298)	5.0	11.4	16.4	15.8	36.9	30.9	67.8	100.0
천주교	(87)	5.7	18.4	24.1	14.9	33.3	27.6	60.9	100.0
기타	(9)	.0	.0	.0	11.1	44.4	44.4	88.9	100.0
종교 없음	(571)	2.1	9.1	11.2	17.5	36.4	34.9	71.3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12.5	12.5	25.0	12.5	50.0	12.5	62.5	100.0



표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00)	23.6	24.8	51.7	100.0
■ 성별					
남자	(610)	22.8	25.9	51.3	100.0
여자	(590)	24.4	23.6	52.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8.0	27.8	54.1	100.0
30대	(282)	19.9	28.7	51.4	100.0
40대	(307)	26.7	24.8	48.5	100.0
50대 이상	(356)	27.8	19.4	52.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7.4	23.6	49.1	100.0
고졸	(554)	25.1	22.0	52.9	100.0
대재 이상	(538)	21.4	27.9	50.7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6.4	25.0	28.6	100.0
자영업	(341)	21.7	23.8	54.5	100.0
블루 칼라	(316)	22.5	27.2	50.3	100.0
화이트칼라	(194)	23.7	25.8	50.5	100.0
전업주부	(187)	25.7	17.6	56.7	100.0
무직 / 기타	(134)	23.1	29.9	47.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6.7	27.3	46.0	100.0
200~299만원	(311)	23.2	19.3	57.6	100.0
300~399만원	(373)	25.2	23.1	51.7	100.0
400만원 이상	(366)	21.0	30.1	48.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9.6	26.0	54.4	100.0
충청권	(116)	32.8	36.2	31.0	100.0
호남권	(115)	22.6	35.7	41.7	100.0
영남권	(312)	27.2	14.4	58.3	100.0
강원	(36)	33.3	13.9	52.8	100.0
제주	(13)	23.1	46.2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5.1	21.8	53.1	100.0
중 / 소도시	(533)	21.8	28.7	49.5	100.0
읍 / 면	(102)	24.5	20.6	54.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5.3	30.5	44.2	100.0
중도	(591)	21.5	23.7	54.8	100.0
보수적	(281)	26.0	20.3	53.7	100.0
■ 종교					
불교	(219)	24.2	20.1	55.7	100.0
기독교	(298)	21.8	25.5	52.7	100.0
천주교	(87)	28.7	26.4	44.8	100.0
기타	(9)	22.2	33.3	44.4	100.0
종교 없음	(571)	23.3	25.7	51.0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25.0	43.8	100.0

표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북한의 민주주의가	통일과 민주주의는	계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	%
■ 전체	(1200)	38.7	32.0	29.3	100.0
■ 성별					
남자	(610)	39.2	31.1	29.7	100.0
여자	(590)	38.1	32.9	29.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8.2	40.8	31	100.0
30대	(282)	38.3	30.5	31.2	100.0
40대	(307)	42.7	30	27.4	100.0
50대 이상	(356)	43.0	28.7	28.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35.8	34.9	29.2	100.0
고졸	(554)	37.9	32.1	30.0	100.0
대재 이상	(538)	39.8	31.4	28.8	100.0
무름 / 무응답	(2)	10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25.0	17.9	100.0
자영업	(341)	40.5	29.9	29.6	100.0
블루 칼라	(316)	34.5	33.2	32.3	100.0
화이트칼라	(194)	44.3	30.9	24.7	100.0
전업주부	(187)	39.0	29.9	31.0	100.0
무직 / 기타	(134)	31.3	40.3	28.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7	28.0	31.3	100.0
200~299만원	(311)	34.7	30.2	35.0	100.0
300~399만원	(373)	40.8	33.8	25.5	100.0
400만원 이상	(366)	39.1	33.3	27.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5.2	30.9	33.9	100.0
충청권	(116)	35.3	39.7	25.0	100.0
호남권	(115)	38.3	27.8	33.9	100.0
영남권	(312)	45.5	33.7	20.8	100.0
강원	(36)	52.8	19.4	27.8	100.0
제주	(13)	30.8	46.2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2.7	31.7	25.7	100.0
중 / 소도시	(533)	35.8	33	31.1	100.0
읍 / 면	(102)	31.4	28.4	40.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7.8	32.0	30.2	100.0
중도	(591)	37.9	33.3	28.8	100.0
보수적	(281)	41.3	29.2	29.5	100.0
■ 종교					
불교	(219)	36.5	33.3	30.1	100.0
기독교	(298)	40.9	28.9	30.2	100.0
천주교	(87)	41.4	31.0	27.6	100.0
기타	(9)	44.4	33.3	22.2	100.0
종교 없음	(571)	38.5	33.3	28.2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31.3	56.3	100.0



표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 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 전체	(1200)	44.3	37.7	15.1	3.0	100.0
■ 성별						
남자	(610)	47.7	36.7	12.6	3.0	100.0
여자	(590)	40.7	38.6	17.6	3.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9.6	41.6	16.5	2.4	100.0
30대	(282)	45.4	35.1	16.3	3.2	100.0
40대	(307)	42	39.4	16.3	2.3	100.0
50대 이상	(356)	48.6	35.4	12.1	3.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0.0	34	12.3	3.8	100.0
고졸	(554)	43.5	37.2	15.7	3.6	100.0
대재 이상	(538)	43.9	39	14.9	2.2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3.6	28.6	17.9	.0	100.0
자영업	(341)	40.2	40.5	15.8	3.5	100.0
블루 칼라	(316)	45.3	35.4	16.1	3.2	100.0
화이트칼라	(194)	46.4	35.1	16.5	2.1	100.0
전업주부	(187)	48.1	35.3	12.8	3.7	100.0
무직 / 기타	(134)	41.8	44.8	11.2	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6.7	31.3	16.7	5.3	100.0
200~299만원	(311)	47.3	36.0	13.8	2.9	100.0
300~399만원	(373)	46.1	35.9	15.3	2.7	100.0
400만원 이상	(366)	38.8	43.4	15.3	2.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7.5	40.5	17.9	4.1	100.0
충청권	(116)	41.4	32.8	22.4	3.4	100.0
호남권	(115)	29.6	51.3	15.7	3.5	100.0
영남권	(312)	59.9	30.4	8.7	1.0	100.0
강원	(36)	80.6	19.4	.0	.0	100.0
제주	(13)	38.5	53.8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6.4	36.5	15.0	2.1	100.0
중 / 소도시	(533)	42.6	39.6	14.1	3.8	100.0
읍 / 면	(102)	41.2	34.3	20.6	3.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5.1	38.1	13.1	3.7	100.0
중도	(591)	40.4	39.6	17.9	2.0	100.0
보수적	(281)	51.2	33.1	11.4	4.3	100.0
■ 종교						
불교	(219)	49.8	34.7	11.0	4.6	100.0
기독교	(298)	46.3	37.2	15.1	1.3	100.0
천주교	(87)	37.9	44.8	13.8	3.4	100.0
기타	(9)	11.1	44.4	33.3	11.1	100.0
종교 없음	(571)	42.7	38.2	16.3	2.8	100.0
무름 / 무응답	(16)	37.5	25.0	25.0	12.5	100.0

표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00)	15.8	47.1	4.8	21.3	10.9	100.0
■ 성별							
남자	(610)	15.7	45.7	5.2	19.8	13.4	100.0
여자	(590)	15.9	48.5	4.4	22.9	8.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1.8	47.8	7.5	18.4	14.5	100.0
30대	(282)	16.7	48.2	3.9	22.0	9.2	100.0
40대	(307)	15.3	51.1	4.9	18.2	10.4	100.0
50대 이상	(356)	18.5	42.1	3.7	25.6	10.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7.0	31.1	6.6	36.8	8.5	100.0
고졸	(554)	15.2	45.7	4.3	22.7	12.1	100.0
대재 이상	(538)	16.4	51.9	5	16.7	10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35.7	.0	10.7	17.9	100.0
자영업	(341)	13.2	47.8	5.3	23.5	10.3	100.0
블루 칼라	(316)	15.2	43.7	6.0	22.8	12.3	100.0
화이트칼라	(194)	18.6	51.5	2.6	15.5	11.9	100.0
전업주부	(187)	16.6	45.5	2.7	28.3	7.0	100.0
무직 / 기타	(134)	14.9	51.5	8.2	13.4	11.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5.3	38.0	4.7	21.3	10.7	100.0
200~299만원	(311)	18.6	46.0	4.8	19.9	10.6	100.0
300~399만원	(373)	12.9	48.3	5.4	23.3	10.2	100.0
400만원 이상	(366)	12.6	50.5	4.4	20.5	12.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5.6	47.7	5.4	20.2	11.0	100.0
충청권	(116)	12.9	39.7	7.8	26.7	12.9	100.0
호남권	(115)	24.3	53.9	0.9	7.8	13.0	100.0
영남권	(312)	13.1	45.8	4.2	27.6	9.3	100.0
강원	(36)	22.2	44.4	5.6	13.9	13.9	100.0
제주	(13)	23.1	61.5	.0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2	46.2	4.8	21.2	10.6	100.0
중 / 소도시	(533)	14.4	49.7	5.6	19.7	10.5	100.0
읍 / 면	(102)	15.7	38.2	1.0	30.4	14.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1.6	50.9	2.4	13.1	11.9	100.0
중도	(591)	13.2	51.4	6.1	20.1	9.1	100.0
보수적	(281)	14.6	33.5	5.0	33.5	13.5	100.0
■ 종교							
불교	(219)	17.4	39.7	6.8	24.7	11.4	100.0
기독교	(298)	19.8	49.7	4.0	16.1	10.4	100.0
천주교	(87)	13.8	55.2	4.6	18.4	8.0	100.0
기타	(9)	.0	55.6	.0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13.7	47.3	4.7	23.3	11.0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18.8	43.8	.0	25.0	12.5	100.0



표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3.0	36.3	39.3	46.3	14.3	60.7	100.0
■ 성별								
남자	(610)	4.9	39.8	44.8	43.3	12.0	55.2	100.0
여자	(590)	1.0	32.7	33.7	49.5	16.8	66.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0	33.7	35.7	49	15.3	64.3	100.0
30대	(282)	3.2	38.7	41.8	46.1	12.1	58.2	100.0
40대	(307)	4.9	38.8	43.6	44.3	12.1	56.4	100.0
50대 이상	(356)	2.0	34.3	36.2	46.3	17.4	63.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28.3	28.3	53.8	17.9	71.7	100.0
고졸	(554)	2.5	34.3	36.8	47.7	15.5	63.2	100.0
대재 이상	(538)	4.1	40.1	44.2	43.3	12.5	55.8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35.7	42.9	46.4	10.7	57.1	100.0
자영업	(341)	3.2	38.4	41.6	45.5	12.9	58.4	100.0
블루 칼라	(316)	2.2	38.0	40.2	44.9	14.9	59.8	100.0
화이트칼라	(194)	6.2	37.6	43.8	42.3	13.9	56.2	100.0
전업주부	(187)	1.1	28.3	29.4	52.4	18.2	70.6	100.0
무직 / 기타	(134)	1.5	36.6	38.1	49.3	12.7	61.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3	36.0	39.3	45.3	15.3	60.7	100.0
200~299만원	(311)	3.5	37.6	41.2	46.6	12.2	58.8	100.0
300~399만원	(373)	1.3	34.9	36.2	48.5	15.3	63.8	100.0
400만원 이상	(366)	4.1	36.9	41.0	44.3	14.8	59.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3	37.3	41.6	40.1	18.3	58.4	100.0
충청권	(116)	.0	33.6	33.6	59.5	6.9	66.4	100.0
호남권	(115)	3.5	54.8	58.3	34.8	7.0	41.7	100.0
영남권	(312)	1.6	26.9	28.5	58.7	12.8	71.5	100.0
강원	(36)	2.8	47.2	50.0	38.9	11.1	50.0	100.0
제주	(13)	.0	46.2	46.2	46.2	7.7	53.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3	35.4	37.7	45.8	16.5	62.3	100.0
중 / 소도시	(533)	3.6	36.6	40.2	47.3	12.6	59.8	100.0
읍 / 면	(102)	3.9	40.2	44.1	44.1	11.8	5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2	43.9	49.1	39.3	11.6	50.9	100.0
중도	(591)	2.9	34.5	37.4	50.3	12.4	62.6	100.0
보수적	(281)	0.7	31.3	32.0	46.3	21.7	68.0	100.0
■ 종교								
불교	(219)	3.2	33.3	36.5	50.2	13.2	63.5	100.0
기독교	(298)	2.7	34.6	37.2	45.6	17.1	62.8	100.0
천주교	(87)	3.4	43.7	47.1	43.7	9.2	52.9	100.0
기타	(9)	22.2	33.3	55.6	22.2	22.2	44.4	100.0
종교 없음	(571)	2.8	37.3	40.1	45.9	14.0	59.9	100.0
무름 / 무응답	(16)	.0	37.5	37.5	50.0	12.5	62.5	100.0

표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전체	(1200)	1.8	18.0	19.8	55.1	25.2	80.3	100.0
■ 성별								
남자	(610)	2.1	17.7	19.8	55.6	24.6	80.2	100.0
여자	(590)	1.4	18.3	19.7	54.6	25.8	80.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	16.5	19.2	56.1	24.7	80.8	100.0
30대	(282)	1.1	20.6	21.6	53.9	24.5	78.4	100.0
40대	(307)	1.6	19.9	21.5	53.7	24.8	78.5	100.0
50대 이상	(356)	1.7	15.4	17.1	56.5	26.4	8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17.0	18.9	56.6	24.5	81.1	100.0
고졸	(554)	2.0	17.1	19.1	54	26.9	80.9	100.0
대재 이상	(538)	1.5	19.1	20.6	55.8	23.6	79.4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7.1	21.4	64.3	14.3	78.6	100.0
자영업	(341)	2.1	16.4	18.5	55.7	25.8	81.5	100.0
블루 칼라	(316)	.9	18.4	19.3	53.8	26.9	80.7	100.0
화이트칼라	(194)	1.5	21.1	22.7	52.6	24.7	77.3	100.0
전업주부	(187)	1.1	16.0	17.1	56.1	26.7	82.9	100.0
무직 / 기타	(134)	1.5	21.6	23.1	56.7	20.1	76.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0	23.3	25.3	46.7	28.0	74.7	100.0
200~299만원	(311)	2.3	17.4	19.6	55.9	24.4	80.4	100.0
300~399만원	(373)	1.1	17.2	18.2	56.0	25.7	81.8	100.0
400만원 이상	(366)	1.9	17.2	19.1	56.8	24.0	80.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6	19.2	21.9	49.3	28.8	78.1	100.0
충청권	(116)	0.9	17.2	18.1	60.3	21.6	81.9	100.0
호남권	(115)	2.6	28.7	31.3	56.5	12.2	68.7	100.0
영남권	(312)	.0	11.9	11.9	63.8	24.4	88.1	100.0
강원	(36)	2.8	19.4	22.2	50.0	27.8	77.8	100.0
제주	(13)	.0	15.4	15.4	69.2	15.4	84.6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4	18.6	20.0	49.0	31.0	80.0	100.0
중 / 소도시	(533)	2.3	17.6	19.9	60.0	20.1	80.1	100.0
읍 / 면	(102)	1.0	16.7	17.6	62.7	19.6	82.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0	24.4	27.4	50.3	22.3	72.6	100.0
중도	(591)	1.2	15.1	16.2	58.0	25.7	83.8	100.0
보수적	(281)	1.4	16.7	18.1	54.4	27.4	81.9	100.0
■ 종교								
불교	(219)	1.8	12.8	14.6	62.6	22.8	85.4	100.0
기독교	(298)	2.7	17.8	20.5	50.0	29.5	79.5	100.0
천주교	(87)	4.6	25.3	29.9	46.0	24.1	70.1	100.0
기타	(9)	.0	22.2	22.2	44.4	33.3	77.8	100.0
종교 없음	(571)	.9	18.9	19.8	56.7	23.5	80.2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8.8	18.8	43.8	37.5	81.3	100.0



표16.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전체	(1200)	0.9	14.2	15.1	34	37.8	13.1	50.9	100.0
■ 성별									
남자	(610)	1.3	15.2	16.6	33.6	38.5	11.3	49.8	100.0
여자	(590)	.5	13.1	13.6	34.4	37.1	14.9	52.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	16.5	17.3	30.6	35.7	16.5	52.2	100.0
30대	(282)	.0	14.2	14.2	40.8	34.8	10.3	45	100.0
40대	(307)	1.6	14.7	16.3	30.9	41.7	11.1	52.8	100.0
50대 이상	(356)	1.1	12.1	13.2	33.7	38.5	14.6	53.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14.2	14.2	37.7	35.8	12.3	48.1	100.0
고졸	(554)	.9	13.4	14.3	34.8	38.3	12.6	50.9	100.0
대재 이상	(538)	1.1	15.1	16.2	32.5	37.5	13.8	51.3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7.1	17.9	25.0	42.9	14.3	57.1	100.0
자영업	(341)	.3	14.4	14.7	32.6	42.2	10.6	52.8	100.0
블루 칼라	(316)	0.6	13.6	14.2	35.4	38.3	12.0	50.3	100.0
화이트칼라	(194)	1.0	16.5	17.5	30.9	35.1	16.5	51.5	100.0
전업주부	(187)	1.1	11.2	12.3	38.5	34.2	15.0	49.2	100.0
무직 / 기타	(134)	.7	17.2	17.9	34.3	33.6	14.2	47.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	10.7	11.3	34.0	37.3	17.3	54.7	100.0
200~299만원	(311)	1.0	14.8	15.8	38.9	35.7	9.6	45.3	100.0
300~399만원	(373)	.8	13.7	14.5	30.6	40.8	14.2	55.0	100.0
400만원 이상	(366)	1.1	15.6	16.7	33.3	36.9	13.1	50.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2	12.2	13.3	35.7	35.2	15.8	51.0	100.0
충청권	(116)	.9	20.7	21.6	31.0	39.7	7.8	47.4	100.0
호남권	(115)	2.6	18.3	20.9	38.3	27.8	13.0	40.9	100.0
영남권	(312)	.0	15.1	15.1	31.4	45.5	8.0	53.5	100.0
강원	(36)	.0	11.1	11.1	33.3	30.6	25.0	55.6	100.0
제주	(13)	.0	.0	.0	7.7	69.2	23.1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	14.2	14.9	33.6	37.3	14.2	51.5	100.0
중 / 소도시	(533)	1.3	13.7	15.0	33.4	39.4	12.2	51.6	100.0
읍 / 면	(102)	.0	16.7	16.7	39.2	32.4	11.8	44.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1	16.8	18.9	27.7	39.6	13.7	53.4	100.0
중도	(591)	.5	14.0	14.6	36.7	36.5	12.2	48.7	100.0
보수적	(281)	.4	11.4	11.7	35.6	38.4	14.2	52.7	100.0
■ 종교									
불교	(219)	1.8	11.9	13.7	37.9	39.7	8.7	48.4	100.0
기독교	(298)	1.0	13.1	14.1	27.9	40.9	17.1	58.1	100.0
천주교	(87)	2.3	16.1	18.4	36.8	33.3	11.5	44.8	100.0
기타	(9)	11.1	22.2	33.3	11.1	33.3	22.2	55.6	100.0
종교 없음	(571)	0.2	14.9	15.1	35.9	36.3	12.8	49.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25.0	37.5	12.5	50.0	100.0

표17.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전체	(1200)	7.1	39.8	46.8	41.1	12.1	53.2	100.0
■ 성별								
남자	(610)	7.2	41.1	48.4	40.2	11.5	51.6	100.0
여자	(590)	6.9	38.3	45.3	42.0	12.7	54.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7.1	37.6	44.7	36.9	18.4	55.3	100.0
30대	(282)	7.8	37.9	45.7	42.2	12.1	54.3	100.0
40대	(307)	7.5	44.3	51.8	39.1	9.1	48.2	100.0
50대 이상	(356)	6.2	38.8	44.9	44.9	10.1	55.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6	46.2	52.8	37.7	9.4	47.2	100.0
고졸	(554)	5.1	36.8	41.9	45.5	12.6	58.1	100.0
대재 이상	(538)	9.3	41.4	50.7	37.4	11.9	49.3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0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50.0	67.9	32.1	.0	32.1	100.0
자영업	(341)	6.7	40.8	47.5	42.8	9.7	52.5	100.0
블루 칼라	(316)	5.4	39.2	44.6	42.4	13.0	55.4	100.0
화이트칼라	(194)	7.7	38.1	45.9	38.7	15.5	54.1	100.0
전업주부	(187)	10.2	38.5	48.7	39.0	12.3	51.3	100.0
무직 / 기타	(134)	4.5	40.3	44.8	41.8	13.4	55.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0.7	44.7	55.3	31.3	13.3	44.7	100.0
200~299만원	(311)	6.8	43.7	50.5	37.9	11.6	49.5	100.0
300~399만원	(373)	5.4	38.6	44.0	45.6	10.5	56.0	100.0
400만원 이상	(366)	7.7	35.5	43.2	43.2	13.7	56.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9.2	32.1	41.3	44.1	14.6	58.7	100.0
충청권	(116)	6.0	51.7	57.8	32.8	9.5	42.2	100.0
호남권	(115)	7.0	48.7	55.7	34.8	9.6	44.3	100.0
영남권	(312)	3.8	46.8	50.6	41.0	8.3	49.4	100.0
강원	(36)	5.6	33.3	38.9	47.2	13.9	61.1	100.0
제주	(13)	.0	61.5	61.5	15.4	23.1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8	41.6	47.4	39.3	13.3	52.6	100.0
중 / 소도시	(533)	8.8	37.5	46.3	43.0	10.7	53.7	100.0
읍 / 면	(102)	4.9	41.2	46.1	41.2	12.7	53.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0.4	43.3	53.7	34.8	11.6	46.3	100.0
중도	(591)	6.3	38.1	44.3	43.3	12.4	55.7	100.0
보수적	(281)	5.0	39.1	44.1	43.8	12.1	55.9	100.0
■ 종교								
불교	(219)	9.1	39.7	48.9	42.5	8.7	51.1	100.0
기독교	(298)	9.1	41.6	50.7	37.2	12.1	49.3	100.0
천주교	(87)	12.6	34.5	47.1	40.2	12.6	52.9	100.0
기타	(9)	11.1	22.2	33.3	44.4	22.2	66.7	100.0
종교 없음	(571)	4.4	39.9	44.3	42.6	13.1	55.7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37.5	43.8	43.8	12.5	56.3	100.0



표18.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약간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19.7	49.3	68.9	26.5	4.6	31.1	100.0
■ 성별								
남자	(610)	19.7	48.7	68.4	27.0	4.6	31.6	100.0
여자	(590)	19.7	49.8	69.5	25.9	4.6	30.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5.5	49.4	74.9	22.7	2.4	25.1	100.0
30대	(282)	22.3	46.1	68.4	26.2	5.3	31.6	100.0
40대	(307)	15.6	51.8	67.4	27.7	4.9	32.6	100.0
50대 이상	(356)	16.9	49.4	66.3	28.4	5.3	3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5.1	48.1	63.2	32.1	4.7	36.8	100.0
고졸	(554)	18.6	48.6	67.1	28.2	4.7	32.9	100.0
대재 이상	(538)	21.7	50.2	71.9	23.6	4.5	28.1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21.4	39.3	53.6	7.1	60.7	100.0
자영업	(341)	16.7	49.9	66.6	27.9	5.6	33.4	100.0
블루 칼라	(316)	21.2	46.2	67.4	28.2	4.4	32.6	100.0
화이트칼라	(194)	24.2	53.6	77.8	17.5	4.6	22.2	100.0
전업주부	(187)	17.6	51.3	69.0	26.7	4.3	31.0	100.0
무직 / 기타	(134)	20.1	51.5	71.6	26.1	2.2	28.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6.7	38.7	65.3	30.0	4.7	34.7	100.0
200~299만원	(311)	18.6	51.4	70.1	26.7	3.2	29.9	100.0
300~399만원	(373)	15.5	54.2	69.7	25.7	4.6	30.3	100.0
400만원 이상	(366)	21.9	46.7	68.6	25.7	5.7	31.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2.2	51.2	73.4	22.0	4.6	26.6	100.0
충청권	(116)	12.1	42.2	54.3	39.7	6.0	45.7	100.0
호남권	(115)	22.6	36.5	59.1	38.3	2.6	40.9	100.0
영남권	(312)	14.7	53.2	67.9	27.6	4.5	32.1	100.0
강원	(36)	30.6	41.7	72.2	19.4	8.3	27.8	100.0
제주	(13)	30.8	61.5	92.3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8.6	50.4	69.0	26.7	4.2	31.0	100.0
중 / 소도시	(533)	18.9	51.4	70.4	24.6	5.1	29.6	100.0
읍 / 면	(102)	29.4	31.4	60.8	35.3	3.9	3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2.3	45.4	67.7	27.4	4.9	32.3	100.0
중도	(591)	18.1	51.1	69.2	26.9	3.9	30.8	100.0
보수적	(281)	19.9	49.8	69.8	24.6	5.7	30.2	100.0
■ 종교								
불교	(219)	16.4	47.0	63.5	31.1	5.5	36.5	100.0
기독교	(298)	22.5	52.0	74.5	22.8	2.7	25.5	100.0
천주교	(87)	17.2	51.7	69.0	26.4	4.6	31.0	100.0
기타	(9)	55.6	22.2	77.8	11.1	11.1	22.2	100.0
종교 없음	(571)	19.1	49.2	68.3	26.6	5.1	31.7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31.3	56.3	37.5	6.3	43.8	100.0

표19-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5.4	18.4	34.3	41.9	100.0
■ 성별						
남자	(610)	8.4	24.9	37.9	28.9	100.0
여자	(590)	2.4	11.7	30.5	55.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2	12.9	36.9	42.0	100.0
30대	(282)	3.9	20.6	30.5	45.0	100.0
40대	(307)	5.2	23.5	34.2	37.1	100.0
50대 이상	(356)	4.8	16.3	35.4	4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3.8	7.5	29.2	59.4	100.0
고졸	(554)	3.6	19.5	32.5	44.4	100.0
대재 이상	(538)	7.6	19.5	37.0	35.9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10.7	46.4	39.3	100.0
자영업	(341)	5.6	20.5	32.6	41.3	100.0
블루 칼라	(316)	4.4	20.9	37.0	37.7	100.0
화이트칼라	(194)	7.2	23.2	36.1	33.5	100.0
전업주부	(187)	2.1	8.6	31.0	58.3	100.0
무직 / 기타	(134)	9.7	15.7	31.3	43.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7	16.0	28.0	49.3	100.0
200~299만원	(311)	3.5	19.0	34.1	43.4	100.0
300~399만원	(373)	5.4	20.1	32.7	41.8	100.0
400만원 이상	(366)	6.6	17.2	38.5	37.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6.6	21.5	33.4	38.5	100.0
충청권	(116)	2.6	9.5	31.0	56.9	100.0
호남권	(115)	5.2	15.7	33.0	46.1	100.0
영남권	(312)	2.6	17.6	36.9	42.9	100.0
강원	(36)	16.7	13.9	36.1	33.3	100.0
제주	(13)	15.4	7.7	46.2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3	19.1	32.4	43.2	100.0
중 / 소도시	(533)	5.8	18.0	35.6	40.5	100.0
읍 / 면	(102)	3.9	16.7	37.3	42.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8.5	21.0	36.6	33.8	100.0
중도	(591)	3.4	17.9	33.0	45.7	100.0
보수적	(281)	6.0	16.4	34.2	43.4	100.0
■ 종교						
불교	(219)	3.2	17.4	33.8	45.7	100.0
기독교	(298)	6.4	19.1	34.2	40.3	100.0
천주교	(87)	3.4	24.1	35.6	36.8	100.0
기타	(9)	11.1	11.1	55.6	22.2	100.0
종교 없음	(571)	6.1	17.5	34.0	42.4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31.3	43.8	100.0



표19-2. 북한 사회 인지도 - ④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8.9	27.9	41.4	21.8	100.0
■ 성별						
남자	(610)	12.5	32.1	40.5	14.9	100.0
여자	(590)	5.3	23.6	42.4	28.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1.0	23.1	32.5	33.3	100.0
30대	(282)	6.4	29.4	42.6	21.6	100.0
40대	(307)	9.1	33.9	42.3	14.7	100.0
50대 이상	(356)	9.3	25.0	46.1	19.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14.2	44.3	36.8	100.0
고졸	(554)	7.2	27.6	43.1	22.0	100.0
대재 이상	(538)	11.5	31.0	38.8	18.6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5.0	39.3	28.6	100.0
자영업	(341)	9.1	30.2	43.1	17.6	100.0
블루 칼라	(316)	8.5	24.7	44.6	22.2	100.0
화이트칼라	(194)	9.3	36.6	38.7	15.5	100.0
전업주부	(187)	4.3	20.3	50.3	25.1	100.0
무직 / 기타	(134)	15.7	28.4	21.6	34.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3	25.3	39.3	28.0	100.0
200~299만원	(311)	7.1	28.3	41.2	23.5	100.0
300~399만원	(373)	10.2	28.4	42.1	19.3	100.0
400만원 이상	(366)	9.8	28.1	41.8	20.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0.9	31.1	37.5	20.6	100.0
충청권	(116)	6.0	15.5	44.8	33.6	100.0
호남권	(115)	5.2	32.2	37.4	25.2	100.0
영남권	(312)	5.4	24.0	49.7	20.8	100.0
강원	(36)	19.4	30.6	41.7	8.3	100.0
제주	(13)	30.8	38.5	30.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9.9	28.8	41.2	20.0	100.0
중 / 소도시	(533)	8.6	28.0	41.3	22.1	100.0
읍 / 면	(102)	4.9	22.5	43.1	29.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2.8	36.3	34.8	16.2	100.0
중도	(591)	6.9	25.2	43.3	24.5	100.0
보수적	(281)	8.5	23.8	45.2	22.4	100.0
■ 종교						
불교	(219)	5.5	23.7	42.5	28.3	100.0
기독교	(298)	11.7	28.5	38.3	21.5	100.0
천주교	(87)	13.8	32.2	33.3	20.7	100.0
기타	(9)	11.1	11.1	77.8	.0	100.0
종교 없음	(571)	7.9	28.9	43.3	20.0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25.0	43.8	18.8	100.0

표19-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7.7	22.2	42.6	27.6	100.0
■ 성별						
남자	(610)	10.8	28.0	42.1	19.0	100.0
여자	(590)	4.4	16.1	43.1	36.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9	14.5	38.0	41.6	100.0
30대	(282)	5.3	20.6	40.8	33.3	100.0
40대	(307)	9.4	28.3	44.0	18.2	100.0
50대 이상	(356)	9.3	23.6	46.1	2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8	15.1	44.3	37.7	100.0
고졸	(554)	6.5	23.1	44.6	25.8	100.0
대재 이상	(538)	9.9	22.7	40.0	27.5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21.4	57.1	17.9	100.0
자영업	(341)	9.1	25.8	41.9	23.2	100.0
블루 칼라	(316)	7.6	24.1	42.7	25.6	100.0
화이트칼라	(194)	7.7	23.7	41.2	27.3	100.0
전업주부	(187)	4.3	12.3	47.6	35.8	100.0
무직 / 기타	(134)	9.7	20.1	35.8	34.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0	21.3	40.0	32.7	100.0
200~299만원	(311)	7.1	21.9	40.5	30.5	100.0
300~399만원	(373)	9.4	21.7	41.8	27.1	100.0
400만원 이상	(366)	7.1	23.2	46.2	23.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8.7	24.3	39.6	27.3	100.0
충청권	(116)	8.6	14.7	50.9	25.9	100.0
호남권	(115)	7.0	20.9	33.9	38.3	100.0
영남권	(312)	4.8	19.6	49.7	26.0	100.0
강원	(36)	13.9	25.0	36.1	25.0	100.0
제주	(13)	7.7	53.8	30.8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8.7	20.4	43.5	27.4	100.0
중 / 소도시	(533)	7.3	24.4	42.0	26.3	100.0
읍 / 면	(102)	3.9	20.6	40.2	35.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2.2	25.0	36.0	26.8	100.0
중도	(591)	5.4	20.6	45.7	28.3	100.0
보수적	(281)	7.1	22.1	43.8	27.0	100.0
■ 종교						
불교	(219)	4.6	19.6	42.5	33.3	100.0
기독교	(298)	8.1	25.8	37.9	28.2	100.0
천주교	(87)	13.8	24.1	39.1	23.0	100.0
기타	(9)	.0	11.1	55.6	33.3	100.0
종교 없음	(571)	8.1	20.8	45.4	25.7	100.0
무름 / 무응답	(16)	.0	31.3	43.8	25.0	100.0



표19-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4.2	18.0	36.2	41.7	100.0
■ 성별						
남자	(610)	6.6	23.1	36.9	33.4	100.0
여자	(590)	1.7	12.7	35.4	50.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3	11.4	30.2	54.1	100.0
30대	(282)	2.8	15.6	38.7	42.9	100.0
40대	(307)	5.2	24.8	36.8	33.2	100.0
50대 이상	(356)	4.2	18.8	37.9	39.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8.5	33.0	57.5	100.0
고졸	(554)	3.4	19.3	37.9	39.4	100.0
대재 이상	(538)	5.6	18.6	34.9	40.9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7.9	39.3	35.7	100.0
자영업	(341)	5.0	19.9	37.5	37.5	100.0
블루 칼라	(316)	3.5	17.4	39.2	39.9	100.0
화이트칼라	(194)	3.6	23.7	32.0	40.7	100.0
전업주부	(187)	2.1	10.2	38.5	49.2	100.0
무직 / 기타	(134)	6.7	17.2	27.6	4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3	22.7	28.7	45.3	100.0
200~299만원	(311)	2.9	15.8	38.3	43.1	100.0
300~399만원	(373)	5.4	18.0	35.9	40.8	100.0
400만원 이상	(366)	4.4	18.0	37.7	39.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9	20.9	36.2	38.0	100.0
충청권	(116)	3.4	9.5	27.6	59.5	100.0
호남권	(115)	5.2	19.1	29.6	46.1	100.0
영남권	(312)	1.9	14.1	41.7	42.3	100.0
강원	(36)	11.1	19.4	30.6	38.9	100.0
제주	(13)	.0	38.5	53.8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2	16.1	36.8	42.8	100.0
중 / 소도시	(533)	4.3	19.9	37.0	38.8	100.0
읍 / 면	(102)	2.9	18.6	28.4	50.0	100.0
■ 정치적상황						
진보적	(328)	7.6	22.3	31.1	39.0	100.0
중도	(591)	2.4	16.1	36.5	45.0	100.0
보수적	(281)	3.9	17.1	41.3	37.7	100.0
■ 종교						
불교	(219)	3.2	16.4	37.0	43.4	100.0
기독교	(298)	5.0	20.5	33.6	40.9	100.0
천주교	(87)	5.7	26.4	39.1	28.7	100.0
기타	(9)	.0	.0	44.4	55.6	100.0
종교 없음	(571)	4.0	16.1	37.0	42.9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50.0	100.0

표19-5.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 / 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2.6	8.8	24.4	64.2	.1	100.0
■ 성별							
남자	(610)	4.3	12.3	30.0	53.4	.0	100.0
여자	(590)	.8	5.1	18.6	75.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	6.7	18.0	72.2	.4	100.0
30대	(282)	2.1	7.8	25.5	64.5	.0	100.0
40대	(307)	2.9	11.4	26.1	59.6	.0	100.0
50대 이상	(356)	2.5	8.7	26.7	62.1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5.7	17.0	76.4	.0	100.0
고졸	(554)	1.8	8.5	26.0	63.7	.0	100.0
대재 이상	(538)	3.7	9.7	24.3	62.1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7.1	28.6	57.1	.0	100.0
자영업	(341)	1.8	10.0	24.0	64.2	.0	100.0
블루 칼라	(316)	3.2	7.0	29.1	60.8	.0	100.0
화이트칼라	(194)	4.1	11.9	24.7	59.3	.0	100.0
전업주부	(187)	1.1	4.8	18.2	75.9	.0	100.0
무직 / 기타	(134)	2.2	11.2	21.6	64.2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0.7	14	26.0	59.3	.0	100.0
200~299만원	(311)	1.9	7.1	23.2	67.8	.0	100.0
300~399만원	(373)	3.8	8.0	23.3	64.9	.0	100.0
400만원 이상	(366)	2.7	8.7	26.0	62.3	.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0	10.9	25.5	60.7	.0	100.0
충청권	(116)	1.7	4.3	18.1	75.9	.0	100.0
호남권	(115)	1.7	7.0	19.1	71.3	.9	100.0
영남권	(312)	2.2	6.7	26.3	64.7	.0	100.0
강원	(36)	5.6	11.1	27.8	55.6	.0	100.0
제주	(13)	.0	7.7	23.1	69.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3	8.0	25.7	64.1	.0	100.0
중 / 소도시	(533)	2.8	9.4	24.6	63.0	.2	100.0
읍 / 면	(102)	2.9	9.8	16.7	70.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7	10.4	24.1	61.6	.3	100.0
중도	(591)	1.5	7.4	24.2	66.8	.0	100.0
보수적	(281)	3.6	9.6	25.3	61.6	.0	100.0
■ 종교							
불교	(219)	2.3	7.3	26.0	63.9	.5	100.0
기독교	(298)	1.0	12.4	21.5	65.1	.0	100.0
천주교	(87)	4.6	13.8	24.1	57.5	.0	100.0
기타	(9)	.0	.0	11.1	88.9	.0	100.0
종교 없음	(571)	3.3	6.5	25.6	64.6	.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8.8	25.0	56.3	.0	100.0



표19-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체	(1200)	4.4	16.4	40.1	39.1	100.0
■ 성별						
남자	(610)	7.2	20.0	41.0	31.8	100.0
여자	(590)	1.5	12.7	39.2	46.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9	9.0	31.8	55.3	100.0
30대	(282)	2.8	16.0	39.4	41.8	100.0
40대	(307)	5.9	21.2	43.6	29.3	100.0
50대 이상	(356)	4.8	18.0	43.5	3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7.5	38.7	52.8	100.0
고졸	(554)	4.0	16.8	41.9	37.4	100.0
대재 이상	(538)	5.6	17.8	38.7	37.9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4.3	46.4	32.1	100.0
자영업	(341)	4.4	18.2	41.9	35.5	100.0
블루 칼라	(316)	5.1	11.4	44.3	39.2	100.0
화이트칼라	(194)	6.2	25.3	33.5	35.1	100.0
전업주부	(187)	1.6	13.9	39.6	44.9	100.0
무직 / 기타	(134)	3.7	14.9	34.3	47.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0	19.3	40.0	38.7	100.0
200~299만원	(311)	2.6	13.8	39.9	43.7	100.0
300~399만원	(373)	5.6	17.4	38.9	38.1	100.0
400만원 이상	(366)	5.7	16.4	41.5	3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4	21.2	37.5	35.9	100.0
충청권	(116)	1.7	10.3	32.8	55.2	100.0
호남권	(115)	5.2	13.9	38.3	42.6	100.0
영남권	(312)	2.9	9.6	49.7	37.8	100.0
강원	(36)	5.6	19.4	36.1	38.9	100.0
제주	(13)	7.7	23.1	23.1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4	16.6	41.4	37.5	100.0
중 / 소도시	(533)	4.9	16.7	40.0	38.5	100.0
읍 / 면	(102)	2.0	13.7	33.3	5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7	19.8	40.2	33.2	100.0
중도	(591)	3.0	14.6	39.4	43.0	100.0
보수적	(281)	4.6	16.4	41.3	37.7	100.0
■ 종교						
불교	(219)	2.3	13.2	40.6	43.8	100.0
기독교	(298)	5.4	22.5	35.9	36.2	100.0
천주교	(87)	6.9	21.8	44.8	26.4	100.0
기타	(9)	11.1	.0	66.7	22.2	100.0
종교 없음	(571)	4.4	14.0	40.6	41.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2.5	50.0	37.5	100.0

표2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㉞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4.1	95.9	100.0
■ 성별				
남자	(610)	5.2	94.8	100.0
여자	(590)	2.9	97.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	97.3	100.0
30대	(282)	2.8	97.2	100.0
40대	(307)	3.6	96.4	100.0
50대 이상	(356)	6.5	9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95.3	100.0
고졸	(554)	3.8	96.2	100.0
대재 이상	(538)	4.3	95.7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85.7	100.0
자영업	(341)	5.0	.0	100.0
블루 칼라	(316)	2.5	97.5	100.0
화이트칼라	(194)	3.6	96.4	100.0
전업주부	(187)	4.8	95.2	100.0
무직 / 기타	(134)	3.0	97.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7	93.3	100.0
200~299만원	(311)	3.9	96.1	100.0
300~399만원	(373)	3.2	96.8	100.0
400만원 이상	(366)	4.1	95.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4	95.6	100.0
충청권	(116)	5.2	94.8	100.0
호남권	(115)	7.0	93.0	100.0
영남권	(312)	2.6	97.4	100.0
강원	(36)	.0	100.0	100.0
제주	(13)	.0	100.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2	95.8	100.0
중 / 소도시	(533)	3.2	96.8	100.0
읍 / 면	(102)	7.8	92.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9	92.1	100.0
중도	(591)	2.2	97.8	100.0
보수적	(281)	3.6	96.4	100.0
■ 종교				
불교	(219)	5.5	94.5	100.0
기독교	(298)	4.7	95.3	100.0
천주교	(87)	6.9	93.1	100.0
기타	(9)	.0	100.0	100.0
종교 없음	(571)	2.8	97.2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93.8	100.0



표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19.0	81.0	100.0
■ 성별				
남자	(610)	21.5	78.5	100.0
여자	(590)	16.4	83.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2.0	78.0	100.0
30대	(282)	15.2	84.8	100.0
40대	(307)	17.3	82.7	100.0
50대 이상	(356)	21.3	78.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4.2	85.8	100.0
고졸	(554)	19.5	80.5	100.0
대재 이상	(538)	19.5	80.5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85.7	100.0
자영업	(341)	18.5	81.5	100.0
블루 칼라	(316)	18.4	81.6	100.0
화이트칼라	(194)	18.6	81.4	100.0
전업주부	(187)	17.6	82.4	100.0
무직 / 기타	(134)	25.4	74.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1.3	78.7	100.0
200~299만원	(311)	20.6	79.4	100.0
300~399만원	(373)	16.1	83.9	100.0
400만원 이상	(366)	19.7	80.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8.4	81.6	100.0
충청권	(116)	25.0	75.0	100.0
호남권	(115)	20.0	80.0	100.0
영남권	(312)	17.3	82.7	100.0
강원	(36)	25.0	75.0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8.6	81.4	100.0
중 / 소도시	(533)	19.9	80.1	100.0
읍 / 면	(102)	16.7	83.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0.1	79.9	100.0
중도	(591)	16.9	83.1	100.0
보수적	(281)	22.1	77.9	100.0
■ 종교				
불교	(219)	20.5	79.5	100.0
기독교	(298)	20.5	79.5	100.0
천주교	(87)	16.1	83.9	100.0
기타	(9)	33.3	66.7	100.0
종교 없음	(571)	17.7	82.3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75.0	100.0

표2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32.3		67.7		100.0
■ 성별							
남자	(610)		31.5		68.5		100.0
여자	(590)		33.2		66.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2.2		67.8		100.0
30대	(282)		27.7		72.3		100.0
40대	(307)		33.6		66.4		100.0
50대 이상	(356)		35.1		64.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2.5		57.5		100.0
고졸	(554)		30.7		69.3		100.0
대재 이상	(538)		32.0		68.0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75.0		100.0
자영업	(341)		30.2		69.8		100.0
블루 칼라	(316)		34.5		65.5		100.0
화이트칼라	(194)		31.4		68.6		100.0
전업주부	(187)		31.6		68.4		100.0
무직 / 기타	(134)		36.6		63.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5.3		64.7		100.0
200~299만원	(311)		29.9		70.1		100.0
300~399만원	(373)		33.0		67.0		100.0
400만원 이상	(366)		32.5		67.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8.8		71.2		100.0
충청권	(116)		13.8		86.2		100.0
호남권	(115)		32.2		67.8		100.0
영남권	(312)		46.5		53.5		100.0
강원	(36)		22.2		77.8		100.0
제주	(13)		53.8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5.6		64.4		100.0
중 / 소도시	(533)		28.7		71.3		100.0
읍 / 면	(102)		33.3		66.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5.7		64.3		100.0
중도	(591)		29.1		70.9		100.0
보수적	(281)		35.2		64.8		100.0
■ 종교							
불교	(219)		32.0		68.0		100.0
기독교	(298)		35.2		64.8		100.0
천주교	(87)		32.2		67.8		100.0
기타	(9)		44.4		55.6		100.0
종교 없음	(571)		30.8		69.2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68.8		100.0



표2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1.4		98.6		100.0
■ 성별							
남자	(610)		1.5		98.5		100.0
여자	(590)		1.4		98.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2		98.8		100.0
30대	(282)		1.4		98.6		100.0
40대	(307)		1.3		98.7		100.0
50대 이상	(356)		1.7		98.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98.1		100.0
고졸	(554)		2.2		97.8		100.0
대재 이상	(538)		.6		99.4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96.4		100.0
자영업	(341)		1.5		98.5		100.0
블루 칼라	(316)		1.3		98.7		100.0
화이트칼라	(194)		1.0		99.0		100.0
전업주부	(187)		1.6		98.4		100.0
무직 / 기타	(134)		1.5		9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		96.0		100.0
200~299만원	(311)		1.6		98.4		100.0
300~399만원	(373)		1.1		98.9		100.0
400만원 이상	(366)		.5		99.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6		97.4		100.0
충청권	(116)		.9		99.1		100.0
호남권	(115)		.0		100.0		100.0
영남권	(312)		.0		100.0		100.0
강원	(36)		.0		100.0		100.0
제주	(13)		.0		100.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4		98.6		100.0
중 / 소도시	(533)		1.7		98.3		100.0
읍 / 면	(102)		.0		100.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8		98.2		100.0
중도	(591)		1.0		99.0		100.0
보수적	(281)		1.8		98.2		100.0
■ 종교							
불교	(219)		.5		99.5		100.0
기독교	(298)		3.0		97.0		100.0
천주교	(87)		1.1		98.9		100.0
기타	(9)		.0		100.0		100.0
종교 없음	(571)		1.1		98.9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00.0		100.0

표21-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73.5	19.9	93.4	5.3	1.3	6.6	100.0
■ 성별								
남자	(610)	75.7	18.2	93.9	5.1	1.0	6.1	100.0
여자	(590)	71.2	21.7	92.9	5.6	1.5	7.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71.0	19.6	90.6	7.5	2.0	9.4	100.0
30대	(282)	74.5	18.8	93.3	6.4	.4	6.7	100.0
40대	(307)	75.2	19.5	94.8	3.3	2.0	5.2	100.0
50대 이상	(356)	73.0	21.3	94.4	4.8	.8	5.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8.5	32.1	90.6	8.5	.9	9.4	100.0
고졸	(554)	72.2	20.9	93.1	5.4	1.4	6.9	100.0
대재 이상	(538)	77.7	16.5	94.2	4.6	1.1	5.8	100.0
무응답 / 무응답	(2)	100.0	.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4	25.0	96.4	3.6	.0	3.6	100.0
자영업	(341)	74.5	20.5	95.0	3.5	1.5	5.0	100.0
블루 칼라	(316)	74.7	18.0	92.7	6.3	.9	7.3	100.0
화이트칼라	(194)	78.4	14.9	93.3	4.6	2.1	6.7	100.0
전업주부	(187)	69.5	23.0	92.5	7.0	.5	7.5	100.0
무직 / 기타	(134)	67.2	24.6	91.8	6.7	1.5	8.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5.3	22.0	87.3	10.7	2.0	12.7	100.0
200~299만원	(311)	70.7	23.2	93.9	4.2	1.9	6.1	100.0
300~399만원	(373)	75.1	19.0	94.1	4.8	1.1	5.9	100.0
400만원 이상	(366)	77.6	17.2	94.8	4.6	.5	5.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4.7	18.3	92.9	5.4	1.6	7.1	100.0
충청권	(116)	69.8	21.6	91.4	7.8	.9	8.6	100.0
호남권	(115)	73.0	23.5	96.5	1.7	1.7	3.5	100.0
영남권	(312)	72.4	21.5	93.9	5.8	.3	6.1	100.0
강원	(36)	72.2	22.2	94.4	2.8	2.8	5.6	100.0
제주	(13)	84.6	7.7	92.3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4.5	18.6	93.1	6.2	.7	6.9	100.0
중 / 소도시	(533)	74.5	19.9	94.4	3.9	1.7	5.6	100.0
읍 / 면	(102)	62.7	27.5	90.2	7.8	2.0	9.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3.8	20.7	94.5	3.7	1.8	5.5	100.0
중도	(591)	73.3	19.3	92.6	6.4	1.0	7.4	100.0
보수적	(281)	73.7	20.3	94.0	5.0	1.1	6.0	100.0
■ 종교								
불교	(219)	68.0	25.1	93.2	5.5	1.4	6.8	100.0
기독교	(298)	75.8	17.1	93.0	4.4	2.7	7.0	100.0
천주교	(87)	77.0	17.2	94.3	4.6	1.1	5.7	100.0
기타	(9)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73.7	20.0	93.7	6.0	.4	6.3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81.3	6.3	87.5	6.3	6.3	12.5	100.0



표21-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④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 전체	(1200)	72.9	22.3	95.3	3.3	1.3	4.7	.1	100.0
■ 성별									
남자	(610)	73.9	21.5	95.4	3.6	0.8	4.4	.2	100.0
여자	(590)	71.9	23.2	95.1	3.1	1.9	4.9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74.1	20.0	94.1	3.5	2.0	5.5	.4	100.0
30대	(282)	75.9	20.6	96.5	2.8	.7	3.5	.0	100.0
40대	(307)	71.7	22.1	93.8	4.2	2.0	6.2	.0	100.0
50대 이상	(356)	70.8	25.6	96.3	2.8	.8	3.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1.3	34.0	95.3	2.8	1.9	4.7	0	100.0
고졸	(554)	70.6	23.5	94.0	4.2	1.8	6.0	0	100.0
대재 이상	(538)	77.5	19.0	96.5	2.6	.7	3.3	.2	100.0
무름 / 무응답	(2)	100.0	.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4.3	32.1	96.4	3.6	.0	3.6	.0	100.0
자영업	(341)	69.5	24.9	94.4	4.1	1.5	5.6	.0	100.0
블루 칼라	(316)	73.4	22.2	95.6	3.2	1.3	4.4	.0	100.0
화이트칼라	(194)	80.9	15.5	96.4	1.5	2.1	3.6	.0	100.0
전업주부	(187)	70.1	25.7	95.7	3.2	1.1	4.3	.0	100.0
무직 / 기타	(134)	74.6	19.4	94.0	4.5	.7	5.2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5.3	25.3	90.7	4.7	4.0	8.7	.7	100.0
200~299만원	(311)	71.7	23.2	94.9	3.5	1.6	5.1	.0	100.0
300~399만원	(373)	72.7	22.5	95.2	4.0	.8	4.8	.0	100.0
400만원 이상	(366)	77.3	20.2	97.5	1.9	.5	2.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4.0	19.4	93.4	4.8	1.8	6.6	.0	100.0
충청권	(116)	68.1	31.9	100.0	.0	.0	.0	.0	100.0
호남권	(115)	73.0	22.6	95.7	1.7	1.7	3.5	.9	100.0
영남권	(312)	72.1	24.4	96.5	2.9	0.6	3.5	.0	100.0
강원	(36)	69.4	27.8	97.2	.0	2.8	2.8	.0	100.0
제주	(13)	92.3	7.7	100.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4.5	22.1	96.6	2.7	.7	3.4	.0	100.0
중 / 소도시	(533)	71.9	22.3	94.2	3.9	1.7	5.6	.2	100.0
읍 / 면	(102)	69.6	23.5	93.1	3.9	2.9	6.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3.8	21.3	95.1	3.4	1.5	4.9	.0	100.0
중도	(591)	73.3	22.3	95.6	3.4	.8	4.2	.2	100.0
보수적	(281)	71.2	23.5	94.7	3.2	2.1	5.3	.0	100.0
■ 종교									
불교	(219)	72.6	22.4	95.0	3.7	1.4	5.0	.0	100.0
기독교	(298)	68.8	23.8	92.6	5.4	2	7.4	.0	100.0
천주교	(87)	82.8	13.8	96.6	1.1	1.1	2.3	1.1	100.0
기타	(9)	66.7	33.3	100	.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73.7	22.9	96.7	2.6	.7	3.3	.0	100.0
무름 / 무응답	(16)	75.0	12.5	87.5	.0	12.5	12.5	.0	100.0

표21-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역사인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 전체	(1200)	49.6	38.7	88.3	9.9	1.8	11.7	.1	100.0
■ 성별									
남자	(610)	50.3	38.5	88.9	9.7	1.3	11.0	.2	100.0
여자	(590)	48.8	38.8	87.6	10.2	2.2	12.4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1.0	35.7	86.7	11.0	2.4	13.3	.0	100.0
30대	(282)	50.7	41.8	92.6	6.0	1.1	7.1	.4	100.0
40대	(307)	48.9	39.4	88.3	9.4	2.3	11.7	.0	100.0
50대 이상	(356)	48.3	37.6	86.0	12.6	1.4	14.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38.7	46.2	84.9	14.2	0.9	15.1	.0	100.0
고졸	(554)	46.9	39.9	86.8	10.6	2.5	13.2	.0	100.0
대재 이상	(538)	54.6	35.9	90.5	8.2	1.1	9.3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46.4	42.9	89.3	10.7	.0	10.7	.0	100.0
자영업	(341)	49.0	40.2	89.1	7.6	3.2	10.9	.0	100.0
블루 칼라	(316)	50.9	36.7	87.7	10.8	1.3	12.0	.3	100.0
화이트칼라	(194)	52.6	38.1	90.7	7.2	2.1	9.3	.0	100.0
전업주부	(187)	44.4	41.7	86.1	13.4	.5	13.9	.0	100.0
무직 / 기타	(134)	51.5	35.1	86.6	12.7	.7	13.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2.0	35.3	87.3	10.7	2.0	12.7	.0	100.0
200~299만원	(311)	52.1	35.4	87.5	10.9	1.6	12.5	.0	100.0
300~399만원	(373)	47.5	40.5	87.9	9.4	2.4	11.8	.3	100.0
400만원 이상	(366)	48.6	41.0	89.6	9.3	1.1	10.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0.5	37.2	87.7	10.4	2.0	12.3	.0	100.0
충청권	(116)	51.7	37.9	89.7	9.5	.9	10.3	.0	100.0
호남권	(115)	51.3	41.7	93.0	5.2	.9	6.1	.9	100.0
영남권	(312)	45.2	40.7	85.9	12.2	1.9	14.1	.0	100.0
강원	(36)	55.6	38.9	94.4	2.8	2.8	5.6	.0	100.0
제주	(13)	61.5	38.5	100.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7.8	39.3	87.1	11.3	1.6	12.9	.0	100.0
중 / 소도시	(533)	53.5	36.6	90.1	8.3	1.5	9.8	.2	100.0
읍 / 면	(102)	39.2	46.1	85.3	10.8	3.9	14.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0.3	37.2	87.5	10.4	2.1	12.5	.0	100.0
중도	(591)	50.1	39.3	89.3	9.3	1.4	10.7	.0	100.0
보수적	(281)	47.7	39.1	86.8	10.7	2.1	12.8	.4	100.0
■ 종교									
불교	(219)	48.9	39.3	88.1	10.5	1.4	11.9	.0	100.0
기독교	(298)	51.0	34.9	85.9	11.7	2.3	14.1	.0	100.0
천주교	(87)	57.5	33.3	90.8	6.9	2.3	9.2	.0	100.0
기타	(9)	33.3	55.6	88.9	11.1	.0	11.1	.0	100.0
종교 없음	(571)	48.0	41.5	89.5	9.1	1.2	10.3	.2	100.0
무름 / 무응답	(16)	56.3	18.8	75.0	12.5	12.5	25.0	.0	100.0



표21-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41.3	46.9	88.2	9.7	2.2	11.8	100.0
■ 성별								
남자	(610)	40.3	48.0	88.4	10.0	1.6	11.6	100.0
여자	(590)	42.2	45.8	88.0	9.3	2.7	12.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1.2	44.3	85.5	11.8	2.7	14.5	100.0
30대	(282)	40.4	48.6	89.0	9.9	1.1	11.0	100.0
40대	(307)	40.4	46.9	87.3	10.1	2.6	12.7	100.0
50대 이상	(356)	42.7	47.5	90.2	7.6	2.2	9.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3.4	50.0	93.4	2.8	3.8	6.6	100.0
고졸	(554)	40.4	47.3	87.7	9.9	2.3	12.3	100.0
대재 이상	(538)	41.8	45.7	87.5	10.8	1.7	12.5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3.6	46.4	100	.0	.0	.0	100.0
자영업	(341)	39.3	48.4	87.7	9.7	2.6	12.3	100.0
블루 칼라	(316)	46.2	40.8	87.0	11.1	1.9	13.0	100.0
화이트칼라	(194)	42.3	46.4	88.7	9.8	1.5	11.3	100.0
전업주부	(187)	38.5	51.3	89.8	7.0	3.2	10.2	100.0
무직 / 기타	(134)	34.3	52.2	86.6	11.9	1.5	13.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5.3	39.3	84.7	8.7	6.7	15.3	100.0
200~299만원	(311)	41.8	49.5	91.3	7.1	1.6	8.7	100.0
300~399만원	(373)	41.6	44.8	86.3	11.3	2.4	13.7	100.0
400만원 이상	(366)	38.8	50.0	88.8	10.7	.5	11.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9.8	47.0	86.8	10.5	2.6	13.2	100.0
충청권	(116)	45.7	39.7	85.3	14.7	.0	14.7	100.0
호남권	(115)	41.7	42.6	84.3	13.0	2.6	15.7	100.0
영남권	(312)	42.6	49.7	92.3	5.8	1.9	7.7	100.0
강원	(36)	38.9	55.6	94.4	2.8	2.8	5.6	100.0
제주	(13)	38.5	53.8	92.3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1.6	44.2	85.8	12.6	1.6	14.2	100.0
중 / 소도시	(533)	42.4	47.8	90.2	7.1	2.6	9.8	100.0
읍 / 면	(102)	33.3	56.9	90.2	6.9	2.9	9.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9.3	48.2	87.5	10.1	2.4	12.5	100.0
중도	(591)	41.1	45.7	86.8	11.3	1.9	13.2	100.0
보수적	(281)	43.8	48.0	91.8	5.7	2.5	8.2	100.0
■ 종교								
불교	(219)	43.4	49.8	93.2	4.1	2.7	6.8	100.0
기독교	(298)	41.6	44.0	85.6	12.1	2.3	14.4	100.0
천주교	(87)	44.8	42.5	87.4	8.0	4.6	12.6	100.0
기타	(9)	44.4	33.3	77.8	11.1	11.1	22.2	100.0
종교 없음	(571)	39.6	48.7	88.3	10.7	1.1	11.7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43.8	31.3	75.0	12.5	12.5	25.0	100.0

표21-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42.2	43.6	85.8	12.2	2.1	14.3	100.0
■ 성별								
남자	(610)	40.2	44.3	84.4	14.1	1.5	15.6	100.0
여자	(590)	44.2	42.9	87.1	10.2	2.7	12.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2.7	40.4	83.1	13.3	3.5	16.9	100.0
30대	(282)	39.0	48.6	87.6	11.3	1.1	12.4	100.0
40대	(307)	39.1	45.3	84.4	12.7	2.9	15.6	100.0
50대 이상	(356)	46.9	40.4	87.4	11.5	1.1	12.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4.3	44.3	88.7	8.5	2.8	11.3	100.0
고졸	(554)	42.1	43.0	85.0	13.0	2.0	15.0	100.0
대재 이상	(538)	42.0	44.1	86.1	11.9	2.0	13.9	100.0
무응답 / 무응답	(2)	0.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42.9	92.9	7.1	.0	7.1	100.0
자영업	(341)	39.3	47.8	87.1	11.4	1.5	12.9	100.0
블루 칼라	(316)	45.6	38.6	84.2	13.6	2.2	15.8	100.0
화이트칼라	(194)	44.8	40.2	85.1	12.9	2.1	14.9	100.0
전업주부	(187)	40.6	44.9	85.6	11.8	2.7	14.4	100.0
무직 / 기타	(134)	38.1	47.8	85.8	11.2	3.0	1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5.3	34.7	80.0	16.7	3.3	20.0	100.0
200~299만원	(311)	42.4	42.4	84.9	13.5	1.6	15.1	100.0
300~399만원	(373)	41.3	46.1	87.4	9.9	2.7	12.6	100.0
400만원 이상	(366)	41.5	45.6	87.2	11.5	1.4	12.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2.9	42.3	85.2	12.0	2.8	14.8	100.0
충청권	(116)	40.5	46.6	87.1	12.1	.9	12.9	100.0
호남권	(115)	34.8	42.6	77.4	20.9	1.7	22.6	100.0
영남권	(312)	46.2	42.3	88.5	10.3	1.3	11.5	100.0
강원	(36)	36.1	55.6	91.7	5.6	2.8	8.3	100.0
제주	(13)	7.7	84.6	92.3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0.9	43.5	84.4	13.8	1.8	15.6	100.0
중 / 소도시	(533)	45.2	42.0	87.2	10.1	2.6	12.8	100.0
읍 / 면	(102)	33.3	52.0	85.3	13.7	1.0	14.7	100.0
■ 정치적상황								
진보적	(328)	35.7	46.6	82.3	15.5	2.1	17.7	100.0
중도	(591)	43.5	42.8	86.3	11.5	2.2	13.7	100.0
보수적	(281)	47.0	41.6	88.6	9.6	1.8	11.4	100.0
■ 종교								
불교	(219)	47.0	42.5	89.5	7.3	3.2	10.5	100.0
기독교	(298)	41.6	41.6	83.2	14.4	2.3	16.8	100.0
천주교	(87)	48.3	39.1	87.4	9.2	3.4	12.6	100.0
기타	(9)	11.1	66.7	77.8	22.2	.0	22.2	100.0
종교 없음	(571)	40.1	45.9	86.0	13.1	.9	14.0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43.8	25.0	68.8	12.5	18.8	31.3	100.0



표21-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	다소 있다 %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 전체	(1200)	67.1	25.4	92.5	5.8	1.7	7.5	100.0
■ 성별								
남자	(610)	64.4	28.4	92.8	5.9	1.3	7.2	100.0
여자	(590)	69.8	22.4	92.2	5.8	2.0	7.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69.8	20.8	90.6	6.7	2.7	9.4	100.0
30대	(282)	66.3	28.4	94.7	4.3	1.1	5.3	100.0
40대	(307)	67.1	25.1	92.2	6.2	1.6	7.8	100.0
50대 이상	(356)	65.7	26.7	92.4	6.2	1.4	7.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5.7	38.7	94.3	2.8	2.8	5.7	100.0
고졸	(554)	66.4	24.4	90.8	7.8	1.4	9.2	100.0
대재 이상	(538)	69.9	24.0	93.9	4.5	1.7	6.1	100.0
무응답 / 무응답	(2)	100.0	.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39.3	96.4	3.6	.0	3.6	100.0
자영업	(341)	64.5	28.4	93.0	6.2	.9	7.0	100.0
블루 칼라	(316)	69.6	22.2	91.8	5.7	2.5	8.2	100.0
화이트칼라	(194)	72.2	22.7	94.8	3.1	2.1	5.2	100.0
전업주부	(187)	65.2	25.7	90.9	7.0	2.1	9.1	100.0
무직 / 기타	(134)	64.9	26.1	91.0	8.2	.7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8.0	32.0	90.0	6.7	3.3	10.0	100.0
200~299만원	(311)	63.3	27.7	91	7.4	1.6	9.0	100.0
300~399만원	(373)	68.1	24.9	93	5.1	1.9	7.0	100.0
400만원 이상	(366)	73.0	21.3	94.3	4.9	0.8	5.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0.1	21.1	91.1	6.4	2.5	8.9	100.0
충청권	(116)	56.0	37.9	94.0	5.2	0.9	6.0	100.0
호남권	(115)	66.1	30.4	96.5	1.7	1.7	3.5	100.0
영남권	(312)	67.3	25.6	92.9	7.1	.0	7.1	100.0
강원	(36)	55.6	41.7	97.2	.0	2.8	2.8	100.0
제주	(13)	61.5	23.1	84.6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0.4	22.1	92.6	6.4	1.1	7.4	100.0
중 / 소도시	(533)	67.7	25.0	92.7	5.1	2.3	7.3	100.0
읍 / 면	(102)	45.1	46.1	91.2	6.9	2.0	8.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8.6	23.5	92.1	6.1	1.8	7.9	100.0
중도	(591)	67.0	25.7	92.7	5.9	1.4	7.3	100.0
보수적	(281)	65.5	27.0	92.5	5.3	2.1	7.5	100.0
■ 종교								
불교	(219)	65.8	27.4	93.2	4.1	2.7	6.8	100.0
기독교	(298)	67.1	23.8	90.9	7.7	1.3	9.1	100.0
천주교	(87)	73.6	21.8	95.4	2.3	2.3	4.6	100.0
기타	(9)	77.8	11.1	88.9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66.7	26.3	93.0	6.1	.9	7.0	100.0
무응답 / 무응답	(16)	56.3	25.0	81.3	.0	18.8	18.8	100.0

표2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31.9	48.5	80.4	16.3	3.3	19.6	100.0
■ 성별								
남자	(610)	29.2	49.3	78.5	17.5	3.9	21.5	100.0
여자	(590)	34.7	47.6	82.4	15.1	2.5	17.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2.2	47.5	79.6	16.1	4.3	20.4	100.0
30대	(282)	27.3	49.3	76.6	20.2	3.2	23.4	100.0
40대	(307)	30.3	49.2	79.5	17.9	2.6	20.5	100.0
50대 이상	(356)	36.8	48.0	84.8	12.1	3.1	1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9.2	61.3	90.6	7.5	1.9	9.4	100.0
고졸	(554)	33.8	48	81.8	15.2	3.1	18.2	100.0
대재 이상	(538)	30.7	46.3	77	19.3	3.7	23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50.0	71.4	14.3	14.3	28.6	100.0
자영업	(341)	29.6	48.7	78.3	18.5	3.2	21.7	100.0
블루 칼라	(316)	30.1	51.9	82.0	16.1	1.9	18.0	100.0
화이트칼라	(194)	32.5	48.5	80.9	16.5	2.6	19.1	100.0
전업주부	(187)	44.4	40.1	84.5	12.8	2.7	15.5	100.0
무직 / 기타	(134)	26.1	51.5	77.6	16.4	6.0	22.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6.0	49.3	85.3	12.0	2.7	14.7	100.0
200~299만원	(311)	29.9	51.1	81	15.4	3.5	19.0	100.0
300~399만원	(373)	30.8	49.6	80.4	17.4	2.1	19.6	100.0
400만원 이상	(366)	33.1	44.8	77.9	17.8	4.4	22.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5.7	43.9	79.6	17.4	3.0	20.4	100.0
충청권	(116)	21.6	47.4	69	21.6	9.5	31.0	100.0
호남권	(115)	21.7	47.0	68.7	23.5	7.8	31.3	100.0
영남권	(312)	30.1	59.9	90.1	9.9	.0	9.9	100.0
강원	(36)	44.4	41.7	86.1	11.1	2.8	13.9	100.0
제주	(13)	46.2	30.8	76.9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5.0	46.5	81.6	16.8	1.6	18.4	100.0
중 / 소도시	(533)	28.5	51.4	79.9	15.4	4.7	20.1	100.0
읍 / 면	(102)	32.4	44.1	76.5	18.6	4.9	23.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3.2	42.1	75.3	20.7	4.0	24.7	100.0
중도	(591)	29.1	51.9	81.0	15.6	3.4	19.0	100.0
보수적	(281)	36.3	48.8	85.1	12.8	2.1	14.9	100.0
■ 종교								
불교	(219)	30.6	53.0	83.6	14.6	1.8	16.4	100.0
기독교	(298)	35.2	44.0	79.2	16.4	4.4	20.8	100.0
천주교	(87)	32.2	47.1	79.3	19.5	1.1	20.7	100.0
기타	(9)	33.3	33.3	66.7	33.3	.0	33.3	100.0
종교 없음	(571)	30.8	49.4	80.2	16.1	3.7	19.8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56.3	81.3	18.8	.0	18.8	100.0



표23.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49.3	36.2	85.4	7.4	4.5	11.9	2.7	100.0
■ 성별									
남자	(610)	49.8	36.1	85.9	7.9	4.1	12.0	2.1	100.0
여자	(590)	48.6	36.3	84.9	6.9	4.9	11.9	3.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3.5	35.3	78.8	8.6	6.7	15.3	5.9	100.0
30대	(282)	48.9	35.8	84.8	9.2	4.3	13.5	1.8	100.0
40대	(307)	49.8	37.8	87.6	5.9	3.9	9.8	2.6	100.0
50대 이상	(356)	53.1	35.7	88.8	6.5	3.7	10.1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5.3	39.6	84.9	10.4	3.8	14.2	0.9	100.0
고졸	(554)	48.9	35.6	84.5	6.5	5.4	11.9	3.6	100.0
대재 이상	(538)	50.4	36.2	86.6	7.8	3.5	11.3	2.0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0	50.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39.3	89.3	7.1	3.6	10.7	.0	100.0
자영업	(341)	53.1	33.1	86.2	6.7	4.4	11.1	2.6	100.0
블루 칼라	(316)	43.4	39.9	83.2	8.5	4.1	12.7	4.1	100.0
화이트칼라	(194)	54.6	30.9	85.6	7.2	4.6	11.9	2.6	100.0
전업주부	(187)	50.8	38.0	88.8	5.3	5.3	10.7	0.5	100.0
무직 / 기타	(134)	43.3	39.6	82.8	9.7	4.5	14.2	3.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7.3	38.0	85.3	7.3	4.7	12.0	2.7	100.0
200~299만원	(311)	44.7	41.2	85.9	6.8	3.5	10.3	3.9	100.0
300~399만원	(373)	46.9	38.1	85.0	7.8	5.6	13.4	1.6	100.0
400만원 이상	(366)	56.3	29.2	85.5	7.7	4.1	11.7	2.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2.0	34.7	86.7	6.3	3.9	10.2	3.1	100.0
충청권	(116)	41.4	32.8	74.1	14.7	6.0	20.7	5.2	100.0
호남권	(115)	47.8	37.4	85.2	9.6	2.6	12.2	2.6	100.0
영남권	(312)	47.4	38.8	86.2	6.7	6.4	13.1	0.6	100.0
강원	(36)	47.2	44.4	91.7	5.6	.0	5.6	2.8	100.0
제주	(13)	53.8	38.5	92.3	.0	.0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4.7	32.4	87.1	7.1	4.6	11.7	1.2	100.0
중 / 소도시	(533)	43.2	42.0	85.2	7.5	3.8	11.3	3.6	100.0
읍 / 면	(102)	51.0	26.5	77.5	8.8	7.8	16.7	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3.0	36.0	89.0	5.8	2.7	8.5	2.4	100.0
중도	(591)	44.8	37.7	82.6	9.5	4.6	14.0	3.4	100.0
보수적	(281)	54.1	33.1	87.2	5.0	6.4	11.4	1.4	100.0
■ 종교									
불교	(219)	41.6	41.1	82.6	9.1	6.8	16.0	1.4	100.0
기독교	(298)	51.3	34.9	86.2	8.7	2.3	11.1	2.7	100.0
천주교	(87)	58.6	33.3	92.0	4.6	1.1	5.7	2.3	100.0
기타	(9)	88.9	11.1	100.0	.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49.4	35.7	85.1	6.3	5.3	11.6	3.3	100.0
무름 / 무응답	(16)	37.5	37.5	75.0	18.8	6.3	25.0	.0	100.0

표24.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	
	(1200)	5.0	18.8	23.8	41.3	21.3	13.7	35.0	100.0
■ 전체	(1200)	5.0	18.8	23.8	41.3	21.3	13.7	35.0	100.0
■ 성별									
남자	(610)	6.1	22.6	28.7	39.7	18.5	13.1	31.6	100.0
여자	(590)	3.9	14.7	18.6	42.9	24.2	14.2	38.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1	14.1	17.3	41.6	21.6	19.6	41.2	100.0
30대	(282)	4.3	23.0	27.3	40.8	22.0	9.9	31.9	100.0
40대	(307)	8.5	19.2	27.7	38.1	20.5	13.7	34.2	100.0
50대 이상	(356)	3.9	18.3	22.2	44.1	21.3	12.4	3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16.0	16.0	46.2	21.7	16.0	37.7	100.0
고졸	(554)	4.3	16.2	20.6	39.9	24.7	14.8	39.5	100.0
대재 이상	(538)	6.7	21.9	28.6	41.6	17.8	11.9	29.7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0	50.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28.6	39.3	25.0	10.7	25.0	35.7	100.0
자영업	(341)	6.7	21.1	27.9	41.3	19.1	11.7	30.8	100.0
블루 칼라	(316)	2.2	16.1	18.4	43.4	24.1	14.2	38.3	100.0
화이트칼라	(194)	7.7	22.2	29.9	36.6	18.6	14.9	33.5	100.0
전업주부	(187)	4.3	12.3	16.6	43.9	27.8	11.8	39.6	100.0
무직 / 기타	(134)	3.0	20.9	23.9	42.5	17.9	15.7	3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7	28.7	31.3	36.0	18.0	14.7	32.7	100.0
200~299만원	(311)	4.5	18	22.5	43.1	19.6	14.8	34.4	100.0
300~399만원	(373)	5.4	14.5	19.8	41.3	24.1	14.7	38.9	100.0
400만원 이상	(366)	6.0	19.7	25.7	41.8	21.3	11.2	32.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6	16.9	22.5	43.8	19.4	14.3	33.7	100.0
충청권	(116)	4.3	19.0	23.3	27.6	27.6	21.6	49.1	100.0
호남권	(115)	13.0	42.6	55.7	28.7	7.0	8.7	15.7	100.0
영남권	(312)	1.6	13.1	14.7	45.5	28.8	10.9	39.7	100.0
강원	(36)	2.8	19.4	22.2	41.7	13.9	22.2	36.1	100.0
제주	(13)	.0	23.1	23.1	53.8	23.1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0	19.8	24.8	39.3	22.8	13.1	35.9	100.0
중 / 소도시	(533)	5.1	17.1	22.1	44.8	19.5	13.5	33.0	100.0
읍 / 면	(102)	4.9	21.6	26.5	33.3	22.5	17.6	40.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9.5	31.4	40.9	31.1	14.9	13.1	28.0	100.0
중도	(591)	4.2	17.9	22.2	44.3	22.5	11.0	33.5	100.0
보수적	(281)	1.4	5.7	7.1	46.6	26.3	19.9	46.3	100.0
■ 종교									
불교	(219)	2.7	15.1	17.8	43.4	23.3	15.5	38.8	100.0
기독교	(298)	4.7	23.2	27.9	38.6	20.1	13.4	33.6	100.0
천주교	(87)	8.0	18.4	26.4	43.7	17.2	12.6	29.9	100.0
기타	(9)	44.4	11.1	55.6	22.2	11.1	11.1	22.2	100.0
종교 없음	(571)	4.9	18.0	22.9	41.9	21.9	13.3	35.2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18.8	25.0	37.5	25.0	12.5	37.5	100.0



표24-1.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현대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대북지원이	대북지원이	대북지원 때문에	기타	계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	%	%	%	%	%
■ 전체	(1200)	56.2	16.9	14.3	11.9	.7	100.0
■ 성별							
남자	(610)	54.4	21.2	15.5	8.8	.0	100.0
여자	(590)	57.7	13.2	13.2	14.5	1.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0.5	23.8	15.2	9.5	1	100.0
30대	(282)	55.6	20.0	10.0	13.3	1.1	100.0
40대	(307)	62.9	12.4	12.4	12.4	.0	100.0
50대 이상	(356)	55.8	12.5	18.3	12.5	.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2.5	15.0	7.5	25.0	.0	100.0
고졸	(554)	58.9	12.8	15.5	11.9	.9	100.0
대재 이상	(538)	53.8	23.1	13.8	8.8	.6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0.0	30.0	10.0	30.0	.0	100.0
자영업	(341)	47.6	18.1	17.1	16.2	1.0	100.0
블루 칼라	(316)	56.2	12.4	16.5	14	.8	100.0
화이트칼라	(194)	60.0	24.6	9.2	6.2	.0	100.0
전업주부	(187)	71.6	5.4	12.2	10.8	.0	100.0
무직 / 기타	(134)	51.1	31.1	13.3	2.2	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7.1	16.3	6.1	20.4	.0	100.0
200~299만원	(311)	52.3	15.0	15.9	15.9	.9	100.0
300~399만원	(373)	58.6	14.5	17.9	9.0	.0	100.0
400만원 이상	(366)	56.3	21.8	11.8	8.4	1.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3.2	19.5	13.7	12.7	1.0	100.0
충청권	(116)	54.4	17.5	12.3	15.8	.0	100.0
호남권	(115)	66.7	11.1	5.6	11.1	5.6	100.0
영남권	(312)	61.3	13.7	16.9	8.1	.0	100.0
강원	(36)	38.5	15.4	23.1	23.1	.0	100.0
제주	(13)	100.0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60.6	15.3	14.8	9.4	.0	100.0
중 / 소도시	(533)	55.1	18.2	14.8	10.8	1.1	100.0
읍 / 면	(102)	39.0	19.5	9.8	29.3	2.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1.1	19.6	15.2	14.1	.0	100.0
중도	(591)	59.6	13.6	13.1	13.1	.5	100.0
보수적	(281)	54.6	20.0	15.4	8.5	1.5	100.0
■ 종교							
불교	(219)	57.6	9.4	15.3	16.5	1.2	100.0
기독교	(298)	63.0	17.0	11.0	8.0	1.0	100.0
천주교	(87)	65.4	11.5	11.5	11.5	.0	100.0
기타	(9)	100.0	.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50.2	20.4	16.4	12.4	.5	100.0
무름 / 무응답	(16)	66.7	33.3	.0	.0	.0	100.0

표25.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	%	%	%	%	%	%	%
■ 전체	(1200)	6.3	35.9	42.3	42.3	15.4	57.7	.1	100.0
■ 성별									
남자	(610)	7.4	38.7	46.1	40.2	13.6	53.8	.2	100.0
여자	(590)	5.3	33.1	38.3	44.4	17.3	61.7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6.3	35.7	42	36.5	21.6	58	.0	100.0
30대	(282)	7.1	37.9	45	40.1	14.5	54.6	.4	100.0
40대	(307)	5.9	37.5	43.3	45.0	11.7	56.7	.0	100.0
50대 이상	(356)	6.2	33.1	39.3	45.8	14.9	60.7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21.7	26.4	59.4	14.2	73.6	.0	100.0
고졸	(554)	5.1	34.7	39.7	43.5	16.8	60.3	.0	100.0
대재 이상	(538)	8.0	40.1	48.1	37.5	14.1	51.7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32.1	42.9	46.4	10.7	57.1	.0	100.0
자영업	(341)	5.3	34.0	39.3	47.2	13.5	60.7	.0	100.0
블루 칼라	(316)	4.7	38.3	43.0	40.5	16.5	57.0	.0	100.0
화이트칼라	(194)	7.7	37.6	45.4	39.2	14.9	54.1	.5	100.0
전업주부	(187)	5.3	32.6	38.0	46.0	16.0	62.0	.0	100.0
무직 / 기타	(134)	11.2	38.1	49.3	32.1	18.7	50.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1.3	34.7	46.0	42.0	12.0	54.0	.0	100.0
200~299만원	(311)	4.8	34.7	39.5	44.4	16.1	60.5	.0	100.0
300~399만원	(373)	6.2	35.7	41.8	40.8	17.2	57.9	.3	100.0
400만원 이상	(366)	5.7	37.7	43.4	42.1	14.5	56.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6	34	41.6	40.5	17.9	58.4	.0	100.0
충청권	(116)	3.4	35.3	38.8	44.8	16.4	61.2	.0	100.0
호남권	(115)	12.2	54.8	67.0	29.6	2.6	32.2	.9	100.0
영남권	(312)	2.6	31.4	34.0	49.0	17.0	66.0	.0	100.0
강원	(36)	8.3	50.0	58.3	38.9	2.8	41.7	.0	100.0
제주	(13)	7.7	30.8	38.5	61.5	.0	61.5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7	32.7	38.4	42.5	18.9	61.4	.2	100.0
중 / 소도시	(533)	6.9	40.3	47.3	41.1	11.6	52.7	.0	100.0
읍 / 면	(102)	6.9	30.4	37.3	47.1	15.7	62.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0.1	41.8	51.8	33.8	14.0	47.9	.3	100.0
중도	(591)	4.9	38.1	43.0	43.1	13.9	57.0	.0	100.0
보수적	(281)	5.0	24.6	29.5	50.2	20.3	70.5	.0	100.0
■ 종교									
불교	(219)	5.5	35.2	40.6	47.0	12.3	59.4	.0	100.0
기독교	(298)	7.7	34.6	42.3	41.3	16.4	57.7	.0	100.0
천주교	(87)	11.5	36.8	48.3	34.5	17.2	51.7	.0	100.0
기타	(9)	22.2	22.2	44.4	55.6	.0	55.6	.0	100.0
종교 없음	(571)	4.9	37.1	42.0	41.7	16.1	57.8	.2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31.3	37.5	50.0	12.5	62.5	.0	100.0



표26.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전체	(1200)	10.3	52.9	63.3	31.2	5.6	36.8	100.0
■ 성별								
남자	(610)	12.8	54.3	67.0	28.5	4.4	33.0	100.0
여자	(590)	7.8	51.5	59.3	33.9	6.8	40.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6	54.1	62.7	29.8	7.5	37.3	100.0
30대	(282)	11.0	50.7	61.7	33.0	5.3	38.3	100.0
40대	(307)	10.4	55.4	65.8	29.3	4.9	34.2	100.0
50대 이상	(356)	11.0	51.7	62.6	32.3	5.1	37.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50.9	55.7	41.5	2.8	44.3	100.0
고졸	(554)	7.2	52.5	59.7	33.0	7.2	40.3	100.0
대재 이상	(538)	14.7	53.9	68.6	27.0	4.5	31.4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60.7	75.0	21.4	3.6	25.0	100.0
자영업	(341)	12.0	51.9	63.9	30.2	5.9	36.1	100.0
블루 칼라	(316)	6.0	56.6	62.7	32.0	5.4	37.3	100.0
화이트칼라	(194)	14.4	53.1	67.5	28.4	4.1	32.5	100.0
전업주부	(187)	6.4	43.9	50.3	42.2	7.5	49.7	100.0
무직 / 기타	(134)	14.9	57.5	72.4	22.4	5.2	27.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3.3	58.7	72.0	25.3	2.7	28.0	100.0
200~299만원	(311)	10.3	50.2	60.5	34.1	5.5	39.5	100.0
300~399만원	(373)	7.8	52.3	60.1	33.2	6.7	39.9	100.0
400만원 이상	(366)	11.7	53.6	65.3	29.0	5.7	34.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2.0	52.6	64.6	28.6	6.7	35.4	100.0
충청권	(116)	6.0	57.8	63.8	33.6	2.6	36.2	100.0
호남권	(115)	18.3	57.4	75.7	20.9	3.5	24.3	100.0
영남권	(312)	4.8	49.4	54.2	40.4	5.4	45.8	100.0
강원	(36)	16.7	58.3	75.0	19.4	5.6	25.0	100.0
제주	(13)	15.4	53.8	69.2	30.8	.0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0.6	52.9	63.5	31.2	5.3	36.5	100.0
중 / 소도시	(533)	10.1	52.3	62.5	31.9	5.6	37.5	100.0
읍 / 면	(102)	9.8	55.9	65.7	27.5	6.9	34.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9.5	52.4	72.0	24.4	3.7	28.0	100.0
중도	(591)	7.8	52.8	60.6	33.3	6.1	39.4	100.0
보수적	(281)	5.0	53.7	58.7	34.5	6.8	41.3	100.0
■ 종교								
불교	(219)	7.3	48.4	55.7	37.4	6.8	44.3	100.0
기독교	(298)	12.1	53.0	65.1	31.2	3.7	34.9	100.0
천주교	(87)	16.1	54.0	70.1	24.1	5.7	29.9	100.0
기타	(9)	44.4	11.1	55.6	44.4	.0	44.4	100.0
종교 없음	(571)	9.5	54.6	64.1	29.8	6.1	35.9	100.0
무름 / 무응답	(16)	.0	68.8	68.8	25.0	6.3	31.3	100.0

표27.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
■ 전체	(1200)	2.9	31.4	34.3	51.8	13.8	65.7	100.0
■ 성별								
남자	(610)	3.1	33.9	37.0	48.2	14.8	63.0	100.0
여자	(590)	2.7	28.8	31.5	55.6	12.9	68.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2	30.6	31.8	52.2	16.1	68.2	100.0
30대	(282)	3.2	28.0	31.2	56.7	12.1	68.8	100.0
40대	(307)	1.6	31.9	33.6	51.5	15.0	66.4	100.0
50대 이상	(356)	5.1	34.3	39.3	48.0	12.6	60.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8	36.8	39.6	46.2	14.2	60.4	100.0
고졸	(554)	2.9	33.4	36.3	52.3	11.4	63.7	100.0
대재 이상	(538)	3.0	28.3	31.2	52.4	16.4	68.8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50.0	53.6	21.4	25.0	46.4	100.0
자영업	(341)	4.4	32.6	37.0	49.0	14.1	63.0	100.0
블루 칼라	(316)	2.2	34.2	36.4	51.6	12.0	63.6	100.0
화이트칼라	(194)	2.1	22.7	24.7	59.3	16.0	75.3	100.0
전업주부	(187)	2.7	32.1	34.8	54.0	11.2	65.2	100.0
무직 / 기타	(134)	2.2	29.9	32.1	52.2	15.7	6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7	38.0	40.7	46.0	13.3	59.3	100.0
200~299만원	(311)	2.9	34.1	37.0	50.5	12.5	63.0	100.0
300~399만원	(373)	2.9	32.4	35.4	51.2	13.4	64.6	100.0
400만원 이상	(366)	3.0	25.4	28.4	56.0	15.6	71.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4	28.3	32.7	50.8	16.4	67.3	100.0
충청권	(116)	3.4	32.8	36.2	54.3	9.5	63.8	100.0
호남권	(115)	.0	20.0	20.0	48.7	31.3	80.0	100.0
영남권	(312)	1.3	42.0	43.3	52.6	4.2	56.7	100.0
강원	(36)	.0	22.2	22.2	63.9	13.9	77.8	100.0
제주	(13)	.0	38.5	38.5	53.8	7.7	61.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9	32.9	36.8	48.8	14.3	63.2	100.0
중 / 소도시	(533)	2.4	31.0	33.4	55.5	11.1	66.6	100.0
읍 / 면	(102)	.0	25.5	25.5	49.0	25.5	74.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4	20.4	22.9	54.0	23.2	77.1	100.0
중도	(591)	1.5	33.3	34.9	54.7	10.5	65.1	100.0
보수적	(281)	6.4	40.2	46.6	43.4	10.0	53.4	100.0
■ 종교								
불교	(219)	2.7	34.7	37.4	51.1	11.4	62.6	100.0
기독교	(298)	5.4	31.2	36.6	50.7	12.8	63.4	100.0
천주교	(87)	3.4	25.3	28.7	51.7	19.5	71.3	100.0
기타	(9)	11.1	22.2	33.3	44.4	22.2	66.7	100.0
종교 없음	(571)	1.6	31.7	33.3	52.2	14.5	66.7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8.8	18.8	75.0	6.3	81.3	100.0



표28.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 전체	(1200)	1.0	22.8	23.8	60.8	15.4	76.2	100.0
■ 성별								
남자	(610)	1.6	23.9	25.6	56.6	17.9	74.4	100.0
여자	(590)	.3	21.7	22.0	65.1	12.9	78.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	17.3	18.8	63.1	18.0	81.2	100.0
30대	(282)	1.1	20.9	22.0	62.8	15.2	78.0	100.0
40대	(307)	.7	22.8	23.5	60.9	15.6	76.5	100.0
50대 이상	(356)	.8	28.4	29.2	57.3	13.5	70.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31.1	32.1	56.6	11.3	67.9	100.0
고졸	(554)	.9	24.5	25.5	60.8	13.7	74.5	100.0
대재 이상	(538)	1.1	19.3	20.4	61.5	18.0	79.6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39.3	42.9	35.7	21.4	57.1	100.0
자영업	(341)	.9	23.2	24.0	59.5	16.4	76.0	100.0
블루 칼라	(316)	.9	23.4	24.4	64.2	11.4	75.6	100.0
화이트칼라	(194)	1.0	17.0	18.0	62.4	19.6	82.0	100.0
전업주부	(187)	1.1	25.7	26.7	61.0	12.3	73.3	100.0
무직 / 기타	(134)	.7	21.6	22.4	58.2	19.4	77.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0	31.3	33.3	50.0	16.7	66.7	100.0
200~299만원	(311)	1.0	25.7	26.7	59.2	14.1	73.3	100.0
300~399만원	(373)	.8	20.6	21.4	64.9	13.7	78.6	100.0
400만원 이상	(366)	.8	19.1	19.9	62.3	17.8	80.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3	20.7	22.0	59.7	18.3	78.0	100.0
충청권	(116)	.0	19.0	19.0	69.0	12.1	81.0	100.0
호남권	(115)	.0	9.6	9.6	60.9	29.6	90.4	100.0
영남권	(312)	1.0	34.9	35.9	57.1	7.1	64.1	100.0
강원	(36)	2.8	13.9	16.7	75.0	8.3	83.3	100.0
제주	(13)	.0	7.7	7.7	84.6	7.7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	23.2	23.4	60.0	16.6	76.6	100.0
중 / 소도시	(533)	2.1	23.5	25.5	61.4	13.1	74.5	100.0
읍 / 면	(102)	.0	17.6	17.6	61.8	20.6	82.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8	14.0	15.9	58.8	25.3	84.1	100.0
중도	(591)	.8	23.2	24.0	62.6	13.4	76.0	100.0
보수적	(281)	.4	32.4	32.7	59.1	8.2	67.3	100.0
■ 종교								
불교	(219)	.9	28.8	29.7	55.7	14.6	70.3	100.0
기독교	(298)	1.3	20.5	21.8	63.1	15.1	78.2	100.0
천주교	(87)	1.1	23.0	24.1	57.5	18.4	75.9	100.0
기타	(9)	11.1	11.1	22.2	44.4	33.3	77.8	100.0
종교 없음	(571)	.7	21.9	22.6	62.0	15.4	77.4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68.8	6.3	75.0	100.0

표29.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전체	(1200)	12.8	40.6	53.3	31.9	5.7	37.6	9.1	100.0
■ 성별									
남자	(610)	15.4	40.7	56.1	32.5	4.9	37.4	6.6	100.0
여자	(590)	10.0	40.5	50.5	31.4	6.4	37.8	11.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1.0	36.9	47.8	36.9	5.9	42.7	9.4	100.0
30대	(282)	11.3	42.6	53.9	30.5	4.6	35.1	11.0	100.0
40대	(307)	15.6	39.4	55.0	29.6	7.5	37.1	7.8	100.0
50대 이상	(356)	12.6	42.7	55.3	31.5	4.8	36.2	8.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7	47.2	52.8	31.1	1.9	33	14.2	100.0
고졸	(554)	8.1	41.0	49.1	34.5	6.0	40.4	10.5	100.0
대재 이상	(538)	19.0	38.7	57.6	29.6	6.1	35.7	6.7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60.7	75.0	17.9	3.6	21.4	3.6	100.0
자영업	(341)	12.9	38.4	51.3	32.6	6.2	38.7	10.0	100.0
블루 칼라	(316)	9.2	42.4	51.6	32.6	4.1	36.7	11.7	100.0
화이트칼라	(194)	20.6	39.7	60.3	27.8	6.7	34.5	5.2	100.0
전업주부	(187)	10.2	39.0	49.2	34.8	5.3	40.1	10.7	100.0
무직 / 기타	(134)	12.7	41.0	53.7	33.6	7.5	41.0	5.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5.3	46.7	62.0	26.7	4.7	31.3	6.7	100.0
200~299만원	(311)	8.7	41.5	50.2	29.9	6.4	36.3	13.5	100.0
300~399만원	(373)	11.8	42.9	54.7	33.8	4.6	38.3	7.0	100.0
400만원 이상	(366)	16.1	35.0	51.1	33.9	6.6	40.4	8.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3.0	35.9	48.8	33.2	7.4	40.6	10.5	100.0
충청권	(116)	6.9	37.1	44.0	35.3	3.4	38.8	17.2	100.0
호남권	(115)	33.9	40.0	73.9	19.1	2.6	21.7	4.3	100.0
영남권	(312)	5.4	50.6	56.1	33.3	4.8	38.1	5.8	100.0
강원	(36)	22.2	44.4	66.7	27.8	2.8	30.6	2.8	100.0
제주	(13)	15.4	46.2	61.5	30.8	.0	30.8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0.1	41.9	52.0	34.5	7.3	41.8	6.2	100.0
중 / 소도시	(533)	15.4	39.0	54.4	31.3	3.8	35.1	10.5	100.0
읍 / 면	(102)	13.7	41.2	54.9	20.6	6.9	27.5	17.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1.0	37.8	58.8	29.3	7.3	36.6	4.6	100.0
중도	(591)	10.5	41.1	51.6	34.0	4.1	38.1	10.3	100.0
보수적	(281)	7.8	42.7	50.5	30.6	7.1	37.7	11.7	100.0
■ 종교									
불교	(219)	7.3	45.7	53.0	33.8	5.0	38.8	8.2	100.0
기독교	(298)	14.1	39.9	54.0	30.9	6.0	36.9	9.1	100.0
천주교	(87)	24.1	28.7	52.9	28.7	10.3	39.1	8.0	100.0
기타	(9)	33.3	55.6	88.9	.0	.0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12.4	40.5	52.9	32.6	5.1	37.7	9.5	100.0
무름 / 무응답	(16)	.0	43.8	43.8	37.5	6.3	43.8	12.5	100.0



표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전체	(1200)	11.4	34.3	45.8	33.9	16.1	4.3	20.3	100.0
■ 성별									
남자	(610)	14.4	35.9	50.3	30.2	15.7	3.8	19.5	100.0
여자	(590)	8.3	32.7	41.0	37.8	16.4	4.7	21.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6.7	30.2	36.9	38.8	16.5	7.8	24.3	100.0
30대	(282)	11.0	30.9	41.8	37.2	18.1	2.8	20.9	100.0
40대	(307)	14.0	34.9	48.9	33.6	13.4	4.2	17.6	100.0
50대 이상	(356)	12.9	39.6	52.5	28.1	16.6	2.8	19.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1.3	39.6	50.9	31.1	16.0	1.9	17.9	100.0
고졸	(554)	9.6	32.5	42.1	35.7	17.1	5.1	22.2	100.0
대재 이상	(538)	13.4	35.3	48.7	32.5	14.9	3.9	18.8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8.6	50.0	78.6	7.1	7.1	7.1	14.3	100.0
자영업	(341)	15.0	34.6	49.6	32.0	16.1	2.3	18.5	100.0
블루 칼라	(316)	7.6	35.1	42.7	35.4	15.8	6.0	21.8	100.0
화이트칼라	(194)	12.9	33	45.9	35.1	14.9	4.1	19.1	100.0
전업주부	(187)	8.0	30.5	38.5	37.4	20.9	3.2	24.1	100.0
무직 / 기타	(134)	10.4	35.8	46.3	34.3	13.4	6.0	19.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2.7	32.0	44.7	33.3	16.0	6.0	22.0	100.0
200~299만원	(311)	12.2	36.7	48.9	31.8	15.8	3.5	19.3	100.0
300~399만원	(373)	10.5	35.7	46.1	34.9	13.9	5.1	19.0	100.0
400만원 이상	(366)	11.2	32.0	43.2	35.0	18.6	3.3	21.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0.5	34.5	45.1	36.2	12.7	6.1	18.8	100.0
충청권	(116)	16.4	34.5	50.9	35.3	12.1	1.7	13.8	100.0
호남권	(115)	27.0	38.3	65.2	18.3	13.9	2.6	16.5	100.0
영남권	(312)	5.4	32.4	37.8	34.0	26.6	1.6	28.2	100.0
강원	(36)	11.1	33.3	44.4	38.9	5.6	11.1	16.7	100.0
제주	(13)	15.4	38.5	53.8	38.5	7.7	.0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8.7	35.2	43.9	29.7	20.9	5.5	26.4	100.0
중 / 소도시	(533)	12.2	34.0	46.2	37.0	13.3	3.6	16.9	100.0
읍 / 면	(102)	22.5	31.4	53.9	41.2	3.9	1.0	4.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9.2	38.1	57.3	25.3	14.0	3.4	17.4	100.0
중도	(591)	9.1	32.8	42.0	38.7	15.7	3.6	19.3	100.0
보수적	(281)	7.1	33.1	40.2	33.8	19.2	6.8	26.0	100.0
■ 종교									
불교	(219)	10.5	33.3	43.8	36.1	17.4	2.7	20.1	100.0
기독교	(298)	10.1	35.6	45.6	35.2	16.1	3.0	19.1	100.0
천주교	(87)	23.0	26.4	49.4	24.1	18.4	8.0	26.4	100.0
기타	(9)	22.2	55.6	77.8	.0	22.2	.0	22.2	100.0
종교 없음	(571)	10.7	35.6	46.2	34.3	14.5	4.9	19.4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12.5	18.8	37.5	37.5	6.3	43.8	100.0

표3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전체	(1200)	19.8	42.8	62.5	25.2	9.8	2.6	12.3	100.0
■ 성별									
남자	(610)	22.1	41.5	63.6	24.8	8.5	3.1	11.6	100.0
여자	(590)	17.3	44.1	61.4	25.6	11.0	2.0	13.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3.1	43.1	66.3	22.0	7.8	3.9	11.8	100.0
30대	(282)	16.0	46.1	62.1	23.4	12.4	2.1	14.5	100.0
40대	(307)	20.5	41.4	61.9	28.7	6.8	2.6	9.4	100.0
50대 이상	(356)	19.7	41.0	60.7	25.8	11.5	2.0	1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2.6	34.9	57.5	27.4	13.2	1.9	15.1	100.0
고졸	(554)	15.5	42.1	57.6	29.2	10.1	3.1	13.2	100.0
대재 이상	(538)	23.6	45.2	68.8	20.4	8.6	2.2	10.8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2.1	42.9	75.0	7.1	14.3	3.6	17.9	100.0
자영업	(341)	17.0	44.6	61.6	28.4	7.9	2.1	10.0	100.0
블루 칼라	(316)	19.9	40.8	60.8	26.3	11.1	1.9	13.0	100.0
화이트칼라	(194)	22.7	42.3	64.9	20.6	10.8	3.6	14.4	100.0
전업주부	(187)	14.4	42.8	57.2	27.8	12.8	2.1	15	100.0
무직 / 기타	(134)	26.9	43.3	70.1	20.9	4.5	4.5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1.3	44.0	65.3	23.3	10.0	1.3	11.3	100.0
200~299만원	(311)	19.6	41.8	61.4	24.8	11.3	2.6	13.8	100.0
300~399만원	(373)	16.6	42.6	59.2	28.2	9.4	3.2	12.6	100.0
400만원 이상	(366)	22.4	43.2	65.6	23.2	8.7	2.5	11.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0.2	39.1	59.4	27.5	10.2	3	13.2	100.0
충청권	(116)	14.7	51.7	66.4	30.2	1.7	1.7	3.4	100.0
호남권	(115)	42.6	45.2	87.8	6.1	4.3	1.7	6.1	100.0
영남권	(312)	11.2	47.4	58.7	24.4	14.7	2.2	17.0	100.0
강원	(36)	25.0	30.6	55.6	33.3	5.6	5.6	11.1	100.0
제주	(13)	30.8	30.8	61.5	38.5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6.6	47.3	63.9	23.0	9.7	3.4	13.1	100.0
중 / 소도시	(533)	20.8	40.5	61.4	25.9	10.7	2.1	12.8	100.0
읍 / 면	(102)	31.4	29.4	60.8	33.3	4.9	1.0	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9.3	43.9	73.2	16.5	8.8	1.5	10.4	100.0
중도	(591)	16.9	42.8	59.7	29.3	8.8	2.2	11.0	100.0
보수적	(281)	14.6	41.3	55.9	26.7	12.8	4.6	17.4	100.0
■ 종교									
불교	(219)	14.6	44.3	58.9	27.9	10.0	3.2	13.2	100.0
기독교	(298)	19.8	43.3	63.1	26.2	9.1	1.7	10.7	100.0
천주교	(87)	31.0	39.1	70.1	21.8	8.0	.0	8.0	100.0
기타	(9)	11.1	55.6	66.7	11.1	22.2	.0	22.2	100.0
종교 없음	(571)	20.1	42.0	62.2	24.3	10.3	3.2	13.5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50.0	68.8	25.0	.0	6.3	6.3	100.0



표3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전체	(1200)	14.5	27.1	41.6	36.5	17.5	4.4	21.9	100.0
■ 성별									
남자	(610)	14.6	24.1	38.7	35.9	19.7	5.7	25.4	100.0
여자	(590)	14.4	30.2	44.6	37.1	15.3	3.1	18.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8.0	23.5	41.6	41.6	14.5	2.4	16.9	100.0
30대	(282)	9.2	24.5	33.7	39.7	21.3	5.3	26.6	100.0
40대	(307)	15.3	30.6	45.9	31.6	16.0	6.5	22.5	100.0
50대 이상	(356)	15.4	28.7	44.1	34.6	18.0	3.4	21.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0.4	36.8	47.2	35.8	16.0	.9	17.0	100.0
고졸	(554)	15.9	29.4	45.3	35.9	15.7	3.1	18.8	100.0
대재 이상	(538)	13.9	22.5	36.4	37.4	19.7	6.5	26.2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35.7	46.4	21.4	25.0	7.1	32.1	100.0
자영업	(341)	14.4	23.5	37.8	37.8	19.4	5.0	24.3	100.0
블루 칼라	(316)	15.8	32.0	47.8	36.4	13.9	1.9	15.8	100.0
화이트칼라	(194)	17.0	19.1	36.1	37.1	18.6	8.2	26.8	100.0
전업주부	(187)	10.2	32.6	42.8	35.8	18.7	2.7	21.4	100.0
무직 / 기타	(134)	14.9	26.9	41.8	36.6	16.4	5.2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3.3	28.7	42.0	34.0	18.0	6.0	24.0	100.0
200~299만원	(311)	16.1	30.5	46.6	36.3	14.5	2.6	17.0	100.0
300~399만원	(373)	14.5	26.5	41.0	36.7	17.7	4.6	22.3	100.0
400만원 이상	(366)	13.7	24.0	37.7	37.4	19.7	5.2	24.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4	23.2	39.6	39.8	15.5	5.1	20.6	100.0
충청권	(116)	21.6	25.9	47.4	31.9	19.8	.9	20.7	100.0
호남권	(115)	7.0	20.0	27.0	30.4	28.7	13.9	42.6	100.0
영남권	(312)	10.9	37.2	48.1	34.0	16.3	1.6	17.9	100.0
강원	(36)	11.1	30.6	41.7	33.3	25.0	.0	25.0	100.0
제주	(13)	23.1	30.8	53.8	46.2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5	26.9	44.4	35.4	16.5	3.7	20.2	100.0
중 / 소도시	(533)	11.6	28.0	39.6	38.3	18.0	4.1	22.1	100.0
읍 / 면	(102)	12.7	23.5	36.3	33.3	20.6	9.8	30.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4.0	25.3	39.3	28.0	23.8	8.8	32.6	100.0
중도	(591)	13.5	25.4	38.9	41.8	16.2	3.0	19.3	100.0
보수적	(281)	17.1	32.7	49.8	35.2	12.8	2.1	14.9	100.0
■ 종교									
불교	(219)	15.5	29.7	45.2	34.7	15.5	4.6	20.1	100.0
기독교	(298)	16.1	29.2	45.3	32.9	17.1	4.7	21.8	100.0
천주교	(87)	13.8	24.1	37.9	35.6	19.5	6.9	26.4	100.0
기타	(9)	22.2	22.2	44.4	22.2	11.1	22.2	33.3	100.0
종교 없음	(571)	13.1	25.6	38.7	39.1	18.7	3.5	22.2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25.0	43.8	50.0	.0	6.3	6.3	100.0

표30-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
■ 전체	(1200)	14.3	32.2	46.4	33.9	14.7	4.9	19.6	.1	100.0
■ 성별										
남자	(610)	14.8	32.8	47.5	30.7	15.4	6.4	21.8	.0	100.0
여자	(590)	13.7	31.5	45.3	37.3	13.9	3.4	17.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7.6	31.4	49.0	38.4	9.8	2.7	12.5	.0	100.0
30대	(282)	13.1	31.9	45.0	36.5	13.5	5.0	18.4	.0	100.0
40대	(307)	14.7	29.3	44.0	34.2	16.6	4.9	21.5	.3	100.0
50대 이상	(356)	12.4	35.4	47.8	28.4	17.4	6.5	23.9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4	28.3	37.7	35.8	26.4	.0	26.4	.0	100.0
고졸	(554)	12.5	31.0	43.5	35.7	15.7	4.9	20.6	.2	100.0
대재 이상	(538)	17.1	34.2	51.3	31.8	11.0	5.9	16.9	.0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0	100.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17.9	39.3	17.9	39.3	3.6	42.9	.0	100.0
자영업	(341)	14.7	30.2	44.9	34.3	14.4	6.5	20.8	.0	100.0
블루 칼라	(316)	13.9	33.2	47.2	36.4	13.9	2.5	16.5	.0	100.0
화이트칼라	(194)	17.5	30.9	48.5	30.4	12.9	8.2	21.1	.0	100.0
전업주부	(187)	9.1	33.2	42.2	36.9	17.1	3.7	20.9	.0	100.0
무직 / 기타	(134)	14.9	38.1	53.0	31.3	11.2	3.7	14.9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9.3	36.0	55.3	24.0	17.3	2.7	20.0	.7	100.0
200~299만원	(311)	12.2	29.9	42.1	39.2	14.8	3.9	18.6	.0	100.0
300~399만원	(373)	11.3	30.8	42.1	37.0	13.9	7.0	20.9	.0	100.0
400만원 이상	(366)	16.9	33.9	50.8	30.3	14.2	4.6	18.9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4.8	30.4	45.2	34.4	13.7	6.7	20.4	.0	100.0
충청권	(116)	24.1	25.9	50.0	26.7	18.1	5.2	23.3	.0	100.0
호남권	(115)	23.5	33.9	57.4	24.3	14.8	2.6	17.4	.9	100.0
영남권	(312)	6.7	35.9	42.6	39.4	15.1	2.9	17.9	.0	100.0
강원	(36)	8.3	44.4	52.8	30.6	16.7	.0	16.7	.0	100.0
제주	(13)	15.4	30.8	46.2	38.5	15.4	.0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3.8	33.8	47.6	31.7	14.9	5.8	20.7	.0	100.0
중 / 소도시	(533)	14.1	31.9	46.0	36.0	14.1	3.8	17.8	.2	100.0
읍 / 면	(102)	17.6	24.5	42.2	35.3	16.7	5.9	22.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8.9	31.4	50.3	28.7	16.5	4.6	21.0	.0	100.0
중도	(591)	13.4	32.5	45.9	36.7	13.4	4.1	17.4	.0	100.0
보수적	(281)	10.7	32.4	43.1	34.2	15.3	7.1	22.4	.4	100.0
■ 종교										
불교	(219)	13.7	34.7	48.4	35.6	12.3	3.2	15.5	.5	100.0
기독교	(298)	15.1	32.6	47.7	29.9	16.4	6.0	22.5	.0	100.0
천주교	(87)	14.9	25.3	40.2	33.3	17.2	9.2	26.4	.0	100.0
기타	(9)	22.2	.0	22.2	33.3	33.3	11.1	44.4	.0	100.0
종교 없음	(571)	14.2	32.2	46.4	35.6	13.8	4.2	18.0	.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43.8	43.8	31.3	18.8	6.3	25.0	.0	100.0



표3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전체	(1200)	21.9	42.7	64.6	28.4	5.0	1.9	6.9	.1	100.0
■ 성별										
남자	(610)	23.1	42.8	65.9	27.2	5.4	1.5	6.9	.0	100.0
여자	(590)	20.7	42.5	63.2	29.7	4.6	2.4	6.9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4.7	41.2	65.9	26.7	4.3	3.1	7.5	.0	100.0
30대	(282)	20.6	44.0	64.5	27.7	4.6	2.8	7.4	.4	100.0
40대	(307)	23.1	39.4	62.5	30.6	5.9	1.0	6.8	.0	100.0
50대 이상	(356)	19.9	45.5	65.4	28.4	5.1	1.1	6.2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4.2	51.9	66.0	26.4	5.7	1.9	7.5	.0	100.0
고졸	(554)	17.7	42.2	59.9	31.9	6.5	1.6	8.1	.0	100.0
대재 이상	(538)	27.9	41.3	69.1	25.1	3.3	2.2	5.6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8.6	42.9	71.4	21.4	7.1	.0	7.1	.0	100.0
자영업	(341)	20.2	45.2	65.4	28.2	5.3	.9	6.2	.3	100.0
블루 칼라	(316)	19.9	40.2	60.1	32.0	6.6	1.3	7.9	.0	100.0
화이트칼라	(194)	29.4	38.7	68.0	25.3	2.6	4.1	6.7	.0	100.0
전업주부	(187)	16.6	45.5	62.0	28.9	5.9	3.2	9.1	.0	100.0
무직 / 기타	(134)	26.1	44.0	70.1	26.1	2.2	1.5	3.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2.7	47.3	70.0	22.0	5.3	2.7	8.0	.0	100.0
200~299만원	(311)	20.3	41.5	61.7	31.2	5.1	1.6	6.8	.3	100.0
300~399만원	(373)	19.3	45.3	64.6	29.2	4.3	1.9	6.2	.0	100.0
400만원 이상	(366)	25.7	39.1	64.8	27.9	5.5	1.9	7.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3.4	38.0	61.3	30.1	5.4	3.1	8.6	.0	100.0
충청권	(116)	28.4	43.1	71.6	25.9	1.7	.9	2.6	.0	100.0
호남권	(115)	32.2	44.3	76.5	16.5	6.1	.0	6.1	.9	100.0
영남권	(312)	12.8	49.7	62.5	31.1	5.4	1.0	6.4	.0	100.0
강원	(36)	25.0	50.0	75.0	22.2	2.8	.0	2.8	.0	100.0
제주	(13)	15.4	53.8	69.2	30.8	.0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1.6	44.1	65.7	26.7	5.7	1.8	7.4	.2	100.0
중 / 소도시	(533)	22.1	41.3	63.4	30.8	3.9	1.9	5.8	.0	100.0
읍 / 면	(102)	22.5	42.2	64.7	25.5	6.9	2.9	9.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0.2	40.9	71.0	21.6	4.6	2.4	7.0	.3	100.0
중도	(591)	18.6	41.3	59.9	32.8	5.6	1.7	7.3	.0	100.0
보수적	(281)	19.2	47.7	66.9	27.0	4.3	1.8	6.0	.0	100.0
■ 종교										
불교	(219)	15.5	46.1	61.6	31.5	5.0	1.8	6.8	.0	100.0
기독교	(298)	26.2	44.3	70.5	24.2	4.0	1.3	5.4	.0	100.0
천주교	(87)	32.2	28.7	60.9	27.6	8.0	3.4	11.5	.0	100.0
기타	(9)	33.3	22.2	55.6	22.2	22.2	.0	22.2	.0	100.0
종교 없음	(571)	20.5	43.1	63.6	29.6	4.9	1.9	6.8	.0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37.5	56.3	31.3	.0	6.3	6.3	6.3	100.0

표3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	반반/ 그저 그렇다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	
■ 전체	(1200)	16.4	32.7	49.1	34.6	12.3	4.0	16.3	100.0
■ 성별									
남자	(610)	16.7	31.1	47.9	33.0	14.6	4.6	19.2	100.0
여자	(590)	16.1	34.2	50.3	36.3	10.0	3.4	13.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7.6	34.1	51.8	33.7	8.2	6.3	14.5	100.0
30대	(282)	9.9	33.0	42.9	35.8	17.0	4.3	21.3	100.0
40대	(307)	17.9	31.3	49.2	35.5	11.4	3.9	15.3	100.0
50대 이상	(356)	19.4	32.6	52.0	33.4	12.4	2.2	14.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6.0	35.8	51.9	34.9	11.3	1.9	13.2	100.0
고졸	(554)	19.5	31.8	51.3	36.5	10.3	2.0	12.3	100.0
대재 이상	(538)	13.2	33.1	46.3	32.5	14.7	6.5	21.2	100.0
무응답	(2)	50.0	.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35.7	46.4	32.1	17.9	3.6	21.4	100.0
자영업	(341)	14.4	31.7	46.0	39.3	11.1	3.5	14.7	100.0
블루 칼라	(316)	20.6	32.0	52.5	34.5	11.1	1.9	13.0	100.0
화이트칼라	(194)	13.4	29.9	43.3	31.4	17.0	8.2	25.3	100.0
전업주부	(187)	17.1	34.2	51.3	33.7	12.8	2.1	15.0	100.0
무직/기타	(134)	16.4	38.1	54.5	29.1	9.7	6.7	16.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7	32.7	47.3	35.3	13.3	4	17.3	100.0
200~299만원	(311)	19.6	28.9	48.6	34.4	13.8	3.2	17.0	100.0
300~399만원	(373)	15.8	31.9	47.7	38.6	10.5	3.2	13.7	100.0
400만원 이상	(366)	15	36.6	51.6	30.3	12.6	5.5	18.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7.9	30.4	48.4	34.9	11.7	5.1	16.8	100.0
충청권	(116)	28.4	29.3	57.8	26.7	14.7	.9	15.5	100.0
호남권	(115)	9.6	25.2	34.8	32.2	22.6	10.4	33.0	100.0
영남권	(312)	12.2	39.7	51.9	38.5	9.0	.6	9.6	100.0
강원	(36)	5.6	44.4	50.0	33.3	11.1	5.6	16.7	100.0
제주	(13)	30.8	30.8	61.5	23.1	15.4	.0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7	34.3	52.0	33.3	12.6	2.1	14.7	100.0
중/소도시	(533)	14.8	33.6	48.4	35.5	10.9	5.3	16.1	100.0
읍/면	(102)	17.6	18.6	36.3	37.3	18.6	7.8	26.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2.5	30.2	42.7	29.3	17.7	10.4	28.0	100.0
중도	(591)	15.7	33.0	48.7	37.9	12.2	1.2	13.4	100.0
보수적	(281)	22.4	34.9	57.3	33.8	6.4	2.5	8.9	100.0
■ 종교									
불교	(219)	16.9	31.1	47.9	37.4	10.0	4.6	14.6	100.0
기독교	(298)	16.1	35.2	51.3	31.2	14.1	3.4	17.4	100.0
천주교	(87)	11.5	29.9	41.4	33.3	20.7	4.6	25.3	100.0
기타	(9)	.0	33.3	33.3	33.3	22.2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17.3	32.2	49.6	35.6	11.0	3.9	14.9	100.0
무응답	(16)	18.8	37.5	56.3	31.3	6.3	6.3	12.5	100.0



표31-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0)	56.0	31.3	87.3	10.5	1.5	.7	2.2	100.0
■ 성별									
남자	(610)	55.1	32.3	87.4	10.2	1.8	.7	2.5	100.0
여자	(590)	56.9	30.3	87.3	10.8	1.2	.7	1.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9.4	37.3	86.7	9.8	2.0	1.6	3.5	100.0
30대	(282)	47.9	37.2	85.1	13.1	1.1	.7	1.8	100.0
40대	(307)	60.6	25.7	86.3	11.4	1.6	.7	2.3	100.0
50대 이상	(356)	63.2	27.2	90.4	8.1	1.4	.0	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64.2	21.7	85.8	12.3	1.9	.0	1.9	100.0
고졸	(554)	57.0	30.9	87.9	10.6	.9	.5	1.4	100.0
대재 이상	(538)	53.2	33.8	87.0	10.0	2.0	.9	3.0	100.0
무름 / 무응답	(2)	100.0	.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0.0	35.7	85.7	10.7	3.6	.0	3.6	100.0
자영업	(341)	56.9	32.6	89.4	8.5	2.1	.0	2.1	100.0
블루 칼라	(316)	56.6	25.6	82.3	16.1	.9	.6	1.6	100.0
화이트칼라	(194)	58.2	30.4	88.7	9.3	1.0	1.0	2.1	100.0
전업주부	(187)	61.0	29.4	90.4	8.0	1.1	0.5	1.6	100.0
무직 / 기타	(134)	43.3	44.8	88.1	7.5	2.2	2.2	4.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53.3	26.0	79.3	17.3	3.3	.0	3.3	100.0
200~299만원	(311)	56.9	30.2	87.1	11.3	1.0	.6	1.6	100.0
300~399만원	(373)	54.4	36.2	90.6	7.5	1.1	.8	1.9	100.0
400만원 이상	(366)	57.9	29.5	87.4	10.1	1.6	.8	2.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53.3	32.9	86.2	11.0	1.8	1.0	2.8	100.0
충청권	(116)	56.9	33.6	90.5	9.5	.0	.0	.0	100.0
호남권	(115)	47.0	35.7	82.6	13.9	1.7	1.7	3.5	100.0
영남권	(312)	63.5	26.3	89.7	8.7	1.6	.0	1.6	100.0
강원	(36)	66.7	25.0	91.7	8.3	.0	.0	.0	100.0
제주	(13)	46.2	38.5	84.6	15.4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56.5	30.1	86.5	11.7	1.4	.4	1.8	100.0
중 / 소도시	(533)	57.4	32.5	89.9	8.3	.9	.9	1.9	100.0
읍 / 면	(102)	46.1	32.4	78.4	15.7	4.9	1.0	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9.4	36.0	85.4	12.5	1.2	.9	2.1	100.0
중도	(591)	56.0	31.5	87.5	10.5	1.5	.5	2.0	100.0
보수적	(281)	63.7	25.6	89.3	8.2	1.8	.7	2.5	100.0
■ 종교									
불교	(219)	58.0	29.2	87.2	11.9	.9	.0	.9	100.0
기독교	(298)	57.7	32.2	89.9	8.1	1.0	1.0	2.0	100.0
천주교	(87)	56.3	29.9	86.2	10.3	2.3	1.1	3.4	100.0
기타	(9)	55.6	33.3	88.9	.0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54.8	32.0	86.9	11.0	1.8	.4	2.1	100.0
무름 / 무응답	(16)	37.5	25.0	62.5	25.0	.0	12.5	12.5	100.0

표31-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0)	13.2	36.6	49.8	34.8	12.8	2.7	15.4	100.0
■ 성별									
남자	(610)	13.9	35.9	49.8	33.9	13.1	3.1	16.2	100.0
여자	(590)	12.4	37.3	49.7	35.8	12.4	2.2	14.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3.7	39.6	53.3	34.1	10.2	2.4	12.5	100.0
30대	(282)	12.8	38.3	51.1	36.5	10.3	2.1	12.4	100.0
40대	(307)	15.0	38.4	53.4	32.9	12.4	1.3	13.7	100.0
50대 이상	(356)	11.5	31.5	43.0	35.7	16.9	4.5	21.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5.1	34	49.1	34.9	15.1	.9	16.0	100.0
고졸	(554)	8.7	35.7	44.4	38.6	14.3	2.7	17.0	100.0
대재 이상	(538)	17.5	37.7	55.2	31.0	10.8	3.0	13.8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42.9	67.9	21.4	10.7	.0	10.7	100.0
자영업	(341)	13.2	37.2	50.4	32.6	13.8	3.2	17.0	100.0
블루 칼라	(316)	12.7	31.0	43.7	41.8	11.7	2.8	14.6	100.0
화이트칼라	(194)	16.0	42.8	58.8	29.9	8.2	3.1	11.3	100.0
전업주부	(187)	11.2	36.4	47.6	32.2	17.1	1.1	18.2	100.0
무직 / 기타	(134)	10.4	38.1	48.5	35.1	13.4	3.0	16.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2.7	30.0	42.7	36.0	15.3	6.0	21.3	100.0
200~299만원	(311)	14.5	35.0	49.5	35.4	13.2	1.9	15.1	100.0
300~399만원	(373)	10.2	37.8	48.0	35.4	13.9	2.7	16.6	100.0
400만원 이상	(366)	15.3	39.3	54.6	33.3	10.1	1.9	12.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3.3	36.2	49.5	35.4	11.2	3.9	15.1	100.0
충청권	(116)	19.0	43.1	62.1	27.6	8.6	1.7	10.3	100.0
호남권	(115)	29.6	40.0	69.6	20.9	8.7	.9	9.6	100.0
영남권	(312)	5.8	34.9	40.7	40.1	17.9	1.3	19.2	100.0
강원	(36)	8.3	22.2	30.6	47.2	19.4	2.8	22.2	100.0
제주	(13)	.0	46.2	46.2	38.5	15.4	.0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1.2	34	45.1	34.3	16.8	3.7	20.5	100.0
중 / 소도시	(533)	14.3	40.9	55.2	35.3	8.1	1.5	9.6	100.0
읍 / 면	(102)	18.6	28.4	47.1	35.3	14.7	2.9	17.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0.1	37.8	57.9	28.7	11.3	2.1	13.4	100.0
중도	(591)	10.8	37.6	48.4	37.2	12.5	1.9	14.4	100.0
보수적	(281)	10.0	33.1	43.1	37.0	14.9	5.0	19.9	100.0
■ 종교									
불교	(219)	9.6	33.8	43.4	43.4	12.3	0.9	13.2	100.0
기독교	(298)	8.7	37.2	46	35.6	14.4	4.0	18.5	100.0
천주교	(87)	13.8	34.5	48.3	28.7	19.5	3.4	23.0	100.0
기타	(9)	55.6	22.2	77.8	11.1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15.6	38.7	54.3	32.4	11.0	2.3	13.3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6.3	37.5	37.5	12.5	12.5	25.0	100.0



표31-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0)	16.2	34.8	50.9	35.3	12.2	1.7	13.8	100.0
■ 성별									
남자	(610)	16.9	34.3	51.1	33.4	13.3	2.1	15.4	100.0
여자	(590)	15.4	35.3	50.7	37.1	11.0	1.2	12.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2.0	29.8	51.8	38.0	8.6	1.6	10.2	100.0
30대	(282)	13.8	37.6	51.4	35.8	11.3	1.4	12.8	100.0
40대	(307)	18.9	36.2	55.0	31.6	12.4	1.0	13.4	100.0
50대 이상	(356)	11.5	34.8	46.3	36.0	15.2	2.5	17.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4	38.7	48.1	33.0	16.0	2.8	18.9	100.0
고졸	(554)	13.9	35.2	49.1	37.2	11.9	1.8	13.7	100.0
대재 이상	(538)	19.7	33.6	53.3	33.6	11.7	1.3	13.0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28.6	53.6	32.1	14.3	.0	14.3	100.0
자영업	(341)	18.2	36.1	54.3	32.8	10.3	2.6	12.9	100.0
블루 칼라	(316)	11.7	31.3	43.0	39.2	17.1	.6	17.7	100.0
화이트칼라	(194)	21.6	29.9	51.5	36.6	9.8	2.1	11.9	100.0
전업주부	(187)	10.7	44.4	55.1	31.0	12.8	1.1	13.9	100.0
무직 / 기타	(134)	19.4	34.3	53.7	36.6	7.5	2.2	9.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7	31.3	46.0	32.7	17.3	4	21.3	100.0
200~299만원	(311)	13.2	36.0	49.2	39.2	11.3	.3	11.6	100.0
300~399만원	(373)	17.2	34.0	51.2	35.4	11.5	1.9	13.4	100.0
400만원 이상	(366)	18.3	35.8	54.1	32.8	11.5	1.6	13.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0	31.3	47.2	39.6	10.7	2.5	13.2	100.0
충청권	(116)	12.9	38.8	51.7	37.9	9.5	.9	10.3	100.0
호남권	(115)	28.7	33.9	62.6	20.9	14.8	1.7	16.5	100.0
영남권	(312)	14.1	40.4	54.5	30.8	14.4	.3	14.7	100.0
강원	(36)	13.9	33.3	47.2	33.3	19.4	.0	19.4	100.0
제주	(13)	.0	38.5	38.5	46.2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2	32.6	49.7	34.3	14.3	1.6	15.9	100.0
중 / 소도시	(533)	14.4	38.1	52.5	36.0	9.8	1.7	11.4	100.0
읍 / 면	(102)	19.6	29.4	49.0	36.3	12.7	2.0	14.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1.0	34.5	55.5	32.0	11.0	1.5	12.5	100.0
중도	(591)	13.4	36.5	49.9	36.9	11.7	1.5	13.2	100.0
보수적	(281)	16.4	31.3	47.7	35.6	14.6	2.1	16.7	100.0
■ 종교									
불교	(219)	14.2	39.7	53.9	32.9	12.3	.9	13.2	100.0
기독교	(298)	13.1	31.2	44.3	39.9	13.1	2.7	15.8	100.0
천주교	(87)	20.7	34.5	55.2	28.7	12.6	3.4	16.1	100.0
기타	(9)	55.6	33.3	88.9	11.1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17.2	35.0	52.2	35.4	11.6	.9	12.4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25.0	43.8	25.0	18.8	12.5	31.3	100.0

표31-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0)	22.6	38.0	60.6	32.8	5.4	1.3	6.7	100.0
■ 성별									
남자	(610)	23.0	39.2	62.1	31.6	5.2	1.0	6.2	100.0
여자	(590)	22.2	36.8	59.0	33.9	5.6	1.5	7.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5.9	35.3	61.2	31.4	5.5	2.0	7.5	100.0
30대	(282)	21.3	39.0	60.3	32.6	6.4	.7	7.1	100.0
40대	(307)	22.8	39.1	61.9	32.6	4.2	1.3	5.5	100.0
50대 이상	(356)	21.1	38.2	59.3	34.0	5.6	1.1	6.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3.6	32.1	55.7	34.9	5.7	3.8	9.4	100.0
고졸	(554)	20.8	38.3	59.0	34.7	5.6	.7	6.3	100.0
대재 이상	(538)	24.2	39.0	63.2	30.3	5.2	1.3	6.5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5.7	28.6	64.3	32.1	3.6	.0	3.6	100.0
자영업	(341)	23.5	40.5	63.9	30.5	4.7	.9	5.6	100.0
블루 칼라	(316)	18.7	34.5	53.2	39.6	6.3	.9	7.3	100.0
화이트칼라	(194)	27.8	35.1	62.9	32.0	3.6	1.5	5.2	100.0
전업주부	(187)	19.3	44.4	63.6	27.8	7.5	1.1	8.6	100.0
무직 / 기타	(134)	23.9	37.3	61.2	30.6	5.2	3.0	8.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2.0	34.0	56.0	32.0	9.3	2.7	12.0	100.0
200~299만원	(311)	21.2	37.6	58.8	35.7	5.1	.3	5.5	100.0
300~399만원	(373)	21.4	39.4	60.9	33.5	4.3	1.3	5.6	100.0
400만원 이상	(366)	25.1	38.5	63.7	29.8	5.2	1.4	6.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1.1	34.4	55.4	36.8	5.9	1.8	7.7	100.0
충청권	(116)	19.8	37.9	57.8	33.6	7.8	.9	8.6	100.0
호남권	(115)	27.8	33.9	61.7	27.0	9.6	1.7	11.3	100.0
영남권	(312)	24.0	46.5	70.5	27.2	1.9	.3	2.2	100.0
강원	(36)	27.8	33.3	61.1	30.6	8.3	.0	8.3	100.0
제주	(13)	23.1	53.8	76.9	23.1	.0	.0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3.9	38.6	62.5	30.6	6.0	.9	6.9	100.0
중 / 소도시	(533)	22.0	38.3	60.2	33.4	4.7	1.7	6.4	100.0
읍 / 면	(102)	18.6	33.3	52.0	41.2	5.9	1.0	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3.8	40.5	64.3	27.4	6.7	1.5	8.2	100.0
중도	(591)	19.8	37.4	57.2	36.9	5.2	.7	5.9	100.0
보수적	(281)	27.0	36.3	63.3	30.2	4.3	2.1	6.4	100.0
■ 종교									
불교	(219)	23.3	37.4	60.7	33.8	4.1	1.4	5.5	100.0
기독교	(298)	20.8	36.2	57.0	35.6	6.0	1.3	7.4	100.0
천주교	(87)	29.9	33.3	63.2	27.6	5.7	3.4	9.2	100.0
기타	(9)	66.7	33.3	100.0	.0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21.5	40.6	62.2	31.9	5.4	.5	6.0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12.5	31.3	43.8	12.5	12.5	25.0	100.0



표31-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	%	%	%	%	%	%
■ 전체	(1200)	10.0	27.2	37.2	47.2	12.8	2.9	15.7	100.0
■ 성별									
남자	(610)	11.0	25.4	36.4	46.1	13.6	3.9	17.5	100.0
여자	(590)	9.0	29.0	38.0	48.3	11.9	1.9	13.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2.5	24.3	36.9	46.7	12.5	3.9	16.5	100.0
30대	(282)	9.2	30.5	39.7	47.2	11.3	1.8	13.1	100.0
40대	(307)	10.7	27	37.8	46.9	12.7	2.6	15.3	100.0
50대 이상	(356)	8.1	26.7	34.8	47.8	14	3.4	17.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4	30.2	39.6	46.2	10.4	3.8	14.2	100.0
고졸	(554)	8.7	27.3	35.9	49.3	12.8	2.0	14.8	100.0
대재 이상	(538)	11.5	26.4	37.9	45.2	13.2	3.7	16.9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21.4	46.4	39.3	10.7	3.6	14.3	100.0
자영업	(341)	10.0	28.7	38.7	45.7	11.4	4.1	15.5	100.0
블루 칼라	(316)	6.6	23.1	29.7	55.4	13.6	1.3	14.9	100.0
화이트칼라	(194)	16.0	28.9	44.8	44.8	7.7	2.6	10.3	100.0
전업주부	(187)	4.8	33.2	38.0	43.3	17.1	1.6	18.7	100.0
무직 / 기타	(134)	13.4	23.1	36.6	41.8	15.7	6.0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1.3	29.3	40.7	37.3	18.7	3.3	22	100.0
200~299만원	(311)	8.7	25.1	33.8	53.1	12.2	1.0	13.2	100.0
300~399만원	(373)	8.8	26.0	34.9	50.1	11.3	3.8	15.0	100.0
400만원 이상	(366)	11.7	29.2	41.0	43.2	12.3	3.6	15.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9.4	23.4	32.7	49.2	14.3	3.8	18.1	100.0
충청권	(116)	6.9	34.5	41.4	44.8	10.3	3.4	13.8	100.0
호남권	(115)	20.0	26.1	46.1	38.3	13.0	2.6	15.7	100.0
영남권	(312)	9.3	32.4	41.7	48.7	9.0	.6	9.6	100.0
강원	(36)	5.6	25.0	30.6	36.1	27.8	5.6	33.3	100.0
제주	(13)	7.7	30.8	38.5	46.2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8.8	27.4	36.3	45.8	14.9	3.0	17.9	100.0
중 / 소도시	(533)	10.5	26.3	36.8	49.0	11.3	3.0	14.3	100.0
읍 / 면	(102)	13.7	30.4	44.1	45.1	8.8	2.0	1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2.2	27.1	39.3	42.1	15.9	2.7	18.6	100.0
중도	(591)	8.5	27.4	35.9	50.9	10.5	2.7	13.2	100.0
보수적	(281)	10.7	26.7	37.4	45.2	13.9	3.6	17.4	100.0
■ 종교									
불교	(219)	11.0	28.8	39.7	49.8	9.1	1.4	10.5	100.0
기독교	(298)	7.7	26.2	33.9	47.3	13.8	5.0	18.8	100.0
천주교	(87)	12.6	23	35.6	35.6	20.7	8.0	28.7	100.0
기타	(9)	44.4	33.3	77.8	22.2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10.0	27.8	37.8	48.3	12.4	1.4	13.8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18.8	25.0	43.8	18.8	12.5	31.3	100.0

표3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3.3	36.2	39.5	52.5	7.9	60.4	.1	100.0
■ 성별									
남자	(610)	2.6	39.7	42.3	50.7	6.9	57.5	.2	100.0
여자	(590)	4.1	32.5	36.6	54.4	9.0	63.4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5	34.1	37.6	53.3	9.0	62.4	.0	100.0
30대	(282)	1.8	34.0	35.8	55.3	8.9	64.2	.0	100.0
40대	(307)	3.3	37.5	40.7	51.1	8.1	59.3	.0	100.0
50대 이상	(356)	4.5	38.2	42.7	50.8	6.2	57.0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36.8	38.7	50.9	10.4	61.3	.0	100.0
고졸	(554)	3.4	34.3	37.7	55.1	7.2	62.3	.0	100.0
대재 이상	(538)	3.5	38.1	41.6	50.0	8.2	58.2	.2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46.4	57.1	39.3	3.6	42.9	.0	100.0
자영업	(341)	3.5	41.9	45.5	49.3	5.0	54.3	.3	100.0
블루 칼라	(316)	2.8	32.3	35.1	57.9	7.0	64.9	.0	100.0
화이트칼라	(194)	2.6	37.6	40.2	46.9	12.9	59.8	.0	100.0
전업주부	(187)	2.7	28.9	31.6	57.8	10.7	68.4	.0	100.0
무직 / 기타	(134)	4.5	36.6	41.0	51.5	7.5	59.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	34.7	38.7	54.7	6.7	61.3	.0	100.0
200~299만원	(311)	3.5	37.0	40.5	51.4	8.0	59.5	.0	100.0
300~399만원	(373)	2.4	35.4	37.8	54.4	7.8	62.2	.0	100.0
400만원 이상	(366)	3.8	36.9	40.7	50.5	8.5	59.0	.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3	38.7	42.9	48.0	8.9	56.9	.2	100.0
충청권	(116)	2.6	42.2	44.8	52.6	2.6	55.2	.0	100.0
호남권	(115)	1.7	35.7	37.4	53.0	9.6	62.6	.0	100.0
영남권	(312)	2.6	29.8	32.4	59.9	7.7	67.6	.0	100.0
강원	(36)	2.8	25.0	27.8	66.7	5.6	72.2	.0	100.0
제주	(13)	.0	53.8	53.8	38.5	7.7	46.2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2	32.4	36.6	54.2	9.0	63.2	.2	100.0
중 / 소도시	(533)	2.3	38.1	40.3	52.0	7.7	59.7	.0	100.0
읍 / 면	(102)	3.9	47.1	51.0	46.1	2.9	49.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9	36.3	41.2	51.5	7.0	58.5	.3	100.0
중도	(591)	2.5	37.2	39.8	52.8	7.4	60.2	.0	100.0
보수적	(281)	3.2	33.8	37.0	53.0	10.0	63.0	.0	100.0
■ 종교									
불교	(219)	3.7	32.9	36.5	53.4	9.6	63.0	.5	100.0
기독교	(298)	5.7	40.3	46.0	48.0	6.0	54.0	.0	100.0
천주교	(87)	4.6	46.0	50.6	41.4	8.0	49.4	.0	100.0
기타	(9)	11.1	33.3	44.4	44.4	11.1	55.6	.0	100.0
종교 없음	(571)	1.8	33.6	35.4	56.4	8.2	64.6	.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43.8	43.8	50.0	6.3	56.3	.0	100.0



표33-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㉞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전체	(1200)	2.3	12.7	15.0	37.7	37.9	9.4	47.3	100.0
■ 성별									
남자	(610)	1.8	10.0	11.8	39.0	40.5	8.7	49.2	100.0
여자	(590)	2.9	15.4	18.3	36.3	35.3	10.2	45.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0	9.4	11.4	42.0	33.3	13.3	46.7	100.0
30대	(282)	3.5	12.4	16.0	41.1	35.8	7.1	42.9	100.0
40대	(307)	1.6	12.4	14.0	37.8	37.5	10.7	48.2	100.0
50대 이상	(356)	2.2	15.4	17.7	31.7	43.3	7.3	5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17.0	21.7	32.1	40.6	5.7	46.2	100.0
고졸	(554)	2.5	12.8	15.3	35.7	40.4	8.5	48.9	100.0
대재 이상	(538)	1.7	11.7	13.4	40.7	34.8	11.2	45.9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0	21.4	21.4	21.4	50.0	7.1	57.1	100.0
자영업	(341)	2.3	11.7	14.1	35.2	40.8	10.0	50.7	100.0
블루 칼라	(316)	2.2	12.3	14.6	38.6	38.6	8.2	46.8	100.0
화이트칼라	(194)	1.5	11.3	12.9	41.2	35.6	10.3	45.9	100.0
전업주부	(187)	3.7	18.2	21.9	35.3	34.2	8.6	42.8	100.0
무직 / 기타	(134)	2.2	8.2	10.4	43.3	35.1	11.2	46.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7	14.7	17.3	46.7	27.3	8.7	36.0	100.0
200~299만원	(311)	2.9	15.1	18.0	37.6	34.1	10.3	44.4	100.0
300~399만원	(373)	2.7	12.3	15.0	33.8	42.9	8.3	51.2	100.0
400만원 이상	(366)	1.4	10.1	11.5	38.0	40.4	10.1	50.5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3	12.3	14.6	38.8	37.0	9.5	46.5	100.0
충청권	(116)	1.7	6.9	8.6	32.8	43.1	15.5	58.6	100.0
호남권	(115)	3.5	20.9	24.3	39.1	30.4	6.1	36.5	100.0
영남권	(312)	2.6	12.8	15.4	34.3	42.9	7.4	50.3	100.0
강원	(36)	.0	8.3	8.3	58.3	19.4	13.9	33.3	100.0
제주	(13)	.0	15.4	15.4	38.5	30.8	15.4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5	14.5	17.0	38.4	36.5	8.1	44.6	100.0
중 / 소도시	(533)	2.6	11.6	14.3	35.6	39.4	10.7	50.1	100.0
읍 / 면	(102)	.0	7.8	7.8	44.1	38.2	9.8	48.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4	14.6	17.1	35.4	36.0	11.6	47.6	100.0
중도	(591)	1.9	12.2	14.0	41.3	36.7	8.0	44.7	100.0
보수적	(281)	3.2	11.4	14.6	32.7	42.7	10.0	52.7	100.0
■ 종교									
불교	(219)	4.6	13.2	17.8	33.8	41.1	7.3	48.4	100.0
기독교	(298)	2.3	11.4	13.8	35.2	41.3	9.7	51.0	100.0
천주교	(87)	1.1	8.0	9.2	37.9	31.0	21.8	52.9	100.0
기타	(9)	.0	22.2	22.2	44.4	22.2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1.8	13.5	15.2	40.6	36.3	7.9	44.1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8.8	18.8	25.0	37.5	18.8	56.3	100.0

표33-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
■ 전체	(1200)	2.9	12.0	14.9	37.0	37.9	10.2	48.1	100.0
■ 성별									
남자	(610)	2.3	9.7	12.0	37.0	41.3	9.7	51	100.0
여자	(590)	3.6	14.4	18.0	36.9	34.4	10.7	45.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7	9.0	11.8	40.0	35.3	12.9	48.2	100.0
30대	(282)	3.2	12.1	15.2	40.4	36.5	7.8	44.3	100.0
40대	(307)	3.3	12.4	15.6	36.8	36.5	11.1	47.6	100.0
50대 이상	(356)	2.5	13.8	16.3	32.3	42.1	9.3	5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7	20.8	26.4	25.5	43.4	4.7	48.1	100.0
고졸	(554)	3.1	11.7	14.8	37.2	38.6	9.4	48.0	100.0
대재 이상	(538)	2.2	10.4	12.6	39.2	36.1	12.1	48.1	100.0
무름 / 무응답	(2)	0.0	50.0	50.0	.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17.9	21.4	14.3	57.1	7.1	64.3	100.0
자영업	(341)	2.1	11.4	13.5	36.4	37.8	12.3	50.1	100.0
블루 칼라	(316)	2.8	12.0	14.9	38.9	38.0	8.2	46.2	100.0
화이트칼라	(194)	2.6	10.3	12.9	38.7	37.6	10.8	48.5	100.0
전업주부	(187)	4.8	15.5	20.3	36.9	35.3	7.5	42.8	100.0
무직 / 기타	(134)	3.0	9.7	12.7	36.6	38.1	12.7	50.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7	18.0	20.7	38.7	30.7	10.0	40.7	100.0
200~299만원	(311)	4.8	11.9	16.7	38.9	35.0	9.3	44.4	100.0
300~399만원	(373)	2.9	9.9	12.9	36.5	43.2	7.5	50.7	100.0
400만원 이상	(366)	1.4	11.7	13.1	35.2	38.0	13.7	51.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0	12.0	14.0	36.3	38.0	11.7	49.7	100.0
충청권	(116)	1.7	6.9	8.6	37.9	41.4	12.1	53.4	100.0
호남권	(115)	2.6	20.9	23.5	37.4	31.3	7.8	39.1	100.0
영남권	(312)	5.8	11.9	17.6	36.2	39.4	6.7	46.2	100.0
강원	(36)	.0	.0	.0	50.0	38.9	11.1	50.0	100.0
제주	(13)	.0	15.4	15.4	38.5	23.1	23.1	46.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0	14.3	17.3	37.3	35.2	10.1	45.3	100.0
중 / 소도시	(533)	3.4	10.3	13.7	35.8	39.8	10.7	50.5	100.0
읍 / 면	(102)	.0	7.8	7.8	41.2	43.1	7.8	5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7	14.6	17.4	35.1	36.3	11.3	47.6	100.0
중도	(591)	2.5	11.2	13.7	39.8	37.1	9.5	46.5	100.0
보수적	(281)	3.9	10.7	14.6	33.5	41.6	10.3	52.0	100.0
■ 종교									
불교	(219)	7.3	11.4	18.7	34.7	39.3	7.3	46.6	100.0
기독교	(298)	2.3	9.7	12.1	36.2	38.6	13.1	51.7	100.0
천주교	(87)	1.1	9.2	10.3	35.6	33.3	20.7	54	100.0
기타	(9)	.0	11.1	11.1	55.6	11.1	22.2	33.3	100.0
종교 없음	(571)	1.9	13.7	15.6	38.4	38.2	7.9	46.1	100.0
무름 / 무응답	(16)	.0	18.8	18.8	31.3	37.5	12.5	50.0	100.0



표33-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전체	(1200)	10.3	26.6	36.9	34.2	23.4	5.5	28.9	100.0
■ 성별									
남자	(610)	7.9	26.9	34.8	34.8	24.6	5.9	30.5	100.0
여자	(590)	12.9	26.3	39.2	33.6	22.2	5.1	27.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2.5	21.2	33.7	33.3	25.5	7.5	32.9	100.0
30대	(282)	9.2	27.7	36.9	39.4	19.5	4.3	23.8	100.0
40대	(307)	9.8	25.4	35.2	36.5	21.8	6.5	28.3	100.0
50대 이상	(356)	10.1	30.6	40.7	28.7	26.4	4.2	30.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5.1	34.0	49.1	20.8	27.4	2.8	30.2	100.0
고졸	(554)	10.3	26.5	36.8	34.7	23.6	4.9	28.5	100.0
대재 이상	(538)	9.3	25.3	34.6	36.2	22.5	6.7	29.2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8.6	35.7	28.6	32.1	3.6	35.7	100.0
자영업	(341)	8.5	29.3	37.8	31.7	24.3	6.2	30.5	100.0
블루 칼라	(316)	12.3	28.5	40.8	34.8	20.3	4.1	24.4	100.0
화이트칼라	(194)	11.3	23.2	34.5	38.1	21.1	6.2	27.3	100.0
전업주부	(187)	8.0	28.9	36.9	33.7	25.1	4.3	29.4	100.0
무직 / 기타	(134)	12.7	16.4	29.1	35.1	27.6	8.2	3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1.3	28.7	40.0	30.7	22.0	7.3	29.3	100.0
200~299만원	(311)	11.3	28.6	39.9	34.1	20.9	5.1	26.0	100.0
300~399만원	(373)	9.9	26.5	36.5	35.4	23.6	4.6	28.2	100.0
400만원 이상	(366)	9.6	24.0	33.6	34.4	26.0	6.0	32.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9.5	23.5	33.1	36.7	24.8	5.4	30.3	100.0
충청권	(116)	10.3	31.0	41.4	23.3	24.1	11.2	35.3	100.0
호남권	(115)	14.8	33.0	47.8	26.1	20.9	5.2	26.1	100.0
영남권	(312)	11.5	29.5	41.0	34.0	20.8	4.2	25.0	100.0
강원	(36)	2.8	13.9	16.7	58.3	22.2	2.8	25.0	100.0
제주	(13)	.0	38.5	38.5	23.1	38.5	.0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1.9	28.3	40.2	31.9	22.1	5.8	28.0	100.0
중 / 소도시	(533)	9.6	25.3	34.9	34.7	25.1	5.3	30.4	100.0
읍 / 면	(102)	5.9	23.5	29.4	44.1	21.6	4.9	26.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8.8	29.6	38.4	32.6	22.3	6.7	29	100.0
중도	(591)	8.8	24.0	32.8	36.2	26.1	4.9	31	100.0
보수적	(281)	15.3	28.5	43.8	31.7	19.2	5.3	24.6	100.0
■ 종교									
불교	(219)	13.7	24.7	38.4	31.1	25.6	5.0	30.6	100.0
기독교	(298)	8.4	24.8	33.2	32.6	26.8	7.4	34.2	100.0
천주교	(87)	8.0	27.6	35.6	32.2	17.2	14.9	32.2	100.0
기타	(9)	11.1	44.4	55.6	11.1	11.1	22.2	33.3	100.0
종교 없음	(571)	10.3	27.5	37.8	36.8	22.4	3.0	25.4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37.5	50.0	37.5	6.3	6.3	12.5	100.0

표33-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	다소 꺼림 %	%	반반/ 그저 그렇다 %	별로 꺼리지 않음 %	전혀 꺼리지 않음 %	%	%
■ 전체	(1200)	21.2	25.8	46.9	28.7	19.8	4.6	24.4	100.0
■ 성별									
남자	(610)	15.6	22.3	37.9	32.1	23.9	6.1	30.0	100.0
여자	(590)	26.9	29.3	56.3	25.1	15.6	3.1	18.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4.7	21.6	46.3	27.8	20.0	5.9	25.9	100.0
30대	(282)	21.3	27.3	48.6	30.5	18.1	2.8	20.9	100.0
40대	(307)	17.3	26.7	44	30.0	20.5	5.5	26.1	100.0
50대 이상	(356)	21.9	26.7	48.6	26.7	20.5	4.2	2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6.4	29.2	55.7	18.9	22.6	2.8	25.5	100.0
고졸	(554)	20.8	26.7	47.5	30.3	18.8	3.4	22.2	100.0
대재 이상	(538)	20.4	24.2	44.6	28.8	20.4	6.1	26.6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10.7	32.1	28.6	35.7	3.6	39.3	100.0
자영업	(341)	16.1	25.8	41.9	30.5	22.3	5.3	27.6	100.0
블루 칼라	(316)	24.4	24.7	49.1	28.8	19.0	3.2	22.2	100.0
화이트칼라	(194)	20.1	26.8	46.9	28.9	17.0	7.2	24.2	100.0
전업주부	(187)	25.1	31.0	56.1	25.7	15.5	2.7	18.2	100.0
무직 / 기타	(134)	22.4	22.4	44.8	27.6	22.4	5.2	27.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2.0	22.7	44.7	25.3	22.7	7.3	30.0	100.0
200~299만원	(311)	21.9	26.0	47.9	29.9	17.4	4.8	22.2	100.0
300~399만원	(373)	22.0	24.4	46.4	29.0	21.7	2.9	24.7	100.0
400만원 이상	(366)	19.4	28.1	47.5	28.7	18.9	4.9	23.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0	24.5	40.5	32.4	22.5	4.6	27.1	100.0
충청권	(116)	26.7	23.3	50.0	22.4	21.6	6.0	27.6	100.0
호남권	(115)	30.4	22.6	53.0	19.1	20.9	7.0	27.8	100.0
영남권	(312)	28.2	31.1	59.3	25.0	12.5	3.2	15.7	100.0
강원	(36)	2.8	16.7	19.4	50.0	25.0	5.6	30.6	100.0
제주	(13)	15.4	30.8	46.2	23.1	30.8	.0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4.6	29.2	53.8	23.5	17.5	5.1	22.7	100.0
중 / 소도시	(533)	17.6	23.8	41.5	32.8	21.8	3.9	25.7	100.0
읍 / 면	(102)	20.6	16.7	37.3	35.3	22.5	4.9	27.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2.3	27.1	49.4	24.4	19.5	6.7	26.2	100.0
중도	(591)	19.0	24.5	43.5	31.6	21.2	3.7	24.9	100.0
보수적	(281)	24.6	26.7	51.2	27.4	17.4	3.9	21.4	100.0
■ 종교									
불교	(219)	24.2	29.2	53.4	24.2	19.6	2.7	22.4	100.0
기독교	(298)	16.4	23.5	39.9	31.9	22.1	6.0	28.2	100.0
천주교	(87)	21.8	14.9	36.8	29.9	21.8	11.5	33.3	100.0
기타	(9)	22.2	22.2	44.4	11.1	33.3	11.1	44.4	100.0
종교 없음	(571)	21.9	27.3	49.2	28.9	18.7	3.2	21.9	100.0
무름 / 무응답	(16)	37.5	25.0	62.5	25.0	.0	12.5	12.5	100.0



표34.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0)	43.8	46.2	9.9	.1	100.0
■ 성별						
남자	(610)	46.4	45.4	8.0	.2	100.0
여자	(590)	41.2	46.9	11.9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3.1	47.5	9.4	.0	100.0
30대	(282)	43.6	47.5	8.9	.0	100.0
40대	(307)	45.9	44.3	9.8	.0	100.0
50대 이상	(356)	42.7	45.8	11.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5.5	50.9	22.6	.9	100.0
고졸	(554)	41.3	48.2	10.5	.0	100.0
대재 이상	(538)	50.0	43.3	6.7	.0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4.3	32.1	3.6	.0	100.0
자영업	(341)	47.5	44.9	7.3	.3	100.0
블루 칼라	(316)	39.6	49.7	10.8	.0	100.0
화이트칼라	(194)	44.3	47.4	8.2	.0	100.0
전업주부	(187)	38.0	43.3	18.7	.0	100.0
무직 / 기타	(134)	47.8	46.3	6.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0.7	48.0	11.3	.0	100.0
200~299만원	(311)	42.8	44.4	12.9	.0	100.0
300~399만원	(373)	41.6	46.9	11.3	.3	100.0
400만원 이상	(366)	48.4	46.2	5.5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2.3	47.5	10.2	.0	100.0
충청권	(116)	49.1	44.8	6.0	.0	100.0
호남권	(115)	47.8	40.9	10.4	.9	100.0
영남권	(312)	38.1	50.3	11.5	.0	100.0
강원	(36)	86.1	13.9	.0	.0	100.0
제주	(13)	53.8	30.8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9.1	50.8	10.1	.0	100.0
중 / 소도시	(533)	48.0	42.0	9.8	.2	100.0
읍 / 면	(102)	48.0	42.2	9.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4.6	39.6	5.8	.0	100.0
중도	(591)	43.0	45.9	11.0	.2	100.0
보수적	(281)	33.1	54.4	12.5	.0	100.0
■ 종교						
불교	(219)	39.7	44.7	15.5	.0	100.0
기독교	(298)	50.3	42.3	7.0	.3	100.0
천주교	(87)	49.4	44.8	5.7	.0	100.0
기타	(9)	44.4	44.4	11.1	.0	100.0
종교 없음	(571)	41.9	48.2	10.0	.0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75.0	6.3	.0	100.0

표35-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㉞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 %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전체	(1200)	6.7	52.2	58.8	36.9	4.3	41.2	100.0
■ 성별								
남자	(610)	7.7	54.3	62	34.3	3.8	38	100.0
여자	(590)	5.6	50	55.6	39.7	4.7	44.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6	51.8	60.4	35.3	4.3	39.6	100.0
30대	(282)	5.3	53.2	58.5	36.2	5.3	41.5	100.0
40대	(307)	8.1	51.8	59.9	34.5	5.5	40.1	100.0
50대 이상	(356)	5.1	52.0	57.0	40.7	2.2	43.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48.1	50.0	45.3	4.7	50.0	100.0
고졸	(554)	6.3	49.8	56.1	40.3	3.6	43.9	100.0
대재 이상	(538)	8.0	55.4	63.4	31.8	4.8	36.6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60.7	71.4	28.6	.0	28.6	100.0
자영업	(341)	6.5	52.2	58.7	37.0	4.4	41.3	100.0
블루 칼라	(316)	4.1	49.4	53.5	43.4	3.2	46.5	100.0
화이트칼라	(194)	8.8	55.2	63.9	29.9	6.2	36.1	100.0
전업주부	(187)	6.4	47.6	54.0	42.8	3.2	46.0	100.0
무직 / 기타	(134)	9.7	59	68.7	25.4	6.0	31.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7	46.7	53.3	41.3	5.3	46.7	100.0
200~299만원	(311)	5.1	55.6	60.8	36.0	3.2	39.2	100.0
300~399만원	(373)	7.0	50.4	57.4	38.3	4.3	42.6	100.0
400만원 이상	(366)	7.7	53.3	60.9	34.4	4.6	39.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1	51.3	58.4	37.8	3.8	41.6	100.0
충청권	(116)	2.6	52.6	55.2	43.1	1.7	44.8	100.0
호남권	(115)	8.7	51.3	60.0	35.7	4.3	40.0	100.0
영남권	(312)	6.1	51.6	57.7	35.9	6.4	42.3	100.0
강원	(36)	8.3	69.4	77.8	22.2	.0	22.2	100.0
제주	(13)	15.4	61.5	76.9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3	53.8	61.1	34.2	4.8	38.9	100.0
중 / 소도시	(533)	6.2	52.7	58.9	37.5	3.6	41.1	100.0
읍 / 면	(102)	5.9	40.2	46.1	49	4.9	53.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0.4	51.5	61.9	33.2	4.9	38.1	100.0
중도	(591)	5.1	53.8	58.9	37.1	4.1	41.1	100.0
보수적	(281)	5.7	49.5	55.2	40.9	3.9	44.8	100.0
■ 종교								
불교	(219)	5.9	43.8	49.8	46.1	4.1	50.2	100.0
기독교	(298)	8.7	52.7	61.4	34.2	4.4	38.6	100.0
천주교	(87)	12.6	49.4	62.1	31.0	6.9	37.9	100.0
기타	(9)	11.1	55.6	66.7	22.2	11.1	33.3	100.0
종교 없음	(571)	5.1	55.9	60.9	35.4	3.7	39.1	100.0
무름 / 무응답	(16)	.0	37.5	37.5	56.3	6.3	62.5	100.0



표35-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④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	다소 동의함 %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전체	(1200)	7.5	43.4	50.9	42.3	6.8	49.1	100.0
■ 성별								
남자	(610)	9.2	46.6	55.7	39.0	5.2	44.3	100.0
여자	(590)	5.8	40.2	45.9	45.6	8.5	54.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0.2	44.3	54.5	38.8	6.7	45.5	100.0
30대	(282)	5.3	42.9	48.2	43.3	8.5	51.8	100.0
40대	(307)	8.8	43.6	52.4	41.7	5.9	47.6	100.0
50대 이상	(356)	6.0	43.0	49.2	44.4	6.5	50.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	34.0	34.9	50.9	14.2	65.1	100.0
고졸	(554)	6.9	41.0	47.8	45.7	6.5	52.2	100.0
대재 이상	(538)	9.5	47.8	57.2	37.0	5.8	42.8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39.3	42.9	57.1	.0	57.1	100.0
자영업	(341)	8.8	45.7	54.5	41.3	4.1	45.5	100.0
블루 칼라	(316)	5.4	39.6	44.9	47.8	7.3	55.1	100.0
화이트칼라	(194)	10.3	44.3	54.6	37.1	8.2	45.4	100.0
전업주부	(187)	3.2	42.8	46.0	42.2	11.8	54.0	100.0
무직 / 기타	(134)	11.9	47.0	59.0	35.8	5.2	4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0	48.7	54.7	38.0	7.3	45.3	100.0
200~299만원	(311)	7.1	44.4	51.4	43.4	5.1	48.6	100.0
300~399만원	(373)	7.2	39.9	47.2	45.6	7.2	52.8	100.0
400만원 이상	(366)	8.7	44.0	52.7	39.6	7.7	47.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9.2	46.1	55.3	39.0	5.8	44.7	100.0
충청권	(116)	5.2	50.0	55.2	42.2	2.6	44.8	100.0
호남권	(115)	10.4	60.9	71.3	26.1	2.6	28.7	100.0
영남권	(312)	3.8	27.6	31.4	56.1	12.5	68.6	100.0
강원	(36)	8.3	50.0	58.3	38.9	2.8	41.7	100.0
제주	(13)	7.7	69.2	76.9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4	43.4	50.8	40.4	8.8	49.2	100.0
중 / 소도시	(533)	7.7	43.7	51.4	43.5	5.1	48.6	100.0
읍 / 면	(102)	6.9	42.2	49.0	46.1	4.9	5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0.4	50.6	61.0	33.5	5.5	39.0	100.0
중도	(591)	6.9	42.5	49.4	44.0	6.6	50.6	100.0
보수적	(281)	5.3	37.0	42.3	48.8	8.9	57.7	100.0
■ 종교								
불교	(219)	5.0	30.1	35.2	55.3	9.6	64.8	100.0
기독교	(298)	11.7	44.3	56.0	37.6	6.4	44.0	100.0
천주교	(87)	9.2	52.9	62.1	31.0	6.9	37.9	100.0
기타	(9)	22.2	22.2	44.4	55.6	.0	55.6	100.0
종교 없음	(571)	.0	46.6	52.5	41.3	6.1	47.5	100.0
무름 / 무응답	(16)	.0	56.3	56.3	37.5	6.3	43.8	100.0

표35-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전체	(1200)	1.9	22.8	24.7	58.9	16.4	75.3	100.0
■ 성별								
남자	(610)	2.1	22.5	24.6	57.2	18.2	75.4	100.0
여자	(590)	1.7	23.1	24.7	60.7	14.6	75.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1	25.5	28.6	55.3	16.1	71.4	100.0
30대	(282)	2.5	23.4	25.9	58.5	15.6	74.1	100.0
40대	(307)	1.6	20.5	22.1	61.2	16.6	77.9	100.0
50대 이상	(356)	.8	22.2	23.0	59.8	17.1	7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	23.6	25.5	61.3	13.2	74.5	100.0
고졸	(554)	1.6	22.9	24.5	59.2	16.2	75.5	100.0
대재 이상	(538)	2.2	22.3	24.5	58.2	17.3	75.5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50.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4.3	21.4	60.7	17.9	78.6	100.0
자영업	(341)	.6	24.6	25.2	56.9	17.9	74.8	100.0
블루 칼라	(316)	2.2	23.1	25.3	59.8	14.9	74.7	100.0
화이트칼라	(194)	2.6	18.6	21.1	58.8	20.1	78.9	100.0
전업주부	(187)	1.1	21.9	23.0	64.2	12.8	77.0	100.0
무직 / 기타	(134)	3.7	26.1	29.9	54.5	15.7	70.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3	22.0	23.3	58.7	18.0	76.7	100.0
200~299만원	(311)	2.3	19.9	22.2	60.8	17.0	77.8	100.0
300~399만원	(373)	3.5	23.9	27.3	57.4	15.3	72.7	100.0
400만원 이상	(366)	.3	24.3	24.6	59.0	16.4	75.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8	24.3	26.2	57.2	16.6	73.8	100.0
충청권	(116)	2.6	29.3	31.9	50.0	18.1	68.1	100.0
호남권	(115)	3.5	23.5	27.0	59.1	13.9	73.0	100.0
영남권	(312)	1.3	16.7	17.9	65.1	17.0	82.1	100.0
강원	(36)	.0	25.0	25.0	66.7	8.3	75.0	100.0
제주	(13)	7.7	23.1	30.8	46.2	23.1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8	23.5	26.4	57.0	16.6	73.6	100.0
중 / 소도시	(533)	1.1	23.8	25.0	60.0	15.0	75.0	100.0
읍 / 면	(102)	1.0	12.7	13.7	63.7	22.5	86.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1	20.7	22.9	59.1	18.0	77.1	100.0
중도	(591)	2.0	24.0	26.1	58.4	15.6	73.9	100.0
보수적	(281)	1.4	22.4	23.8	59.8	16.4	76.2	100.0
■ 종교								
불교	(219)	2.7	21.0	23.7	57.1	19.2	76.3	100.0
기독교	(298)	.7	22.1	22.8	59.1	18.1	77.2	100.0
천주교	(87)	.0	20.7	20.7	54.0	25.3	79.3	100.0
기타	(9)	.0	.0	.0	44.4	55.6	100.0	100.0
종교 없음	(571)	2.6	24.3	27.0	60.4	12.6	73.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62.5	12.5	75.0	100.0



표35-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전체	(1200)	16.3	52.8	69.0	27.5	3.5	31.0	100.0
■ 성별								
남자	(610)	18.2	50.2	68.4	28.7	3.0	31.6	100.0
여자	(590)	14.2	55.4	69.7	26.3	4.1	30.3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4.5	53.3	67.8	29.0	3.1	32.2	100.0
30대	(282)	16.3	50.0	66.3	28.4	5.3	33.7	100.0
40대	(307)	17.3	53.1	70.4	26.4	3.3	29.6	100.0
50대 이상	(356)	16.6	54.2	70.8	26.7	2.5	29.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4.2	57.5	71.7	22.6	5.7	28.3	100.0
고졸	(554)	17.1	50.4	67.5	30.0	2.5	32.5	100.0
대재 이상	(538)	15.8	54.1	69.9	26.0	4.1	30.1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67.9	89.3	10.7	.0	10.7	100.0
자영업	(341)	17.3	55.4	72.7	23.5	3.8	27.3	100.0
블루 칼라	(316)	13.3	53.2	66.5	31.3	2.2	33.5	100.0
화이트칼라	(194)	20.1	45.9	66.0	28.4	5.7	34.0	100.0
전업주부	(187)	13.4	54.0	67.4	29.4	3.2	32.6	100.0
무직 / 기타	(134)	17.9	50.0	67.9	28.4	3.7	3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7	52.0	66.7	26.7	6.7	33.3	100.0
200~299만원	(311)	18.0	53.1	71.1	27.0	1.9	28.9	100.0
300~399만원	(373)	17.2	52.8	70.0	27.6	2.4	30.0	100.0
400만원 이상	(366)	14.5	52.7	67.2	28.1	4.6	32.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5.8	50.2	66.0	28.8	5.3	34.0	100.0
충청권	(116)	14.7	60.3	75.0	24.1	.9	25.0	100.0
호남권	(115)	20.9	53.0	73.9	23.5	2.6	26.1	100.0
영남권	(312)	15.7	56.1	71.8	26.9	1.3	28.2	100.0
강원	(36)	11.1	47.2	58.3	41.7	.0	41.7	100.0
제주	(13)	38.5	38.5	76.9	7.7	15.4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9.1	51.9	71.0	26.4	2.7	29.0	100.0
중 / 소도시	(533)	13.3	52.7	66.0	30.0	3.9	34.0	100.0
읍 / 면	(102)	15.7	57.8	73.5	20.6	5.9	26.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9.2	55.8	75.0	22.0	3.0	25.0	100.0
중도	(591)	15.1	49.1	64.1	33.2	2.7	35.9	100.0
보수적	(281)	15.3	56.9	72.2	22.1	5.7	27.8	100.0
■ 종교								
불교	(219)	12.8	53.9	66.7	28.8	4.6	33.3	100.0
기독교	(298)	17.8	52.0	69.8	26.5	3.7	30.2	100.0
천주교	(87)	24.1	46.0	70.1	26.4	3.4	29.9	100.0
기타	(9)	44.4	33.3	77.8	11.1	11.1	22.2	100.0
종교 없음	(571)	15.6	53.6	69.2	28.0	2.8	30.8	100.0
무름 / 무응답	(16)	.0	68.8	68.8	25.0	6.3	31.3	100.0

표36.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200)	65.8	6.8	20.6	5.8	.9	.1	100.0
■ 성별								
남자	(610)	66.1	5.4	21.0	6.2	1.1	.2	100.0
여자	(590)	65.6	8.1	20.2	5.4	.7	.0	100.0
■ 연령별								
19~29세	(255)	64.3	7.5	22.4	5.1	.4	.4	100.0
30대	(282)	61.0	8.5	22.3	7.1	1.1	.0	100.0
40대	(307)	61.6	7.8	23.8	5.5	1.3	.0	100.0
50대 이상	(356)	74.4	3.9	15.2	5.6	.8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75.5	.9	17.0	6.6	.0	.0	100.0
고졸	(554)	67.3	8.7	17.1	6.0	.9	.0	100.0
대재 이상	(538)	62.5	5.9	24.7	5.6	1.1	.2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0.7	.0	21.4	14.3	3.6	.0	100.0
자영업	(341)	69.8	6.2	18.8	4.7	.6	.0	100.0
블루 칼라	(316)	62.3	7.9	20.9	7.0	1.6	.3	100.0
화이트칼라	(194)	59.8	6.2	26.3	7.2	.5	.0	100.0
전업주부	(187)	70.6	8.6	14.4	5.9	.5	.0	100.0
무직 / 기타	(134)	67.2	5.2	24.6	2.2	.7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0.0	3.3	18.0	7.3	1.3	.0	100.0
200~299만원	(311)	66.2	7.7	18.6	6.8	.6	.0	100.0
300~399만원	(373)	69.2	6.7	17.7	5.4	1.1	.0	100.0
400만원 이상	(366)	60.4	7.4	26.2	4.9	.8	.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64.6	6.7	21.7	5.6	1.2	.2	100.0
충청권	(116)	61.2	6.9	25.9	6.0	.0	.0	100.0
호남권	(115)	54.8	4.3	28.7	10.4	1.7	.0	100.0
영남권	(312)	72.8	7.7	15.7	3.8	.0	.0	100.0
강원	(36)	80.6	2.8	5.6	11.1	.0	.0	100.0
제주	(13)	53.8	15.4	7.7	7.7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69.4	6.2	16.3	6.7	1.2	.2	100.0
중 / 소도시	(533)	61.7	7.9	24.8	4.9	.8	.0	100.0
읍 / 면	(102)	67.6	3.9	22.5	5.9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2.5	5.8	24.7	5.5	1.5	.0	100.0
중도	(591)	65.0	8.5	19.1	6.8	.7	.0	100.0
보수적	(281)	71.5	4.3	18.9	4.3	.7	.4	100.0
■ 종교								
불교	(219)	64.4	7.3	19.6	8.2	.5	.0	100.0
기독교	(298)	65.8	6.7	20.5	5.7	1.3	.0	100.0
천주교	(87)	72.4	3.4	16.1	8.0	.0	.0	100.0
기타	(9)	55.6	11.1	33.3	.0	.0	.0	100.0
종교 없음	(571)	66.2	6.7	21.4	4.6	1.1	.2	100.0
무름 / 무응답	(16)	43.8	18.8	25.0	12.5	.0	.0	100.0



표37.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 전체	(1200)	9.5	12.3	47.3	30.5	.4	100.0
■ 성별							
남자	(610)	9.3	10.8	47.0	32.8	.0	100.0
여자	(590)	9.7	13.7	47.6	28.1	.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1.0	15.7	44.7	28.2	.4	100.0
30대	(282)	12.1	13.8	40.8	32.6	.7	100.0
40대	(307)	9.4	10.4	45.6	33.9	.7	100.0
50대 이상	(356)	6.5	10.1	55.9	27.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8.5	62.3	24.5	0	100.0
고졸	(554)	7.8	11.6	48.6	31.8	.4	100.0
대재 이상	(538)	12.3	13.8	43.1	30.3	.6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50.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28.6	39.3	21.4	.0	100.0
자영업	(341)	10.6	10.3	49.6	29.6	.0	100.0
블루 칼라	(316)	6.0	9.5	50.6	33.2	.6	100.0
화이트칼라	(194)	14.4	17.0	34.5	33.5	.5	100.0
전업주부	(187)	5.9	10.2	55.1	28.3	.5	100.0
무직 / 기타	(134)	12.7	16.4	43.3	26.9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0.7	11.3	45.3	32.0	.7	100.0
200~299만원	(311)	7.4	13.5	51.8	26.7	.6	100.0
300~399만원	(373)	11.5	8.8	48.8	30.6	.3	100.0
400만원 이상	(366)	8.7	15.0	42.9	33.1	.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0.5	11.8	43.6	33.2	.8	100.0
충청권	(116)	10.3	18.1	54.3	17.2	.0	100.0
호남권	(115)	19.1	12.2	41.7	27.0	.0	100.0
영남권	(312)	3.5	11.5	54.2	30.8	.0	100.0
강원	(36)	11.1	2.8	50.0	36.1	.0	100.0
제주	(13)	7.7	23.1	38.5	30.8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1	11.3	50.8	30.3	.5	100.0
중 / 소도시	(533)	12.4	12.9	42.8	31.5	.4	100.0
읍 / 면	(102)	7.8	13.7	52.0	26.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1.9	13.1	42.1	32.6	.3	100.0
중도	(591)	9.6	12.5	47.9	29.4	.5	100.0
보수적	(281)	6.4	10.7	52.3	30.2	.4	100.0
■ 종교							
불교	(219)	7.3	19.2	46.6	26.0	.9	100.0
기독교	(298)	12.4	11.1	48.3	28.2	.0	100.0
천주교	(87)	14.9	9.2	40.2	34.5	1.1	100.0
기타	(9)	22.2	11.1	22.2	44.4	.0	100.0
종교 없음	(571)	7.7	10.7	48.3	32.9	.4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12.5	56.3	18.8	.0	100.0

표38.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계
		%	%	%	%	
■ 전체	(1200)	66.2	11.3	9.8	12.8	100.0
■ 성별						
남자	(610)	66.2	11.1	11.5	11.1	100.0
여자	(590)	66.1	11.5	8.0	14.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6.9	14.9	9.8	18.4	100.0
30대	(282)	69.5	8.2	11.0	11.3	100.0
40대	(307)	71.3	7.8	10.7	10.1	100.0
50대 이상	(356)	65.7	14.3	7.9	1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3.8	26.4	8.5	11.3	100.0
고졸	(554)	65.7	10.3	10.5	13.5	100.0
대재 이상	(538)	69.1	9.5	9.3	12.1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0	5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5.0	14.3	3.6	7.1	100.0
자영업	(341)	71.0	10.3	9.4	9.4	100.0
블루 칼라	(316)	66.8	12.3	11.7	9.2	100.0
화이트칼라	(194)	67.0	5.2	12.9	14.9	100.0
전업주부	(187)	62.6	12.3	8.0	17.1	100.0
무직 / 기타	(134)	54.5	18.7	5.2	2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6.7	15.3	7.3	10.7	100.0
200~299만원	(311)	65.0	13.2	10.9	10.9	100.0
300~399만원	(373)	63.3	9.7	11.5	15.5	100.0
400만원 이상	(366)	69.9	9.8	7.9	12.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65.1	12.2	9.7	13.0	100.0
충청권	(116)	65.5	19.0	3.4	12.1	100.0
호남권	(115)	77.4	13.0	4.3	5.2	100.0
영남권	(312)	63.5	7.4	14.1	15.1	100.0
강원	(36)	72.2	2.8	13.9	11.1	100.0
제주	(13)	69.2	7.7	.0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60.5	12.9	11.9	14.7	100.0
중 / 소도시	(533)	73.5	9.2	7.7	9.6	100.0
읍 / 면	(102)	58.8	13.7	8.8	18.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4.7	10.1	7.3	7.9	100.0
중도	(591)	64.6	10.7	10.8	13.9	100.0
보수적	(281)	59.4	14.2	10.3	16.0	100.0
■ 종교						
불교	(219)	66.7	11.4	10.5	11.4	100.0
기독교	(298)	65.8	12.8	9.7	11.7	100.0
천주교	(87)	70.1	6.9	10.3	12.6	100.0
기타	(9)	55.6	11.1	.0	33.3	100.0
종교 없음	(571)	65.1	11.6	9.8	13.5	100.0
무름 / 무응답	(16)	87.5	.0	.0	12.5	100.0



표39-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0)	77.3	11.0	10.9	.8	100.0
■ 성별						
남자	(610)	77.7	11.3	10.2	.8	100.0
여자	(590)	76.9	10.7	11.7	.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74.9	11.8	12.9	.4	100.0
30대	(282)	73.8	13.8	11.3	1.1	100.0
40대	(307)	77.5	11.7	9.8	1.0	100.0
50대 이상	(356)	81.7	7.6	10.1	.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88.7	4.7	6.6	0	100.0
고졸	(554)	78.3	11.0	10.1	.5	100.0
대재 이상	(538)	74.0	12.3	12.6	1.1	100.0
무름 / 무응답	(2)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4	14.3	10.7	3.6	100.0
자영업	(341)	73.6	12.6	12.6	1.2	100.0
블루 칼라	(316)	78.5	11.4	9.8	.3	100.0
화이트칼라	(194)	76.3	9.3	12.9	1.5	100.0
전업주부	(187)	86.1	7.0	7.0	.0	100.0
무직 / 기타	(134)	74.6	13.4	11.9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72.7	10.7	16.7	.0	100.0
200~299만원	(311)	79.4	11.6	8.7	.3	100.0
300~399만원	(373)	75.3	11.5	12.1	1.1	100.0
400만원 이상	(366)	79.5	10.1	9.3	1.1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9.6	10.0	9.4	1.0	100.0
충청권	(116)	66.4	18.1	15.5	.0	100.0
호남권	(115)	54.8	13.0	30.4	1.7	100.0
영남권	(312)	85.3	9.0	5.8	.0	100.0
강원	(36)	83.3	13.9	2.8	.0	100.0
제주	(13)	61.5	15.4	15.4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8.4	10.1	10.8	.7	100.0
중 / 소도시	(533)	76.7	12.4	9.9	.9	100.0
읍 / 면	(102)	74.5	8.8	16.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72.9	10.7	14.6	1.8	100.0
중도	(591)	78.3	13.4	8.1	.2	100.0
보수적	(281)	80.4	6.4	12.5	.7	100.0
■ 종교						
불교	(219)	81.3	11.0	7.3	.5	100.0
기독교	(298)	78.9	8.7	11.1	1.3	100.0
천주교	(87)	77.0	10.3	11.5	1.1	100.0
기타	(9)	66.7	11.1	22.2	.0	100.0
종교 없음	(571)	76.0	12.3	11.4	.4	100.0
무름 / 무응답	(16)	50.0	12.5	31.3	6.3	100.0

표39-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0)	22.4	36.9	35.3	5.4	100.0
■ 성별						
남자	(610)	24.8	36.7	33.4	5.1	100.0
여자	(590)	20.0	37.1	37.1	5.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3.5	36.5	32.9	7.1	100.0
30대	(282)	20.6	39.4	34.8	5.3	100.0
40대	(307)	23.8	37.5	33.2	5.5	100.0
50대 이상	(356)	21.9	34.8	39.0	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4	36.8	47.2	6.6	100.0
고졸	(554)	21.8	37.5	34.8	5.8	100.0
대재 이상	(538)	25.7	36.4	33.1	4.8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4.3	35.7	42.9	7.1	100.0
자영업	(341)	22.9	33.4	39.0	4.7	100.0
블루 칼라	(316)	17.4	41.5	34.2	7.0	100.0
화이트칼라	(194)	29.4	35.6	29.4	5.7	100.0
전업주부	(187)	19.8	36.4	39.0	4.8	100.0
무직 / 기타	(134)	28.4	38.1	29.9	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8.0	36.0	38.0	8.0	100.0
200~299만원	(311)	23.5	40.8	32.5	3.2	100.0
300~399만원	(373)	21.7	33.2	41.3	3.8	100.0
400만원 이상	(366)	24.0	37.7	30.3	7.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7.0	33.6	34.5	4.9	100.0
충청권	(116)	14.7	45.7	37.1	2.6	100.0
호남권	(115)	25.2	32.2	31.3	11.3	100.0
영남권	(312)	14.4	41.7	39.1	4.8	100.0
강원	(36)	30.6	38.9	22.2	8.3	100.0
제주	(13)	23.1	38.5	30.8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2.8	34.9	35.9	6.4	100.0
중 / 소도시	(533)	21.2	39.8	34.5	4.5	100.0
읍 / 면	(102)	26.5	33.3	35.3	4.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5.3	32.3	36.0	6.4	100.0
중도	(591)	22.2	43.0	29.4	5.4	100.0
보수적	(281)	19.6	29.5	46.6	4.3	100.0
■ 종교						
불교	(219)	21.0	36.1	39.3	3.7	100.0
기독교	(298)	26.5	40.3	28.5	4.7	100.0
천주교	(87)	25.3	28.7	37.9	8.0	100.0
기타	(9)	11.1	11.1	77.8	.0	100.0
종교 없음	(571)	20.8	37.3	35.9	6.0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31.3	43.8	12.5	100.0



표39-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0)	16.9	35.3	35.8	12.0	100.0
■ 성별						
남자	(610)	17.4	37.2	35.4	10.0	100.0
여자	(590)	16.4	33.4	36.1	14.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5	34.9	32.5	16.1	100.0
30대	(282)	16.0	40.4	31.2	12.4	100.0
40대	(307)	18.6	33.2	37.8	10.4	100.0
50대 이상	(356)	16.6	33.4	39.9	10.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9.4	34.0	42.5	14.2	100.0
고졸	(554)	15.0	33.8	38.3	13.0	100.0
대재 이상	(538)	20.4	37.2	31.8	10.6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21.4	50.0	10.7	100.0
자영업	(341)	18.2	35.5	37.8	8.5	100.0
블루 칼라	(316)	11.4	35.8	41.1	11.7	100.0
화이트칼라	(194)	22.2	34.5	30.9	12.4	100.0
전업주부	(187)	17.6	36.9	28.3	17.1	100.0
무직 / 기타	(134)	17.9	35.8	32.1	1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6.0	30.0	41.3	12.7	100.0
200~299만원	(311)	14.1	42.4	31.2	12.2	100.0
300~399만원	(373)	17.4	35.1	37.8	9.7	100.0
400만원 이상	(366)	19.1	31.7	35.2	13.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9.6	33.1	34.7	12.7	100.0
충청권	(116)	11.2	35.3	44.8	8.6	100.0
호남권	(115)	23.5	27.8	31.3	17.4	100.0
영남권	(312)	9.6	40.4	39.4	10.6	100.0
강원	(36)	27.8	55.6	16.7	.0	100.0
제주	(13)	30.8	30.8	7.7	30.8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7.7	32.6	36.1	13.6	100.0
중 / 소도시	(533)	16.3	38.1	34.7	10.9	100.0
읍 / 면	(102)	15.7	36.3	39.2	8.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2.3	35.4	29.0	13.4	100.0
중도	(591)	16.9	35.9	36.2	11.0	100.0
보수적	(281)	10.7	34.2	42.7	12.5	100.0
■ 종교						
불교	(219)	14.2	37.4	37.4	11.0	100.0
기독교	(298)	20.5	34.2	35.6	9.7	100.0
천주교	(87)	20.7	35.6	29.9	13.8	100.0
기타	(9)	22.2	22.2	44.4	11.1	100.0
종교 없음	(571)	15.8	35.4	35.6	13.3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31.3	50.0	12.5	100.0

표39-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체	(1200)	24	32.9	38.1	5.0	100.0
■ 성별						
남자	(610)	25.6	33.1	37.0	4.3	100.0
여자	(590)	22.4	32.7	39.2	5.8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6.7	31.4	36.5	5.5	100.0
30대	(282)	26.2	33.0	34.0	6.7	100.0
40대	(307)	22.8	34.5	39.4	3.3	100.0
50대 이상	(356)	21.3	32.6	41.3	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1.3	36.8	41.5	10.4	100.0
고졸	(554)	22.2	32.9	40.6	4.3	100.0
대재 이상	(538)	28.4	32.3	34.6	4.6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7.9	35.7	39.3	7.1	100.0
자영업	(341)	25.2	31.1	40.2	3.5	100.0
블루 칼라	(316)	17.4	36.1	40.5	6.0	100.0
화이트칼라	(194)	34.5	30.9	28.9	5.7	100.0
전업주부	(187)	19.3	36.9	38	5.9	100.0
무직 / 기타	(134)	29.1	26.9	40.3	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8.0	32.0	40.7	9.3	100.0
200~299만원	(311)	21.9	35.4	37.0	5.8	100.0
300~399만원	(373)	23.3	31.6	39.1	5.9	100.0
400만원 이상	(366)	29.0	32.5	36.9	1.6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6.5	27.6	38.8	7.1	100.0
충청권	(116)	12.1	29.3	56.0	2.6	100.0
호남권	(115)	27.0	28.7	38.3	6.1	100.0
영남권	(312)	19.9	47.1	31.4	1.6	100.0
강원	(36)	36.1	27.8	33.3	2.8	100.0
제주	(13)	53.8	23.1	15.4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5.0	31.5	39.5	4.1	100.0
중 / 소도시	(533)	23.1	34.5	36.6	5.8	100.0
읍 / 면	(102)	23.5	32.4	38.2	5.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3.2	25.6	36.6	4.6	100.0
중도	(591)	21.8	36.0	37.7	4.4	100.0
보수적	(281)	17.8	34.9	40.6	6.8	100.0
■ 종교						
불교	(219)	19.2	41.1	32.9	6.8	100.0
기독교	(298)	28.9	26.8	41.9	2.3	100.0
천주교	(87)	25.3	33.3	34.5	6.9	100.0
기타	(9)	33.3	33.3	22.2	11.1	100.0
종교 없음	(571)	23.1	33.5	38.2	5.3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12.5	62.5	6.3	100.0



표4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0)	72.8	1.8	23.8	1.6	100.0
■ 성별						
남자	(610)	76.4	1.3	20.5	1.8	100.0
여자	(590)	69.2	2.4	27.1	1.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71.0	1.2	26.3	1.6	100.0
30대	(282)	68.8	2.5	26.2	2.5	100.0
40대	(307)	74.3	2.3	22.1	1.3	100.0
50대 이상	(356)	76.1	1.4	21.3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76.4	1.9	20.8	.9	100.0
고졸	(554)	76.9	2.7	19.1	1.3	100.0
대재 이상	(538)	68.0	.9	29.0	2.0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0	5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60.7	.0	39.3	.0	100.0
자영업	(341)	71.3	2.3	25.2	1.2	100.0
블루 칼라	(316)	76.9	1.3	19.9	1.9	100.0
화이트칼라	(194)	69.1	1.0	27.3	2.6	100.0
전업주부	(187)	74.9	3.2	20.3	1.6	100.0
무직 / 기타	(134)	72.4	1.5	25.4	.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9.3	1.3	26.7	2.7	100.0
200~299만원	(311)	72.7	3.9	22.8	.6	100.0
300~399만원	(373)	71.8	1.3	24.7	2.1	100.0
400만원 이상	(366)	75.4	.8	22.4	1.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75.0	2.6	20.4	2.0	100.0
충청권	(116)	58.6	.0	40.5	.9	100.0
호남권	(115)	53.9	.9	43.5	1.7	100.0
영남권	(312)	79.5	1.6	17.9	1.0	100.0
강원	(36)	91.7	.0	8.3	.0	100.0
제주	(13)	53.8	.0	38.5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1.7	1.8	24.8	1.8	100.0
중 / 소도시	(533)	75.2	2.3	21.0	1.5	100.0
읍 / 면	(102)	66.7	.0	32.4	1.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67.7	1.2	29.9	1.2	100.0
중도	(591)	73.1	2.2	23.4	1.4	100.0
보수적	(281)	78.3	1.8	17.4	2.5	100.0
■ 종교						
불교	(219)	75.3	1.8	21.0	1.8	100.0
기독교	(298)	73.8	1.7	23.2	1.3	100.0
천주교	(87)	70.1	.0	28.7	1.1	100.0
기타	(9)	33.3	.0	66.7	.0	100.0
종교 없음	(571)	72.9	2.3	23.3	1.6	100.0
무름 / 무응답	(16)	56.3	.0	37.5	6.3	100.0

표4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북한을 도울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지킬	모름/	계
		것이다	것이다	따를 것이다	것이다	무응답	
		%	%	%	%	%	%
■ 전체	(1200)	1.3	58.3	37.5	2.8	.1	100.0
■ 성별							
남자	(610)	1.0	60.7	35.1	3.3	.0	100.0
여자	(590)	1.7	55.8	40.0	2.4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	59.2	37.3	2.7	.0	100.0
30대	(282)	1.8	50.4	43.3	4.6	.0	100.0
40대	(307)	1.6	57.0	40.1	1.3	.0	100.0
50대 이상	(356)	1.1	64.9	30.9	2.8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65.1	31.1	2.8	.9	100.0
고졸	(554)	2.0	59.0	35.7	3.2	.0	100.0
대재 이상	(538)	.9	56.1	40.5	2.4	.0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	57.1	42.9	.0	.0	100.0
자영업	(341)	.9	58.7	37.2	3.2	.0	100.0
블루 칼라	(316)	1.3	58.5	37.3	2.8	.0	100.0
화이트칼라	(194)	1.0	56.7	39.2	3.1	.0	100.0
전업주부	(187)	2.7	58.3	36.4	2.1	.5	100.0
무직 / 기타	(134)	1.5	59.0	36.6	3.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0	51.3	40.0	6.0	.7	100.0
200~299만원	(311)	2.3	53.7	40.8	3.2	.0	100.0
300~399만원	(373)	.5	61.7	35.4	2.4	.0	100.0
400만원 이상	(366)	1.1	61.5	35.8	1.6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5	59.4	36.5	2.6	.0	100.0
충청권	(116)	2.6	50.0	45.7	1.7	.0	100.0
호남권	(115)	1.7	43.5	48.7	5.2	.9	100.0
영남권	(312)	.6	63.8	32.7	2.9	.0	100.0
강원	(36)	.0	69.4	30.6	.0	.0	100.0
제주	(13)	.0	46.2	46.2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1	61.6	33.3	2.8	.2	100.0
중 / 소도시	(533)	.8	56.5	39.8	3.0	.0	100.0
읍 / 면	(102)	.0	49.0	49.0	2.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9	55.8	39.9	3.4	.0	100.0
중도	(591)	1.5	54.8	41.1	2.4	.2	100.0
보수적	(281)	1.4	68.3	27.0	3.2	0	100.0
■ 종교							
불교	(219)	1.8	58.9	37.4	1.8	.0	100.0
기독교	(298)	.7	62.8	32.6	4.0	.0	100.0
천주교	(87)	1.1	51.7	44.8	2.3	.0	100.0
기타	(9)	.0	44.4	55.6	.0	.0	100.0
종교 없음	(571)	1.6	57.1	38.7	2.5	.2	100.0
무름 / 무응답	(16)	.0	50.0	37.5	12.5	.0	100.0



표40-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11.6	5	75.3	8	.1	100.0
■ 성별							
남자	(610)	14.1	5.1	73.6	7.2	.0	100.0
여자	(590)	9.0	4.9	77.1	8.8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9.0	6.7	74.5	9.8	.0	100.0
30대	(282)	13.1	5.7	73.0	8.2	.0	100.0
40대	(307)	12.4	4.2	74.9	8.5	.0	100.0
50대 이상	(356)	11.5	3.9	78.1	6.2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7.5	3.8	85.8	1.9	.9	100.0
고졸	(554)	10.1	6.7	73.8	9.4	.0	100.0
대재 이상	(538)	13.9	3.5	74.7	7.8	.0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10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10.7	.0	89.3	.0	.0	100.0
자영업	(341)	12.9	5.9	73.0	8.2	.0	100.0
블루 칼라	(316)	10.8	6.3	73.1	9.8	.0	100.0
화이트칼라	(194)	10.3	2.1	82.0	5.7	.0	100.0
전업주부	(187)	10.2	4.8	76.5	8.0	.5	100.0
무직 / 기타	(134)	14.2	5.2	72.4	8.2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2.0	6.0	74.0	7.3	.7	100.0
200~299만원	(311)	11.6	4.8	75.6	8.0	.0	100.0
300~399만원	(373)	10.7	5.4	75.1	8.8	.0	100.0
400만원 이상	(366)	12.3	4.4	76.0	7.4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3.8	7.4	71.7	7.1	.0	100.0
충청권	(116)	9.5	4.3	76.7	9.5	.0	100.0
호남권	(115)	15.7	.9	73.9	8.7	.9	100.0
영남권	(312)	5.1	2.9	83.0	9.0	.0	100.0
강원	(36)	22.2	.0	69.4	8.3	.0	100.0
제주	(13)	15.4	.0	76.9	7.7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1.3	2.8	76.6	9.0	.2	100.0
중 / 소도시	(533)	11.6	8.1	72.8	7.5	.0	100.0
읍 / 면	(102)	12.7	1.0	81.4	4.9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3.4	3.4	76.5	6.7	.0	100.0
중도	(591)	9.6	5.4	75.8	9.0	.2	100.0
보수적	(281)	13.5	6.0	73	7.5	.0	100.0
■ 종교							
불교	(219)	12.3	7.8	69.9	10.0	.0	100.0
기독교	(298)	12.1	4.4	74.5	9.1	.0	100.0
천주교	(87)	14.9	5.7	73.6	5.7	.0	100.0
기타	(9)	.0	.0	88.9	11.1	.0	100.0
종교 없음	(571)	10.9	4.0	78.1	6.8	.2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12.5	68.8	12.5	.0	100.0

표40-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3.7	11.8	68.1	16.3	.1	100.0
■ 성별							
남자	(610)	4.1	11.6	67.9	16.4	.0	100.0
여자	(590)	3.2	12.0	68.3	16.3	.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5.9	14.1	63.9	16.1	.0	100.0
30대	(282)	3.5	10.6	65.2	20.6	.0	100.0
40대	(307)	2.9	12.4	69.1	15.6	.0	100.0
50대 이상	(356)	2.8	10.7	72.5	13.8	.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4.7	11.3	72.6	10.4	.9	100.0
고졸	(554)	4.2	11.4	67	17.5	.0	100.0
대재 이상	(538)	3.0	12.3	68.4	16.4	.0	100.0
무름 / 무응답	(2)	.0	50.0	50.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10.7	67.9	14.3	.0	100.0
자영업	(341)	2.9	15.2	66.0	15.8	.0	100.0
블루 칼라	(316)	4.1	8.5	69.3	18.0	.0	100.0
화이트칼라	(194)	3.6	8.8	75.3	12.4	.0	100.0
전업주부	(187)	3.2	10.7	69.0	16.6	.5	100.0
무직 / 기타	(134)	4.5	17.2	59.0	19.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7	11.3	66.0	15.3	.7	100.0
200~299만원	(311)	2.9	11.3	72.7	13.2	.0	100.0
300~399만원	(373)	3.5	10.7	68.4	17.4	.0	100.0
400만원 이상	(366)	3.3	13.7	64.8	18.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1	14.1	65.1	16.6	.0	100.0
충청권	(116)	.9	12.1	69.8	17.2	.0	100.0
호남권	(115)	3.5	12.2	71.3	12.2	.9	100.0
영남권	(312)	3.5	6.7	72.4	17.3	.0	100.0
강원	(36)	5.6	13.9	66.7	13.9	.0	100.0
제주	(13)	7.7	15.4	61.5	15.4	.0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9	13.1	67.3	15.6	.2	100.0
중 / 소도시	(533)	3.0	11.4	67.7	17.8	.0	100.0
읍 / 면	(102)	5.9	6.9	74.5	12.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0	15.2	67.4	13.4	.0	100.0
중도	(591)	3.7	9.8	68.7	17.6	.2	100.0
보수적	(281)	3.2	12.1	67.6	17.1	.0	100.0
■ 종교							
불교	(219)	4.6	12.3	69.4	13.7	.0	100.0
기독교	(298)	3.0	13.8	67.8	15.4	.0	100.0
천주교	(87)	3.4	16.1	67.8	12.6	.0	100.0
기타	(9)	.0	11.1	88.9	.0	.0	100.0
종교 없음	(571)	3.7	10.3	67.1	18.7	.2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0	81.3	12.5	.0	100.0



표41-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6.7	33.3	39.9	45.4	14.7	60.1	100.0
■ 성별								
남자	(610)	6.6	33.8	40.3	45.1	14.6	59.7	100.0
여자	(590)	6.8	32.7	39.5	45.8	14.7	60.5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9	30.2	34.1	48.6	17.3	65.9	100.0
30대	(282)	6.0	33.3	39.4	43.6	17.0	60.6	100.0
40대	(307)	7.2	33.6	40.7	45.0	14.3	59.3	100.0
50대 이상	(356)	8.7	35.1	43.8	44.9	11.2	56.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7	38.7	44.3	44.3	11.3	55.7	100.0
고졸	(554)	8.8	33.4	42.2	44.2	13.5	57.8	100.0
대재 이상	(538)	4.6	32.2	36.8	46.7	16.5	63.2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7.1	25.0	32.1	32.1	35.7	67.9	100.0
자영업	(341)	7.9	29.9	37.8	48.1	14.1	62.2	100.0
블루 칼라	(316)	3.8	36.7	40.5	45.9	13.6	59.5	100.0
화이트칼라	(194)	5.2	29.9	35.1	45.9	19.1	64.9	100.0
전업주부	(187)	12.3	36.9	49.2	40.6	10.2	50.8	100.0
무직 / 기타	(134)	4.5	35.1	39.6	46.3	14.2	60.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6.0	43.3	49.3	38.0	12.7	50.7	100.0
200~299만원	(311)	7.1	35.4	42.4	46.6	10.9	57.6	100.0
300~399만원	(373)	8.0	29.2	37.3	48.0	14.7	62.7	100.0
400만원 이상	(366)	5.2	31.4	36.6	44.8	18.6	63.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9.0	32.9	41.9	44.4	13.7	58.1	100.0
충청권	(116)	.9	30.2	31.0	53.4	15.5	69.0	100.0
호남권	(115)	.0	41.7	41.7	36.5	21.7	58.3	100.0
영남권	(312)	7.4	32.1	39.4	44.9	15.7	60.6	100.0
강원	(36)	.0	36.1	36.1	63.9	.0	63.9	100.0
제주	(13)	7.7	23.1	30.8	61.5	7.7	69.2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7.8	32.9	40.7	43.0	16.3	59.3	100.0
중 / 소도시	(533)	6.6	35.1	41.7	47.8	10.5	58.3	100.0
읍 / 면	(102)	1.0	25.5	26.5	46.1	27.5	73.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5	32.3	37.8	45.4	16.8	62.2	100.0
중도	(591)	6.9	33.2	40.1	47.4	12.5	59.9	100.0
보수적	(281)	7.5	34.5	42.0	41.3	16.7	58.0	100.0
■ 종교								
불교	(219)	7.3	33.3	40.6	46.6	12.8	59.4	100.0
기독교	(298)	7.0	34.9	41.9	46.6	11.4	58.1	100.0
천주교	(87)	12.6	29.9	42.5	40.2	17.2	57.5	100.0
기타	(9)	11.1	11.1	22.2	55.6	22.2	77.8	100.0
종교 없음	(571)	5.3	32.9	38.2	45.5	16.3	61.8	100.0
무름 / 무응답	(16)	6.3	43.8	50.0	25.0	25.0	50.0	100.0

표41-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④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전체	(1200)	.7	9.8	10.5	62.3	27.3	89.5	100.0
■ 성별								
남자	(610)	1.0	8.7	9.7	61.5	28.9	90.3	100.0
여자	(590)	.3	11.0	11.4	63.1	25.6	88.6	100.0
■ 연령별								
19~29세	(255)	.8	10.2	11.0	60.8	28.2	89.0	100.0
30대	(282)	.0	11.3	11.3	60.6	28.0	88.7	100.0
40대	(307)	1.3	9.8	11.1	60.6	28.3	88.9	100.0
50대 이상	(356)	.6	8.4	9.0	66.0	25.0	9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9.4	9.4	67.9	22.6	90.6	100.0
고졸	(554)	1.3	10.5	11.7	61.6	26.7	88.3	100.0
대재 이상	(538)	.2	9.3	9.5	61.9	28.6	90.5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50.0	50.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7.1	10.7	39.3	50.0	89.3	100.0
자영업	(341)	1.2	10.3	11.4	62.5	26.1	88.6	100.0
블루 칼라	(316)	.3	7.9	8.2	65.8	25.9	91.8	100.0
화이트칼라	(194)	.5	8.8	9.3	57.2	33.5	90.7	100.0
전업주부	(187)	.5	12.3	12.8	63.6	23.5	87.2	100.0
무직 / 기타	(134)	.0	11.9	11.9	63.4	24.6	88.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0	11.3	13.3	67.3	19.3	86.7	100.0
200~299만원	(311)	.3	11.3	11.6	65.6	22.8	88.4	100.0
300~399만원	(373)	1.1	7.8	8.8	65.4	25.7	91.2	100.0
400만원 이상	(366)	.0	10.1	10.1	54.1	35.8	89.9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2	10.7	11.8	62.3	25.8	88.2	100.0
충청권	(116)	.0	16.4	16.4	54.3	29.3	83.6	100.0
호남권	(115)	.0	12.2	12.2	62.6	25.2	87.8	100.0
영남권	(312)	.3	5.1	5.4	63.8	30.8	94.6	100.0
강원	(36)	.0	8.3	8.3	69.4	22.2	91.7	100.0
제주	(13)	.0	7.7	7.7	69.2	23.1	92.3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2	10.4	11.7	58.8	29.6	88.3	100.0
중 / 소도시	(533)	.2	9.4	9.6	67.4	23.1	90.4	100.0
읍 / 면	(102)	.0	8.8	8.8	54.9	36.3	91.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2	9.5	10.7	59.5	29.9	89.3	100.0
중도	(591)	.3	11.7	12.0	64.0	24.0	88.0	100.0
보수적	(281)	.7	6.4	7.1	61.9	31.0	92.9	100.0
■ 종교								
불교	(219)	.9	10.5	11.4	67.6	21.0	88.6	100.0
기독교	(298)	.3	10.4	10.7	62.1	27.2	89.3	100.0
천주교	(87)	.0	11.5	11.5	58.6	29.9	88.5	100.0
기타	(9)	.0	11.1	11.1	33.3	55.6	88.9	100.0
종교 없음	(571)	.9	9.1	10.0	61.3	28.7	90.0	100.0
무름 / 무응답	(16)	.0	6.3	6.3	62.5	31.3	93.8	100.0



표41-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 전체	(1200)	1.1	10.8	11.9	64.7	23.4	88.1	100.0
■ 성별								
남자	(610)	1.5	9.3	10.8	63.8	25.4	89.2	100.0
여자	(590)	.7	12.4	13.1	65.6	21.4	86.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0	9.4	11.4	62.4	26.3	88.6	100.0
30대	(282)	.4	11.7	12.1	65.6	22.3	87.9	100.0
40대	(307)	1.6	14.0	15.6	61.2	23.1	84.4	100.0
50대 이상	(356)	.6	8.4	9.0	68.5	22.5	9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5.7	5.7	70.8	23.6	94.3	100.0
고졸	(554)	1.3	12.5	13.7	63.9	22.4	86.3	100.0
대재 이상	(538)	1.1	10.2	11.3	64.1	24.5	88.7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0	7.1	7.1	50.0	42.9	92.9	100.0
자영업	(341)	1.5	8.8	10.3	63.0	26.7	89.7	100.0
블루 칼라	(316)	.3	9.8	10.1	68.7	21.2	89.9	100.0
화이트칼라	(194)	1.5	11.3	12.9	63.4	23.7	87.1	100.0
전업주부	(187)	1.1	16.6	17.6	64.7	17.6	82.4	100.0
무직 / 기타	(134)	1.5	10.4	11.9	64.2	23.9	88.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7	14.7	17.3	58.0	24.7	82.7	100.0
200~299만원	(311)	1.0	13.2	14.1	68.2	17.7	85.9	100.0
300~399만원	(373)	.8	9.4	10.2	67.3	22.5	89.8	100.0
400만원 이상	(366)	.8	8.7	9.6	61.7	28.7	9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	11.8	13.5	64.5	22.0	86.5	100.0
충청권	(116)	.0	6.0	6.0	61.2	32.8	94.0	100.0
호남권	(115)	1.7	22.6	24.3	47.8	27.8	75.7	100.0
영남권	(312)	.3	4.8	5.1	71.5	23.4	94.9	100.0
강원	(36)	.0	19.4	19.4	75.0	5.6	80.6	100.0
제주	(13)	.0	23.1	23.1	61.5	15.4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1	10.4	12.6	63.2	24.2	87.4	100.0
중 / 소도시	(533)	.2	11.6	11.8	68.5	19.7	88.2	100.0
읍 / 면	(102)	.0	8.8	8.8	52.9	38.2	91.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4	12.8	15.2	56.1	28.7	84.8	100.0
중도	(591)	.7	10.5	11.2	69.2	19.6	88.8	100.0
보수적	(281)	.4	9.3	9.6	65.1	25.3	90.4	100.0
■ 종교								
불교	(219)	.5	7.3	7.8	72.6	19.6	92.2	100.0
기독교	(298)	1.0	11.7	12.8	68.5	18.8	87.2	100.0
천주교	(87)	3.4	12.6	16.1	60.9	23.0	83.9	100.0
기타	(9)	.0	11.1	11.1	33.3	55.6	88.9	100.0
종교 없음	(571)	1.1	11.0	12.1	61.5	26.4	87.9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37.5	37.5	75.0	100.0

표41-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 전체	(1200)	1.0	13.3	14.3	68.5	17.3	85.8	100.0
■ 성별								
남자	(610)	1.3	12.6	13.9	68.2	17.9	86.1	100.0
여자	(590)	.7	13.9	14.6	68.8	16.6	85.4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6	13.3	14.9	65.1	20.0	85.1	100.0
30대	(282)	.4	14.5	14.9	66.0	19.1	85.1	100.0
40대	(307)	1.6	13.4	15.0	69.7	15.3	85.0	100.0
50대 이상	(356)	.6	12.1	12.6	71.9	15.4	87.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0	12.3	12.3	69.8	17.9	87.7	100.0
고졸	(554)	1.4	14.4	15.9	68.8	15.3	84.1	100.0
대재 이상	(538)	.7	12.3	13.0	67.8	19.1	87.0	100.0
무름 / 무응답	(2)	.0	.0	.0	100.0	.0	10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6	10.7	14.3	50.0	35.7	85.7	100.0
자영업	(341)	1.8	11.7	13.5	69.5	17.0	86.5	100.0
블루 칼라	(316)	.0	12.7	12.7	72.5	14.9	87.3	100.0
화이트칼라	(194)	1.5	10.8	12.4	66.0	21.6	87.6	100.0
전업주부	(187)	.5	18.2	18.7	68.4	12.8	81.3	100.0
무직 / 기타	(134)	.7	15.7	16.4	64.2	19.4	83.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3	17.3	18.7	62.7	18.7	81.3	100.0
200~299만원	(311)	.6	14.1	14.8	70.1	15.1	85.2	100.0
300~399만원	(373)	1.1	12.3	13.4	71.3	15.3	86.6	100.0
400만원 이상	(366)	1.1	11.7	12.8	66.7	20.5	87.2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3	12.0	13.3	68.4	18.3	86.7	100.0
충청권	(116)	.0	12.9	12.9	64.7	22.4	87.1	100.0
호남권	(115)	.0	20.0	20.0	60.9	19.1	80.0	100.0
영남권	(312)	1.0	13.1	14.1	72.4	13.5	85.9	100.0
강원	(36)	.0	13.9	13.9	72.2	13.9	86.1	100.0
제주	(13)	7.7	15.4	23.1	69.2	7.7	76.9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8	14.0	15.8	68.0	16.3	84.2	100.0
중 / 소도시	(533)	.4	12.8	13.1	70.7	16.1	86.9	100.0
읍 / 면	(102)	.0	11.8	11.8	59.8	28.4	88.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5	16.8	18.3	62.8	18.9	81.7	100.0
중도	(591)	.3	13.0	13.4	70.6	16.1	86.6	100.0
보수적	(281)	1.8	9.6	11.4	70.8	17.8	88.6	100.0
■ 종교								
불교	(219)	1.4	13.7	15.1	72.1	12.8	84.9	100.0
기독교	(298)	.3	14.4	14.8	70.5	14.8	85.2	100.0
천주교	(87)	1.1	10.3	11.5	67.8	20.7	88.5	100.0
기타	(9)	.0	11.1	11.1	44.4	44.4	88.9	100.0
종교 없음	(571)	1.2	12.6	13.8	67.3	18.9	86.2	100.0
무름 / 무응답	(16)	.0	25.0	25.0	43.8	31.3	75.0	100.0



표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전체	(1200)	45.5	44.8	90.3	6.8	3.0	9.8	100.0
■ 성별								
남자	(610)	47.9	42.8	90.7	6.7	2.6	9.3	100.0
여자	(590)	43.1	46.8	89.8	6.8	3.4	10.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45.1	45.9	91.0	6.3	2.7	9.0	100.0
30대	(282)	39.4	49.6	89.0	6.7	4.3	11.0	100.0
40대	(307)	47.2	40.7	87.9	9.1	2.9	12.1	100.0
50대 이상	(356)	49.2	43.5	92.7	5.1	2.2	7.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50.0	45.3	95.3	4.7	.0	4.7	100.0
고졸	(554)	46.6	42.1	88.6	7.6	3.8	11.4	100.0
대재 이상	(538)	43.3	47.6	90.9	6.3	2.8	9.1	100.0
무름 / 무응답	(2)	100.0	.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57.1	32.1	89.3	10.7	.0	10.7	100.0
자영업	(341)	43.7	44.3	88.0	7.9	4.1	12.0	100.0
블루 칼라	(316)	46.8	44.3	91.1	7.0	1.9	8.9	100.0
화이트칼라	(194)	45.9	47.9	93.8	4.1	2.1	6.2	100.0
전업주부	(187)	44.4	44.9	89.3	7.5	3.2	10.7	100.0
무직 / 기타	(134)	45.5	44.8	90.3	5.2	4.5	9.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44.7	45.3	90.0	7.3	2.7	10.0	100.0
200~299만원	(311)	44.1	46.9	91.0	7.1	1.9	9.0	100.0
300~399만원	(373)	45.0	45.3	90.3	7.0	2.7	9.7	100.0
400만원 이상	(366)	47.5	42.1	89.6	6.0	4.4	10.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46.5	43.6	90.1	7.2	2.6	9.9	100.0
충청권	(116)	19.8	50.9	70.7	16.4	12.9	29.3	100.0
호남권	(115)	33.0	59.1	92.2	6.1	1.7	7.8	100.0
영남권	(312)	59.0	37.8	96.8	2.9	.3	3.2	100.0
강원	(36)	33.3	61.1	94.4	2.8	2.8	5.6	100.0
제주	(13)	46.2	38.5	84.6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49.0	41.6	90.6	6.5	2.8	9.4	100.0
중 / 소도시	(533)	42.6	48.0	90.6	6.4	3.0	9.4	100.0
읍 / 면	(102)	41.2	45.1	86.3	9.8	3.9	13.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43.6	47.6	91.2	6.4	2.4	8.8	100.0
중도	(591)	42.3	46.2	88.5	8.1	3.4	11.5	100.0
보수적	(281)	54.4	38.4	92.9	4.3	2.8	7.1	100.0
■ 종교								
불교	(219)	49.3	41.6	90.9	6.4	2.7	9.1	100.0
기독교	(298)	47.7	43.3	90.9	7.4	1.7	9.1	100.0
천주교	(87)	52.9	39.1	92.0	2.3	5.7	8.0	100.0
기타	(9)	44.4	44.4	88.9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42.2	47.1	89.3	7.2	3.5	10.7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62.5	93.8	6.3	.0	6.3	100.0

표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㉒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하다 %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전체	(1200)	31.4	48.7	80.1	15.3	4.6	19.9	100.0
■ 성별								
남자	(610)	36.2	45.1	81.3	14.8	3.9	18.7	100.0
여자	(590)	26.4	52.4	78.8	15.9	5.3	21.2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3.7	48.2	82.0	13.7	4.3	18.0	100.0
30대	(282)	29.1	48.2	77.3	17.4	5.3	22.7	100.0
40대	(307)	33.9	45.0	78.8	16.3	4.9	21.2	100.0
50대 이상	(356)	29.5	52.5	82.0	14.0	3.9	18.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5.5	60.4	85.8	11.3	2.8	14.2	100.0
고졸	(554)	31.2	44.8	76	18.4	5.6	24.0	100.0
대재 이상	(538)	32.7	50.4	83.1	13.0	3.9	16.9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5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39.3	50.0	89.3	3.6	7.1	10.7	100.0
자영업	(341)	29.3	49.9	79.2	15.8	5.0	20.8	100.0
블루 칼라	(316)	32.0	47.2	79.1	17.4	3.5	20.9	100.0
화이트칼라	(194)	39.2	45.4	84.5	12.4	3.1	15.5	100.0
전업주부	(187)	25.1	51.9	77.0	17.6	5.3	23.0	100.0
무직 / 기타	(134)	31.3	49.3	80.6	12.7	6.7	19.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8.0	55.3	83.3	12.7	4.0	16.7	100.0
200~299만원	(311)	29.3	48.9	78.1	17.4	4.5	21.9	100.0
300~399만원	(373)	30.6	49.6	80.2	16.1	3.8	19.8	100.0
400만원 이상	(366)	35.5	44.8	80.3	13.9	5.7	19.7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9.6	46.7	76.3	19.6	4.1	23.7	100.0
충청권	(116)	13.8	50.9	64.7	18.1	17.2	35.3	100.0
호남권	(115)	26.1	58.3	84.3	13.0	2.6	15.7	100.0
영남권	(312)	45.5	46.2	91.7	6.7	1.6	8.3	100.0
강원	(36)	13.9	66.7	80.6	16.7	2.8	19.4	100.0
제주	(13)	30.8	46.2	76.9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7.2	45.3	82.5	13.5	4.1	17.5	100.0
중 / 소도시	(533)	25.7	51.6	77.3	17.6	5.1	22.7	100.0
읍 / 면	(102)	29.4	52.0	81.4	13.7	4.9	18.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32.9	51.2	84.1	12.2	3.7	15.9	100.0
중도	(591)	29.1	47.7	76.8	17.6	5.6	23.2	100.0
보수적	(281)	34.5	47.7	82.2	14.2	3.6	17.8	100.0
■ 종교								
불교	(219)	32.0	47.5	79.5	15.5	5.0	20.5	100.0
기독교	(298)	30.2	50.0	80.2	17.1	2.7	19.8	100.0
천주교	(87)	44.8	39.1	83.9	10.3	5.7	16.1	100.0
기타	(9)	33.3	55.6	88.9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30.1	49.6	79.7	14.9	5.4	20.3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56.3	75.0	25.0	.0	25.0	100.0



표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체	(1200)	16.8	51.2	68.0	25.1	6.9	32.0	100.0
■ 성별								
남자	(610)	18.9	50.0	68.9	24.8	6.4	31.1	100.0
여자	(590)	14.7	52.4	67.1	25.4	7.5	32.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8.0	49.4	67.5	25.5	7.1	32.5	100.0
30대	(282)	17.4	46.8	64.2	27.7	8.2	35.8	100.0
40대	(307)	16.0	54.1	70.0	23.1	6.8	30.0	100.0
50대 이상	(356)	16.3	53.4	69.7	24.4	5.9	3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3.2	63.2	76.4	19.8	3.8	23.6	100.0
고졸	(554)	16.6	49.5	66.1	26.5	7.4	33.9	100.0
대재 이상	(538)	17.8	50.4	68.2	24.7	7.1	31.8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60.7	82.1	10.7	7.1	17.9	100.0
자영업	(341)	17.0	51.0	68.0	23.5	8.5	32.0	100.0
블루 칼라	(316)	15.8	51.9	67.7	28.8	3.5	32.3	100.0
화이트칼라	(194)	19.6	52.6	72.2	20.6	7.2	27.8	100.0
전업주부	(187)	15.5	49.2	64.7	27.8	7.5	35.3	100.0
무직 / 기타	(134)	15.7	48.5	64.2	26.1	9.7	3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6.7	60.0	76.7	16.7	6.7	23.3	100.0
200~299만원	(311)	15.1	53.7	68.8	25.7	5.5	31.2	100.0
300~399만원	(373)	16.4	51.7	68.1	26.0	5.9	31.9	100.0
400만원 이상	(366)	18.9	44.8	63.7	27.0	9.3	3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4	46.2	62.7	30.6	6.7	37.3	100.0
충청권	(116)	6.9	41.4	48.3	30.2	21.6	51.7	100.0
호남권	(115)	14.8	53.9	68.7	23.5	7.8	31.3	100.0
영남권	(312)	22.8	62.2	84.9	13.1	1.9	15.1	100.0
강원	(36)	5.6	61.1	66.7	30.6	2.8	33.3	100.0
제주	(13)	30.8	53.8	84.6	7.7	7.7	15.4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18.9	49.2	68.1	26.5	5.3	31.9	100.0
중 / 소도시	(533)	14.1	53.3	67.4	24.4	8.3	32.6	100.0
읍 / 면	(102)	19.6	51.0	70.6	20.6	8.8	29.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7.1	50.3	67.4	25.0	7.6	32.6	100.0
중도	(591)	16.2	50.9	67.2	25.2	7.6	32.8	100.0
보수적	(281)	17.8	52.7	70.5	24.9	4.6	29.5	100.0
■ 종교								
불교	(219)	15.5	52.1	67.6	24.7	7.8	32.4	100.0
기독교	(298)	19.1	50.3	69.5	25.8	4.7	30.5	100.0
천주교	(87)	28.7	47.1	75.9	14.9	9.2	24.1	100.0
기타	(9)	33.3	22.2	55.6	33.3	11.1	44.4	100.0
종교 없음	(571)	14.2	52.0	66.2	26.4	7.4	33.8	100.0
무름 / 무응답	(16)	12.5	62.5	75.0	18.8	6.3	25.0	100.0

표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전체	(1200)	17.3	50.8	68.1	25.8	6.1	31.9	100.0
■ 성별								
남자	(610)	20.3	49.5	69.8	24.3	5.9	30.2	100.0
여자	(590)	14.1	52.2	66.3	27.5	6.3	33.7	100.0
■ 연령별								
19~29세	(255)	18.4	49.4	67.8	27.1	5.1	32.2	100.0
30대	(282)	16.7	48.9	65.6	27.3	7.1	34.4	100.0
40대	(307)	16.6	50.8	67.4	26.4	6.2	32.6	100.0
50대 이상	(356)	17.4	53.4	70.8	23.3	5.9	29.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3.2	62.3	75.5	19.8	4.7	24.5	100.0
고졸	(554)	16.6	48.0	64.6	28.9	6.5	35.4	100.0
대재 이상	(538)	18.8	51.3	70.1	24.0	5.9	29.9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100.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1.4	57.1	78.6	17.9	3.6	21.4	100.0
자영업	(341)	18.2	49.9	68.0	24.9	7.0	32.0	100.0
블루 칼라	(316)	14.6	53.2	67.7	28.5	3.8	32.3	100.0
화이트칼라	(194)	21.1	52.1	73.2	22.2	4.6	26.8	100.0
전업주부	(187)	13.9	48.1	62.0	29.9	8.0	38.0	100.0
무직 / 기타	(134)	19.4	48.5	67.9	23.1	9.0	3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6.7	59.3	76.0	18.7	5.3	24.0	100.0
200~299만원	(311)	16.4	52.1	68.5	26.7	4.8	31.5	100.0
300~399만원	(373)	16.6	50.4	67.0	28.2	4.8	33.0	100.0
400만원 이상	(366)	18.9	46.7	65.6	25.7	8.7	34.4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16.6	47.9	64.5	28.9	6.6	35.5	100.0
충청권	(116)	8.6	37.9	46.6	33.6	19.8	53.4	100.0
호남권	(115)	16.5	51.3	67.8	27.0	5.2	32.2	100.0
영남권	(312)	22.1	61.2	83.3	16.0	.6	16.7	100.0
강원	(36)	8.3	55.6	63.9	33.3	2.8	36.1	100.0
제주	(13)	38.5	38.5	76.9	15.4	7.7	23.1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0.0	49.6	69.6	25.3	5.1	30.4	100.0
중 / 소도시	(533)	13.7	52.3	66.0	27.0	6.9	34.0	100.0
읍 / 면	(102)	20.6	50.0	70.6	22.5	6.9	29.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18.6	54.6	73.2	21.6	5.2	26.8	100.0
중도	(591)	16.1	48.2	64.3	29.1	6.6	35.7	100.0
보수적	(281)	18.1	52.0	70.1	23.8	6.0	29.9	100.0
■ 종교								
불교	(219)	15.5	49.8	65.3	27.9	6.8	34.7	100.0
기독교	(298)	18.8	49.0	67.8	27.9	4.4	32.2	100.0
천주교	(87)	32.2	49.4	81.6	9.2	9.2	18.4	100.0
기타	(9)	44.4	44.4	88.9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14.4	52.4	66.7	27.0	6.3	33.3	100.0
무름 / 무응답	(16)	18.8	56.3	75.0	18.8	6.3	25.0	100.0



표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계
		%	%	%	%
■ 전체	(1200)	35.9	19.4	44.7	100.0
■ 성별					
남자	(610)	35.9	20.8	43.3	100.0
여자	(590)	35.9	18.0	46.1	100.0
■ 연령별					
19~29세	(255)	37.3	20.4	42.4	100.0
30대	(282)	40.4	16.3	43.3	100.0
40대	(307)	39.1	18.6	42.3	100.0
50대 이상	(356)	28.7	21.9	49.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19.8	29.2	50.9	100.0
고졸	(554)	30.9	20.6	48.6	100.0
대재 이상	(538)	44.4	16.0	39.6	100.0
무름 / 무응답	(2)	.0	100.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8.6	32.1	39.3	100.0
자영업	(341)	39.0	15.2	45.7	100.0
블루 칼라	(316)	31.0	23.1	45.9	100.0
화이트칼라	(194)	41.8	18.0	40.2	100.0
전업주부	(187)	31.0	20.9	48.1	100.0
무직 / 기타	(134)	39.6	18.7	41.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38.7	19.3	42.0	100.0
200~299만원	(311)	31.2	24.1	44.7	100.0
300~399만원	(373)	34.6	19.8	45.6	100.0
400만원 이상	(366)	40.2	15.0	44.8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33.2	18.1	48.7	100.0
충청권	(116)	39.7	12.9	47.4	100.0
호남권	(115)	56.5	12.2	31.3	100.0
영남권	(312)	29.5	28.5	42.0	100.0
강원	(36)	52.8	11.1	36.1	100.0
제주	(13)	53.8	7.7	38.5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33.6	19.6	46.7	100.0
중 / 소도시	(533)	37.5	20.3	42.2	100.0
읍 / 면	(102)	40.2	13.7	46.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51.2	13.4	35.4	100.0
중도	(591)	31.5	20.1	48.4	100.0
보수적	(281)	27.4	24.9	47.7	100.0
■ 종교					
불교	(219)	34.2	25.6	40.2	100.0
기독교	(298)	35.6	19.1	45.3	100.0
천주교	(87)	37.9	10.3	51.7	100.0
기타	(9)	55.6	.0	44.4	100.0
종교 없음	(571)	36.4	18.7	44.8	100.0
무름 / 무응답	(16)	25.0	25.0	50.0	100.0

표44.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문)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	별로 상관없다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	%	%	%	%	%	%	%
■ 전체	(1200)	24.6	47.9	72.5	23.1	3.8	.6	4.4	100.0
■ 성별									
남자	(610)	24.9	46.6	71.5	22.6	4.8	1.1	5.9	100.0
여자	(590)	24.2	49.3	73.6	23.6	2.9	.0	2.9	100.0
■ 연령별									
19~29세	(255)	20.0	48.6	68.6	26.3	4.3	.8	5.1	100.0
30대	(282)	20.9	47.5	68.4	27.3	3.5	.7	4.3	100.0
40대	(307)	26.1	48.2	74.3	20.5	4.6	.7	5.2	100.0
50대 이상	(356)	29.5	47.5	77.0	19.7	3.1	.3	3.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06)	21.7	55.7	77.4	21.7	.9	.0	.9	100.0
고졸	(554)	24.7	47.1	71.8	24.5	3.2	.4	3.6	100.0
대재 이상	(538)	24.9	47.2	72.1	21.9	5.0	.9	5.9	100.0
무름 / 무응답	(2)	50.0	50.0	100.0	.0	.0	.0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28)	25.0	35.7	60.7	35.7	3.6	.0	3.6	100.0
자영업	(341)	25.8	45.7	71.6	23.8	4.1	.6	4.7	100.0
블루 칼라	(316)	23.7	46.2	69.9	26.9	2.5	.6	3.2	100.0
화이트칼라	(194)	29.4	45.4	74.7	17.5	6.2	1.5	7.7	100.0
전업주부	(187)	24.1	54.5	78.6	18.7	2.7	.0	2.7	100.0
무직 / 기타	(134)	17.2	54.5	71.6	23.9	4.5	.0	4.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26.0	52.7	78.7	18.7	2.0	.7	2.7	100.0
200~299만원	(311)	23.2	46.0	69.1	26.0	4.2	.6	4.8	100.0
300~399만원	(373)	23.1	51.7	74.8	22.3	2.4	.5	2.9	100.0
400만원 이상	(366)	26.8	43.7	70.5	23.2	5.7	.5	6.3	100.0
■ 지역별									
수도권	(608)	28.0	44.4	72.4	23.4	3.6	.7	4.3	100.0
충청권	(116)	18.1	33.6	51.7	37.9	9.5	.9	10.3	100.0
호남권	(115)	21.7	46.1	67.8	27.8	4.3	.0	4.3	100.0
영남권	(312)	21.5	59.0	80.4	17.6	1.9	.0	1.9	100.0
강원	(36)	25.0	66.7	91.7	.0	5.6	2.8	8.3	100.0
제주	(13)	23.1	38.5	61.5	30.8	.0	7.7	7.7	100.0
■ 지역크기									
대도시	(565)	26.5	47.1	73.6	22.3	3.7	.4	4.1	100.0
중 / 소도시	(533)	23.5	48.8	72.2	23.1	3.9	.8	4.7	100.0
읍 / 면	(102)	19.6	48.0	67.6	27.5	3.9	1.0	4.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28)	25.0	46.6	71.6	22.9	4.6	.9	5.5	100.0
중도	(591)	22.0	46.9	68.9	26.4	4.4	.3	4.7	100.0
보수적	(281)	29.5	51.6	81.1	16.4	1.8	.7	2.5	100.0
■ 종교									
불교	(219)	26.5	47.5	74.0	20.5	4.1	1.4	5.5	100.0
기독교	(298)	21.8	48.7	70.5	24.8	4.0	.7	4.7	100.0
천주교	(87)	37.9	42.5	80.5	16.1	3.4	.0	3.4	100.0
기타	(9)	44.4	33.3	77.8	11.1	11.1	.0	11.1	100.0
종교 없음	(571)	22.8	48.7	71.5	24.5	3.7	.4	4.0	100.0
무름 / 무응답	(16)	31.3	50.0	81.3	18.8	.0	.0	.0	100.0





208 SAJ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Gallup 2012-160-078

## 2012 통일외식조사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통일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장: 박 명 구  
 전화: 02-880-4052

2012년 7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정 진 화  
 실시연구원 김 정 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 화 02-3702-2677

<p>■ 지 역 : 1. 서 울 2. 부 산 3. 대 구 4. 인 천 5. 광 주 6. 대 전 7. 울 산                  6-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경 기 9. 강 원 10. 충 북 11. 충 남 12. 전 북 13. 전 남 14. 경 북                  15. 경 남 16. 제 주</p> <p>■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p> <p>■ 성 별 : 9 1. 남자 2. 여자</p>
---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를 응답해 주십시오.

10-11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66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2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3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6 ㉡ 학습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7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8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 하다	다소 시급 하다	별로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19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2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21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22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23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2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26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용 것 : \_\_\_\_\_ )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7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8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9 ㉠ 빈부격차	1	2	3	4	5
30 ㉡ 부동신투기	1	2	3	4	5
31 ㉢ 실업문제	1	2	3	4	5
32 ㉣ 범죄문제	1	2	3	4	5
33 ㉤ 지역갈등	1	2	3	4	5
34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5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6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시시오.

- 37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13)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8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의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0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2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3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44	㉠ 선군정치	1	2	3	4
45	㉡ 주체사상	1	2	3	4
46	㉢ 천리마운동	1	2	3	4
47	㉣ 고난의 행군	1	2	3	4
48	㉤ 집안당	1	2	3	4
49	㉥ 이리랑 축전	1	2	3	4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50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1	2
51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5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1	2
53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 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4	㉠ 선거방식	1	2	3	4
55	㉡ 생활수준	1	2	3	4
56	㉢ 역사인식	1	2	3	4
57	㉣ 언어사용	1	2	3	4
58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59	㉥ 가치관	1	2	3	4

문 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0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3)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1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4)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2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 ▶ 문 25)로 가십시오

문 24-1) (보기카드 5 제시) [문24에서 4,5로 응답한 응답자만]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63-64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25)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5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6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7)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7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8) ○○님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8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 29)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9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70	⑦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1	⑧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72	⑨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3	⑩ 대북부채 상환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4	⑪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75	⑫天安丸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각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76	⑬ 북한의 책임	1	2	3	4	5
77	⑭ 한국의 책임	1	2	3	4	5
78	⑮ 미국의 책임	1	2	3	4	5
79	⑯ 중국의 책임	1	2	3	4	5
80	⑰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81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3)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86 ㉠ 동네 이웃	1	2	3	4	5
7 ㉡ 직장 동료	1	2	3	4	5
8 ㉢ 사업 동업자	1	2	3	4	5
9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4)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0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칸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1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12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13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14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복귀에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6)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5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보기카드 7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6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8)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7-18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39)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19	㉠ 미국	1	2	3	4
20	㉡ 중국	1	2	3	4
21	㉢ 일본	1	2	3	4
22	㉣ 러시아	1	2	3	4

문 40)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지국의 이익에 따라 다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23	㉠ 미국	1	2	3	4
24	㉡ 중국	1	2	3	4
25	㉢ 일본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7	㉠ 미국	1	2	3	4
28	㉡ 중국	1	2	3	4
29	㉢ 일본	1	2	3	4
30	㉣ 러시아	1	2	3	4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31	㉠ 미국	1	2	3	4
32	㉡ 중국	1	2	3	4
33	㉢ 일본	1	2	3	4
34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5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문 44)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6
1. 매우 우려스럽다
  2. 우려스러운 편이다
  3. 별로 상관없다
  4. 바람직한 편이다
  5. 매우 바람직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37	㉠ 4·19	1	2	3	4	5
38	㉡ 5·16	1	2	3	4	5
39	㉢ 10월 유신	1	2	3	4	5
40	㉣ 광주민중화운동	1	2	3	4	5
41	㉤ 6월 항쟁(1987년)	1	2	3	4	5
42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6)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3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 
5. 잘 모름

문 47)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44 ㉠ 환경파괴	1	2	3	4
45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46 ㉢ 빈부격차	1	2	3	4
47 ㉣ 실업문제	1	2	3	4
48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49 ㉠ 종교갈등	1	2	3	4
50 ㉡ 이념갈등	1	2	3	4
51 ㉢ 부정부패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8)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2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9)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3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50) (보기카드 10 제시)  
 그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문 51)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6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52) ○○님은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반반',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7
1. 전적으로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반반
  4.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 53)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8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4)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9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5)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60
- |          |           |
|----------|-----------|
| 1. 새누리당  | 4. 선진통일당  |
| 2. 민주통합당 | 5. 기타 ( ) |
| 3. 통합진보당 | 6. 지지정당없음 |

문 56) ○○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1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7) ○○님은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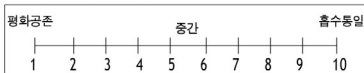
1순위    62-63    2순위    64-65    3순위    66-67

1.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2.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안보
3. 복지확대와 지역균형
4. 사교육문제해결과 학교개혁
5.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
6. 환경보존과 에너지정책 전환
7. 기타 (적용 것 : \_\_\_\_\_ )

문 58)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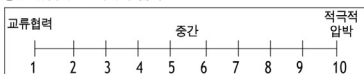
68-69

㉔ 평화공존 vs 흡수통일



70-71

㉕ 교류협력 vs 적극적 압박



문 59) ○○님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2

1. 남북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
2.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3.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4. 북한 핵종단을 위한 국제협력
5. 평화협정 체결

문 6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㉕를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73 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74 ㉕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75-76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교생/대학교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용 것 : \_\_\_\_\_ )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77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되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78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고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79-80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79-80 1. 월 49만원 이하 7. 월 300 - 349만원  
 2. 월 50 - 99만원 8. 월 350 - 3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9. 월 400 - 499만원  
 4. 월 150 - 1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6. 월 250 - 2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맥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86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가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7 1. 상의 상 4. 중의 하  
 2. 상의 하 5. 하의 상  
 3. 중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8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9-10 1. 서울 10. 충청북도  
 2. 부산 11. 충청남도  
 3. 대구 12. 전라북도  
 4. 인천 13. 전라남도  
 5. 광주 14. 경상북도  
 6. 대전 15. 경상남도  
 7. 울산 16. 제주도  
 8. 경기도 17. 북한  
 9. 강원도 18. 외국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 11-13 ) - ( 14-17 ) - ( 18-21 ) 2. 휴대폰 ( 지역번호 22-24 ) - ( 국 25-28 번호 29-32 )
조사일시	97 월 98-99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조정도	1. 상 2. 중 3. 하 33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34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35-39

Supervisor	검 증 원
49-41	